《모든 일군들이 력사와 지리, 문학과 예술, 세계 여러 나라의 형편들에 대한 일반상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일

《예로부터 사람들은 아는것이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는것이 많아야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보고 정확히 처리할수 있습니다.》

김 정 일

차 례

제 1 편 정치 및 력사

제 2 편　군 사

제 3 편　경　제

제 4 편 지구와 환경

제 5 편 과학과 문화

제 6 편 인 구

제 7 편 인류를 위협하는 사회현상

제1편 정치 및 력사

정당의 발생과 발전

력사상 처음으로 나온 정당은 영국의 위그당과 토리당이다. 1679년 영국국회에서 당시 국왕 챨스2세의 동생을 왕위에 올려놓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문제가 론의되였을 때 카톨릭교도인 챨스2세의 동생에게 왕위계승권을 주지 말자는 파를 《위그》(국교반대파)라고 하였고 왕위계승권을 주자는 파를 《토리》(카톨릭교주장파)라고 하였다.

토리당은 1830년경에 보수당으로 명칭을 고치고 지주, 귀족, 앙글리칸교(영국국교)도들의 리익을 대변하여나섰으며 1867년에 전국적인 보수당조직을 내왔다. 그리고 지방지부를 내오고 해마다 한번씩 대회를 열었다. 이것이 최초의 근대적정당의 발생으로 되였다.

위그당은 1868년에 자유당으로 개칭하고 산업부르죠아지와 비앙글리칸교도들의 지지를 받는 귀족들의 리익을 대변하였으며 평화, 긴축, 개혁을 정책상 기초로 내걸고 자유주의를 표방하였다.

자유당의 당세는 영국자본주의의 국제적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19세기 80년대까지 매우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보수당과 자유당이 엇바꾸어가며 집권하는 량당정치체계가 세워지게 되였다.

부르죠아혁명이 후에 진행되고 의회정치가 뒤늦게 시작된 나라들에서는 정당들도 비교적 늦게 형성되였다. 일본에서는 1874년에 조직된 애국공당이 최초의 정당으로 발생하였다. 프랑스, 도이췰란드에서는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야 정당들이 출현하였으며

미국에서는 1787년의 헌법제정회의때에 대립된 련방파와 분권파가 정당발생의 시초로 되였다. 련방파는 1804년에 공화당으로 개칭하고 련방정부의 강화, 재산권옹호, 산업자본의 발전을 주장하였으며 분권파는 1829년에 민주당으로 개칭하고 주들의 권리와 농업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하였다. 이 두개의 당은 오늘까지도 미국에서 량당제도의 기둥을 이루고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자본가계급외에 다른 여러 계급들이 있는것만큼 그들도 자기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정당들을 조직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당, 소자산계급의 당들이 부르죠아당들과 함께 존재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현대산업의 발전과 함께 로동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진출하면서 발생하였다.

력사상 최초의 로동계급의 당은 1847년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창건된 공산주의자동맹이다. 공산주의자동맹은 부르죠아지의 타도와 로동계급의 지배, 낡은 부르죠아사회를 없애는것, 무계급사회의 건설 등을 자기의 투쟁목표로 제기하면서 《공산당선언》을 강령으로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전투적구호를 내걸었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투쟁의 력사, 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그후 레닌에 의하여 제국주의시기의 맑스주의인 레닌주의가 창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치적무기로서 1903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일반적으로 공산당, 로동당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당들은 매개 나라 혁명운동의 특성과 혁명발전의 조건, 그 나라 로동계급의 투쟁임무와 전략전술 등에 따라 여러가지 명칭을 가지게 된다.

내각의 발생

내각이라는 말을 영어로 《캐비네트》라고 하는데 《안방》 혹은 《비밀회의실》이라는 뜻이다.

내각제는 《추밀원》의 형식으로 영국에서 생겨났다. 1066년에 노르망디공작 윌리암이 영국을 정복한 후 중앙집권제를 실시하였는데 국왕의 심복고문들로서 국왕의 통치를 협조할 목적으로 《어전회의》를 조직하였다. 헨리6세시기(1422－1461년)에는 《어전회의》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자주 모여 회의를 하기가 곤난하였다.

그리하여 이 인물들속에서 일부 인원들로 《추밀원》을 내오기로 하였다.

1688～1701년기간 윌리암 오렌지3세는 외교위원회를 내각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오늘의 내각과는 달랐다. 1714년에 영국의 《왕위계승법》(1701년에 제정)에 따라 도이췰란드의 한노버가문의 계승자 죠지1세가 영국왕으로 되였다. 죠지1세는 영어를 모르고 국내형편을 잘 모르기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내각회의를 자기가 집행하지 않고 한 대신을 지정하여 하게 하였다.

이렇게 내각수석대신(그후 수상이라고 불렀다.)이 지도하는 내각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였다.

1721년 로버트 월프가 조정하는 내각은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제1대 정규책임내각으로 되였다.

1832년에 비교적 완비된 부르죠아내각제도가 나왔다.

1937년에 영국에서 《국왕의 대신법》이 나온 후에야 내각과 수상의 명칭이 정식 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였다.

의회(국회)의 발생

립법기관으로서의 의회가 력사무대에 처음으로 출현한것은 B. C. 2800년경이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최초의 이 립법회의는 이라크의 에레슈에 있었는데 량원제로서 《우크낀》이라고 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있는 의회는 이슬란드의 팅빌리에서 930년에 창설된 《알싱》의회이다. 39명의 지방장관으로 구성된 이 의회는 1800년에 없어졌다가 1843년에 단마르크에서 자문의회로 다시 나왔으며 1874년에 립법의회로 되여 지금까지 자기 기능을 수행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회가 비교적 오늘과 같은 틀거리를 갖추고 정치무대에 출현한것은 13세기 중엽 영국에서였다고 볼수 있다.

12～13세기에 영국에서는 강한 봉건군주제가 수립되였는데 왕권에 의한 나라의 중앙집권화는 첨예한 계급투쟁과 봉건지배계급자체내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2세기말～13세기초에 영국을 통치한 존왕은 비위에 거슬리는 봉건귀족들의 토지를 마구 몰수하였으며 프랑스에 있는 영국령지들을 유지하기 위한 프랑스와의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민들은 물론 봉건귀족들에게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시켰다.

이렇게 되자 대봉건귀족들은 1215년에 국왕을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존왕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담은 문건인 《대헌장》을 승인하게 하였다.

존왕의 뒤를 이은 헨리3세는 국왕의 일부 권한을 제한한 《대헌장》의 많은 조항들을 삭제하고 그것을 무시하였다. 그러자 대봉건귀족들은 몬트퍼트백작의 지휘밑에 반란을 일으키고 헨리3세와 왕세자를 체포하였다. 정권을 잡은 몬트퍼트는 자기의 세력지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1265년에 세속 및 승려귀족들과 함께 백

작령들에서 2명씩의 기사대표(소귀족)와 큰 도시들에서 2명씩의 시민대표(상층도시민으로서 부르죠아지의 전신)들을 뽑아 의회를 구성하였다. 이것이 중세최초의 의회였다.

영국의회는 14세기에 이르러 리해관계의 불일치로 세속 및 승려귀족들로 이루어진 상원과 기사 및 시민들로 구성된 하원으로 나뉘여진 량원제로 되였다. 그러나 이 의회는 절대다수의 농민, 빈민 등 피압박대중의 대표가 한사람도 참가하지 못한 순수 착취계급의 지배기관이였다.

량원제와 일원제

자본주의국가들의 의회제도에는 량원제와 일원제가 있다.

량원제는 립법기관(의회 또는 국회)을 2개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부르죠아독재를 실시하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주권조직형태이다.

량원의 명칭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례를 들어 일본에서는 참의원, 중의원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으로, 프랑스에서는 국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로씨야에서는 련방평의회와 국가회의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하원은 이른바 《민주주의》적이면서도 각종 제한으로 엮어진 《보통선거》의 방법으로 선거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상원은 영국에서와 같이 세습의원이나 카나다에서처럼 종신의원으로 구성되거나 나이와 재산의 유무정도 등 극히 비민주주의적인 《선거》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의 대다수는 대독점자본가나 귀족 등 특권계층의 두목들로서 국가의 최고집권자인 왕이나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기도 한다. 상원은 하원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있다. 비록 하원에서 채택된 법률이라 하여도 그것이 자본가계급을 비롯한 특권계층의 리익에 조금이라도 거슬릴 때에는 상원이 그것을 부결할수 있다.

또한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통령이 하원은 해산시킬수 있어도 상원은 해산시키지 못한다.

일원제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국회를 하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원제는 량원제와는 달리 하나의 의원으로 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량원제와 일원제는 《부르죠아민주주의》간판밑에 착취계급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기만하고 억누르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다.

다당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권에 두개이상 여러개의 정당들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참가하는 정치제도이다. 부르죠아통치배들이 저들의 반인민적인 정권을 《민주주의》보자기로 감싸기 위해 고안해낸 정당제도, 정치제도를 말한다.

다당제는 사회가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되고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를 반영하여나왔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내부를 분렬와해시킴으로써 저들의 지배주의적목적을 손쉽게 이루기 위해 부르죠아다당제를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합리적》인 정치제도라고 떠벌이면서 매개 나라들의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정치제도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다당제를 받아들일것을 강요하거나 선전공세를 벌리고있다. 지어 경제《원조》의 철회와 《제재》조치로 위협공갈하면서 다당제를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반정부세력을 규합하여 정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여나서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등 온갖 모략책동을 일삼고있다.

이에 굴복하여 일당제를 포기하고 다당제를 받아들인 나라들

에서는 정권을 둘러싼 사회각계층의 모순과 대립, 각종 분쟁으로 하여 극도의 사회적혼란과 파국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의 실태가 이를 잘 실증해주고있다.

국회해산권

국회해산권은 부르죠아의원내각제의 정치체제하에서 정부(내각)가 국회에 대하여 행사하는 최종적권한이다.

의원내각제하에서 정부는 자기 활동에 대하여 국회앞에 책임지게 되여있으나 국회의 립법활동이 잘못되였다거나 정부에 대한 국회의 태도가 잘못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회해산권을 발동하게 된다.

대체로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내각불신임권을 발동하는 경우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응하여 국회해산권을 발동하게 된다.

이것이 의원내각제에서의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한 권력조직방식이다.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내각불신임권이 제기되고 그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회해산권을 발동하여 최종적인 두 권한이 대치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어느 권한을 인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르죠아의원내각제의 정치체제하에서 가끔 일어나고있다.

정부와 국회의 대립의 표현으로서의 내각불신임권과 국회해산권의 발동은 그 어떤 국민의사의 표현이거나 원칙적인 투쟁의 발현인것이 아니라 부르죠아정당들과 파벌들사이의 권력쟁탈을 위한 경쟁과 암투의 폭발에 지나지 않는다.

불신임결의

불신임결의는 자본주의국가 국회가 임기중의 정부 또는 그 개별적성원이 사직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이다. 의회공화제와 립헌군주제의 통치형태를 취하고있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권한이다.

불신임결의는 우선 새로운 정부가 조직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국회회의에서 내각수상이 발표하는 정부정강에 대하여 할수 있다.

새로 선출된 내각수상이 국회회의에서 자기가 이끌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는데 국회가 그것을 찬성하는 신임결의를 하면 정부가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불신임결의를 하면 정부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채 총사직하게 된다.

불신임결의는 또한 사업하고있는 정부 또는 그 개별적성원들에 대하여 할수 있다. 국회회의에서 불신임안이 결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정부이면 그 성원전체가 총사직하며 수상이나 다른 정부성원이면 그들만 사표를 내고 퇴직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는것은 국회의원들이다. 의원총수의 10분의 1 또는 5분의 1이상의 제기에 따라 국회에 불신임안이 접수되고 심의에 상정된다.

불신임안에 대한 결의는 국회회의에 참가한 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회가 정부나 그 성원들에게 하고있는 이러한 불신임결의는 국가권력실현의 기본기관으로서 정부를 착취계급에게 보다 쓸모있는 정치적집단으로 만들고 반동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시키기 위한것으로서 하나의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피에 젖은 성조기

미국기발을 성조기라고 한다.

성조기는 1776년 7월초 미군총사령관 죠지 워싱톤이 《정규군》을 창설하고 1777년의 첫날에 기발게양식을 하면서 띄운 기발로서 당시에는 붉은색바탕에 독립전쟁에 참가한 13개 주를 의미한 13개의 흰 띠가 가로그어진 기발이였다.

그것이 그후 별과 줄로 이루어진 성조기로 바뀌였다.

1818년 4월 4일 미국회는 령토가 팽창되는데 따라 별의 수도 많아진다는것을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침략력사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성조기에는 인디아종족들의 수많은 피와 사무치는 원한이 그대로 스며있다. 기발의 왼쪽 웃단에 람색바탕의 별무리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50개의 흰색 오각별이 첫줄에는 6개, 그다음 줄에는 5개 이런 식으로 엇바뀌여 9개 줄로 배렬되여있다.

별무리구역밖에는 13개의 줄무늬가 그려져있는데 흰 줄과 붉은 줄이 서로 엇바뀌여있다.

50개의 별은 미국의 현 50개 주를, 13개의 줄무늬는 독립전쟁에 의해 형성된 최초의 13개 주를 의미한다.

미국국기는 지금까지 그 도안이 여러번 변하였다.

첫 기발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한가지 설에 의하면 미국국기의 시초가 죠지 워싱톤이 륙군에 수여한 《대련맹》기에서 유래되였다는것이다. 당시 《대련맹》기발의 왼쪽 웃단에는 영국의 기발형태가 새겨져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북아메리카식민주의자들이 모국인 영국과는 완전한 결별을 아직 결정짓지 않고있었기때문이였다고 한다.

1774년 6월 대륙회의에서는 기발도안에서 줄무늬는 그대로 두고 왼쪽 웃단에 있던 영국기발형태만 없애기로 하였다. 그 대신 이전

식민지지역인 주들을 의미하여 별무늬를 새겨넣을데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한 법을 발표하였다.

1818년 미국회에서는 새로운 주가 늘어날 때마다 국기의 별을 한개씩 더 첨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도안된 국기는 지금의것과 같은 정방형이였는데 왼쪽 웃모서리 람색바탕의 4각형에 20개의 흰 별들이 새겨져있었고 7개의 붉은 줄과 6개의 흰 줄이 엇바뀌여 그려져있었다.

1913년부터 1958년말까지 48개의 주가 련방에 망라되여있었으므로 별은 매줄에 8개씩 6줄로 배렬되였다. 1959년에 얼래쓰커가 49번째 주로, 같은 해 하와이가 50번째 주로 됨으로써 별들의 배치는 조금 달라졌다.

오늘의 미국국기는 이렇게 완성되였다.

크리스토퍼 콜룸부스에 의한 《새 대륙》의 발견소식이 온 유럽땅을 뒤흔들자 일확천금을 꿈꾸던 수많은 건달군, 사기군, 전과자들은 너도나도 《새 대륙으로 가자, 남보다 빨리, 더 빨리!》라고 광기를 부리며 《탐험》과 《개척》의 길에 나섰다. 《새 대륙》의 불청객들, 유럽인들에 의하여 평온하게 흐르던 인디안들의 생활이 파괴되고 아메리카땅에서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략탈의 비극적인 사변들이 엮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메리카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백인무리들의 두눈에는 광기가 이글거렸고 그들의 손에는 창과 칼이 쥐여져있었다. 십자가를 메고 칼춤을 추며 《새 대륙》으로 쓸어드는 유럽백인들의 떼속에서 특별히 광기를 부린 야만무리는 영국의 앵글로색손족이였다.

버지니아에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당시 버지니아에서는 이곳 원주민들에 의하여 질좋은 담배가 생산되고있었는데 그 시기 담배는 영국은 물론 유럽에서 귀족들만 리용하는 사치품, 귀중품으로서 그 값이 대단하였다. 살인무리들은 환성을 지르며 살륙경쟁을 벌렸다.

백인침략자들은 인디안들을 쏘아죽이고 찔러죽이고 때려죽이는것을 마치 들짐승 한마리를 쏘아죽이는것보다 더 쉽게 여기면서 12살이상의 남자머리가죽 한장에는 150US$, 녀자머리가죽 한장

에는 50US$를 주었는데 1541년에만도 무참히 살해된 인디안의 수는 1 500만명에 달하였다. 1 500만명, 이 수자는 웬만한 국가의 인구와도 맞먹는것이다.

미국의 형성은 영국이 1607년 5월 13일 북아메리카에 저들의 첫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성을 구축한 때부터 시작되였다.

영국국적의 앵글로색손족 이주민들은 자기들이 첫발을 들여놓은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성을 침략과 략탈의 거점으로 만들고는 그곳에서부터 남의 령토를 빼앗는 길에 들어섰다.

그들은 75년이라는 기간에 침략과 략탈, 살인과 방화를 끊임없이 벌려 버지니아(1607년), 뉴욕(1614년), 마사츄세쯔(1620년), 뉴햄프셔(1623년), 죠지아(1633년), 메릴랜드(1634년), 코넥티커트(1635년), 로드아일랜드(1636년), 델라웨어(1638년), 노스캐롤라이나(1650년), 뉴져시(1664년), 사우스캐롤라이나(1670년), 펜실바니아(1682년) 등을 련이어 타고앉음으로써 북아메리카에 13개의 주들을 창설하였다.

앵글로색손족(영국이주민)들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여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전세계에 선포하였다.

선언에는 《우리는 인간이 평등한것으로 창조되였다는것과 조물주가 그들에게 생활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및 행복을 지향할 권리를 포함한 일정한 떼여낼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것과 어떠한 통치형식이 이런 목적들을 파탄시킬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민은 그것을 갱질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를 창설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그 정부는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원칙우에 창설될것이며 그러한 형식으로 그 권능을 조직할것이라는것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이 선언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것인가.

이 선언으로 하여 오래동안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찬미하였으며 맨하탄에 《자유의 녀신》상이 서 있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였던것이다.

1781년 10월 19일 앵글로색손족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미국의 독립, 이것은 아메리카에 상륙한 앵글로색손족 이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남의 땅을 통채로 차지하고 그것을 영원히 저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라는 신성한 단어를 도용하여 세운 첫 부르죠아자유민주주의국가의 출현이였다.

1787년에 미국정부는 《공명정대》하고 《인도주의》적인 정령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인디안들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지극히 성실하여야 하며 그들의 동의없이 그들에게서 재산도 땅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였다.

얼핏 보면 아주 진보적인 정령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반동적이며 위선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새빨간 거짓문서였다.

이 정령을 내걸고 미국은 무자비한 식민지강탈전에 나섰다.

이른바 《헌법회의》가 아메리카합중국의 독립을 선언할 당시에는 합중국의 령토가 13개 주에 38만 6 000㎢였다. 그런데 19세기 4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형성당시에 비해 8배나 되는 300만㎢인 48개 주로 팽창되였다.

이처럼 령토를 확장하기 위해 벌린 끊임없는 침략과 략탈전쟁으로 하여 오늘의 미국은 50개 주에 총넓이 938만 3 123㎢의 면적으로 팽창되였으며 해외령지인 식민지 뿌에르또 리꼬, 버진제도 그리고 태평양의 동부사모아, 괌섬, 웨그섬 등과 남태평양의 작은 섬 1 000여개를 가진 《거대한》 제국주의국가로 군림하게 되였다.

이처럼 피로 얼룩진 미국의 력사가 성조기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는것이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성조기를 두고 《흰 줄은 검은 줄로 물들여야 하고 별들은 두개 골과 두개의 뼈를 가로놓은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은 성조기에 더 많은 별들을 새겨넣으려고 오늘도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미 새겨진 성조기의 별들마저 자주화된 세계앞에 빛을 잃고야말것이다.

《자유의 녀신》상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뉴욕항 입구에는 1886년에 세워진 《자유의 녀신》상이 서있다.

《자유의 녀신》상의 높이는 46m이며 그 무게는 225t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세계의 상징이라고 자랑하는 이 녀신상은 노예의 쇠사슬을 짓밟고 오른손에는 밤하늘을 밝히는 홰불을,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이라는 미국독립의 《력사적인》 날을 새긴 미국독립선언을 들고 화강석대돌우에 서있다.

《자유의 녀신》상이 세워진 후 10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사람들은 그 력사의 나날을 되새겨보고있다.

《자유의 녀신》상은 《벨포르의 사자》조각으로 명성을 떨친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바르똘리에 의해 발기되고 세워졌다.

프랑스에서 루이 보나빠르뜨가 정변을 일으켜 제2공화국을 전복한 어느날 프리데리끄 아우구스또 바르똘리는 보나빠르뜨거리에서 한 소녀가 홰불을 한껏 쳐들고 구호를 웨치면서 길거리를 가로막은 바리케트를 뛰여넘어 주저없이 앞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보게되였다.

순간 크나큰 흥분과 창작적령감이 그의 온몸에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바르똘리는 두눈을 가리며 입술을 깨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용감한 소녀가 보나빠르뜨의 병사들이 마구 쏘는 총탄에 맞고 길바닥에 깔아놓은 돌우에 쓰러져 더운 피를 쏟고있었기때문이였다. 쓰러지면서도 꼭 그러쥔 홰불대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있었다.

바르똘리는 심장의 격동을 눅잦히지 못한채 오래동안 그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홰불을 추켜들고 과감히 돌진하던 의로운 소녀의 모습은 바르똘리의 가슴속에 자유의 상징처럼 자리잡게 되였다.

바르똘리는 그후 미국에서 독립절을 맞으며 전람회가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그는 《자유의 녀신》상을 훌륭하게 형상하여 전람회에 출품하리라 결심하고 끝없는 사색과 열정,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1875년에 조각상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자 그는 그것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보이기로 하였다.

그런데 프랑스주재 미국공사를 비롯한 미국인들만은 그 조각상을 보면서도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유를 지향하는 인류의 념원을 반영한 조각품이 미국인들의 랭담한 태도에 부딪치자 그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실망하였다.

그러나 한시도 잊을수 없는 그 소녀의 모습이 바르똘리로 하여금 미국독립절기념전람회에 홰불을 든 한쪽팔의 조각상만이라도 출품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손가락길이가 8ft(1ft는 30.48㎝)인 한팔조각품은 예상외로 관중들의 큰 인기를 끌게 되였고 마침내 미국으로 보내게 되였다.

당시까지도 바르똘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식민주주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동경과 환상을 가지며 미국을 《자유의 천국》으로 여기고있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은 미국 16대대통령인 링컨이 기만적인 《노예해방》을 부르짖으면서 미국의 정치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멋들어진 미사려구로 표방한데 대한 공감때문이였다.

바르똘리는 그후 자기의 안해로 된 젠리라는 녀성을 보고 《자유의 녀신》상을 창작하였는데 녀신의 얼굴만은 자기 어머니를 형상하였다.

1885년 6월 《자유의 녀신》상은 뉴욕땅에 도착하였으며 이어 항구에 설립되게 되였다.

이 녀신상을 세울 때만 하여도 세상사람들은 자본주의사회에 현혹되여있었다.

했기에 《력사적인》 조각상을 세운다는 소식에 접하자 흥분한 미국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기부금을 냈고 여기에 고무된 바르똘리는 심혈을 다 바쳐 이 조각상을 세워나갔던것이다.

20세기를 눈앞에 둔 1886년 10월 2일 바르똘리와 수에즈운하건설의 발기자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를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의 참가하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그로버 클리블런드는 미국과 자본주의세계의 《영원한 번영》을 바라면서 뉴욕 맨하탄에서 《자유의 녀신》상을 《엄숙》히 제막하였다.

그때 바르똘리를 비롯한 수많은 제막식참가자들은 《자유의 녀신》상을 바라보면서 자유의 홰불이 온 세상을 환히 밝혀 마침내 인류가 그처럼 열광적으로 기대하는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대가 금시 도래할것만 같은 환각에 휩싸여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나 위선적인 미국식민주주의는 만사람들이 그처럼 바라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끝내 그들에게 안겨주지 않았다.

미국식민주주의, 그것은 미국독점부르죠아지의 정치적지배를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외피로 감싼 민주주의였다.

그것은 개인적리익과 효과를 《진리》로 보는 개인주의적실용철학에 기초하고 지배계급의 반인민적인 악법과 정치체제에 의하여 담보되고있기때문이였다.

따라서 미국식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엇바꾸어 집권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을 주권과 국가관리에서 철저히 배제하기때문에 그들에게 정치적권리는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해줄수 없었던것이다.

미국식민주주의는 극소수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여 근로인민대중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반인민적인 민주주의이다.

결국 링컨이 표방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말은 수많은 근로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달콤한 속임수였고 《자유의 녀신》상은 미국의 본성과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적인 구조물, 너울에 불과한것이였다.

령토가 제일 넓은 나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고있던 로씨야땅에는 7～8세기에 수공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형성되고 이러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러 공국들이 형성되였다.

9세기말～10세기초에 노브고로드, 끼예브 등 여러 공국들이 통합하여 끼예브국가 또는 고대루씨국가를 형성하였으며 후에 동유럽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발칸반도, 북깝까즈, 발뜨해부근, 볼가강연안에까지 령토를 넓히였다.

11세기 후반기에는 3개의 작은 공국으로 분렬되였으며 13세기에는 몽골인들의 침략을 받아 넓은 지역을 강점당하였고 스웨리예, 도이췰란드의 침입도 받았다.

1510년에는 쁘스꼬브가 통합되고 리뜨바로부터 쓰몰랜쓰크를 탈환하여 로씨야의 령토적통일이 수립되였다. 16세기에 로씨야국가의 령토는 이전 모스크바공국령토의 10배이상에 달하였다.

1604～1634년에는 뽈스까의 침략을 받았다. 17세기에는 씨비리의 개척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로씨야탐험가들이 태평양기슭까지 탐험한 후인 1697년부터는 깜챠뜨까에 로씨야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721년에 로씨야는 제국으로 선포되였다. 1700～1721년 스웨리예와의 전쟁후 발뜨해에로의 출로를 열었다.

1812년에 로씨야는 나뽈레옹의 프랑스군침략을 물리쳤다. 19세기 50～60년대에 로씨야는 령토팽창을 강화하여 아무르강연안과 태평양연안지역을 병합하였다. 1864년이후 로씨야는 중앙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정복하였다.

1917년에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로씨야땅에는 마치와 낫을 새긴 붉은 기발이 나붓기였다. 다민족국가인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은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도전을 물리

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다지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다른 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도와주었다. 쏘련은 제국주의자들의 뒤받침을 받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1990년대초에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

로씨야는 이전 쏘련의 계승국이다. 1991년 12월 벨라루씨에서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씨 지도자들이 독립국가협동체창설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그해 12월 21일 알마띠(까자흐스딴의 이전 수도)에서 이전 쏘련에 망라되여있던 가맹공화국수반들의 상봉결과에 독립국가협동체가 창설되였다.

로씨야의 주민구성은 로씨야인 81.5%, 따따르인 3.8%, 우크라이나인 3%이며 100여개의 민족이 살고있다.

련방공용어는 로어이며 각 자치공화국에서는 민족어를 쓴다. 로씨야정교를 믿는다.

동유럽벌의 대부분과 서씨비리벌을 비롯하여 령토의 약 70%가 벌로 되여있는 로씨야는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령토를 가지고있는 나라이며 다양한 기후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로씨야의 면적은 1 707만 5 400㎢이다.

로일사이의 령토분쟁

현재 일본이 령유권을 주장하고있는 남부꾸릴렬도에는 홋가이도 동북부에 있는 4개 섬 즉 하보마이, 쉬꼬딴, 꾸나쉬르, 이뚜루쁘섬 등이 있다.

일본말로는 지시마렬도(흔히 《북방령토》라고 함.)로 불리우는 남부꾸릴렬도는 로일사이의 오랜 분쟁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진행된 전승국들의 회담에서는 1900년대에 있은 로일전쟁시기 로씨야가 일본에 잃었던 남부싸할린외에 꾸릴렬도를 쏘련에 넘겨줄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1956년 쏘련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부간 협정에서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당시 쏘련정부는 쏘일평화조약체결과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들을 철페하는 등 일련의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에서 남부꾸릴렬도의 2개 섬을 일본에 반환할수도 있다는 쏘일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는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1956년의 쏘일공동선언에 따라 일본에 남부꾸릴렬도의 2개 섬(하보마이, 쉬꼬딴)을 반환할 용의를 표시하여왔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만으로는 령토문제가 해결될수 없다고 하면서 4개 섬반환을 주장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정부는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의 4개 섬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다고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밑에 1983년에 책정된이래 개정된적이 없는 《북방령토》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침작성이 추진되고있다. 그 목적은 이곳 주민들이 고령화되는 실정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북방령토》반환의식을 심어주고 그 운동을 보다 광범하게 벌리려는데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정부관리들의 참가밑에 《북방령토》반환을 요구하는 전국대회가 열리고있다. 특히 로씨야와 경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경제교류와 령토교섭을 《량쪽수레바퀴》로 하여 령토분쟁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있다.

령토문제는 경제관계와는 달리 예민한 정치적문제인것으로 하여 일본의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꾸릴렬도는 태평양함대의 무력이 전개될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있을뿐아니라 더우기는 오호쯔크해와 연해변강방향으로 침습해들어오는 외국잠수함들의 항행을 통제방어할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있다.

로씨야가 이런 지역을 순순히 내놓을리 만무하다.

해외침략을 꿈꾸고있는 일본도 남부꾸릴렬도를 차지하는것을 필수적인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이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령유권》

을 한사코 주장해나서고있는데는 자연부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탐욕도 작용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보다 중시하고있는 것은 이 지역의 전략적중요성이다.

로씨야와 일본은 2010년 벽두부터 령토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일으켰다. 1월 일본어선들이 남부꾸릴렬도부근에서 로씨야의 령해를 침범하고 그에 로씨야군이 사격을 가하였다. 그후에는 일본인관광객들이 로씨야가 발급한 입국사증을 가지고 남부꾸릴렬도를 방문하는 일이 생겼다. 일본외무성은 즉시에 그것이 정부의 로선과 완전히 배치되므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과 함께 사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로씨야입국사증을 지참한 일본인들의 남부꾸릴렬도방문은 이곳에 대한 로씨야의 주권인정으로 된다는것이 일본정부의 견해이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내각관방장관을 비롯한 일본정객들이 로씨야사증을 지참한 자국인들의 꾸릴렬도방문이 전후 일관하게 《북방령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자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할것을 요구하였다.

로일사이의 령토분쟁은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의 배경하에서 격화되고있다.

일본은 1941년 태평양전쟁도발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뛰여들었던 저들의 침략행위를 백인들의 《침략》과 《통치》로부터 아시아인민들을 《보호》하고 《해방》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분식하고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의 발굽밑에서 고통과 불행을 강요당한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모독, 우롱인 동시에 파쑈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룩한 로씨야의 전승력사에 대한 부정이다.

이에 대해 로씨야가 강하게 반응해나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로씨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현대》라는 주제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은 일본이 이른바 《북방령토》의 날을 공식적으로 쇠고있는 사실, 지도와 관광안내서에 꾸릴렬도가 로씨야령토에 속하지 않는것으로 그려져

있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력사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외곡이라고 주장하였다.

로씨야는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5년전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서에 조인한 9월 2일을 제2차 세계대전종결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아니라 로씨야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쏘련군과 일본군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꾸릴렬도의 어느 한 섬에 남아있던 일본군땅크를 9월 2일에 맞추어 싸할린주의 주립향토사박물관에 전시하였다.

외신들은 로씨야의 이런 조치들을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을 견제하고 남부꾸릴렬도가 로씨야의 땅이라는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평하였다.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획득야욕을 자국에 대한 안전상의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는 조건에서 로일사이의 령토분쟁이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의 막뒤에서 더욱 첨예화될것이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형성

도이췰란드는 유럽의 중부에 위치하고있으며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북서부와 북동부는 북해와 발트해에 면해있다. 나라이름은 옛도이췰란드어로 《민중의 나라》에서 유래되였다.

오랜 옛날부터 게르만족, 슬라브족 등이 살고있었던 도이췰란드령역에는 5세기말에 프랑크국가가 세워졌으며 843년에는 베르당조약으로 3개의 나라로 분렬되였다.

951년에 옷토1세와 그가 인솔한 도이췰란드봉건령주들은 이딸리아북부 롬바르디아지방을 강점하였으며 960년대초에는 북부이딸리아의 전지역을 강점하고 로마에 입성하였다.

962년에 옷토1세는 로마법왕에게 로마황제의 왕관을 대관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때부터 도이췰란드는 《로마제국》의 명칭을 가

지게 되였다.

12세기부터 《신성로마제국》이란 이름으로 불리웠다. 이 시기 엘바강류역의 서슬라브족들을 정복하여 도이췰란드화하였으며 동부 발뜨해연안의 라뜨비야지방까지 정복하였다.

15세기에 황제주권은 극도로 약화되였다.

종교개혁운동과 농민전쟁(1524－1525년), 1618－1648년의 30년전쟁으로 봉건적인 중앙집권제의 붕괴과정이 촉진되여 오스트리아와 프로씨아라는 두개 국가로 분리되였다.

1814－1815년 윈회의결정에 따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도이췰란드련방이 형성되여 1866년까지 존재하였다.

1871년에는 봉건지주들을 중심으로 도이췰란드제국이 형성되였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과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도이췰란드는 식민지재분할을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나 패배하고 식민지들을 잃어버렸다.

1918년 11월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도가 전복되고 부르죠아적인 와이마르공화국이 세워졌다.

제1차 세계대전후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경제력과 군사력이 재생되여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자로 되였다. 1933년 히틀러파쑈정권이 수립되였다.

1938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 1938년 9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의 슈데트지방을 강탈하고 1939년 9월 1일에는 뽈스까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 프랑스를 비롯한 중앙유럽 및 남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강점하고 1941년에는 쏘련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였으나 1945년 5월 9일 반파쑈력량의 투쟁으로 파쑈도이췰란드는 멸망하였다.

패망후 쏘, 미, 영, 프의 4개 점령지역으로 갈라졌으며 1949년 9월에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이, 10월에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되여 두개 나라로 분렬되여 존재해오다가 1990년 10월 3일 동서도이췰란드가 통합되였다.

주민은 게르만족의 도이췰란드인이며 공용어는 도이췰란드어이다.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기본이다.

도이췰란드에서는 부르죠아혁명이 늦게 일어났지만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일찌기 과학, 문학예술이 발전하였다.

일장기의 피자욱

일본은 아시아의 동부 태평양북서부에 있는 섬나라이다. 4개의 큰 섬(혹가이도, 혼슈, 규슈, 시꼬꾸)과 주변의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B. C. 5세기～B. C. 4세기경에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 건너가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자기들의 소국가를 세우고 살면서 당시 훨씬 앞선 우리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였다.

3～4세기경에 조선사람들의 강한 영향으로 고분시기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4～5세기초에 야마도지방을 중심으로 통일국가가 형성되였다.

6세기말부터 봉건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한 일본에서는 12세기말에는 가마꾸라지방에 막부(바꾸후)라는 사무라이(무사)정권이 수립되였다.

일본은 14세기초부터 일장기를 내들고 조선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행위를 강화하였다.

일본사무라이들은 1592－1598년에 우리 나라에 대한 대규모의 침략행위를 감행하였으나 조선인민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였다.

1868년에는 봉건막부정권이 무너지고 명치천황정권이 수립되여 부르죠아개혁(명치유신)이 추진되면서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그후 조선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청일전쟁(1894－1895년)과 로일전쟁(1904－1905년)을 도발하였다.

1905년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여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31년 9. 18사변을

일으켜 중국동북지방을 강점하였으며 1937년에는 중국에 대한 침략을 더욱 확대하였다.

1941년 12월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도이췰란드, 이딸리아와 《반공협정》을 체결하고 전선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강점지역들에서 전례없는 학살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특히 조선강점기간 100만명이상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청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그들에게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만드는 반인륜적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태평양전쟁기간 웰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1945년 8월 패망후 미제의 비호밑에 재생재무장되였으며 1950년 6월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자 미제와 공모하여 전령토를 공격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로 내맡기고 군사력을 조선전선에 동원시켰다.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된 량원제국회가 있다. 왕이 있으나 실권은 없다.

주민의 절대다수가 일본인이며 홋가이도에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약간 살고있다. 공용어는 일본어이며 불교,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야스구니진쟈

일본 도꾜도 지요다꾸 구단자까우에 있는 사당이다. 야스구니란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며 진쟈란 사당이란 말이다.

1869년에 명치《천황》의 지시로 소곤쟈(초혼사—혼을 부르는 사당)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1879년에 《야스구니진쟈》로 개칭되

였다.

여기에는 《명치유신》(1868년)을 전후한 시기 국내전쟁에서의 전사자와 청일전쟁, 로일전쟁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침략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한 250여만명의 위패가 있다. 특히 국제법정의 판결로 처단된 도죠 히데끼를 비롯한 태평양전쟁의 수급전범자들의 위패도 있다. 또한 사당에는 죽은자들의 유물들도 전시되여있다.

야스구니진쟈는 바로 침략전쟁에서 죽은자들을 이른바 《국가륭성》을 위한 《야스구니의 신》으로 내세우고 제사지내는 곳이다. 따라서 야스구니진쟈는 대대로 일본군국주의의 사상정신적 거점으로 되여왔다.

오늘 일본반동정부의 수상을 비롯한 각료들과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야스구니진쟈를 공공연히 참배하고있으며 그것을 제도화, 조직화, 합법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군국주의바람을 일으켜 과거의 침략과 전쟁행위를 비호하고 재현하겠다는것으로서 정의와 인류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인공 《섬》에 비낀 령토팽창야망

일본의 최남단에 오끼노도리라고 불리우는 《섬》이 있다. 일본이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만든 자그마한 인공《섬》이다. 그나마 만조시에는 바다물에 잠겨 수면에 드러나는 면적이 10㎡도 안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섬》을 바위나 암초로 부르고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 《특정한 외진 섬》을 직접 틀어쥐고 보강, 관리하려 하고있다. 2010년 2월 이와 관련한 《법안》이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앞으로 《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오끼노도리《섬》에는 부두를 비롯한 여러 시설들이 본격

적으로 구축되게 된다.

한편 일본은 2008년 11월 오끼노도리《섬》을 기점으로 한 대륙붕확장을 유엔대륙붕경제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바다밑에 지형이나 지질이 륙지의 자연적인 연장이라는것이 인정되는 경우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 최고 350n. mile까지 대륙붕의 한계를 연장할수 있다고 되여있다. 지난날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던 대륙붕은 1940년대부터 연안국들사이에 해저광물자원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법의 규제대상으로, 또한 연안국들사이의 분쟁대상으로 되게 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륙붕을 소유하려는 나라는 유엔대륙붕경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되여있다. 일본이 노리는것이 바로 이 점이다.

일본은 몇년전부터 《대륙붕조사》의 간판을 내걸고 해상보안청과 문부과학성의 해양관측선박들을 동원하여 오끼노도리《섬》을 비롯한 자국주변의 대륙붕조사와 측량을 본격화하고있다. 그리고 조사자료들을 유엔대륙붕경제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기구의 승인을 받을것을 꾀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법적타당성이 없는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는 인간의 거주나 그자체의 경제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암초는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수 없다고 규정되여있다.

원래 오끼노도리《섬》은 침대깔개 두장정도밖에 안되는 널려있는 바위의 하나였다. 그러던것을 일본이 1980년대 후반기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하여 2007년현재 직경이 50m정도되는 콩크리트바닥을 가진 바위처럼 만들었다. 주위의 약 10㎞가 산호초로 되여있는 이곳에서는 사람이 살거나 경제활동을 벌릴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이곳을 대륙붕으로 설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따라서 바다밑에 수많이 매장되여있는 코발트, 망간을 비롯한 희유금속과 원유와 천연가스 등은 일본에 있어서 눈독을 들일만한 자원인것이다.

만약 유엔에서 저들의 요구가 승인되면 일본은 오끼노도리《섬》을 기점으로 자기 나라의 면적을 릉가하는 40여만㎢의 넓은 해역에서 대륙붕자원을 개발리용할 권한을 획득할수 있게 된다.

바로 여기에 일본이 기를 쓰고 이곳 산호초를 《섬》으로 만들려는 진짜의도가 있다.

보다 심중한 문제는 오끼노도리《섬》을 기점으로 한 일본의 대륙붕확장시도가 단지 해양자원확보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오끼노도리《섬》은 지리적으로 놓고볼 때 미군의 주요군사기지인 괌도와 가까이 하고있다. 다시말해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만약 일본이 오끼노도리《섬》에 항구를 비롯한 민간시설과 함께 군사시설까지 꾸려놓게 되면 일본의 군사작전권이 서태평양지역에로 확대되고 일미공동군사행동범위가 넓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상과 해상은 물론 대륙붕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본의 집요한 령토팽창책동은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특히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오끼노도리 산호초를 기점으로 넓은 면적의 관할해역을 주장하는 일본의 수법은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을뿐아니라 국제사회의 총체적인 리익도 엄중히 침해하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일본이 아무리 이곳에 인공시설을 구축한다고 해도 《섬》의 법적지위는 달라질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등은 2009년 8월 일본이 대륙붕확장신청의 근거의 하나로 주장하고있는 오끼노도리《섬》은 바위에 불과하므로 이곳은 대륙붕으로 인정할수 없으며 해당 수역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일본이 오끼노도리《섬》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시설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그것이 첨예한 분쟁을 불러오는 불씨로 될수 있다고 여론들은 전하고있다.

미국의 량당정치

미국정치의 쌍두마차라고 할수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매번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하늘소》와 《코끼리》를 각기 자기 당의 상징으로 내들고 치렬한 싸움을 벌려왔다.

1874년에 미국의 이름난 화가 톰스 나스트는 선거경쟁과 관련한 정치만화를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을 생동하게 그리겠는가를 생각하던 끝에 하늘소와 코끼리를 그려냈다.

그가 보여주려는 뜻은 민주당은 하늘소처럼 완고하며 공화당은 코끼리처럼 우둔하면서 우직스럽다는것이였다.

이때부터 하늘소와 코끼리는 미국량당의 상징으로 되였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선거경쟁을 《하늘소와 코끼리의 싸움》이라고 부르고있으며 이 싸움은 미국선거경쟁에 대한 형상적인 묘사로, 미국량당제에 대한 적중한 비유로 되고있다.

량당통치제도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두개의 지배적정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 반동적인 부르죠아통치제도이다.

미국에서 량당통치제도는 남북전쟁(1861－1865년)후 민주당과 공화당에 의해 확립되였으며 오늘까지도 미국독점자본의 지배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계속 리용되고있다.

미국에는 여러 정당들이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 공화당에 의한 철저한 2대정당제이다.

량당제도는 이미 미국의 정치구조에서 공식화되였으며 미국내에서 헌법이나 법규범처럼 준수하여야 할 당연한것으로 용인되고있다.

대체로 남부주들에서는 민주당이, 북부주들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다.

력사적으로 민주당은 교활한 방법으로 인기를 끌수 있는 정책강령을 들고나와 일정한 계층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공화당은 보수적인 정당으로서 힘에 의한 침략과 전쟁론을 들고나왔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전략적인 정치강령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대통령선거때마다 두 당이 들고나오는 강령은 서로 어슷비슷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로조와 지식인들, 소수민족 등과 련계를 많이 가지고있으며 개량주의적색채가 농후하였다. 례컨대 이 당은 대내정책면에서 련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며 지출을 늘여 《사회적복리사업》을 더 많이 할것을 제창하였으며 대외관계에서 《협조》를 표방하는 등의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에 공화당은 보수적색채를 더 뚜렷이 나타냈다. 공화당정책의 일반적인 특징은 련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며 사회복리지출을 줄일것, 예산균형에 주의를 돌리며 외교상에서 강경한 수단을 많이 리용할것을 주장하는것 등이다.

오늘에 와서는 두 당사이의 차이가 더욱더 모호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두 정당이 장기간 집권하고있지만 어느 당이나 다 상설적인 최고기관으로서 전국위원회를 가지고있으며 각 주와 지방들에도 당의 조직들이 있으나 당원들은 고정되여있지 않다.

즉 선거자들이 선거에 앞서 등록할 때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그 당의 당원이 되므로 당적이 수시로 바뀐다.

《하늘소》와 《코끼리》로 형상되는 미국의 량당통치제도는 미국독점자본의 지배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량당통치제도의 반동적본질은 독점자본가집단이 교대제로 자기 수중에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듯이 인민들을 기만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장성을 억제하며 부르죠아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데 있다.

백악관을 움직이는 막후세력

백악관은 미국의 수도 워싱톤 펜실바니아거리의 남쪽에 있는 미국대통령의 관저를 말한다. 이 말은 영어로 《와이트 하우스》라고 한다.

1792년 11월에 착공하여 8년만에 완공하였는데 처음으로 2대 대통령인 애덤즈가 《주인》이 되였다.(1814년에 불탄 후 백색 건물로 고쳐 장식하였다.)

미국대통령 루즈벨트(1901～1909년, 제26대대통령)가 편지봉투에 《와이트 하우스》(흰 집)이라고 적은 후부터 이 말은 미국대통령관저의 공식명칭으로 되였다.

백악관건물은 세개의 층으로 되여있는데 밑층은 현관층이고 그 우에는 연회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사무실이 있으며 맨 웃층에는 대통령의 살림방들이 있다.

백악관은 바로 여기에서 미제의 범죄적흉계가 꾸며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반동정부의 대명사로 되고있으며 흉악한 모략의 소굴로 알려졌다.

백악관이란 말에는 흰 집이란 뜻보다도 《백가지 악이 들어찬 집》이란 뜻이 더 깊이 새겨져있다고 세상사람들은 말하고있다.

백악관의 주인은 미독점재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독점자본가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데서는 조금도 다를바 없다.

미국에서는 대군수업체를 포함하여 대독점재벌들이 공업, 운수, 금융, 체신 그리고 국방공업 등 모든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그 리권을 위해 국가의 정책작성과 실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국가기구와 권력기관들은 모두 대독점체들에 종속되고 장악되여있다.

과거 대통령들이였던 케네디, 죤슨은 대독점자본가들이였으며 레

간과 부쉬1세도 독점자본의 대리인들이였다.

미국에서는 어제날의 은행가, 재벌이 장관이 되고 오늘의 장관이 래일에는 독점회사의 대리인으로 되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대독점자본과 정부관료들의 결탁이 이루어지고있다.

대독점자본가들은 정부를 틀어쥐고 조종하기 위하여 대통령자리에 저들에게 충실한 사환군들을 앉힌다.

이전 대통령 레간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와 서남부지역의 군수독점체들의 뒤받침에 의하여 백악관의 주인으로 될수 있었다.

부쉬1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수 있은것도 역시 군수독점체들이 그를 저들의 쓸모있는 인물로 점찍고 적극 밀어주었기때문이였다.

하기에 부쉬1세는 대통령당선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전광인 레간의 시책을 《계승》하며 《별세계전쟁》계획 등 핵전쟁준비를 다그치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면서 군수독점체들에 무기 등 군수품들을 대량 주문하겠다는것을 확약하였다.

그후 미군수독점체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막대한 군수물자를 비싼 독점가격으로 판매하고 《황금소나기》를 맞으며 환성을 올리였다.

조선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악명을 떨친 트루맨이 자기의 회상록에서 《미국대통령의 취임기간 한 일은 나를 최고집권자로 추대해준 독점재벌들과의 공약을 실현하는 나날이였다.》고 실토한것이 우연치 않다.

미국대통령의 정책집행기관인 행정부자체와 미중앙정보국, 미련방수사국을 비롯한 정부소속기관들도 다 대독점체들의 손과 발이다.

대독점체들은 미국대외관계리사회, 경제발전위원회(대독점자본가들의 집합체) 등 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각이한 두뇌집단의 성원들을 내세워 대통령이하 국가집권층을 꾸리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의 정책작성과 실행을 조종하고있다. 한편 워싱톤에 정

부의 동향을 사전에 내탐하고 대응전략을 펴는 《사무소》 등의 명색을 가진 전문적인 정보단체들을 꾸려놓고있는데 이런 정보단체들과 요원들을 통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립안방향과 동향을 사전에 알아내고 행정부로 하여금 저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정책을 결정집행케 하고있다.

1961년 아이젠하워는 자기의 퇴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다.

《군부의 거대한 세력과 대규모 무기산업이 하나가 되여 움직이는 군수산업복합체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 그리고 정신적인 령역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구조자체를 이루고있다.》

미국에서 독점재벌이 존재하는 한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교체되여도 그것은 독점재벌들의 꼭두각시들의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명맥을 쥐고있는 유태인

1996년 여름 22명으로 구성된 미하원세입위원회는 이란과 통상관계를 맺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에 미국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는 이른바 《대이란통상기업제재법안》을 만들어냈다.

그 내용이 너무도 악랄하여 세계각국에서 비난이 터져나왔지만 이 법안은 무난히 통과되였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킨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에이팍》(아메리카 이스라엘공동위원회)이라는 유태인들의 공작기관이였다.

미국에는 600여만명의 유태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미국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지금까지 미국이 유태복고주의를 지지하여온것은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다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주장이 미국의 중동정책과 부합되기때문이다.

유태인들의 막대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에이팍》은 해마다 미국회의원들을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로 분류하고는 《친이스라엘》의원들에게는 거액의 정치자금과 출세의 길을 제공해주지만 《반이스라엘》의원들에게는 미국의 정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있는 자기네 동포(유태인)들을 동원하여 《집중공격》을 가하고있다.

어느해인가 이스라엘수상이 암살되였을 때 클린톤대통령(당시)을 비롯한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대부분이 앞을 다투어 장례식에 참가한것도 바로 《에이팍》통솔밑에 활동하는 유태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였다.

2001년 현재 미국인구 2억 8 480만명중 유태인이 차지하는 비률은 높지 않지만 그들은 미국의 모든 분야에서 적지 않은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닉슨대통령시기 미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 키신져 전 국무장관, 지난 시기 미의회의 대조선정책립안에서 《핵심적》역할을 한 솔라즈, 24년간 상원의원으로 있으면서 의회내 《최고실력자》의 한사람으로 평가받은 제이비츠, 전뉴욕시장 카치, 부쉬행정부의 국방성 부장관이였던 울포위쯔 등도 유태인이다.

2004년 당시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미국회 및 지방의회의 현직의원 등 정계의 10%가 유태인이였으며 백악관과 미국의 2대정당의 지도부에 틀고앉아있은것도 유태인들이였다.

경제분야에서 금융은 중추를 이룬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미국금융계를 좌지우지하다싶이 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의 금융계를 움직인다고 할수 있는 뉴욕 증권시장과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분야는 거의 유태인들이 틀어쥐고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금융회사들인 《드라이퍼스사》, 《골드만삭스사》, 《챨스슈와프사》등의 대은행들은 적지 않게 유태인들의 가족경영형태로 운영되고있다.

유태인들은 또한 미국의 담배관련산업, 영화, 레코드 등 흥행산업, 귀금속산업, 부동산업, 의류섬유산업 등 산업의 거의 모든 분

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서방출판물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최대갑부 40명중 16명이 유태인으로서 《월가》로 대표되는 미국금융계를 좌지우지하고있다고 한다.

유태인들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막대한 부중에서 상당한 몫을 이스라엘과 유태인들의 리익을 위하여 사업하는 각종 단체와 공작기관들에 희사하고있다.

언론계에서도 유태인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세계에서 이름있다고 하는 신문인 《뉴욕타임스》도 이미 1930년대에 유태인의 소유로 넘어갔다. 《뉴욕타임스》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은 선, 아랍은 악》이라는 그릇된 론조를 미국과 세계에 선전하고있다. 또한 《워싱톤포스트》, 《월 스트리트 져널》, 《파이낸셜 타임스》신문들과 AP통신 등 미국의 대부분 주요언론들이 유태인자본의 통제를 받고있다. 그리고 미국언론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ABC라지오, NBC방송, CNN TV방송의 중요프로그람들도 모두 유태인들이 틀어쥐고있다. 1980년대부터 미국언론시장에 진출하여 인기를 모으고있는 FOX TV의 소유자도 유태인이다. 미국에서는 유태인들의 언론기관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정확한 수자를 알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미국의 중요대학 5개중 4개 대학의 총장자리도 유태인들이 차지하고있다.

유태인들은 워싱톤과 뉴욕에서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모임을 가지고 조직력과 단결력,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남조선의 《말》잡지(2006년 5월호)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오늘날 미국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있는자들은 영국출신의 〈앵글로색손〉족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미국은 〈유태인공화국〉이다.

전세계의 5대석유기업과 5대식량기업 대부분은 유태인소유이다. …

이라크를 침공하는 리론을 제공한 신보수주의(네오콘)세력의 핵심도 유태인이다.》

부활되는 신파시즘

신파시즘은 파시즘을 되살리기 위한 반동적인 정치사조를 말한다.

신파시즘은 히틀러를 미화분식하고 그를 《원수》로 숭배하면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 히틀러식의 두목이 다시 출현하기를 희망》하고있다.

또한 반동적인 인종주의를 주장하고 폭력과 군비확장 및 전쟁을 주장하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감행된 파쑈적만행을 변호하면서 《제3차대전》의 발발을 떠들고있다.

신파쑈조직이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이다. 그때 서방에 《흑색국제》라는 조직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신파쑈조직의 시초였다.

이 조직은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 60여개 나라의 신파쑈조직을 망라하여 조직되였는데 1972년과 1976년에는 도이췰란드와 에스빠냐에서 큰 대회까지 소집하였다.

신파시즘의 부활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것은 1990년 도이췰란드가 통일된 후 처음에는 동부에서, 다음에는 서부에서 외국인배척운동으로 번져졌다.

신파쑈조직들이 형형색색이고 그 조직과 전략, 전술에서 차이가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크게 두가지 류형으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공개적인 테로와 폭력에 매달리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법적인 책략을 세워 선거에 참가하는것이다.

최근년간에는 두번째 부류의 조직들이 적극적인 활동추세를 보이고있는데 이 조직들은 많은 나라의 지방선거에서 득표률을 높이고 각이한 정도로 지방의회에 침투하고있으며 지어 정부에까지 들어가고있다.

한편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 신나치스분자들이 뻐젓이 준동하고있다. 쏘련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 라뜨비아, 리뜨바에서는 《우크라이나민족자위대》, 《라뜨

비야히틀러근위대》, 《리뜨바민족사회주의운동》 등과 같은 신파쑈단체들이 결성되여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마쟈르, 체스꼬, 벌가리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국제적인 신파쑈조직인 《맨머리도당》까지 출현하였다.

신파쑈조직성원들은 도처에서 꺼리낌없이 나치스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비인간적만행을 저질렀다.

어느 한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에서는 신파쑈분자들이 대낮에 유태인녀성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강간, 살해하고는 젖가슴에 나치스표식을 해놓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졌다.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신파쑈분자들이 날치는것은 력사를 거역하고 정의에 도전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이며 사회적비극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신파시즘이 나타나 란동을 피우며 세계를 어지럽히고있지만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의로운 인류의 거세찬 투쟁앞에 종말을 고할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백악관의 장송곡

력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나라들과 그에 추종한 나라들에서 침략과 전쟁, 악정에 매달린 대통령, 국가수반에 대하여 일어난 저격사건이 한두건이 아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 나라는 미국이다.

피비린 살륙만행으로 나라를 세우고 끝없는 령토팽창야욕과 침략전쟁으로 비대해진 미국의 아성인 백악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장송곡이 울리였다.

위그당출신인 윌리암 헨리 해리슨이 1840년에 9대대통령으로 당선되여 취임하자마자 폐염에 걸려 1개월만에 죽는것으로 백악관장송곡의 서막이 열렸다.

그때로부터 6대의 대통령임기가 지나간 후인 1860년에 당선된

16대대통령 공화당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4년후에 재선되였으나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 5일째 되는 날에 극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죤 윌커스 부스가 쏜 총탄에 맞아 황천객이 되였다.

1880년 공화당의 제임스 에이브럼 가필드가 20대대통령으로 당선되여 백악관의 주인으로 되였는데 다음해 7월 실업자인 챨즈 제이 기토의 총에 맞아 그해 9월 19일에 저승으로 갔다.

미국의 25대대통령인 윌리암 맥킨리는 그래도 백악관에서 4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맛을 들여 1900년에 대통령선거에서 두번째로 당선되였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1901년 9월 6일 전아메리카박람회에 참가했던 맥킨리는 무정부주의자 레온 촐고즈가 쏜 총탄에 맞고 며칠후에 죽고말았다.

그때로부터 19년이 흘러 1920년이 되였다. 미국의 29대대통령으로 공화당의 워렌 거멜리얼 하딩이 당선되였는데 그는 다행히도 암살의 총구는 간신히 면하였으나 병에 걸려 버둥거리다가 1923년 8월 쌘프랜씨스코에서 제 명을 다 못살고 죽었다.

1940년에 대통령으로 재선된 루즈벨트는 1944년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보지 못한채 1945년 4월 죠지아주온천의 별장(소백악관)에서 뇌출혈로 몇시간만에 숨을 거두어 백악관에 장송곡을 다시 울렸다.

33대대통령 해리 트루맨의 경우는 《하느님》이 도와주어서인지 1950년 11월 1일 워싱톤에 있는 영빈관에서 2명의 뿌에르또 리꼬인들이 그를 저격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번에는 케네디의 차례였다.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한 그는 1960년에 미국의 35대대통령으로 되였다.

대통령생활 3년동안 별일이 없기에 이제는 백악관의 액운이 사라졌는가 했는데 그 역시 례외로 되지 않았다. 그는 텍사스주의 달러스거리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즉사하는 운명을 지니고말았다.(협의자인 오스왈드도 이틀후에 잭크 루비에게서 저격당하여 죽었다.)

38대대통령 제럴드 루돌프 포드를 1975년 9월 5일 캘리포니아주

에서 리넷트 프롬이 저격하려다가 실패하였다. 9월 22일 또다시 포드는 시라무어에게 저격당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1980년에 미국의 40대대통령의 감투를 뒤집어썼던 공화당의 로날드 윌슨 레간은 1981년 3월 30일 워싱톤에서 힝클러가 쏜 총알에 왼쪽가슴을 맞았는데 수술을 받고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가 목숨을 건질수 있은것은 현대의학기술의 도움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의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30년전이나 20년전이였다면 그도 제 명을 못다 살았을것이다.

2004년에 재선한 제45대대통령 부쉬는 《반테로전》의 간판을 내걸고 악명을 떨치였다. 2008년 중동나라 방문과정에 이라크의 한 기자에게서 신던 구두세례를 받은 부쉬에게도 총구는 늘 뒤따랐다.

미국에서 련이어 울린 장송곡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방탄유리안에서 취임식을 하기도 하고 방탄조끼나 방탄차를 입고 타고다니였는가 하면 백악관주변은 물론 방문지주변에 삼엄한 경비진을 항시 펴온것이 력대 미국대통령들의 임기의 나날들이였다.

유엔과 그 개혁문제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그것을 위협 또는 파괴하는 것과 투쟁하며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가장 큰 정부적국제기구이다.

1945년 4월 25일부터 6월 26일사이에 미국의 쌘프랜씨스코에서 진행된 국제련합기구창설에 관한 회의에서 창설이 결정되였다. 최초의 유엔헌장서명국은 51개 나라였다. 헌장은 같은 해 10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이날을 《유엔의 날》이라

고 한다.

유엔본부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다. 유엔본부를 뉴욕에 두게 된것과 관련하여 미국은 유엔주재 각국 대표부건물과 외교인원들의 불가침을 비롯한 외교적특권과 특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유엔성원국은 헌장을 접수하고 그것을 리행할 능력이 있는 평화애호적인 나라가 될수 있다.

유엔의 중요기관으로서는 유엔총회, 안전보장리사회, 경제사회리사회, 후견리사회, 유엔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다.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안전보장리사회이다. 안전보장리사회의 임무는 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② 국제분쟁문제조사, ③ 분쟁해결대책강구, ④ 군비계획작성, ⑤ 침략방지대책강구, ⑥ 경제봉쇄와 침략저지요청, ⑦ 침략국에 대한 무력행사, ⑧ 새로운 성원국의 승인과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임명, ⑨ 유엔후견령사업처리, ⑩ 유엔사무총장임명, ⑪ 총회에 내는 년례보고, 특별보고작성 등이다.

구성은 5개의 상임리사국과 10개의 비상임리사국으로 되여있다. 상임리사국은 유엔창설당시부터 지금까지 중국, 로씨야, 프랑스, 영국, 미국이다. 이 나라들은 임기가 없이 계속 상임리사국성원으로 된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정신과 공정성을 잃고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독단에 리용되고있는데 실례는 허다하다. 2009년 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발사를 문제시하여 부당한 《제재결정》을 채택하였다.

유엔이 창설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유엔을 민주화하고 그 활동성을 높여 국제기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유엔을 개혁하는것은 현시기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1997년 7월 유엔사무총장은 유엔부사무총장직제를 따로 내오며 본부인원을 1 000명축소하는 등 여러가지 내용이 담긴 유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유엔성원국수는 창립당시 51개로부터 191개(2005년 현재)로 늘어났다. 그러나 안보리사회의석수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으며 특히 상임리사국은 5개국으로 고정되여있다.

활동면에서도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경제발전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을 강력히 제기하고있으나 유엔은 이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유엔이 낡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있으며 새로운 현실에 맞게 민주화되지 못한데 있다. 그리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개혁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을 민주화하는데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수를 늘일것을 주장하고있다. 이 문제는 오늘 유엔개혁에서 기본초점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발전도상나라들가운데서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하나도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주요국제문제취급에서 응당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결과 유엔은 렬강들의 독단과 전횡의 마당으로 되여왔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할수 없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결의는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고 도덕적인 권고에 그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을 민주화하는데서 현재의 상임리사국외에 그 수를 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의석수를 배당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유엔개혁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특별히 관심하는것은 경제개발문제이다.

지금까지 유엔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개발계획을 다그치며 남과 북의 차이를 줄이고 세계적범위에서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하지 못하였다. 결과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고있다. 그런데도 서방나라들은 유엔활동에서 사회경제발전문제를 뒤자리에 밀어놓고있다.

이것은 대국들이 의연히 낡은 지배주의적관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유엔을 계속 저들의 지배와 간섭의 도구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현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유엔을 경제개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를 적극 추동하는 기구로 만들것을 요구하고있다.

2009년 9월 15일 190여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한 유엔총회 제64차회의에서는 유엔개혁, 중동평화과정, 기후변화 등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2010년 유엔총회 제65차회의에서도 유엔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21세기는 다극화의 세기

지난 세기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랭전》이 종식된 후 세계를 《일극화》하려는 미국의 지배주의적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다극화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유럽동맹

유럽동맹은 경제, 정치, 외교, 군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유럽의 완전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지역통합기구이다. 전신은 유럽공동체이다.

1991년 12월 네데를란드의 마스뜨리흐뜨에서 진행된 유럽공동체 수뇌자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통합체인 유럽동맹을 창설할데 대한 기본합의가 이루어진데 기초하여 나오게 되였다. 마스뜨리흐뜨조약은 그후 성원국들의 국회비준, 국민투표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정식 효력을 가지였다.

유럽동맹은 유럽지역의 경제 및 정치통합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공동의 외교정책, 안전보장정책 등을 통해 국가간 협

력을 강화하고있다.

유럽동맹은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면서 1극세계를 노리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고있다.

유럽동맹은 2003년 방위수뇌자회의를 열고 나토를 대신하는 유럽기구창설문제를 심의하였으며 《유럽 안보 및 방위동맹》창설을 제안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해 5월 유럽동맹성원국 국방상들은 벨지끄에서 회의를 가지고 분쟁지역들에 전개될 독자적인 신속반응무력창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하였다.

2006년 4월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유럽동맹성원국 국방상비공식회의에서는 유럽동맹의 첫 《공동방위기금》을 창설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나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집단방위력을 건설하여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럽동맹의 움직임은 미국에 맞서는 하나의 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유럽동맹의 립장과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럽동맹안에서 자기의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독자적인 공동방위체계를 수립하여 미군무력을 주축으로 하는 나토의 틀거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울려나온것은 우연치 않다.

유럽동맹은 경제분야에서도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배격하고 자체의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 지역의 경제적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유럽나라들은 유럽의 경제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해 강력한 대미보복조치를 취하고있다. 그때 유럽동맹이 수십억US$어치의 미국상품들에 대한 보복관세부가조치를 취한것 등은 하나의 실례이다.

유럽동맹은 여러 국제문제들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높이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에스빠냐는 미국주도하의 이라크주둔 《련합군》에서 탈퇴하여 자기 군대를 2006년 여름에 전부 철수하였고 뒤이어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이에 합세하였다.

미국의 독단주의와 전횡을 견제하고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유럽동맹의 활발해지는 움직임을 두고 일본잡지 《세까이슈호》는 《랭전시대와 같은 미국—유럽관계는 부활되지 못할것이다. 유럽은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할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전하였다.

상해협조기구

상해협조기구는 2001년 6월 15일 중국의 상해에서 창설된 지역적인 다무적협조기구이다.

이 기구의 활동에서 기본목적은 성원국들사이의 신뢰와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것이다.

상해협조기구는 창설후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성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있고 권위있는 지역기구로 발전하였다.

창설후 근 10년간 상해협조기구는 내부응집력이 증대되고 대외영향력도 나날이 확대되여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서방의 언론기관들은 《상해협조기구를 동방의 나토에 빗대여 설명》하고있으며 《상해협조기구가 〈반미군사동맹〉으로 진화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이전 람스펠드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관계자들은 상해협조기구의 앞으로의 발전에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2004년 1월 기구의 상설기관인 서기국이 베이징에 개설되였다.)

전문가들과 공정한 여론은 상해협조기구의 확대가 유라시아대륙,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 경제발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한것이다.

중국, 로씨야, 인디아의 협조관계

중국과 로씨야, 인디아사이의 협력이 강화되고있는것은 미국의 일극세계화책동에 대처해나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의 반영이다.

이 나라들은 초기에는 주로 경제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였는데 미국의 독단과 전횡이 우심해짐에 따라 그 범위를 정치, 군사분야로 확대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로, 중, 인은 수뇌자회의, 외무상회의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접촉과 대화를 진행하여 협조의 폭을 넓혀나갔다.

1990년대말에 로씨야는 나토확대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창설계획에 맞서기 위해 로, 중, 인 3개국이 공동전선을 형성할것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실천단계에 있다.

중국과 인디아는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로씨야와 인디아사이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조가 강화되고있다. 2007년 인디아의 국경절을 맞으며 이 나라를 방문한 뿌찐대통령은 두 나라가 국방분야는 물론 에네르기협조와 우주연구, 핵개발 등 고도기술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에서 기본은 군사기술협조이다.

인디아는 소요되는 군사장비의 70%이상을 로씨야에서 구입하고있다.

군사기술령역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는 보다 신뢰적이며 본질적인 협조의 단계인 최첨단기술의 군수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데로 발전하고있다.

중국과 로씨야는 다극화된 새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로씨야의 뿌찐대통령(당시)은 《오늘의 세계는 모든 나라들의 리

익을 고수하고 다극화세계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대외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있으며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대처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2005년 8월 중, 로 두 나라 군대들사이에 대규모적인 합동군사훈련 《평화사명－2005》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미국은 로, 중합동군사연습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 훈련과정에 대한 정찰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로, 중쌍방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시도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로씨야와 중국이 처음으로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면전에서 자기들의 협조의지를 시위했다.》고 썼다. 그리고 정세분석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평화사명－2005》 로, 중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세계제패전략의 불가능을 시사해준다고 평했다.

그리고 보도들은 《로, 중 두 나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제패의 제한성을 워싱톤에 상기시키고있다.》고 전하였다.

중, 로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훈련은 2006년, 2007년에도 진행되였으며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지역나라들의 단결과 협력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공동체인 《아프리카합중국》을 창설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대륙의 발전전망은 아프리카인민들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단결하여 대륙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힘쓰고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도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 미국의 일극세계화책동에 대응해나서고있다.

2006년 6월 볼리비아의 라빠스에서 꾸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지도자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꾸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로 나가고있으며 자본주의를 파멸시키는것은 우리의 전략적과제이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것은 세 나라의 정책적립장과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정치적흐름을 반영한것이다.

한 외신은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사회주의바람〉이 불고있다. 사회주의와 반미주의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나라들의 출현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불쾌한 신호로 된다.》고 전하였다.

반미자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가입한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대안》(알바)은 미국의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시도에 대처하여 꾸바와 베네수엘라가 2004년 12월에 내온 경제협력기구이다. 볼리비아가 여기에 합세한 후 라빠스에서 첫 3개국 수뇌자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 베네수엘라대통령 챠베스는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대안》은 아메리카나라들에 있어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전략의 한 구성부분으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이 지역 나라들은 미국의 침략적이고 내정간섭적인 라틴아메리카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왔다.

2007년 11월에 있은 이베르－아메리카수뇌자회의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지배주의적책동에 맞서 지역나라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서로 굳게 단결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2008년 1월 베네수엘라대통령은 미국의 있을수 있는 침략에 대처할 지역공동무력창설을 주장하였다. 꾸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띠나 등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확산》,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책동에 반기를 들었으며 경제무역분야에서 미국을 배척하고있다.

2008년 1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대안》(알바)성원국 수뇌자회의에서는 알바은행을 정식 창설하였다. 알바은행은 알바성원국들이 경제무역활동에서 세계은행 등 서방금융기구들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설되였다.

이에 앞서 2007년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에네르기에 관한 남아메리카수뇌자회의에서는 대륙의 일체화를 실현하는것을 최종목적으로 한 지역협조기구인 남아메리카공동체를 남아메리카동맹으로 개편, 확대하기로 하고 그 상설서기국을 정식 내왔으며 에네르기분야에서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에네르기리사회를 조직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 남아메리카 7개 나라들이 남은행창설문건에 서명하고 실천에 옮겼다. 하여 남아메리카에서 경제적통합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좌익물결》이 계속 일고있다.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이 단결하여 미국을 반대하여 나서고있다.

세계의 다극화는 발전도상나라들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의 다극화를 추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국가련합이나 일체화된 지역들은 미국의 일극세계화를 견제하고있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2009년 6월 16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주도의 일극세계는 종말을 고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재 지속되고있는 지역적인 분쟁들과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일극세계질서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21세기는 미국의 《일극화》야망이 파탄되고 다극화가 실현되는 세기로 될것이다.

제 2 편 군사

십자군원정

십자군원정은 11세기말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유럽봉건령주들이 토지와 재부를 략탈하기 위하여 동방나라들에로 침략적군사원정을 진행한것을 말한다.

원정참가자들이 군기나 군복에 십자가표식을 한데로부터 십자군원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원정의 침략적목적은 동방이슬람교도들의 수중에서 《성지》 예루살렘의 《해방》과 《카톨릭교회의 보호 및 보급》이라는 기만적인 종교적구호로 가리워졌다.

카톨릭교회는 이슬람교를 구축하고 카톨릭교회의 세력을 확대하며 더 많은 토지와 재부를 략탈하기 위하여 《십자군원정》에서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이른바 《성지회복》이란 간판밑에 원정을 발기하고 조직한것은 로마법왕이였다.

국왕과 봉건령주들, 기사들, 지중해무역을 틀어쥐려는 이딸리아상인들이 이 원정에 적극 참가하였다. 초기의 원정부대들에는 봉건적압박으로부터 벗어나며 빼앗긴 자유와 토지를 동방에서 찾으려는 농민들도 망라되였었다.

동방나라들에 대한 략탈적인 《십자군원정》은 로마법왕 우르바누스2세에 의하여 1096년에 제1차원정이 선포된 후 제8차(1270년)에 걸쳐 감행되였다. 1212년에는 허황한 종교적선동으로 아동《십자군》까지 조직되여 동방침략에 나서게 되였다.

유럽의 왕들과 봉건령주들이 지휘하는 《십자군》들은 동방나라들에 침입하여 《그리스도교가 아닌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웨치면서 이슬람교도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략탈하였으

며 모조리 파괴하고 불살라버렸다. 제1차원정때에는 소아시아, 예루살렘을 강점하고 파괴, 략탈, 학살만행을 감행한 후 그곳에 《십자군국가》를 조작하고 여기에 속한 모든 토지는 유럽봉건령주들에게 분할되였으며 토착농민들은 농노로 전변되였다.

로마법왕 인노겐트3세의 호소에 따라 유럽봉건령주들에 의하여 조직된 제4차원정(1202－1204)에서는 《성지》회복이라는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그리스도교국가인 비잔찌아제국을 파괴략탈하여 이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그러나 8차에 걸친 유럽봉건령주들의 《십자군원정》은 패배로 끝났다. 이렇게 된것은 동방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의 강화, 유럽봉건령주들내부에서의 알륵과 불화 등에 원인이 있었다.

십자군원정은 동방의 재부와 문화를 크게 파괴하고 그에 손실을 주었다.

《십자군원정》이라는 말은 그후 이와 류사한 력사적사건들과 오늘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행위를 두고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백년전쟁

1337년부터 1453년까지사이에 영국과 프랑스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진행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프랑스측으로서는 반침략적성격을 띠였다. 전쟁의 중요원인은 프랑스가 자기 령토안에 있는 영국왕실령지를 차지하려고 한데 대하여 영국은 그 령지를 계속 유지하며 그밖의 땅을 더 빼앗아내려고 한데 있었다.

양털생산중심지인 플란드르를 지배하려는 량국간의 갈등도 전쟁의 한 원인이였다. 전쟁의 직접적동기로 된것은 프랑스에서 까뻬왕조의 대가 끊어진 후 필리프6세가 왕으로 된데 대하여 영국왕 에드워드3세(프랑스왕 필리프4세의 외손자)가 그보다 자신이 프랑스왕위에 오를것을 요구하여나선것이다. 프랑스가 이 요구를 거부

하자 영국은 1337년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은 여러차례의 휴전후 1415년에 다시 시작되였다.

이미 빠리를 점령한 영국침략자들은 프랑스의 남부지방까지 강점하기 위하여 1428년 오를레앙성을 포위하였다. 량국군대간에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프랑스의 광범한 피압박대중은 자발적으로 무장대를 조직하고 반침략투쟁에 나섰다. 애국적인 농촌처녀 쟌느 다르끄의 용감한 투쟁은 프랑스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오를레앙에 대한 영국군의 포위를 허물어버리게 하였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의 승리는 백년전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프랑스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은 쟌느 다르끄가 프랑스봉건귀족들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적들에게 체포학살된 후에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1436년 영국침략자들은 빠리에서 쫓겨났다. 1444년 일단 휴전이 이루어졌으나 1449년이후 련속 패배한 영국침략군은 1453년 10월에는 보르도에서 항복하였다. 이리하여 백년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였다.

아편전쟁

19세기 중엽 중국인민이 영국을 비롯한 유미자본주의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진행한 반침략전쟁이다. 중국에 대한 영국침략자들의 아편밀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기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18세기이후 영국의 《동인디아회사》는 인디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국에 밀수출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었다. 아편밀수량은 해마다 늘어나 1830～1833년에는 해마다 평균 2만상자(한상자 60㎏), 1836년에는 3만 5천상자로 늘어났으며 아편중독자는 1835년에 20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청국에 대한 영국침략자들의 대대적인 아편밀무역은 청국에서 아편중독자가 계속 늘어나게 하여 수백만의 중국인들을 페인으로 만들었을뿐아니라 막대한 량의 은이 해외로 흘러나가게 함으로써 봉건정부의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국의 아편밀무역으로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불안을 느낀 청국봉건정부의 황제 도광은 1839년 인민대중의 압력에 못이겨 림측서를 광주에 보내여 아편밀무역을 엄금하게 하였다. 림측서는 아편밀무역자들을 처형하고 놈들로부터 2만여상자의 아편을 몰수하여 불태워버렸으며 영국이 광주에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침략자들은 1840년 6월 군함 및 기타 배 40여척과 4 000여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강도적인 침략전쟁(제1차 아편전쟁)을 도발하였다.

청국인민의 항전에 부딪쳐 광주일대에서 격퇴당한 놈들은 북쪽으로 침공하여 8월에 천진에 육박하였으며 청국봉건정부를 위협하였다.

이에 당황한 황제는 저항파인 림측서를 철직시키고 투항파인 기선을 시켜 놈들과 굴욕적인 《천비조약》(광주휴전조약)을 체결케 하였다.

그러나 광주교외의 인민들은 《평영단》을 뭇고 200여명의 영국침략자들을 살상하였으며 동남부연해지방의 인민들도 완강히 투쟁하였다.

1842년에 침략전쟁을 다시 일으킨 영국침략자들은 상해를 강점하고 남경을 위협하였으며 1842년 8월에 청국봉건정부와 첫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을 강압체결하여 많은 침략적리권을 강탈하였다.

《남경조약》에 의하여 청국봉건정부는 광주, 상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떼주며 배상금 2 200만원을 무는 치욕적인 의무를 걸머졌다.

《남경조약》후 아편무역을 전중국에 확대하며 중국침략을 더 다그칠 기회만 노려온 영국침략자들은 저들의 밀무역선 《알로》

호가 봉건청국의 해군에 단속된것을 구실로 삼아 청국봉건정부에 강도적요구를 제기하고 광주교외에 대한 포격을 감행하여 제2차 아편전쟁을 도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침략자들도 선교사《사건》을 구실로 영국과 함께 침략전쟁에 끼여들었으며 미국, 짜리로씨야도 그것을 지지하였다.

영프련합군은 광주, 천진 등을 강점하고 베이징을 위협하였으며 1858년에는 청국봉건통치배들과 강도적인 《천진조약》을 각각 강제체결하였다. 《천진조약》에 의하여 봉건청국은 다시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여러 항구들을 개항하였으며 아편수입을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였다. 영프침략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청정부가 《조약》의 비준, 교환을 늦잡는다는것을 구실로 삼아 1860년 10월에 베이징을 강점하고 학살과 략탈 등 온갖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청정부에 또다시 《베이징조약》을 강요하였다.

《베이징조약》에 의하여 청정부는 《천진조약》을 인정하는 외에 홍콩대안과 구룡을 영국에 넘겨주고 천진을 개항하며 추가적인 배상금을 지불하는 치욕적인 의무를 지니게 되였다. 아편전쟁과 불평등조약들을 통하여 청국은 유미자본주의국가들의 반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미국－에스빠냐전쟁

이 전쟁은 1898년 미국과 에스빠냐사이에 벌어진 력사상 첫 제국주의전쟁이다. 이 전쟁의 도발자는 미국대통령 맥킨리와 당시 해군차관이였던 테오도르 루즈벨트였다.

남북전쟁후 미국에서는 10년동안에 산업혁명이 수행되고 공업이 빠른 속도로 장성하여 미국자본주의는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가 식민지략탈을 위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끊임없는 침략전쟁으로 넓은 지역을 차지한 미제는 아시아침

략의 교두보를 마련하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인디아제도와 태평양의 에스빠냐식민지를 탈취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전쟁의 기회를 노리고있던 미제는 2월 15일 꾸바의 아바나항에 있던 미국순양함 《메인》호를 저들이 폭파해놓고는 그 책임을 에스빠냐에 넘겨씌우고 4월 25일 선전포고를 하였다.

전쟁행정에서 미제는 필리핀 및 꾸바인민들의 반에스빠냐민족해방투쟁을 리용하여 에스빠냐군대를 손쉽게 격파하였다.

로쇠한 식민지제국인 에스빠냐는 련전련패하여 8월에 항복하였다. 그해 12월 빠리강화조약에 의하여 에스빠냐의 식민지였던 뿌에르또 리꼬, 괌섬 및 필리핀이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꾸바는 형식상《독립국》으로 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1899년 침략군을 파견하여 꾸바를 강점함으로써 이 나라를 실제상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필리핀인민들의 무장투쟁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이 전쟁은 미제의 강도적본성을 보여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 1914～1918년사이에 식민지재분할과 시장쟁탈을 위하여 제국주의렬강들사이에 벌어졌던 세계적규모의 제국주의적략탈전쟁이였다. 이 대전은 침략과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두 정치군사적집단 즉 영국과 프랑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협상국측과 도이췰란드를 우두머리로 하는 동맹국측사이에 격화된 모순의 결과로 일어났다.

전쟁의 동기는 1914년 6월 28일 쓰르비아의 청년이 싸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황태자를 죽인 사건이였다. 오스트리아는 사건의 책임이 쓰르비아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7월 28일 선전포고를 하였다.

도이췰란드는 8월 1일부터 4일사이에 로씨야, 프랑스, 벨지끄,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일본은 8월에 도이췰란드에 선전포

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에 이르러 협상국측에서는 34개 나라, 동맹국측에서는 4개 나라가 참가하였다.

전쟁에서 제국주의렬강은 저마다 각기 자기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목적을 노렸으며 그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4년 3개월 10일간 진행된 전쟁에서 협상국측에서는 4 500만명, 동맹국측에서는 2 500만명 모두 7 000만명의 군대가 동원되였다. 전쟁기간에 950만명이 죽고 2 000만명이 부상당하였으며 350만명이 불구자로 되였다.

전쟁에 투자된 자금은 대략 3 599억US$였다. 전쟁의 결과 자본가들은 막대한 리득을 보았다. 전쟁에서 미국독점재벌들이 가장 많은 리윤을 긁어들였는데 그것은 4년간에 30억US$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 도이췰란드가 프랑스의 꽁삐에뉴수림의 렬차칸에서 항복서에 도장을 누름으로써 끝났다. 1919년 6월 28일 빠리의 베르사유에서 쌍방간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였다. 전쟁은 렬강들간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전쟁기간에 로씨야에서는 사회주의10월혁명이 일어나 세계의 첫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1939～1945년사이에 세계민주력량이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 일본제국주의 및 그 동맹국들을 반대하여 벌린 반파쑈해방전쟁이다.

대전은 심각한 경제위기의 출로를 식민지에서 찾으려는 제국주의렬강들에 의하여 도발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파쑈도이췰란드와 그 동맹국들 및 미국,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측으로 볼 때에는 세계지배를 실현하려는 야망밑에 진행된 제국주의전쟁이였다. 전세계 민주력량이 반파쑈, 자

주독립을 위한 항전에 일떠섬으로써 이 전쟁은 반파쑈해방전쟁으로 되였다.

이 전쟁은 1939년 9월 1일 파쑈도이췰란드가 뽈스까를 침공한 후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가 도이췰란드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세계대전으로 번져졌다.

전쟁말까지 전쟁을 선포한 나라는 72개였다. 1941년말에 이르러 전쟁은 유럽과 북부아프리카, 태평양지역을 휩쓸었다.

도이췰란드는 쏘련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리였다.

쏘도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전투는 베를린함락작전이였다.

쏘련군대는 250만의 군대와 4만 1 600문의 포, 6 250대의 땅크와 장갑차, 7 500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를린을 공격함으로써 도이췰란드군의 70개 보병사단, 12개의 땅크사단, 11개의 모터찌클사단을 격멸하고 약 48만명을 포로하였다.

유럽에서 반파쑈해방전쟁의 승리가 확고해진 1944년 6월에 제2전선을 편 미제는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는 만행을 감행하여 전후문제의 처리에서 한몫 보려고 타산하였다.

1945년 5월 9일 파쑈도이췰란드가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쏘도전쟁은 쏘련의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벌린 항일무장투쟁과 쏘련의 대일전쟁참전, 아시아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전세계 반파쑈민주력량의 승리로 끝났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동원된 군대는 모두 1억 1천만명, 희생자수는 5 000만～5 500만명 그중 전사자수는 2 700만명이였으며 군사비와 전쟁손실액은 모두 4조US$, 그중 직접적군사비는 1조 3 840억US$였다.

전쟁의 결과 사회주의가 세계적체계로 전변되고 제국주의의 힘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으로써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는 일층 격화되였다.

도꾜군사재판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22일까지 도꾜에서는 군국주의 일본의 중요전범자들을 처벌하는 국제군사재판이 진행되였다.

이것이 력사에 널리 알려진 도꾜군사재판(정식명칭 극동국제군사재판)이다.

일제가 패망하자 반인류적범죄를 저지른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철저히 재판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 압력에 못이겨 《일본점령련합군총사령부》는 39명의 일제전범자들에게 체포령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 회부된자는 28명이였다. 그가운데서 2명은 재판받기 전에 죽고 한명은 재판중에 발광하여 재판에서 제외되였다.

재판끝에 내려진 판결에 의해 악명높은 군국주의괴수 도죠 히데끼 등 7명에게는 교수형, 16명에게는 종신금고형 그리고 2명에게는 각각 20년금고형과 7년금고형이 언도되였다.

도꾜군사재판의 판결은 철저히 집행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되살려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음흉한 타산밑에 극악한 반인류적죄악을 저지른 전범자들을 재판에서 빼돌렸다.

그리하여 최고의 전범자인 일본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범자들이 재판에 기소되지 않았다.

오늘 일본에서 군국주의망령이 활개치고있는것도 이때 살아남은 전범자들의 책동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전쟁광신자들의 말로

무쏠리니, 베니또(1883－1945) 이딸리아파쑈의 두목이였다. 이딸리아의 쁘레다삐오에서 야장쟁이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는 반동철학의 영향밑에 일찍부터 강렬한 권세욕에 차있었으며 철저한 개인주의로부터 무정부주의적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독점자본가, 반동적지배계급의 리익을 공개적으로 대변하여 제국주의전쟁에 이딸리아가 참전할것을 제창하였다. 무쏠리니는 1914년 11월 사회당에서 제명되고 1915년 5월 이딸리아가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그해 9월부터 졸병으로 군대에 복무하였으며 1917년에 부상을 당하여 제대되였다. 대전후 국내에서 혁명정세가 성숙하자 1919년 제대군인, 우익청년들로 《이딸리아전투사단》이란 파쑈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간판을 내들고 중산층 등 일부 계층을 끌어당기며 정권장악에 광분하였다.

무쏠리니는 1920년 9월부터 파쑈행동대(흑샤쯔부대)를 동원하여 로동조합과 사회당을 비롯한 민주주의적단체들을 폭력으로 습격파괴하고 진보적인사들을 마구 학살처형하였다. 1921년 5월 32명의 파쑈들과 함께 국회대의원으로 되였으며 그해 11월 《이딸리아전투사단》을 《국민파시스트당》으로 개편하고 그 두령으로 되였다. 1922년 10월 파쑈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여 국가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비밀경찰의 확대, 언론출판의 자유박탈, 파쑈당이외의 모든 결사의 금지, 로동조합의 탄압, 반파쑈력량을 교살하기 위해 특별재판소, 사형제도의 설치 등으로 파쑈독재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파쑈독재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식민지강탈에 미쳐날뛰였으며 도이췰란드편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딸리아의 패배, 국내

인민들의 반파쑈운동의 앙양은 무쏠리니파쑈독재를 파멸에로 이끌었다. 이딸리아의 독점자본가, 국왕, 군부는 국내에서 혁명운동의 폭발을 미리 막으며 이미 씨칠리아섬에 상륙한 미영제국주의련합군에 항복하여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할 목적밑에 무쏠리니를 1943년 7월 25일에 파면, 감금하였다. 무쏠리니는 9월 12일 파쑈도이췰란드군에게 구출되여 도이췰란드군이 강점한 북부이딸리아의 쌀로에서 새로 파쑈공화국을 조작하고 반대파를 처형하며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발악하였다.

그러나 파쑈도이췰란드군이 패주하게 되자 그와 함께 도주하던 무쏠리니는 1945년 4월 26일 꼬모호반의 작은 마을 동고에서 유격대에게 체포되였으며 4월 28일 북부이딸리아민족해방위원회 군사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그의 정부(애인)인 끌라라 뻬땃치와 함께 총살되였다. 무쏠리니의 시체는 그를 저주한 인민들에 의하여 밀라노광장에 목매여 걸려졌다.

히틀러, 아돌프(1889－1945)　 도이췰란드파쑈당과 국제파시즘의 두목이다.

세관관리의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애비가 죽은 후 윈미술대학에 지망하였다가 락제하고 윈과 뮨헨에서 일공품팔이군, 그림쟁이생활을 하였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지원병으로 도이췰란드군대에 들어가 상등병이 되였다.

1919년 파쑈당인 《도이췰란드로동자당》에 입당한 히틀러는 1920년에 배타적인 국수주의적구호와 기만적인 《사회주의》적 선전표어로 미화분식하였으며 복수주의와 인종주의, 《반공》 등을 설교한 《나의 투쟁》을 썼다.

히틀러는 나치스당의 세력을 급격히 늘이였다. 나치스당은 1930년에는 국회에서 제2당으로, 1932년 7월에는 총선거에서 제1당으로 되였다. 그는 1933년 1월 내각을 조직하고 그 수상으로 되였다.

히틀러는 정권을 쥐자마자 1933년 2월 악명높은 《국회의사당방

화사건》을 조작하여 공산당을 비법화하였다. 그리고 의회를 해산하고 나치스당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온 나라에는 게스타포에 의한 테로와 학살이 횡행하였다.

1934년 대통령 힌덴부르그가 죽자 자신을 총통 겸 수상으로 선포하였으며 련방제를 페지하고 《제3제국》을 수립하였다. 히틀러는 국내에서는 혁명운동의 진압과 군비경쟁에 미쳐날뛰면서 미, 영, 프 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1936년 에스빠냐공민전쟁에 대한 무력간섭과 1938년 오스트리아침공을 감행하고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

1941년 6월 쏘련을 침공하였으나 참패를 당하게 된 히틀러는 베를린함락을 눈앞에 둔 1945년 4월말 자기의 서기이며 정부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한 후 제국사무부지하실에서 자살하였다.

히틀러는 수천만명에 달하는 력사상 최대의 인간도살을 감행한 전쟁범죄자이며 가장 악독한 파쑈두목이였다. 그는 부하들에게는 철저한 순종만을 요구하였으며 매우 심한 히스테리로서 발작적으로 성을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변덕이 심한자였다고 한다.

도죠 히데끼(1884－1948) 일본의 악명높은 군국주의자였다. 도죠는 태평양전쟁의 도발자이다. 도꾜의 군벌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륙군대학을 나온 후 관동군 헌병사령관, 참모장, 륙군차관, 항공총감 등을 지내면서 중국침략을 확대하며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1940～1941년에 제2차, 제3차 고노에반동내각의 륙군대신으로 있으면서 군부내의 강경파로 침략전쟁의 확대를 고취한 도죠는 1941년 10월 내각을 조직하고 륙군대신을 겸한 총리대신으로 되였다. 그는 1941년 12월에는 마침내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1943년에는 문부, 상공, 군수대신까지 겸하면서 군벌개인독재체제를 세우고 태평양전쟁수행에 미쳐날뛰였다.

그는 일본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침략전쟁의 불길을 전체 중국과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확대하고 강점지역에서 야만적인 《3광정책》(모조리 죽이고 불태우고

파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44년초부터 참모총장까지 겸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하려고 최후발악을 하였으나 그해 7월 전선에서의 패전과 함께 총사직하였다. 일제의 패망후 수급전범자로서 극동군사재판에 회부되여 1948년 12월 23일 교수형을 당하였다.

웰남전쟁의 후유증

1960～1970년대에 있은 웰남전쟁은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 상처를 아직도 가시지 못하고있다. 웰남에서는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불발탄에 의하여 주민들이 약 1만 500명이나 사망하고 약 1만 2 000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국은 웰남전쟁시기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도시와 농촌, 산간지대에 대한 야수적폭격을 감행하였는데 이 나라의 령토에 1 500만t이상의 폭탄과 지뢰를 투하하거나 매설하였다. 그것들중 5%가 불발되였다. 이 불발탄들은 웰남의 사회경제발전에 막대한 부정적후과를 미치고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불발탄들때문에 많은 면적의 비옥한 토지들이 수십년동안 쓸모없이 묵고있으며 불발탄이 처리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하부구조정비사업도 하지 못하고있다.

2008년 현재 웰남 전령토의 약 20%인 660만ha(헥타르)에서 불발탄이 처리되지 못하였다. 현재 불발탄처리사업이 년간 2만～2만 5 000ha씩 진행되고있는데 이런 속도로 하는 경우 약 300년이 걸릴것이며 그 비용은 100억US$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한편 웰남전쟁시기 미제는 웰남의 무성한 열대산림과 전선들, 주민지대에 대한 화학전만행을 감행하였다. 웰남의 군대와 인민들이 산림에 의거하여 전투를 벌리지 못하게 하자는것이였다. 미제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지역은 순식간에 죽음의 지역으로 전변되였다. 미제에 의해 웰남전쟁에 끌려갔던 남조선괴뢰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

다. 미제는 저들의 전쟁대포밥으로 내몬 남조선괴뢰군의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웰남군대와 유격대를 《소탕》할 목적에서 남조선괴뢰군이 투입된 지역에도 화학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웰남에 파견되였던 남조선괴뢰군 1만여명이 미제침략군의 화학무기사용후과로 죽었다. 당시 생존자들속에서 암, 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는 무려 4만 4 000여명에 달하였다.

지금도 웰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미제의 화학무기사용과 고엽제살포의 후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있으며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있다. 고엽제에 의한 피해는 지어 웰남전쟁에 참가하였던 웰남군병사들의 손자대에까지 미치고있다.

《랭전》과 나토

《랭전》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발전도상나라들을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교란하고 국제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기 위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반동들이 들고나온 침략정책이다. 이 용어는 유엔원자력위원회 미국대표 비나드 버르크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1947년에 미국 부르죠아평론가 리프맨이 론평의 제목에 쓴 이후부터 널리 사용하게 되였다.

《랭전》이란 제2차 세계대전이전에 쓰인 《신경전》이란 말과 류사한것으로서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하는 무력전쟁인 《열전》과 구별하여 쓰는 말이다.

《랭전》에서 전형적인것은 전쟁발발직전에 위기를 조성하는 《전쟁접경정책》이다. 침략적인 군사동맹의 조작, 해외군사기지의 설치, 군비경쟁과 무력증강, 핵무기의 생산과 전개, 대량살륙무기에 의한 위협공갈, 《반공》사상공세, 군사 및 경제적 봉쇄 등은 《랭전》정책의 구체적표현들이다.

이전 쏘련의 붕괴와 함께 량극체계가 존재를 끝마친것으로 하여

사실상 《랭전》구조는 허물어졌으나 오늘 미제는 저들의 지배하의 일극세계를 추구하면서 《랭전》시기와 다름없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는 《랭전》시기에 침략적인 군사기구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조작하였다.

1949년 4월 4일 미국의 워싱톤에서 조작된 나토는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하며 유럽의 자본주의나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예속시킴으로써 자본주의세계에서 종속적결탁관계를 강화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기도의 결과이다.

처음 여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벨지끄, 룩셈부르그, 카나다, 뽀르뚜갈, 이딸리아, 노르웨이, 단마르크, 이슬란드, 그리스, 뛰르끼예, 에스빠냐가 참가하였다. 기구로는 각료리사회, 방위계획위원회, 상설리사회, 사무국, 군사위원회가 있다.

군사지휘기구들로는 유럽, 대서양련합군사령부들과 해협련합군사령부, 미국－카나다지역방위계획그루빠가 있다. 본부는 벨지끄의 브류쎌에 있다. 처음에는 본부가 프랑스에 있었으나 1967년 10월에 브류쎌로 옮기였다.

미제는 와르샤와조약기구가 1991년 3월 31일에 이 군사기구를 페지할데 대해 결정한 이후에도 나토를 계속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미제는 나토안에 《신속반응전개무력》까지 새로 조작하고 군사연습도 더 큰 규모에서 벌리고있다. 미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하기 위해 광분하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동유럽나라들인 뽈스까, 체스꼬, 마쟈르가 1999년에 나토에 가입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발뜨해연안나라들을 비롯하여 새로 7개국이 나토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현재 나토성원국은 28개 나라로 되였다.

미제는 오늘도 나토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모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군사기지

미국의 첫 해외군사기지가 생겨난것은 미국—에스빠냐전쟁이 끝난 후인 20세기초였다.

바로 그때 렬강들과의 해외군사기지 및 식민지쟁탈전에 뛰여들것을 제창한 《라쥐 폴리씨》(《원대한 정책》)가 당시 미국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에 의해 고안되였다.

그로부터 한세기에 걸친 미국의 력사는 이 나라 력사가 죠세프 게르쏜이 평한바와 같이 그야말로 《군사기지쟁탈전의 력사》였다.

2004년 미국방성이 공식발표한 년례보고서 《기지들의 구조》에 의하더라도 당시 미국은 약 130개 나라에 702개의 해외기지를 두고있었다.

미국내와 미국에 속한 령토들에 있는 기지들만 하여도 6 000개이상을 헤아린다.

그런데 본토의 미군무력은 본토방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해외작전을 위해서만 복무하고있다.

미군기지는 환경파괴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난의 온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동아시아지역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 미군의 《철수》, 《재배치》에 대해 떠벌이고있는데 그것은 미군사기지철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다.

실제로 미군사기지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새로 설치되고있다.

2009년 10월말 미국이 꼴롬비아와 군사기지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괌 도

괌도는 1521년에 발견된 후 1898년 《빠리강화조약》에 의하여 미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괌도는 일제침략군에 점령되였다가 1944년부터 다시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후 괌도는 미국의 아시아침략을 위한 중요군사기지로, 핵무기고로, 태평양지역에서의 정치, 군사적지배권획득을 위한 전략적거점으로 되였다.

2010년초 미국방성이 발표한 《평가보고서초안》에 의하면 괌도에 현대적인 병참시설들을 꾸려놓아 섬을 수용, 훈련, 장비 및 물자조달기능을 수행하는 《야전지휘통제기지》로 만든다고 한다.

미국은 괌도를 매우 중시하고있다.

그것은 괌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때문이다. 동쪽으로는 미태평양함대기지가 있는 하와이, 북쪽으로는 일본, 서북쪽으로는 대만, 서쪽으로는 필리핀을 두고있는 괌도는 미국에 있어서 서태평양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할수 있는 중요한 군사전략적요충지로 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괌도에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괌도를 중요한 대규모 륙해공군기지로 만들었다.

각종 미군사시설들이 섬의 총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미제7함대의 3개 중요기지중 하나가 괌도에 자리잡고있으며 북부에는 앤더슨공군기지가 있다.

여기에서 리륙한 미군의 전략폭격기는 10여시간안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그 어떤 목표도 타격할수 있다고 한다. 괌도중부의 아프라항은 미해군의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기지이다.

이 섬 중부의 아가냐에는 미해군항공기지가 있다.

이 기지 비행기들의 전투작전범위는 중국대북과 그 부근해역 등을 포괄한다고 한다. 이곳은 서태평양의 미해군의 공중정찰과

잠수함수색의 주요 출발지이다.

괌도미군기지는 미제의 서태평양군사기지체계에서 시종일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왔다.

지난 조선전쟁과 웰남전쟁시기 괌도는 미제의 주요 해상 및 공중전략기지로서 병력을 집결하고 탄약과 무기, 후방물자를 운반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랭전》이 끝난 후에도 괌도는 의연 중요한 군사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페르샤만전쟁과 이라크전쟁기간 이 기지가 중동지역으로 출동하는 미전략폭격기들의 주요 경유지로 되였다.

미국은 괌도를 군사적으로 더욱 중요시하면서 이 섬을 보다 거대한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려 하고있다.

괌도와 그로부터 동북쪽으로 떨어진 곳에다 미해병대와 륙군부대들을 위한 항구적인 기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를 확대하려는것을 비롯하여 무력재배치와 시설보강에만도 120억US$에 달하는 비용이 들게 된다고 한다.

이밖에도 항공모함들과 기타 함선들의 기항회수를 늘이고 비행훈련장을 건설하며 항들을 개건하는 이른바 《작전능력확대》안도 작성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괌도의 아프라항에 수심이 깊은 부두를 건설하여 원자력항공모함들이 드나들게 하려 하고있다.

괌도의 기타 장소들에도 무인기를 비롯한 비행기들, 《패트리오트》미싸일들이 배비된다고 한다. 즉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과 세계제패전략실현에 복무하는 괌도를 다목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괌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기지확장과 강화책동은 섬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끼나와

오끼나와는 일본의 서남부에 위치하고있는 류뀨렬도와 그 주변의 작은 섬들을 포괄하는 곳으로서 여기에는 나하를 소재지로 하는 일본의 한개 현이 자리잡고있다.

미제는 1945년 6월에 이곳을 점령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꾸리기 시작하였다. 1951년 9월 미국은 《대일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오끼나와를 저들의 《후견통치령》으로 선포하였다. 미제의 범죄적인 오끼나와강점책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과 아시아인민들의 투쟁이 높아지자 미일반동들은 1971년에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을 조작하였다.

그러나 오끼나와는 실지로 일본에 반환된것이 아니라 미제의 침략기지로 더욱 강화되였다.

오끼나와로부터 우리 나라까지의 거리는 괌도로부터의 거리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오끼나와를 제놈들의 작전기지, 병참기지, 보급기지로 리용한 미제는 이 섬의 전략적의의를 더욱 중시하면서 주로 우리 나라를 겨냥한 군사기지로 강화하고있다.

일본총면적의 0.6%밖에 안되는 이 섬에는 지금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가데나비행장을 비롯한 60여개의 미군기지가 집중되여있다. 4 000m나 되는 2개의 활주로를 가지고있는 극동최대의 미공군기지인 가데나기지에는 미군의 전술공군, 전략공군 그리고 해군 및 해병대의 항공대가 도사리고있다.

오끼나와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군무력중에서 주력의 하나는 미해병대이다.

미군에서 해병대는 함선을 타고 바다에서 전투를 하는 해군과 구별되는 병종으로서 보다 악질적인 살인자들로 무어진 특공대전투집단이다. 이 섬에는 미 제3해병사단을 비롯하여 1만 5 000명의 해병대무력이 집결되여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미국과 일본,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제1선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이 무력이다.

오끼나와를 대조선전략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적합한 최전방기지로 여기고있는 미제는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 8 000명을 2014년까지 괌도로 옮기기로 한 일본과의 합의실행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오끼나와에서 조선반도를 향하여 공격태세를 유지하고있는 또하나의 미군무력은 제18항공단이다. 여기에 소속되여있는 각종 전투폭격기들은 우리 나라 주변에서 벌리는 제놈들의 군사연습에 매번 빠짐없이 참가하여 조선반도 유사시의 공중작전계획을 검토, 완성하고있다. 2009년 미제가 남조선괴뢰호전광들과 벌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린것과 때를 같이하여 가데나미공군기지에 배비된 《F—22A랩터》스텔스전투기들은 일본《자위대》의 《F—15》전투기들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다.

2010년 미제가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와 결부시키면서 그를 구실로 우리 나라 바다에서 벌린 미국-남조선련합해상훈련에 참가한 남조선주둔 미공군의 《F—16》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한것도 가데나기지에 있는 《KC—135》공중급유기였다.

가데나미군기지에 배비된 《RC—135》전략정찰기를 비롯한 《EP—3》, 《WC—135W》, 《U—2》정찰기들은 조선반도의 전반상황을 항시적으로 정탐하고있다. 《U—2》고공전략정찰기는 우리 나라 군사분계선부근까지 날아와 돌아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립체적인 정탐활동을 감행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현대적인 전자기파신호정탐체계와 적외선망원경을 장비하고있는 《RC—135》전략정찰기는 조선동해상공에서 우리의 미싸일발사와 시험상황에 대한 정탐활동을 벌리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전례없이 팽팽하였던 2010년 5월 중순부터 가데나미군기지에 배비된 《RC—135》와 《EP—3》정찰기들은 매주 2～3회씩 조선반도상공에 날아와 우리 인민군대의 움직임을 감시하였다. 조선동해에서의 미국—남조선련합해상훈련때에는 이미 2개월전에 미국본토로부터 오끼나와의 가데나기지로 이동전

개하였던 최신예 《F-22A랩터》스텔스전투기 12대를 훈련에 참가시켰다. 이것은 대규모의 해상 및 공중무력에 의한 불의의 선제타격으로 우리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고 조선전쟁을 단기간에 결속지으려는 미제의 침략적인 작전적기도를 실현하는데서 오끼나와군사기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전쟁은 미국의 생존방식

미국에서는 경제위기와 전쟁이 항시적으로 동반되여왔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참가에로 이어졌을뿐아니라 그후 부쉬1세시기까지 전후 9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들도 모두 침략전쟁을 동반하였다.

1940년대말의 경제위기의 결과 조선침략전쟁이 감행되였고 1950～1970년대에 거듭되는 경제위기들도 웰남전쟁과 레바논, 도미니까에 대한 침공과 시기상 일치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초의 제8차, 제9차 경제위기들은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침공 그리고 만전쟁을 초래하였다.

미국은 전쟁의 불집을 터뜨려 유럽에 동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미국내의 투기자본이 이전되는것을 막을것을 타산하고 발칸지역의 유고슬라비아를 목표로 선정하여 1999년 3월 24일 나토의 공습을 주도하였다.

부쉬의 집권과 더불어 도래한 제10차 경제위기가 불러온것이 《반테로전》이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경기후퇴가 도래하는 경우 미국경제의 마지막돌파구는 언제나 《전쟁경제》의 가동이였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전쟁선포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전쟁경제의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9.11사건》이후 미국이 걸으로는 보복과 응징을

내세우고있지만 그 배경에는 전쟁경제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독점적고률리윤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놓여있다고 정확하게 평가하였다.

1991년 만전쟁이후 생산부진으로 골머리를 앓던 군수업체들에게 있어서 《반테로전》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것이였다.

《록키드 마틴》, 《보잉》, 《레이디온》 등 대군수독점체들을 포함하여 미국각지의 군수업체들이 호경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군수업체들에서 《환호》의 목소리가 연방 튀여나왔다.

《이라크전쟁이 우리에게 활기를 주었다.》

《전쟁은 곧 우리의 길이다.》

《미국경제는 전쟁을 동경한다.》

이라크전쟁비용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사이에만도 1조US$ 넘어섰다. 이것은 전쟁초기에 예상했던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것으로 된다. 이 모든것이 무기와 전쟁장비의 구입 등에 리용되여 미군수독점체들의 돈주머니에 흘러들어갔다.

미국은 군비경쟁에서 제일 앞장선 나라이며 세계무기수출량의 3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100개의 무기 및 군수기재수출회사중 41개가 미국의 회사들이다.

《미국이 공격당하였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7시 58분 보스톤의 로건비행장에서 《유나이티드 애어라인즈》항공회사소속 《보잉767》려객기 175호기가 려객 56명과 9명의 승무원을 싣고 리륙하였다. 뒤를 이어 《아메리칸 애어라인즈》항공회사소속 《보잉767》려객기 11호기가 활주로를 달렸다.

모두 대륙을 횡단하여 로스안젤스로 가는 려객기들이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워싱톤의 덜레스비행장에서 《아메리칸 애어라인즈》항공회사의 《보잉757》려객기 77호가 리륙하였고 뉴

욕시가까이에 있는 뉴와크비행장에서는 《유나이티드 애어라인즈》항공회사의 《보잉757》려객기 93호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때 뉴욕 맨하탄의 《월가》는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또 하루 치렬한 생존경쟁에 나선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증권거간군들과 금융가, 기업가들이 《월가》중심부에 높이 솟아있는《뉴욕의 마천루》인 세계무역쎈터에서 머리를 맞대고 투기모의를 하거나 일확천금을 꿈꾸고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의 동음이 울리였다.

강변을 걷고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커다란 《보잉》기가 낮게 떠서 쌍탑건물에 다가가고있었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있는 그 순간 려객기는 그대로 북쪽탑의 86층부근을 들이받았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앗.》하고 소리쳤다. 대악몽이 시작된 바로 그때가 8시 45분이였다.

북쪽탑을 들이받은 비행기는 려객과 승무원 92명을 태운 《아메리칸 애어라인즈》의 11호기였다.

첫 비행기가 세계무역쎈터의 북쪽탑과 충돌한지 21분후인 9시 06분 《유나이티드 애어라인즈》의 175호기가 남쪽방향에서 날아와 세계무역쎈터의 남쪽탑의 60층부근을 들이받았다.

《한참후에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반대켠으로 검붉은 화염이 뿜어나왔다. 거대한 화염방사기가 불꽃을 내뿜는듯한 모습이였다. 비행기머리부분이 건물반대켠으로 뚫고나온것 같았다.》고 목격자들은 말하였다.

쎈터의 쌍탑건물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것처럼 건물전체가 요동치며 흔들렸다. 내부에서는 불교의 지옥들인 《아비》와 《규환》을 합친 아비규환보다 더한 생지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건물안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행기가 건물을 들이받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폭탄공격사건이 또 일어난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것은 1993년에 이 세계무역쎈터의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형폭발물이 터지면서 6명이 죽고 1 000여명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이윽하여 대형려객기가 날아와 충돌하였다는것을 안 사람들은 순식간에 유독성연기로 가득찬 복도로 왁 밀려나와 승강기며 비상탈출구, 계단으로 엎치고 덮치면서 저저마다 미친듯이 달려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악몽같은 현실은 여기서만 펼쳐지지 않았다.

오전 9시 40분 덜레스비행장에서 리륙한 《보잉757》려객기 77호기가 미국방성청사 서쪽면을 들이받았다. 거의 같은 시간에 국무성청사에 대한 공격기도가 있었다는 미확인보도가 전해졌다.

오전 10시, 세계무역쎈터 쌍탑건물중 먼저 남쪽탑이 마치 건물폭파해체때와 같이 우에서부터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0시 29분에는 북쪽탑도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110층짜리 《뉴욕의 마천루》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곁불에 맞아 그옆에 있던 47층짜리 쎈터부속건물도 함께 무너졌다. 잔해에서는 삼단같은 먼지,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주변지역과 상공은 온통 재로 덮이였다. 마치 핵공격을 받은것만 같았다. 조명등을 비쳐도 1m앞도 분간할수 없었다.

《지금 뉴욕은 공중폭격을 받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도시들과 흡사하다.》고 프랑스TV방송은 보도하였다.

세계무역쎈터의 쌍탑건물이 차례로 붕괴된 그사이에 45명의 려객과 승무원을 싣고 뉴와크비행장에서 리륙한 《유나이티드 애어라인즈》항공회사소속 《보잉757》려객기 93호기가 펜실바니아주의 피쯔버그에서 추락되였다.

워싱톤과 뉴욕뿐아니라 미국의 전역이 삽시에 수라장이 되여버렸다. 백악관, 국회, 국방성, 재무성, 국무성, 중앙정보국에서 대피소동이 벌어지고 청사들이 폐쇄되였다. 또 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져서 워싱톤과 뉴욕은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행렬로 거리마다 혼잡탕이 벌어졌고 결국 도시에서 빠지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월가》의 주식시장이 문을 닫고 유엔본부건물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가 차단되였다.

미련방항공국이 나라의 전역에서 비행기의 리륙을 금지함으로써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국내의 모든 비행장들이 페쇄되고 민용항공기들의 비행이 금지되였으며 미국으로 향하던 외국의 비행기들도 기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시카고, 시애틀, 보스톤 등지의 마천루들에 대한 출입이 봉쇄되고 지방정부기관들과 학교들도 문을 닫았다. 휴대용전화와 인터네트가 《사용량폭주》로 마비되였다.

한편 9월 11일 오후에 이르러 워싱톤시내는 유령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주요 련방정부건물앞에는 바리케트가 설치되여있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거의나 보이지 않았다. 시내상공에서는 전투기와 직승기들이 굉음을 울리며 선회하고있었다.

미국은 1861～1865년 국내전쟁인 남북전쟁을 치른 후 수많은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지만 자기 령토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미국시민들이 죽은 전쟁은 당해본적이 없었다.

9.11사건은 남북전쟁이후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을 당한 미국《최대의 국가재난》이였다. 다음날 미국신문 《뉴욕타임스》는 1면에 굵은 활자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이 공격당하였다.》

정탐, 모략의 소굴들

현재 미국에서는 미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하여 15개의 정탐기관들이 활동하고있다. 이 모략기관들의 예산규모는 비밀에 붙여져있다. 다만 체계유지비만 하여도 한해에 400억US$를 넘는다는것뿐이다.

1. 미중앙정보국

미중앙정보국의 기본임무는 해외에서 비밀정보를 수집하며 반탐작전을 진행하는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특별서신명령이 있으면)

미국령내에서도 비밀작전을 진행한다.

미중앙정보국은 세계최대의 간첩모략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미국에 있던 《전략조사국》의 후신으로서 1946년 1월 《미중앙정보단》으로 발족하였으며 그 이듬해 9월에는 《국가안전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미중앙정보국》으로 되였다. 이 기구는 미국대통령에게 직속되고 대통령외에는 그 활동에 대해 간섭할수가 없다.

1949년의 《중앙정보국법》에 의하여 미중앙정보국은 미국회의 승인없이 돈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미련방재판소앞에서도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보장받고있다. 정보국의 성원은 어느 급의 재판소에서도 소환 또는 재판할수 없다. 정보국의 기구와 활동은 극비에 붙여지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청사만 하여도 34개로 분리하여 《국가인쇄국》이라는 간판을 걸게 하였으며 후에는 워싱톤으로부터 일체 철수하여 버지니아주 페이펙스군 랭그리숲속으로 옮기고 두리에다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높이 3.5m의 철조망을 둘러쳐놓았다.

미중앙정보국은 국내에 보통회사와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된 수십개의 지부를 가지고있으며 그외에 《안전보장국》, 《방위정보국》, 《륙군정보부》 등 수십개의 산하기관들을 두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의 해외지부는 상사, 교회, 자선단체, 연구소, 식당, 병원, 출판사와 같은 간판을 달고 발붙일수 있는 모든 지역에 분포되여있다.

본부성원은 1만 7천여명에 달한다. 20만명에 이르는 간첩들중 10만명은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국외에 파견되여있는데 여기에다 현지에서 고용된 첩자들까지 포함하면 국외지부성원은 수십만명을 헤아린다.

방대한 기구와 권한, 거미줄같은 정보망을 가진 미중앙정보국은 국내 진보적인사들을 감시하고 민주력량을 탄압하며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정변, 암살, 랍치, 와해책동 등으로 미제의 침략책동을 적극적으로 뒤받침해주고있다.

2. 미련방수사국

미련방수사국의 기본임무는 미국령내에서 반탐작전을 진행하는것이다. 간첩들을 침투시켜 각종 태업들을 미연에 파탄시키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으며 자본주의체제를 정보모략으로 안받침한다. 미련방수사국은 사법성망에 소속되여있으며 1908년에 창설되였다. 그러나 현재의 명칭과 권한은 1935년에 받았다. 1990년대말부터 해외에로 자기의 활동범위를 넓혔다. 본부는 워싱톤에 있으며 약 3만명이 근무하고있다.

3. 방위정보국

이 기관의 기본임무는 정탐 및 반탐정보들을 미국방성과 합동참모본부에 제공하는것이다. 또한 특수작전을 책임지고있다. 1961년에 국방장관의 제의에 따라 창설된 후 외국의 군사기지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작, 특수작전을 통한 내부교란으로 백악관의 침략정책을 보장하여왔다. 세계각국에 7 000명의 군인과 민간인첩자들을 가지고있다.

4. 국가안전보장국

이 기관의 기본임무는 정탐행위로부터 미국정부의 통신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기술작전을 조정하고 실현하며 다른 나라들의 통신수단을 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것이다.(도청, 전자정탐, 지도작성 등)

1960년대부터 꾸바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대화도청 및 서신거래탐지를 통해 매수작전을 벌려 자기의 첩자수를 늘이였다. 본부는 메릴랜드주에 있다.

5. 국가화상 및 지도작성국

2002년에 국가지구과학국을 개편하여 만들었다. 이 기관은 해당 나라들에 대한 화상자료와 지질정보를 국방성에 제공함으로써 행정부의 침략정책을 안받침한다. 본부는 메릴랜드주에 있다.

6. 국가우주정찰국

비공식명칭은 우주정찰국이다. 이 기관은 전체 정탐기관들을 위한 위성정탐계획을 담당하고있다.

이전 쏘련상공에서 미국정찰기 《U－2》가 격추되고 비행사가 체포된 후인 1960년에 창설되였다. 본부는 버지니아주에 있으며 정원은 약 3 000명으로 알려져있다.

7. 공군정보국

이 기관의 기본임무는 세계각국 공군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하는것이다. 1972년에 지금의 형태로 창설되였다. 정원은 1만 5 000명인데 주로 군인들이다. 본부는 텍사스주의 군사기지에 있다.

8. 해군정보국

주로 해군에 대한 정탐, 반탐, 조사사업을 진행한다. 1882년에 창설되였으며 미국의 첫 특수기관이다. 해상에서 이전 쏘련의 활동이 급격히 장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81년에 해군작전정보부와 해군감시 및 정보쎈터를 유일적인 해군작전정찰쎈터로 통합하였다.

정원은 약 1만 6 000명이다.

9. 해병대정보국

이 기관은 해병대의 군사작전진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예산액은 비밀이다.

10. 륙군정보국

미륙군에 정보를 제공하며 전세계의 미군사기구들을 지원한다.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대다수 첩자들이 죽었거나 체포된것으로 하여 지위가 눈에 뜨이게 약화되였다.

11. 미국연안경비대

미국의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다. 공식적으로는 국내안전성에 소속되여있지만 연안경비대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5개 군종중의 하나이다. 반탐작전도 진행한다.

12. 국무성 정보 및 연구국

국무성에 소속되여있는 정보 및 연구국은 정치 및 경제정탐과 국가안전문제를 담당하고있다. 이 기관은 미국의 다른 정탐기관성원들과 정보수집과정을 일치시키고 비밀작전작성에 참가하며 미국의 국가정탐계획작성에 참가한다. 256개의 해외외교대표부와 40개의 국내외교대표부에 자기의 첩자들을 두고있다.

13. 재무성 정탐지원부

이 기관은 국제재정 및 외화정보를 수집한다.

1977년에 창설되였으며 백악관이 저들의 침략정책실현을 위해 국제테로조직들을 지적해주면 그에 대한 자금통로들을 차단한다.

14. 국내안전성

이 기관의 기본임무는 미국령내에서 테로행위를 저지시키고 공격을 받을수 있는 약점을 줄이며 테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입는 손실을 최소화하며 사활적으로 중요한 하부구조대상들을 신속히 복구하는것이다.

이 기관은 2001년 《9.11사건》이 있은 뒤 2002년에 조직되였다. 2003년 3월경에 정원이 약 18만명이였다. 이 기관은 또한 핵, 방사성, 화학 및 생물오염대상에 대한 환경감시를 진행한다.

15. 에네르기성

기본임무는 국제에네르기에 대한 정치, 경제 및 기술자료들을 수집하는것이다. 성의 기구에는 해외첩보부가 없지만 해외에 출장가는 성의 매 사람은 무조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1977년에 조직되였으며 정원은 약 10만명이다.

이 기관은 다른 나라들의 핵에네르기분야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핵시험통제체계를 작성하는 사업에 참가하며 각국의 핵무기와 새로운 핵기술제작분야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업을 조직하고 분렬성물질납입국들의 활동을 정탐한다.

《GPS》의 흑막

2006년초 유럽에서 전지구위치측정체계인 《갈릴레오》계획실현의 한 고리로 첫 인공지구위성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유럽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이에 대해 보도하면서 앞으로 《갈릴레오》계획에 따라 30여개의 위성이 발사된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하여 아니꼬와하는 눈길로 대하였다. 미

국은 전지구위치측정체계의 개발을 둘러싸고 20세기 70년대부터 이전 쏘련과 치렬한 경쟁을 벌려왔다.

《랭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GPS》를 민수용으로 개발하는 한편 그의 응용범위를 군사부문에로 확대하였다. 《GPS》는 미국의 중요산업의 하나로 되였으며 미국은 여기에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되였다. 그러면서 《무료제공》의 명분을 내걸고 유럽을 저들의 《GPS》에 적지 않게 의존하게 하고는 유럽나라들이 체계신호수감설비 등을 비싼 값으로 살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GPS》의 핵심을 틀어쥐고 그것을 일체 비밀에 붙이는 한편 군사적우선권을 떠들면서 필요할 때에는 유럽이 리용하는 《GPS》에 제 마음대로 손을 대군 하였다.

미국은 우주항공기술분야에서 독점적지위를 리용하여 《GPS》를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였다.

이것은 유럽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의 우주통제권에서 벗어나려는 유럽동맹의 결심이 굳어졌다. 유럽동맹은 미국의 《GPS》에 맞서 《갈릴레오》개발을 추진시킴으로써 우주항공분야에서의 미국의 독판치기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어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각지에서 온 항공, 통신, 자동차, 금융, 농업 등 각이한 부문의 과학자, 전문가들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갈릴레오》토론회가 진행된 후 유럽동맹운수상리사회에서 유럽의 독자적인 전지구위치측정체계인 《갈릴레오》의 개발이 정식 결정되였다.

당시 20여개의 인공지구위성들을 통해 지구를 감시하고있던 미국의 《GPS》는 주로 군수용으로 리용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밀도가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공개신호, 상업신호, 생명안전신호 등의 제공은 불충분했다.

미국은 유럽동맹이 《갈릴레오》개발을 결정하자 즉시 《2개의 체계가 경쟁하는것은 헛된 일》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GPS〉에도 개량계획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전세계의 요구에 응할수 있다. 〈갈릴레오〉를 왜 구축하여야 하는지 알수 없

다.》고 시비하고 제동을 걸었다.

미국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유럽동맹은 빠른 속도로 《갈릴레오》개발을 다그쳤다. 여기에 중국과 인디아 등 여러 나라들이 합세하였다. 마침내 훌륭한 결실을 이룩하여 첫 인공지구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케트가 우주에 성과적으로 날아올라 미국의 《GPS》에 도전하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갈릴레오》가 많은 면에서 미국의 《GPS》의 성능을 릉가한다고 평하였다. 지구상의 목표를 확정하는데서 오차범위만 놓고보아도 유럽의 《갈릴레오》는 1m이지만 미국의 《GPS》는 10m라고 하였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정확성에 있어서 미국의 《GPS》는 도로를 찾을수 있지만 《갈릴레오》는 달리는 승용차의 문을 분간할수 있다고 비유하였다.

유럽의 《갈릴레오》 대 미국의 《GPS》와의 치렬한 경쟁은 단순한 과학기술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통제권과 패권주의적 정책을 배제, 견제하며 독자성을 지향해나가려는 유럽의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다.

현재 미국의 《GPS》체계에 대해 중국의 북두항행유도계통, 유럽의 《갈릴레오》체계, 로씨야의 《글로나쓰》체계가 맹렬히 추격전을 벌리고있다.

《에쉘론》을 통한 도청

《에쉘론》이란 미국의 주도하에 통제운영되는 서방렬강들의 전자도청장치의 암호명이다. 전지구를 포괄하는 이 통신감시체계는 세계도처에 보이지 않는 마수를 뻗치였다.

《에쉘론》은 《랭전》시기 이전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정치, 외교, 군사, 통신을 도청하기 위하여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중심이 되여 창설하였으며 영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이 가담하여 은밀히 운영되여왔다. 그리고 과학기술발

전과 함께 1970년대이후에는 그 성능도 급격히 높아졌다.

1970년대초에는 《에쉘론》에 수만명의 간첩들과 세계각지에 널려있는 전자첩보망들, 무수한 선박, 비행기 그리고 120개의 우주간첩기구들이 망라되였으며 10개의 강력한 도청기지들이 소속되였다.

《에쉘론》을 통한 도청행위는 지상과 지하, 바다밑, 우주공간 등 모든 령역에서 감행되여왔는데 지구상에서 오가는 정보를 매일 수천만건씩이나 감청하였다.

《에쉘론》의 도청안테나는 오래전에 이딸리아, 영국에 설치되였으며 1970년대초부터는 인공위성과 해저케블이 도청장비로 리용되였다. 영국의 위성기지는 대서양과 인디아양상공에서 교환되는 통신을, 지중해해저케블은 유럽과 서부아프리카간의 통신을 장악하였다. 《에쉘론》설비는 도이췰란드와 일본에도 있다.

《에쉘론》은 120개의 첩보위성을 골격으로 하여 전화, 팍스, 무선통신, 전자우편 등 모든 종류의 통신을 도청할수 있을뿐아니라 콤퓨터 등 인공지능을 리용해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할수 있다.

《에쉘론》을 통해 도청된 모든 정보는 미국가안전보장국에 집중되는데 여기서 정보의 번역, 구분, 선택과정을 거쳐 백악관을 경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의 일반기업체들에까지 전달되고있다.

2001년말 현재 《에쉘론》간첩도청설비들은 관련국가령토내의 11개 장소에 배치되였는데 감시망의 본부는 영국 요크셔의 맨위드힐기지에 있다. 성능이 가장 좋은 유럽담당기지에는 1 000명이상의 미국인이 일하고있다.

원래 미국은 《랭전》시기에 《에쉘론》의 강력한 기구와 기지들을 통하여 각국의 모든 통신들에 대한 도청을 일삼아왔다. 그러다가 《랭전》이 끝나자 《에쉘론》은 미국의 경제적경쟁국들에 대한 감시와 경제관계정보를 수집하는데뿐만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정치운동이나 그 활동가들에 대한 정탐행위에도 리용되였다. 특히 미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동맹국들을 누르고 저들의 경제적우위, 상업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비렬한짓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1990년대말 프랑스항공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60억US$의 비행기구매계약사업을 벌리자 《에쉘론》을 통해 그 내용을 탐지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보잉》항공회사에 통보해주었으며 결국 《보잉》회사가 뢰물작전 등으로 프랑스를 밀어내고 비행기구매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기에 프랑스의 통신회사가 브라질에 일련의 설비를 판매할데 대한 회담을 진행할 때에도 판매가격 등 계약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내고는 브라질측에 자기들의 《유리》한 조건들을 제의함으로써 14억US$에 달하는 이 주문을 저들의 손안에 넣었다.

1990년대 일본회사가 인도네시아와 2억US$의 무선통신망계약을 체결하자던것도 미국첩보기관들이 《에쉘론》을 리용하여 회담내용을 탐지해내는 바람에 파탄되고말았다.

미국은 유럽동맹을 상대로 벌린 《에쉘론》경제정탐활동으로 1990년대초부터 10년사이에만도 무려 500억US$의 리득을 보았다.

강자가 약자를 물어메치는 식의 미국의 전횡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일본산자동차수입협상, 프랑스와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가트》협상, 세계무역기구회담 등에서도 저들이 유리한 립장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에쉘론》을 리용함으로써 파렴치하고도 추한 몰골을 드러냈다.

미국은 《에쉘론》을 리용하여 경제정탐행위를 하였을뿐아니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정치활동가들과 조직,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보호단체들과 인권옹호단체들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하여왔다.

실례로 미국은 한때 자기들에게 엇서나가는 프랑스와 이딸리아외교관들사이의 대화를 항시적으로 도청하여왔으며 영국의 다이아나황태자부부가 발전도상나라들을 방문한다고 하여 그를 체계적으로 감시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영국제무기공급을 말아왔던 이전 영국수상 태쳐의 맏아들에 대한 자료들도 손금보듯 거머쥐였다.

지어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정계인물들에 대한 도청행위까지 《에쉘론》을 통해 하여왔다. 이를테면 국회상원의원들의 모든 전

화대화를 도청하고 정부고위성원들의 동향을 탐지하는데도 《에쉘론》을 리용하였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

세계제패는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이다.

반동적세계전략을 추구하는 미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미국의 리익》을 위한 《사활적인 지역》으로 여기고있다.

미국은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특별히 중시하면서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실현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는 국회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것만큼 우리의 정책은 미국이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것으로 될것이다.》라고 떠벌이였다.

미국외교당국자는 하와이의 호노룰루에 있는 동서방쎈터에서 연설하면서 《미래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관계되며 미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에 달려있다. 그 어느 국가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지 못할것이다.》고 하였다.

《지역강대국》이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쟁자, 도전자들을 군사적으로 압박, 견제하고 패권적지위를 차지하려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전략이다.

미국반동지배층은 오래전부터 《태평양의 통치권은 반드시 미국에 속해야 한다.》, 《태평양과 아시아는 마땅히 미국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힘에 기초한 미제의 세계전략의 기본전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

미강경보수파의 주요인물인 브레진스키는 세계지배를 위하여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 이렇게 떠벌인바 있다.

《미국이 세계적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개 전역에 자기의 존재를 확보해야 한다. 그 세 지역은 첫째로, 동서유럽이 부딪치는 도이췰란드지역, 둘째로, 미쏘간의 군사력이 충돌하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 셋째로, 조선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지역이다. 이곳에서 미국의 지배를 공고히 해야 세계제국이 될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정학적 및 전략적면에서 미국이 절대로 홀시할수 없는 지역으로 되고있다. 여기에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적수로 되고있는 대국들이 집중되여있다. 인구수에서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이 지역에서는 반제자주력량, 사회주의력량이 주력을 이루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는 곳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책략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확보여부에 따라 저들의 세계전략의 승패가 좌우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정책은 미제의 21세기 세계정복전략의 중핵이며 기둥이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아시아태평양정책을 통하여 힘으로 이 지역의 대국들을 누르고 세계《유일초대국》지위를 유지강화하려 하고있다.

《반테로전》을 통해 이미 틀어쥔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전선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을 다른 한 전선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고 억제와 압박작전을 강화하려는것이 미국의 음흉한 기도이다. 말하자면 미국을 《지역강대국》으로 하여 《피라미드》형지배체계를 수립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통제하자는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정책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세계정복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의 관문인 조선반도를 완전히 틀어쥐지 않고서는 아시아대륙을 지배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할수 없다고 간주하고있다. 조선반도를 장악해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세계를 정복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전략적의도이다.

미제는 아시아태평양정책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지배와 자원독점야욕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풍부한 전략자원을 가지고있다. 페르샤만지역은 유망한 원유, 천연가스산지이다. 아세안지역은 천연고무, 주석 등에서 손꼽히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륙붕과 바다밑에는 막대한 원유와 유색광물자원이 있다.

미국은 이처럼 풍부한 전략자원을 장악하여야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군수공업의 원료, 연료를 충당하고 경제장성을 보장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의 세계자원독점정책실현의 기본무대로 지목되고있다. 미제는 자원전쟁의 방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자원독점권과 경제적지배권을 확립하고 그에 의거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 하고있다.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은 그 침략성과 반동성으로 하여 커다란 위협성을 내포하고있다.

우선 새로운 군비경쟁, 《랭전》을 몰아오고있다.

원래 군비경쟁, 《랭전》정책은 미제의 침략적대외정책, 세계제패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군비경쟁과 《랭전》을 조장격화시키는것을 통하여 침략과 간섭의 구실을 마련하고 지배권을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백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수십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다. 그 대부분 무력이 북

태평양으로부터 남조선과 일본, 괌도를 거쳐 인디아양과 홍해에 이르는 광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결되여있다.

전략무기배비밀도가 가장 조밀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방대한 미군무력이 계속 전개되면 군사전략적균형과 안정이 심히 파괴될것이다. 그것이 여러 나라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무력강화와 현대화에 힘을 넣고있다.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은 첨예한 군사적대결구도를 산생시키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일본, 남조선과의 《우호 및 동맹관계》강화는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적결탁인 동시에 군사적대결구도수립책동이다.

미제의 조종하에 추진되고있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조선반도유사시 북침전쟁에 일본《자위대》무력을 동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토는 《랭전》종식후 미국에 의한 대로씨야포위환전략에 따라 동유럽지역에까지 확대되였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과 군사적결탁을 강화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지역적군사쁠럭을 내올 심산이다. 미제는 이것을 통해 저들 주도하의 군사쁠럭들을 동서 두 지역을 포괄하는 세계적범위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을 축으로 하는 반동적군사쁠럭이 조직되고 실제로 가동하는 경우 《랭전》시대에 대등하거나 그보다 더 위험한 군사적대결구도가 형성되게 될것이다. 그로 하여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전쟁을 포함한 파국적인 사태가 빚어질수 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유사시 5 000문의 포, 60여척의 전투함선, 수백대의 전투기, 수많은 각종 미싸일, 제7함대를 동원하는 한편 하와이, 괌도, 일본본토와 오끼나와, 미국본토의 무력을 포함한 69만명의 침략군을 투입하려 하고있다.

미 제2사단의 타격력과 기동력을 훨씬 높여 원거리작전까지 수행할수 있는 《미래형사단》으로 재편성한 상태에서 남조선강점 미

군무력이 한강이남지역으로 이동전개되고있다. 이에 병행하여 주일미군무력이 《신속기동군》으로 재편성되고있다.

중장거리타격작전으로 상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것을 새로운 전쟁수법으로 내세우고있는 미제는 일본과 그 주변에 미싸일방위체계를 대대적으로 구축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의 새로운 조선전쟁, 세계정복전쟁흉계에 따르는것이다.

미제가 추구하는 대조선전쟁전략은 곧 핵전쟁전략이다. 핵무기를 전략적기둥으로, 힘의 정책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수단으로 삼고있는 미제는 핵선제공격을 조선전쟁의 기본방식으로 정하고있다.

미제의 핵전쟁계획에 따라 남조선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방대한 핵무력이 집결되여 우리 공화국을 겨누고있다. 남조선강점미군이 보유하고있는 1 000여개의 핵무기수는 유럽지역에 배비된 미국핵무기수의 5배이상에 달한다. 그리고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지휘권한은 이미 현지 미군사령관이 가지고있다.

미제는 지난 시기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경제적고립과 질식, 심리전, 군사적압박 등 각종 수법을 다 써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미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써볼수 있는 수는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는것뿐이다. 그러자면 그럴듯한 구실과 명분이 필요하다.

세계정세와 지역정세는 호상련관되여있다.

매개 지역정세는 세계정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선반도정세악화로 아시아와 세계정세가 긴장해지고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있다.

그 화근은 미제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정책에 있다. 미제가 아시아태평양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사태는 보다 심각해지고 무장충돌과 전쟁은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각성되여있는 아시아인민들은 미제의 반동적아시아태평양정책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제는 자주와 진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을 절대로 억누를수 없다.

로씨야포위환

지난 시기 《랭전》은 쏘미대결로 이어졌으며 쏘련이 해체된 후 인류는 《랭전》이 사라진것으로 생각하였다.

2006년 7월 미국회하원은 《랭전승리》메달을 제정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미국 상원의원 죤 맥케인은 미국이 싼크뜨-뻬쩨르부르그 8개국수뇌자회의에 참가하지 말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회의에 간다면 《도수가 넘게 행동하는 로씨야의 코대를 꺾어놓기》 위해 가야 한다고 지껄이였다. 이것은 미국이 《랭전》에서 이겼다는것을 자국인민들에게 상기시켜주는것과 함께 새로운 《랭전》을 벌리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된다.

로씨야신문 《크라스나야 즈베즈다》(2006년 7월 12일)는 《랭전의 장벽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90년대초부터 워싱톤은 민주당시기는 물론 공화당시기에도 쏘련이후의 로씨야에 대해 2개의 완전히 반대되는 로선을 견지하여왔다.》

신문에 따르면 하나의 로선은 《외형상 친선적인 로선》이고 다른 하나의 로선은 이전 쏘련에 대한 미국의 로선보다 더 호전적이고 비타협적인 로선이다.

실제로 미국은 《전략적동반자관계와 친선관계》를 수립한다는 로씨야와의 약속을 어기고 교만한 훈시를 하며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로선을 견지해왔다.

무엇보다 미국은 강력한 로씨야건설을 방해하여왔다. 2006년 7월 당시 미국 부대통령 체이니는 리뜨바방문과정에 로씨야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민주주의에로 돌아서든지 적으로 되든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의 이런 발언을 두고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쏘련을 〈악의 제국〉으로 묘사하였던 레간집권이래 미

국이 로씨야를 지금처럼 로골적으로 비난한적은 없었다.》고 썼다.

당시 미국무장관 라이스와 국무차관 번즈도 로씨야는 《민주주의보장을 위해 권력이 크레믈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깝까즈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대해 로씨야가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로씨야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섰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보장》문제 등 별의별 구실을 다 내걸고 로씨야의 세계무역기구가입을 한사코 방해하였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소장은 오늘에 와서 미국이 로씨야에 대해 《전략적동반자관계》, 《친선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로씨야에 대해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는것은 로씨야에서의 그 무슨 《독재강화》와 《민주주의퇴보》에 있는것이 아니라 로씨야가 점차 강해지면서 주동적이고 독자적인 대내외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해 경계심과 위구심을 느끼고있기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랭전》종식후 세계정치구도는 많이 달라졌다. 여기에서 특징적인것은 《2개 초대국의 경쟁》이 없는것이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로씨야는 자주적인 나라, 미국의 리익에 저촉되는 정치를 실시하고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하여 로씨야의 국제적영향력은 갈수록 커가고있다. 그리고 에네르기분야를 비롯하여 나라에서 질서를 세우며 민족적리익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로씨야의 지향은 미국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다.

2006년 미국 민주당소속 국회의원 죤 에드워즈가 지휘한 국제관계리사회 《실무그루빠》가 준비한 보고서에서는 미국－로씨야관계의 《실망적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로씨야와의 《동반자관계》구상도 완전히 배격하였다. 그러면서 보고서작성자들은 미

국이 《랭전》시대의 《견제정책》에로 되돌아갈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방향에서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도 움직이고있다.

미국잡지 《뉴스위크》(2006년 4월 12일)는 《격돌하는 미국과 로씨야, 다가오는 새로운 랭전》이란 제목의 글에서 로미관계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랭전이 다가오고있다.》고 표현하였다.

사실상 《랭전》을 실감케 하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미국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중앙아시아 등 로씨야주변에서 군사기지, 정보쎈터, 전파탐지소설치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였다.

미국주도하의 나토는 나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동유럽나라들을 나토에 가입시켰고 이전 쏘련가맹공화국들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미국이 대로씨야포위환을 다그치고있는것은 로씨야를 최단기간내에 압박하고 녹여내여 저들의 요구에 고분고분하도록 만들려는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이미 미국은 9.11사건이 터지자 《반테로》의 구실밑에 까스삐해지역에 간섭의 마수를 뻗치였다.

까스삐해지역을 장악한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루지야에도 검은 손길을 뻗치였다.

이미전에 그루지야에서 《장미혁명》을 조작했고 수많은 장비와 자금을 제공한 미국에 있어서 흥미를 끄는것은 《아제르바이쟌과 그루지야에 있는 이전 쏘련의 공군기지들이다. 이 기지들은 중동에서의 작전뿐아니라 이란과 로씨야국경을 까스삐해상공에서 공중정찰하는데 리용될수 있다.》고 로씨야의 한 신문은 전하였다.

로씨야의 전략적공간을 끊임없이 제약하기 위해 미국은 오래전부터 모색해온 군사작전을 실천에 옮기였다. 그중의 하나가 로씨야와 린접한 지역에 대한 미군재배치와 미싸일방어망구축이다.

동유럽나라들에로의 미군기지들의 전진배치는 로씨야의 지정학적형편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실제상 로씨야의 전체 유럽부분에 나토의 전략적수단뿐아니라 전

술적수단들도 와닿을수 있다.

미국의 로씨야주변지역에 대한 미군재배치계획을 론하면서 부쉬행정부의 국방장관이였던 람스펠드는 《미군은 로씨야의 가까이에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바싹 조이려는 미국의 의도를 까밝히면서 로씨야의 한 군사전문가는 《로씨야를 둘러싼 나토와 미국의 군사기지망이 좁혀지고있다. 게다가 2중환이 조성되고있다. 외부환은 나토의 군사력이고 내부환은 발뜨해연안과 동유럽나라들을 통과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벌어지고있는 로미사이의 《랭전》은 이전 《랭전》의 부활이고 연장이라고 볼수 있다. 이전에 미국이 추진하던 《쏘련죽이기》정책이 고스란히 《로씨야죽이기》정책으로 이어지고있다.

대로씨야포위환을 형성하고 로씨야의 능력을 제한하며 억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로씨야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고있다.

중국포위환

미국은 21세기는 《미중대결의 시대》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박을 추구하여왔다.

2006년 5월 23일 미국방성은 2006년도 《중국군사력에 관한 년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방성은 중국은 대만과 가까운 해안에 단거리탄도미싸일을 이미 710～790기를 배비하여놓았다는것, 중국의 실질적인 국방예산이 공포액의 몇배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것, 중국의 군사력현대화가 미국의 잠재적위협으로 된다는 등 《중국위협론》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러루한 《년례보고서》는 해마다 발표되였다.

《중국위협론》은 어제오늘 제기된것이 아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위협론》에 대해 제창하여왔다. 그때마다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평화적발전의 길을 견지하고있으며 주권국가로서 국가안전과 령토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건설을 진행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지적하군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위협론》을 국제사회에 계속 퍼뜨려왔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언론을 부추겨 《중국위협론》을 여론화하여왔다.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전진하고있는 중국이 국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중국의 이 현실을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는 미국은 《중국위협론》을 통해 중국이 시종일관 실시하고있는 대외정책의 평화애호적인 성격을 흐려놓으며 아시아나라들과 중국사이의 대립과 불신을 조장시키려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발전에 제동을 걸려 하고있으며 손쉽게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려고 책동하고있다.

2006년 6월 미국무성은 안전보장상문제를 걸고 뉴욕에 있는 중국계기업의 콤퓨터도입을 중지시켰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정책의 발로이다.

미국은 대만독립을 반대할것이라고 공약하고서도 대만독립을 꾀하는 세력의 반통일, 분렬주의적책동을 적극 부추김으로써 대만해협량안관계발전을 저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고 하고있다. 그리고 음으로양으로 대만의 군사력강화를 부추기며 도와주고있다. 2010년 1월 대만에 64억US$규모의 무기판매를 선포한 미행정부의 조치는 그에 대한 뚜렷한 립증으로 된다. 이런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위협론》을 내걸고 일본에 무기와 군사기술을 넘겨주며 일본《자위대》무력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을 허용하고 부추겨왔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대중국포위환형성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있다.

2006년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지역안보회의에는 당시 미국방장관 람스펠트, 미중앙정보국의 고위관리들이 참가하였다. 미국측은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 국방상들과의 쌍무비공식회담을 진행하였다. 론의된 문제들은 미국의 군사협조제공문제였다. 이어 7월 14일 중국과 국경을 같이한 웰남을 방문한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 윌리암 폴론은 웰남국방상 풍 꽝 타잉과의 회담에서 두 나라 해군이 해상에서 수색, 구조작전공동훈련진행 등 군사관계확대를 위한 몇가지 조치들을 제의하였다.

군사가들과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의 적대국이였던 웰남과 미국사이의 군사관계조치들이 단순한 군사관계의 진전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고 평했다.

이미 미국은 중국주변국과의 군사협력관계를 마련하였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행동은 대중국포위환을 노린것이다. 2006년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은 몽골에서 《왕의 원정-2006》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일본신문 《산께이신붕》(2006년 8월 22일)은 이에 대해 전하는 글에서 중국측은 《미국이 몽골을 자기편에 끌어당기려 하고있으며 이는 대중국포위망형성》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계속하여 몽골,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미중의 《신경전》이 전개되고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을 같이한 나라들과의 군사적협력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을 한강이남으로 배치하는것과 함께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군》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남조선주둔 미군의 작전범위를 조선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중국의 대북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그들을 전략군, 기동타격군으로 써먹자는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현대화가 미국의 잠재적위협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를 제압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왔다. 그 하나가

중국에 대한 군사정탐이다.

오래전부터 초음파탐지기로 아시아태평양상의 바다를 감시하여온 미국이 초음파탐지기 《아시아태평양반잠고리》를 개발한 초기의 목적은 이전 쏘련잠수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였다.

당시 미국은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의 나라들에 수만㎞에 달하는 감시구역을 설정하고 태평양지역에서 이전 쏘련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 미국의 감시구역은 로씨야와 함께 중국의 북해함대, 동해함대들이 태평양으로 드나드는 길이였다. 그리하여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은 해저빛섬유케블을 통해서 도청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특별히 건조한 잠수함을 중국항구에 진입시켜 해저통신케블우에 도청기를 설치하게 하고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사이의 전화통신들을 쉽게 도청하였다.

만일 이런 전화통신들이 중국이 쏴올린 인공지구위성을 통하여 전송될 때면 미국은 일본북부 미사와항공기지에 의뢰하여 도청하군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오리온》계렬 간첩위성의 미크로파전송을 리용하여서도 중국국내외의 전화통신들을 도청하였다.

대만군사잡지 《첨단과학기술》(2006년 5월)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중앙정보국은 많은 자금과 설비, 기술적수단들을 리용하여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서막을 열어놓고있다.》고 썼다.

《중국위협론》을 제창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동에 중국은 수수방관하지 않고있으며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고있다.

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은 12～15기의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 20기의 고정식대륙간탄도미싸일, 수십기의 중거리미싸일을 보유하고있는데 이 모든 전략핵수단들은 미국령토를 겨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중동평화의 난문제－골란고원

골란고원문제는 팔레스티나문제와 함께 중동분쟁문제해결의 기본대상의 하나로 되고있다.

골란고원은 원래 수리아땅이다. 그러한 골란고원을 1967년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을 일으켜 강점하였다. 1981년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저들의 령토로 완전히 병합하였다.

골란고원은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골란고원은 수리아의 디마스끄로부터 승용차로 1시간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있다. 수리아의 수도 디마스끄는 골란고원과 가까우므로 원거리포의 사정권안에 들어있다고 한다.

골란고원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높기때문에 수리아와 이스라엘 쌍방이 다같이 국경경비의 요충지로 중시하고있다. 누가 골란고원을 장악하는가에 따라 군사전략상 유리한 위치에 놓일수도 있고 불리해질수도 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으며 수십년동안이나 이곳을 강점하고있으면서 중동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거점으로 리용하고있다.

골란고원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곳은 기후가 따뜻하고 바람이 세지 않으며 강수량이 많은것으로 하여 과일과 남새가 특별히 잘된다. 골란고원을 내놓는것은 이스라엘로서는 《황금지대》를 내놓는것이나 다름없다.

골란고원은 중요한 물원천지이기도 하다. 흔히 사람들은 중동분쟁을 물분쟁이라고도 말한다. 그것은 중동지역에 물자원이 많지 못하고 이 지역을 흐르는 강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이 날카롭게 대립되여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 골란고원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수 있다. 골란고원은 물자원이 풍부한데 많은 강하천들이 퀴베리야호로 흘러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쓰는 총 물량의 40%가 이 호수에 원천을 두고있다. 그리하여 골란고원은 일명 《물창고》로 불리우고 있다.

이스라엘이 수리아의 골란고원을 강점하고 오늘까지 반환하지 않고있는것도 중요하게는 뒤베리야호의 물자원때문이다.

수리아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강점한 첫날부터 이 지역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다. 특히 수리아는 마드리드평화회의이후 《땅과 평화를 바꾸는 원칙》에서 골란고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의 부추김을 받는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한사코 내놓으려 하지 않고있으며 이곳을 자기들의 령토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 유태인《정착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거기에 유태인들을 이주시키고있는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곳에는 수만명의 유태인들이 정착해 살고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 수리아로부터 이 지역의 리권을 빼앗아내며 나아가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 하고있다. 이스라엘이 《전제조건없는 평화회담재개》를 요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2008년 5월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뛰르끼예의 중재하에 간접평화회담을 시작하였으며 쌍방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회담을 진행하였다. 2008년 12월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적인 군사적공격으로 회담은 중단되였다. 그후에 수리아는 여러차례에 걸쳐 수리아—이스라엘간접평화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용의를 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무슨 《전제조건이 없는 평화회담재개》를 운운하면서 회담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왔다.

수리아는 《땅과 평화를 바꾸는 원칙》에 따라 이 지역에서 공정하고도 전면적인 평화를 이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골란고원으로부터 이스라엘군대를 완전히 철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른바 《전제조건이 없는 평화회담재개》를

운운하면서 골란고원으로부터의 자국무력철수를 거부하고있다.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으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자국군대철수를 외면하고 회담마당을 어부지리를 얻는 마당으로 리용하려 한다면 중동평화의 파괴자, 령토강탈자로서 세계의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미제의 거짓말작전

미국은 력대로 침략전쟁구실을 찾기 위하여 파렴치하고도 강도적인 거짓말작전을 서슴없이 감행하여왔다.

1898년 미국은 꾸바의 아바나항에 정박해있던 저들의 순양함 《메인》호를 폭파하고는 그것을 에스빠냐의 소행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다음 에스빠냐의 지배밑에 있던 꾸바와 필리핀을 빼앗아냈다.

1964년에는 웰남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들의 함선이 공격을 받았다는 거짓말로 여론을 기만한 다음 그를 구실로 북부웰남에로 침략전쟁을 확대해나갔다. 함선공격설이 허위였다는것은 최근년간에 기밀해제된 미국가안전보장국의 기밀문서에 의하여 밝혀졌다.

미제의 거짓말작전은 21세기초에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하여 미상층부인물들이 떠벌인 거짓말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미제는 우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고있으며 또 보유하고있다는 거짓정보를 조작하여 여론화하였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보유설이 미제가 꾸며낸 거짓말이였다는것은 미군의 이라크강점이후 국제조사단이 진행한 조사에 의하여 날날이 밝혀졌다.

이라크침공전에 이 설을 강력히 주장한 미국대통령, 전쟁도발을 명령한 부쉬(2세)까지도 후에 그것이 거짓정보였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미상층인물들이 저들이 꾸며낸 거짓정보를 유엔무대에까지 들고나가 진실인듯이 우겨대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였다.

2003년 2월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포웰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연단에서 록화테프와 록음테프, 위성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이라크는 지금까지 안보리사회의 결의를 엄중히 위반하여왔다.

— 이라크측은 유엔사찰관들이 대량파괴무기관련시설에 도착하기 전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 이라크인과학자의 자택에서 2 000페지짜리 문서가 발견되였는데 일부는 핵개발에 관계되는것이다.

— 지난해 가을 이라크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로케트탄을 서부지역으로 이동시켜 큰 야자나무속에 감추었다.

(위성사진을 보이면서) 하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무기고이다.

이것은 새로 4발의 화학무기용 빈 탄두가 발견된 화학무기저장고이다.

— 이라크는 이동식생물무기제조장치를 가지고있다.

— (발사시험장의 사진을 보이면서) 왼쪽은 단거리미싸일용이고 오른쪽은 장거리미싸일용이다.

— (사진을 보이면서) 《МИГ—21》전투기를 개조하여 무인기도 만들고있다. 이것은 화학 및 생물무기를 살포하는데도 쓰인다.

— 공화국근위대 사령관이 다른 인물과 통신한 내용을 소개한다. (육성록음을 들려주면서) 〈이블라힘이다.〉, 〈철거하라.〉, 〈신경가스, 신경가스.〉

이것은 신경가스를 사용하고있다는것을 모르게 하기 위한 대화이다. 이라크는 적어도 〈화학무기물질〉을 100～500t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거짓 정보를 구실로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미제국주의자들은 수십만의 이라크인들과 수천의 자기 나라 병사들을 죽이였으며 후에 모든 정보가 거짓이였다는것이 폭로되였으나 수치감을 느낄 대신 오히려 《정치는 이렇게 하는것이다.》라고

뻔뻔스럽게 지껄이였다.

미제는 거짓말작전을 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는데서뿐아니라 침략을 당하는 나라의 군대와 인민을 정신적으로 와해시키며 내부를 교란하기 위해서도 널리 적용하였다.

이라크전쟁의 초기부터 미제침략군은 거짓말도 여러번 반복하면 진짜로 된다고 한 히틀러의 선전상이였던 겝벨스의 궤변을 적용하여 이라크군대에 대한 심리모략전을 맹렬히 벌리였다.

놈들은 이라크각지와 전선에 많은 극소형반도체라지오와 록음테프, 록화테프, 삐라들을 살포하였으며 제놈들의 군사력의 《강대성》과 이라크의 《고립무원한 처지》에 대해 쉬임없이 불어댐으로써 이라크군대의 사기를 떨구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후쎄인이 유사시에 해외로 도주하기 위하여 외국에 호화주택을 사놓고 막대한 외화를 외국은행들에 예금하여놓았으며 연유를 만재한 비행기까지 대기시켜놓았다는 류언비어를 류포시켰다.

놈들은 전쟁이 시작된지 이틀째 되는 날에는 후쎄인이 피살되고 그의 가족들은 모리따니로 도망갔다는 허위보도를 날려 이라크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동요하게 하였다.

전쟁개시후 며칠동안 후쎄인이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것을 리용하여 놈들은 그가 신경과민으로 모르핀을 맞으며 치료하는중이라고 하였으며 후에는 그가 전쟁책임이 두려워 해외로 도망쳤다는 허위보도를 날렸다.

또한 이라크내부에서 분렬이 일어나고 반후쎄인파가 활동하면서 권력탈취를 노리고있어 조만간에 정권이 붕괴될것이라는 소문도 널리 퍼뜨리였다.

미제침략군의 심리모략전에 넘어간 이라크군은 내부가 와해되여 지휘기능이 마비되게 되였으며 고위장령들과 장교들은 저마다 살구멍을 찾기에 급급하였다.

미제침략군은 수도방위부대 고위장령들의 손전화기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하면서 많은 딸라와 미국국적을 주겠다고 회유기만하였으며 그들에게 바그다드교외비행장으로

오라고 하고는 모두 미국비행기로 실어감으로써 방위부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와해되고말았다.

이처럼 미제는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교활하고 음흉한 수법들을 적용하고있다.

돈과 목숨을 바꾸는 미군병사들

지난 조선전쟁에서 40만이 넘는 미군이 황천객이 되였다는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 내몰린 미군병사들은 반미항전에 떨쳐나선 인민들에 의하여 무리로 녹아나고있다. 이라크땅에서만도 4 000명이 훨씬 넘는 미군이 죽었으며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는 미군사망자수가 이미 1 000명을 넘어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터에 내몰렸다가 무리죽음을 당한 미군병사들은 거의가 다 몇푼의 돈에 팔린 가련한 고용병들이다.

위험한 다른 나라의 전장에 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투에 내몰리는것은 미국의 상류층의 자식들은 없고 가난한 집 자식들이거나 외국이주민출신 청년들이다.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의무병역제가 정지되고 군대의 직업화가 실시되여 부자집과 권력층 자식들은 군대에 들어가지 않으며 더구나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머나먼 지역의 침략전쟁터에는 나가려 하지 않는다. 미국국회 상하원을 합하여 400명이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가운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자는 겨우 3명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하여준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국내 인민들을 전쟁터에 내몰면서도 제 자식들만은 빼돌리고있는것이다.

결국 직업을 얻지 못해 가난에 시달리는 빈민, 실업자들과 이주민의 자식들만이 살아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침략군대에 들어가 《직업》을 얻고있는것이다.

미국에서는 비천한 계층으로 되고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들과 에스빠냐어를 사용하는 라틴아메리카계 사람들속에서 군대지망자가 많이 나온다. 가난한탓에 공부를 하지 못한 그들은 기술병종에는 들어가는것이 극히 적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생명을 담보할수 없는 위험지역 최전연 보병부대에 들어가게 된다.

2002년 7월 미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앞두고 법령을 공포하여 침략군에 복무한 이주민들에게는 미국국적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20만명의 추가병력을 모집하여 죽음의 전쟁터에 내몰았다.

이라크전쟁에서 미해병대의 첫번째 희생자인 구띠에레즈는 미국에 이주해온 과떼말라사람이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개죽음을 당한후에야 미국국적을 받았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군녀병사 3명이 포로되였거나 죽었다고 공개되였다. 그중 한명은 30살의 흑인으로서 텍사스의 빈민촌에서 2살난 딸을 데리고 살다가 군대에 나간 녀성이였다. 다른 한명은 인디아에서 미국으로 간 이민으로서 이동식림시주택에서 3살과 4살인 아들과 딸을 키워오던 23살의 녀인이였다. 또 한명은 버지니아주의 가난한 집 딸로서 교원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군대에 들어온 19살의 처녀였다.

이처럼 죽음의 침략전쟁터에 내몰리는 미군병사들은 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가련한 존재들이다.

《자유아시아방송》

《자유아시아방송》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설립하여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방송이다.

미제는 이 모략방송을 통해 반동적인 《미국식민주주의》의 사상독소를 불어넣고 민심을 소란시킴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선진

적인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에게 예속의 올가미를 씌워 지배하려고 책동하고있다.

1994년 미국회는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는데서 방송이 제일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수법을 아시아나라들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자유아시아방송》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유유럽방송》의 아시아판인 이 방송은 1996년 9월 중어방송의 시작으로 첫 전파를 날리였으며 1997년 3월부터는 조선말로 불어대기 시작하였다.

워싱톤에 본사를 두고있는 이 방송은 현재 중국의 베이징어, 광동어, 티베트어 그리고 먄마어, 크메르어, 라오스어, 웰남어, 조선어 등 10개 언어로 방송하고있는데 서울과 홍콩, 프놈펜에 사무소들을 두고있다.

미제는 《자유아시아방송》이 핵무기 못지 않는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 운영에 돈을 아끼지 않고있다. 방송의 운영자금은 미중앙정보국예산과 《지원금》에 의거하고있다.

《패트리오트》는 《우월》한가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도처에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체계를 전개해놓고 그 성능의 《우월성》을 자랑하고있으나 많은 허점들이 드러나 세계인민들의 조소와 규탄을 면치 못하고있다.

놈들의 선전에 의하면 이 미싸일은 사거리는 160㎞이며 사격높이는 34㎞, 속도는 음속의 5배이라고 한다. 또한 미싸일에엔 반능동유도머리부가 설치되여있어 상대측의 거리기만, 전파장애, 적외선장애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이로 하여 유도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조기경보위성과 지휘비행기로부터 경보신호를 받은 《패트리

오트》미싸일체계는 전파탐지기의 발견거리안에 들어선 상대방의 비행물체에 대하여 90초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대기하다가 발사되여 목표를 소멸한다고 한다.

그러나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체계가 그처럼 성능과 정확도가 높다는 선전은 미제가 다른 나라 인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실전경험에 의하여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지난 만전쟁시기 미제는 이라크군이 발사한 《스쿠드》미싸일을 요격하기 위하여 한기당 80만～100만US$되는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을 수많이 발사하였으나 80%이상이 목표를 맞히지 못하고 허튼 곳으로 날아가 세상을 웃기였다.

또한 이 미싸일은 멀리서 날아오는 대상목표에는 미리 접근하지 못하고 발사지가까이에 왔을 때에야 발사하게 되므로 목표물을 맞혔다 하여도 폭발시 뿌려지는 많은 파편들이 자기측에 떨어지는것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있다.

일본의 우주군사화책동

일본은 1970년대초부터 《평화적목적》의 미명하에 우주개발에 달라붙었다.

일본은 민용인공지구위성발사요 뭐요 하면서도 우주를 군사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정탐위성도입을 시도하여왔다. 정탐위성발사를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던 일본은 그 누구의 《미싸일발사》를 떠들어대면서 정탐위성도입을 결정하였다. 그후 일본은 우주군사화계획을 적극 추진하여왔다.

2009년 1월 16일 일본방위성은 우주공간에 대한 군사적리용을 허용하는 《우주기본법》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기경보위성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리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작성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방위성은 조기경보위성개발과 군사통신전파, 각종 무기가 발신하는 전파를 탐지하는 전파정보수집위성연구에 달라붙기로 하였다.

조기경보위성은 일명 미싸일탐지위성이라고도 한다. 이 위성은 《적국》의 탄도미싸일발사를 즉시에 탐지하고 국내방위체계에 정보를 보내여 요격태세를 갖추게 하는 군사위성이다. 이 위성은 그 개발에 엄청난 자금이 들고 고도기술이 요구되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만이 보유하고있다.

일본은 우주군사화책동을 합리화, 본격화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전략본부라는것도 조작하였다. 이 기구는 우주공간에 대한 군사적리용을 허용하는 《우주기본법》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로 생긴 군사기구나 다름없다.

일본은 2009년 6월 우주개발전략본부회의에서 첫 《우주기본계획》을 정식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동안의 군사적목적을 노린 우주개발의 구체적인 목표와 시간표를 규정한것으로서 거기에는 새로운 정탐위성의 연구개발을 다그쳐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이 포함되여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은 미국의 우주군사화정책에 편승하여 여러차례 《H－2A》로케트를 발사하여 우주정보체계구축을 추진하여오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우주군사화책동이 위험계선으로 치닫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정탐위성발사놀음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전략적지대들을 정밀감시할수 있는 우주정보망을 형성하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해외침략준비책동의 일환이다.

2009년 11월 28일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다네가시마우주쎈터에서 새로운 정보수집위성이 발사되였다. 이 위성이 지상의 물체를 식별할수 있는 능력은 이전의 1m로부터 수십㎝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일본은 대형운반로케트 《H2B－1》호를 발사하였다. 일본은 이 로케트를 2015년까지 여러기 쏴올

릴 계획이라 한다.

일본의 우주군사화책동은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현대 무기 및 전쟁수단 몇가지

방사포. 방사포탄을 쏘는 포이다. 방사포는 크게 궤도, 포가, 전기장치로 이루어졌다. 방사포탄은 가스를 뿜는 힘에 의하여 날아감으로 발사설비는 방향을 잡아주는 궤도나 관으로 되여있다. 궤도나 관이 하나인것을 단발식방사포라고 하며 그것이 여러개인것은 련발식방사포라고 한다. 오늘에는 거의 모든 방사포가 련발식으로 되여있다. 련발식을 까츄샤라고도 한다.

방사포는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포탄을 대상물에 지향시킬수 있으므로 불의적인 타격과 집중타격, 면적타격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구조가 간편하고 가벼워 기동과 전투행동에 유리하다.

방사포의 사거리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6 000～7 000m였다면 지금은 17 000～20 000m로 늘어났다.

까츄샤포. 이전 쏘련에서 만들어낸 레루발사대식 다련발방사포를 까츄샤포라고 하였다.

까츄샤포라는 이름은 이전 쏘련군의 한 병사의 사랑하는 딸애의 이름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전쟁초기에 히틀러파쑈놈들에게 딸애를 잃은 병사는 복수전을 벌렸으나 쓰라린 심정을 가실수 없었다. 그런던중 모스크바교외의 반타격전에서 다련발방사포의 대집단이 히틀러파쑈무리에게 된벼락을 안기는것을 본 병사는 울분이 너무도 씨원히 풀려 이 포를 끌어안고 《까츄샤야, 까츄샤야.》하고 련속 딸애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때부터 병사들속에서는 이 포를 까츄샤포로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까츄샤포는 1941년 7월 14일부터 전투에 사용되였는데 그후 보다 완성되여 여러가지 개량형들이 나왔다. 까츄샤포는 1941년

7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1만대이상, 포탄은 1 200만발이상 생산되였다고 한다. 까츄샤포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도이췰란드군을 격멸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여 널리 알려졌다.

어뢰정. 어뢰를 기본무장으로 장비한 정급전투함선이다. 어뢰는 어뢰정에 설치되였다가 물속으로 쏘아보내여 상대방전투설비를 파괴하는 폭발물이다.

1864년 류삐라는 선장이 어뢰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였으며 그후 1867년 영국기사 로버트 와이트헤그가 그 생각을 보충하여 어뢰를 만들었다. 그 어뢰는 앞에 강한 폭발장약을 싣고 자체조종장치를 갖춘 일종의 작은 잠수함같은것으로서 자체로 가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어뢰는 자체의 동력과 조종장치에 의하여 적함을 향해 물고기처럼 쏜살같이 돌진하여 타격하는데 그 정확성과 폭발력에서 상당히 발전하였다. 어뢰정은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어뢰를 경비정에 장비시킨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어뢰정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리용되였다. 어뢰정은 위력이 큰 어뢰를 장비하고있으므로 항만이나 섬이 많은 해역, 연해, 해협 등에서 대형함선을 공격할수 있는 위력한 타격수단으로 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해군의 어뢰정대는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1만 7 000t급중순양함을 격침시키고 1만 2 000t급경순양함을 격파하였다.

어뢰정의 배수량은 15～200t이며 속도는 35～60Knot이다. 무장은 2～6발의 어뢰와 1～2문의 고사기관포나 대구경기관총이다.

땅크. 력사상 처음으로 전투마당에 나섰던 땅크는 1916년 5월 도이췰란드군이 차지한 계선에 나타난 영국제 땅크였다. 제1차 세계대전말에는 첫 땅크전까지 벌어졌다.

이때 땅크의 질량은 6t, 시속은 3～8㎞였고 57㎜포 1～2문, 기관총 1정을 장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땅크는 극소형콤퓨터를 비롯한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함으로써 위력이 매우 강화되였다. 땅크는 질량에 따라 25t이하를 경땅크, 25t이상으로부터 40t이하까지를 중땅크, 40t이상을 대땅크로 취급한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가장 우수한 땅크로는 쏘련의 《T－34》 중땅크를 꼽을수 있다.

오늘날 가장 위력한 땅크로는 《T－72》를 꼽고있는데 질량은 41t, 시속은 50㎞, 높이는 2.3m, 복합장갑판의 총 두께는 304㎜, 포구경은 125㎜, 전호극복능력은 2.7m이며 레이다측원기, 탄도계산기, 암시장치, 포안전장치 등 최신장비를 갖추고있어 명중률이 높고 밤에도 달릴수 있게 되였으며 5.5m깊이의 물속에서도 전진한다.

기동성이 가장 좋은 땅크는 《A－4》땅크(도이췰란드제)이다. 시속 62㎞, 전호극복능력은 3m, 비탈극복능력은 60°, 질량은 42t, 높이 2.76m, 물속도하능력은 4m깊이까지이다.

반땅크미싸일장갑차. 반땅크미싸일을 기본무장으로 장비한 장갑차이다. 돌격하는 자기 측 땅크와 함께 전진하면서 상대측의 땅크를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장갑차에는 2～5대의 반땅크미싸일이 장비되여있다. 반땅크미싸일장갑차의 최대속도는 60～70㎞/h이다.

고사포. 상대측의 비행기를 비롯한 공중목표를 타격하는 포이다. 고사포는 1912년 도이췰란드에서 75㎜평사포를 개조하여 만들었다.

고사포의 위력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도입된 근접신관과 전파탐지기에 의하여 강화되였다.

오늘 고사포가운데는 콤퓨터를 비롯한 최신전자설비를 도입하여 목표가 24㎞전방에 이르면 목표의 이동위치를 정확히 산출해내고 원격장치로 포신이 목표를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다가 7 000m거리에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발사되는것도 있다.

대륙간탄도미싸일.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탄도를 따라 비행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무기이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은 다계단로케트의 분사와 관성유도의 작용에 의하여 대기권을 벗어나 1 000～3 000㎞의 우주공간에 이른 다음 지구중력중심을 초점으로 하여 6～7㎞/s의 속도로 타원형의 탄도를 따라 목표물로 지향한다.

오늘 대륙간탄도미싸일의 대부분은 10 000～13 000㎞의 사거리를 25～30분에 비행한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은 1957년에 이전

쏘련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지하발사기지의 고정형단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만이 존재하였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상대측에 대한 핵우세를 실현할 목적으로 1개의 운반수단으로 여러개의 핵탄두를 운반하여 여러 목표를 차례로 타격할수 있는 복수목표핵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이 개발도입되였다.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상대측의 핵타격에서 벗어날수 있는 이동식소형단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을 개발하는데 큰 주목을 돌리였다. 그 기간 대륙간탄도미싸일의 명중성도 현저히 높아졌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의 명중성은 초기에 1～2㎞였으나 최근에는 100～130m로 높아졌다. 핵탄두는 1960년대까지는 주로 Mt급이 쓰이였으나 1970년대이후시기부터는 200～300Kt급이 쓰이고있다.

순항미싸일. 비행기처럼 순항하면서 지대조합유도방식이나 전파추적과 광학추적으로 대상물에 은밀히 접근하여 기습타격하는 유도무기이다. 순항미싸일이 큰 주목을 받게 된것은 1967년 쏘련제순항미싸일을 장비한 75t급에짚트미싸일정이 이스라엘의 3 700t급신형구축함을 격침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이다.

지대조합유도방식에 따라 순항미싸일은 상대측의 탐지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바다에서는 15m, 평지에서는 50m, 산악지대에서는 150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대상물에 은밀히 접근한다. 탐지거리밖에서는 1 500～2 500m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비행한다.

순항미싸일의 비행속도는 900㎞/h이며 사거리는 핵탄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 500～3 000㎞이고 상용탄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상목표타격용이 1 200㎞, 반함선용이 450～500㎞이다.

요격미싸일. 공격해오는 상대측의 탄도미싸일을 비롯한 공중목표를 맞받아나가 타격하기 위한 유도무기이다. 요격미싸일은 비행체, 출발발동기, 비행발동기, 유도조종기구, 전투부로 이루어져있다.

요격미싸일에는 전략요격미싸일과 전술요격미싸일, 위성요격미싸일 등이 있다. 전략요격미싸일은 상대측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을 요격하는 유도무기이다. 전술요

격미싸일은 상대측의 전술요격미싸일을 요격하는 유도무기이다. 위성요격미싸일은 상대측의 군용위성을 타격하는 유도무기이다. 위성요격미싸일에는 비행기발사위성요격미싸일과 지상발사위성요격미싸일이 있다. 비행기발사위성요격미싸일의 발사시험에서는 전투폭격기를 리용하여 12 000m의 고공에서 480㎞의 우주공간에 있는 군용위성을 파괴하였다. 지상발사위성요격미싸일은 핵탄두를 설치한 요격미싸일을 지상에서 발사하여 핵폭발력으로 목표 군용위성을 파괴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전략폭격기. 상대측의 깊은 종심지대에 있는 큰 도시와 중요산업시설, 교통중심지, 무력집단과 지휘부 등 전략적대상물을 타격하는 전투기이다.

전략폭격기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전략폭격기 《B－29》는 무차별폭격으로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을 살상하였다.

세계적으로 질량과 위력이 가장 큰 전략폭격기는 로씨야의 《Ty－160》이다. 1987～1988년에 실전배비된 《Ty－160》의 최대리륙질량은 275t으로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에 비하여 54t이나 더 무겁다.

《Ty－160》의 최대비행속도는 2 200㎞/h이며 실용상승한도는 15 000m, 항속거리는 13 950㎞이다. 기본무장은 공중발사순항미싸일이다.

《Ty－160》은 상대측의 탐지망에 포착되지 않고 신속히 뚫고나갈수 있으며 임의의 비행방식과 공중기동, 초음속비행으로부터 아음속비행을 할수 있게 설계되였다.

《스텔스》전투폭격기. 일반적으로 《스텔스》비행기라고 하면 전파를 흡수하고 적외선이 나가는것을 방지하여 탐지수단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비행기를 말한다.

《스텔스》기술은 1970년대 후반기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스텔스》비행기들이 나왔다. 이 비행기들은 전파탐지기의 전파가 반사되지 않고 산란되게 형태와 구조를 변화시키고 전파를 흡수하거나 적게 반사하는 재료들로 만들었으며 겉면에

는 전파흡수제를 칠하였다. 그리고 비행기의 발동기에서 나오는 적외선세기를 낮추었다.

미국의 《스텔스》전투폭격기 《F－117》은 상대측의 탐지망에 포착되지 않게끔 설계되였다. 그런데 《F－117》전투폭격기가 1999년 유고슬라비아침공때 련이어 격추됨으로써 큰 망신을 당하였다. 《F－117》의 최대비행속도는 다른 전투폭격기들의 절반도 못되는 1 000㎞/h정도이고 무장은 공중 대 공중미싸일과 폭탄 2t정도이다.

순양함. 순양함이란 본래 도중연료보급이 없이도 대양을 순회하면서 전투임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뜻에서 붙인 명칭이다.

순양함의 일반적개념은 항공모함을 제외한 해상전투함선중에서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큰 규모의 전투함선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순양함에는 미싸일순양함, 미싸일원자력순양함, 《이지스》순양함, 대형반잠순양함, 항공기탑재중순양함 등이 있다.

실례로 미싸일원자력순양함은 미싸일을 기본무장으로 하고 원자력기관을 설치한 순양함이다. 1962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반항공미싸일원자력순양함에는 반항공미싸일 4대가 장비되여있다. 주로 초대형원자력공격항공모함전대의 반항공호위임무를 수행한다. 만재배수량은 10 000～17 100t이며 속도는 30Knot이다.

공격원자력잠수함. 미싸일과 순항미싸일을 장비하고 원자력기관을 설치한 잠수함이다. 공격원자력잠수함에는 100～500㎞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반함선미싸일과 순항미싸일이 장비되여있으며 사거리가 15～55㎞의 반잠유도폭뢰도 편제무기로 되고있다. 속도는 수상에서 16～20Knot, 수중에서 25～35Knot이다. 수중배수량은 4 600～14 000t이다.

탄도미싸일원자력잠수함. 탄도미싸일을 장비하고 원자력기관을 설치한 잠수함이다. 오늘 탄도미싸일원자력잠수함에는 1개의 운반수단에 12～14발의 핵탄두가 달린 20～24대의 탄도미싸일이 장비되여있다. 사거리는 7 400～11 000㎞이다. 속도는 수상에서 20Knot이며 수중에서 30Knot이다. 배수량은 18 700～27 000t이다.

승무원은 130명정도이다.

공격항공모함. 항공모함이란 비행기의 어머니배라는 뜻으로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도록 만든 배를 말한다.

공격항공모함은 전투공격기를 비롯한 전투기들을 싣고 그것으로 지상 및 해상대상물을 타격하는 주력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은 배수량에 따라 7만t이상을 초대형으로, 4만～6만t을 대형으로, 2만～3만t을 중형으로, 2만t이하를 경형으로 취급한다.

초대형원자력(핵동력)공격항공모함의 원자력기관으로는 100만n·mile을 항행할수 있다. 초대형공격항공모함에는 80～90대의 함재기를 실을수 있다. 배수량은 89 600～91 400t이며 속도는 30～35Knot이다. 승무원은 5 500～6 000명이다.

원자탄. 우라니움 235나 플루토니움 239 등 핵분렬성물질이 련쇄반응을 일으킬 때 나오는 막대한 에네르기를 리용한 대량살륙무기이다.

림계상태에 이른 핵분렬성물질은 순간적으로 련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좁은 공간에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을 조성하고 폭발하게 된다.

례를 들면 1㎏의 원자핵이 분렬될 때 100만분의 1초사이에 2만t의 화약이 폭발할 때와 맞먹는 에네르기가 나온다. 공중 및 지상핵폭발때에는 먼저 수십㎞의 구간에 눈부신 섬광이 비치고 높은 폭음과 함께 수천만도의 높은 온도를 가진 불덩어리가 생긴다. 이러한 핵폭발에 의하여 원자탄은 빛복사, 충격파, 침투성방사 등 3대 피해작용을 나타낸다. 오늘 원자탄은 소형경량화하고 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발전하고있다.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투하된 첫 원자탄의 질량은 4t이였으나 지금은 그것이 0.5t인것도 있다.

미제는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손쉽게 타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파괴용소형원자탄과 극소형원자탄 등의 개발에 큰 힘을 넣고있으며 원자탄의 변종인 렬화우라니움탄을 세계의 여러곳에서 사용하는 만행도 감행하고있다.

21세기 신형무기

2개의 총신을 가진 자동보총

종전까지 사용해온 자동보총은 탄알의 운동에네르기로 대상물을 타격하여 소멸하는 한가지 기능만 가지고있었다. 새로운 자동보총은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하여 구경 5.56㎜총신에 구경 20㎜류탄발사총신이 결합된 2개의 총신을 설치하였으며 레이자거리측원기가 결합된 지휘조종장치와 적외선조준기도 덧붙이였다.

이 자동보총은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사냥총처럼 두개의 총신을 옆으로 나란히 설치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우로 나란히 설치한것이다.

사수가 레이자거리측원기로 목표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그 제원이 지휘조종장치의 탄도계산기에 들어가 탄의 폭발시간이 계산된다. 사수가 방아쇠를 당기면 해당 시간에 목표까지 날아간 20㎜류탄은 폭발하여 대상물을 심히 파괴살상한다.

이 자동보총에는 5.56㎜탄창은 앞에, 20㎜탄창은 뒤에 설치한 형태도 있다. 사수가 어느 탄을 쏘겠는가 하는 결심에 따라 절환스위치를 누르고 방아쇠를 당기면 해당한 총탄이 발사되게 된다.

아음파무기

진동주파수가 30Hz이하인 음성파를 내보내여 유생력량을 소멸하는 현대무기이다.

사람은 30～2만Hz의 음파를 들을수 있다. 그이하의 음파는 사람이 들을수 없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성질을 가지고있다. 특히 7～8Hz의 아음파는 매우 큰 살상력을 가진다.

아음파에 맞으면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정신착란을 일으키

며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된다. 그것은 아음파의 진동주파수가 지구의 고유주파수와 같고 인체 일부기관들의 자체진동수와도 비슷하기때문에 공진을 일으켜 그 기관을 파괴하기때문이다.

아음파는 대기속에서 시간당 6천㎞의 속도로 전파되며 다른 물체에 잘 흡수되지 않기때문에 엄페호나 땅크, 장갑차, 자행포안에 있는 인원들도 소멸할수 있다. 이 무기는 아음파포나 아음파복사장치를 리용하여 사용하게 되여있다. 아음파포는 7Hz정도의 아음파를 낸다. 아음파포사격소리가 나면 상대측 인원들은 메스꺼워하고 구토하게 되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복사장치로는 아음파를 주로 상대측 진지에 발사하는데 짧은 시간에 전투인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 진지를 쉽게 점령할수 있게 한다.

극소형《핵배낭》

핵물질을 자연림계질량보다 적은 량에서 폭발할수 있도록 고도로 발전된 기폭장치를 리용하여 만든 핵무기이다.

극소형휴대용《핵배낭》은 질량 30㎏, 길이 90㎝, 직경 32.5㎝인데 트렁크모양의 통에 넣어가지고 다니게 되여있다. 이 무기 1개당 인원이 2명 배속되게 되여있다. 수송 또는 보관시에는 핵물질, 신관장치, 련결도선들을 따로따로 분리한다. 폭발위력은 뜨로찔 100㎏～1t급 상용폭탄과 같다.

이 폭탄은 원격조종방법 또는 시한조종방법으로 폭발시킨다. 원격조종으로 폭발시킬 때에는 송신기로부터 오는 암호화된 신호를 폭탄에 설치된 수신－암호해신기가 받아 해득한 다음 그것을 전자신관 및 폭발조종장치에 보내여 폭발되도록 한다. 원격조종은 무선으로는 16㎞밖에서, 유선으로는 8㎞거리에서 진행하여 폭탄을 폭발시킬수 있다.

0.01Kt급핵폭탄이 폭발할 때 사람은 폭발중심으로부터 18m거리안에서는 빛복사에 의하여, 100m거리안에서는 침투성방사선에 의하여 죽게 된다. 1Kt급핵폭탄이 폭발할 때에는 폭발중심으로부터 180m거리안에 있는 땅크는 전투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260m거리안에

있는 사람은 5~45분안에 활동능력을 잃고 며칠후에는 죽게 된다.
《핵배낭》을 땅속에 묻어놓는 경우에는 직경 0.6m, 깊이 1~1.8m의 구뎅이를 파고 묻는다. 1Kt급핵폭탄을 땅속 1m깊이에 묻고 폭발시키면 직경 30m, 깊이 13m의 웅뎅이가 형성된다. 《핵배낭》이 폭발할 때 생기는 웅뎅이의 크기는 매설깊이와 토질상태에 따르는데 보통 폭발위력이 10배로 커지는데 따라 웅뎅이의 크기는 2배로 커진다고 한다.

눈을 멀게 하는 레이자무기

이 무기는 파장이 0.4~0.14㎛인 빛과 가까운 적외선빛을 내보내는 레이자복사장치이다.

이 장치는 빛을 내보내여 비행중에 있는 비행사나 전투를 하는 병사들의 망막을 손상시켜 눈을 멀게 함으로써 전투력을 완전히 잃게 한다.

미제침략군 륙군이 개발한 레이자무기 《스팅레이》는 판형레이자복사장치를 리용한것인데 출력은 1 000W, 파장은 1.08㎛이다. 이 무기는 땅크, 보병전투차, 직승기에 설치한다.

레이자무기의 유효거리는 각이한데 레오디윰－야그 레이자거리측정기로 사람의 맨눈에 대하여서는 약 2㎞, 망원경을 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약 20㎞거리에서 눈을 멀게 할수 있다.

홍보석 레이자거리측정기로는 사람의 맨눈에 대하여 약 10㎞, 광학기재를 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80㎞거리에서 눈을 멀게 할수 있다.

레이자무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려면 반레이자안경을 리용하여야 한다. 이 안경은 주로 청록색 유리나 수지로 만든다. 이런 안경은 레이자빛을 차단하는데는 좋으나 어둡게 보이는 결함을 가지고있다. 이런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온것이 반사형려광기를 리용한 안경이다. 안경알은 얇은 막으로 된 여러개의 유전체물질층을 겹쌓아서 만들었다.

이 안경은 투명하여 앞이 잘 보이면서도 레이자빛을 막고 눈을 보호한다.

새 세대의 비행선

비행선은 기구와 같이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주로 헬리움가스)에 의하여 뜨고 비행하는데 기구와 다른 점은 발동기로 프로펠라를 돌려주어 빠른 속도로 비행할수 있는것이다.

비행선은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벌써 려객, 화물수송과 정찰, 해안순찰, 폭격과 반잠수함전에 리용되였다. 그후 비행선을 많이 리용하지 않고있다가 20세기 80년대 중반기부터 현대적으로 개량된 여러가지 비행선들이 군사분야에 널리 리용되게 되였다. 비행선은 군용비행기들에 비하여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무착륙비행시간이 매우 긴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다.

새로 개량된 비행선은 연유소비량이 매우 적다. 10일동안 착륙없이 비행하는데 소비하는 연유는 28㎏밖에 안된다. 함선호위에 비행기대신 비행선을 리용하면 1시간당 드는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수 있다. 반잠수함순찰기가 1회의 짧은 비행을 하는데 소비하는 연유로 비행선은 한주일간 련속 비행할수 있다.

비행선은 금속구조물이 적으므로 전파탐지기에 잘 걸리지 않으며 활주로없이 리착륙할수 있다.

부피가 8만 5 000㎥, 길이 137m, 직경 27m, 순찰고도 1 500～3 000m, 순항속도 75～90㎞/h, 최대속도 185㎞/h인 비행선에는 승무원과 전파탐지기조종사를 포함하여 15～22명이 탈수 있다. 동력장치로는 가스타빈발동기 또는 전동기를 리용한다. 순찰, 정찰용비행선에는 기관총, 기관포, 로케트가 설치되여있다.

반항공, 반잠수함, 반로케트 방어용비행선은 부피가 6 600㎥인데 여기에 설치된 전파탐지기의 공중목표발견거리는 140㎞이며 짐용량은 3t이다.

상대측 지상 대 지상 전술유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성층권비행선, 부피가 5만㎥로서 30t의 화물을 운반할수 있는 짐운반용비행선도 개발되고있다.

제 3 편 경제

원시인들의 생산활동

구석기시대의 최초의 사람(원시인)들은 돌을 깨뜨려서 만든 석기(타제석기)를 로동도구로 리용하였다. 그들은 집단의 힘에 의거하여 먹을수 있는 열매, 잎, 뿌리 등을 채취하여 먹었다. 채집과 함께 짐승사냥도 하였다. 사냥한 짐승들은 털코끼리, 사슴, 들말, 들소 등이였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여 추위를 막고 맹수들을 피하였으며 음식물을 익혀먹었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남자들은 주로 사냥에, 녀자들과 아이들은 채집에 종사하고 로인들은 로동도구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일 등을 하였다.

중석기시대에는 활과 화살의 발명으로 작고 빠른 짐승, 날아가는 새들도 잡을수 있게 되였다. 사냥의 성과가 커지면서 사로잡은 짐승을 얼마동안 기르다가 잡아먹음으로써 집짐승기르기가 시작되였다. 처음 길들인 짐승은 개였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시작된 물고기잡이는 이 시기에 와서 더욱 발전하였다. 이 시기 사람들은 쪽배와 그물, 나무껍질로 식물섬유도 만들었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돌을 가공하고 질그릇을 만들어썼으며 농사와 집짐승기르기를 하면서 자연의 지배령역을 더욱더 넓혀나갔다. 질그릇의 사용은 사람의 육체적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끓인 음식을 먹을수 있어 소화를 잘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이 시기 사람들은 식물을 재배하였다. 재배작물은 밀, 보리, 기장, 조 등이였으며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벼를 재배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원시적인 목축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개, 돼지,

양, 염소, 말과 같은 순한 짐승들을 길렀다.

농업은 주로 녀성들이, 목축업은 남자들이 맡아하였다. 원시적인 농업과 목축업의 발생은 종래의 채집, 사냥, 물고기잡이에 비할바없이 자연을 자기 목적에 맞게 변경시키고 정복해나가는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이 높아졌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식물섬유로 실낳이, 천짜기를 하여 옷을 해입게 되였으며 움집, 반움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무로 수레를 만들어썼다.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구리, 석, 아연, 연 등의 합금인 청동으로 로동도구, 무기, 치레거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청동의 출현은 사람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청동제로동도구와 생활용품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업중 어느 하나만 하여도 살아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농업과 목축업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최초의 사회적대분업이였다.

청동기제작은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청동기를 비롯하여 질그릇 제조, 천짜기 등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여 수공업자들이 나타나게 되였고 수공업이 독자적인 생산부문으로 되였다. 이를 제2차 사회적대분업이라 한다.

농업, 목축업, 수공업의 분리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호상간의 교환을 필연적이며 정상적인것으로 되였게 하였다. 그리하여 교환을 전적으로 맡아하는 상인이 발생함으로써 제3차 사회적대분업이 이룩되였다.

철기시대는 철로 만든 로동도구를 쓰게 된 이후부터 국가발생전후시기까지를 말한다.

철기의 사용은 인류력사발전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쇠보습, 쇠괭이, 쇠낫, 쇠도끼, 쇠반달칼 등이 만들어져 농업생산이 더욱 발전하였다. 또한 쇠공구의 제작보급은 야금을 비롯한 수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키게 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일찌기 철기문화를 발전시킨 우리 선조들은 그 시기 이웃지방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노예무역

노예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범죄적인 상적행위이다. 노예무역은 노예로동이 광범히 적용되고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고대노예사회에서 발생하여 B. C. 3세기～B. C. 1세기에 최대규모로 진행되였다. 당시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델로스섬에서는 하루동안에 1만명의 노예가 매매된 때가 있었다.

노예무역은 봉건시대에도 있었다. 력사상 가장 큰 범죄적성격을 띠고 최대규모에서 노예무역이 감행된것은 17～18세기였다.

《지리적발견》이후 아메리카대륙에서 광산의 대대적인 개발과 대농장경리의 발전은 방대한 로력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서유럽과 미국의 노예상인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끌어다 노예로 팔아먹음으로써 막대한 돈을 벌었다.

17～18세기에 아프리카대륙은 《문명》의 탈을 쓴 유럽과 미국의 인간백정들의 야만적인 《노예사냥》터로 전변되였다.

당시 노예무역에는 에스빠냐, 뽀르뚜갈, 네데를란드, 영국, 프랑스의 노예상인들과 미국노예상인들이 적극 참가하였다.

18세기부터 영국이 세계노예무역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였다. 노예무역은 노예상인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노예로 가장 많이 끌려간 곳은 미국과 서인디아제도였다.

이 지역에 1천만명이상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도중에 그만한 수가 죽었다고 한다.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19세기초에 서방나라들에서 노예무역이 《금지》되였으나 실제상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미국에서의 현대판 노예매매가 그 실례이다.

최근에 공개된 미중앙정보국의 보고서 《미국에서의 국제녀자무

역；현대판노예》에 의하면 해마다 미국으로는 비법적으로 혹은 해당 기관들을 속이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동유럽나라들에서 어린이들과 녀성들이 5만명씩 팔려와 고용로동과 매춘을 강요당하고있다. 일부 추산에 의하면 노예매매업자들의 년수입은 아시아에서만도 170억US$에 달하고있다.

1990년대 중엽부터 동유럽과 이전 쏘련가맹공화국들에서 인신매매업자들이 이 기업에 적극 뛰여들게 됨으로써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있다.

산 업 혁 명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확립되던 시기에 손로동이 기계적인 로동으로, 뒤떨어진 수공업이 자본주의적인 기계공업으로 바뀌여지는 생산기술령역에서의 변혁을 말한다.

산업혁명은 1760년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방직기계의 발명으로 시작되였으며 그후 실용적인 증기기관의 출현으로 더욱 촉진되였다.

그후 19세기 전반기에 프랑스, 네데를란드, 이딸리아 등 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어났다.

산업혁명의 물질적기초로 된것은 기계였다. 기계는 처음에 수공업적인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되였으며 그후 점차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생겨났다. 이것은 기계제작공업을 산생시켰다.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은 철과 석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야금공업과 석탄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생산부문들과 공업중심지들을 발생시키면서 자본주의하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자본주의공업화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산업혁명의 결과 수공업적기술에 기초한 소상품생산자들의 몰락과정이 촉진되고 로동계급의 대렬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특히

산업혁명은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재부를 집중시키는 한편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생활을 빈궁에로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고 자본가들과 로동계급간의 모순이 격화되였다.

산업혁명은 생산과 사회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자본주의생산방식을 종국적으로 확립하였다.

신경제정책(네쁘)

국내전쟁(1918～1920)에서 승리한 후 쏘베트정권이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사회주의건설에로 이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실시한 경제정책이다.

1921년 3월 쏘련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 실시하였던 《전시공산주의》정책으로부터 신경제정책으로 넘어갔다.

네쁘는 쏘련에서 과도기초기 인민경제의 중요부문들이 국가의 수중에 장악된 조건에서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상품화폐관계를 리용하기 위한 경제정책이였다.

신경제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시공산주의》하에서 실시되였던 여유량곡징수대신에 현물세제를 실시하였다.

② 현물세를 납부하고 남은 량곡에 대하여서는 농민들이 자유로 처분하게 하였다.

③ 도시와 농촌에서 일정한 범위에서의 상업의 자유를 허용하고 임금로동자를 고용하는 작은 규모의 개인기업의 활동을 허가하였다.

쏘베트정권은 이 정책에 의하여 산업이 일정하게 회복된 다음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집단화로써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요소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였다.

미국의 독점재벌

미국에는 최대의 독점재벌로 불리우는 록펠러, 모르간, 에프엔씨비, 듀폰, 멜론, 그리브랜드, 시카고, 아메리칸은행 등 재벌집단이 있었다. 이 억만장자집단은 미국경제의 실제상의 주인으로 되고있었다.

록펠러와 모르간집단은 미국최대의 재벌이였을뿐아니라 자본주의세계의 최대재벌로 되고있었다.

록펠러재벌은 석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간파하고 일찍부터 석유의 탐색과 독점에 달라붙어 라틴아메리카와 중근동지역에 대대적으로 침투함으로써 25년 남짓한 기간에 경제력에서 오래동안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던 모르간재벌집단을 따라잡게 되였으며 해외자본투자에서도 그를 훨씬 릉가하게 되였다.

미국경제에서 오래동안 제1인자로 공인되여온 모르간재벌은 록펠러재벌에 뒤져서 제2의 지위에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모르간재벌집단은 의연히 미국의 거대독점재벌집단으로서 자동차, 강철 등의 기간공업과 항공우주, 전기기계, 원자력 등 최신기술부문을 장악하고있었다.

미국의 재벌집단은 금융, 공업, 운수, 봉사부문 등에서 가장 큰 규모의 100여개의 중요은행들과 산업독점체들을 틀어쥐고있다.

자기 나라 근로자들뿐아니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자원을 략탈하여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이 재벌집단이 긁어모은 자본은 이미 오래전에 천문학적액수에 달하고있다.

이 재벌집단외에도 쿤－레브, 텍사스, 보스톤 해리먼, 라쌀, 질론 등 재벌집단이 큰 세력을 이루고있다.

미국에는 또한 《록키드 마틴》, 《보잉》, 《레이디온》 등 군수독점체들을 포함하여 각지에 군수업체들이 있다.

미국독점자본은 발전된 기술과 우수한 경제력에 의거하여 자본의 대외진출을 강화하였으며 여러 나라들에 새끼회사들을 내오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들을 만들어냈다.

미국의 대독점체인 《제네랄 모터스》는 20여개국에, 《엑쓴》은 25개국에, 《포드》는 30여개국에 새끼회사를 두었다. (1980년대말 현재)

미국의 다국적회사들은 《원조》의 명목으로 경제적난관을 겪고 있는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하여 자기가 투자한 1US$당 4～5배, 지어는 10배이상의 리윤을 짜냈다.

미국독점자본은 채무상환과 불공평한 세계무역구조를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장성기회를 빼앗고 빈궁을 심화시켜왔다.

이로부터 미국의 《원조》나 《투자》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미국독점자본에 자기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략탈당하고 민족경제발전이 심히 억제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였다.

미쯔비시재벌의 행적

미쯔비시재벌은 일본에서 《명치유신》이후 오늘까지 최대기업의 지위를 차지하여왔다.

1980년대 일본을 휩쓴 경영위기속에서도 미쯔비시재벌은 가장 높은 경영리익을 올림으로써 일본에서 최강자의 지위를 계속 차지하게 되였다.

미쯔비시재벌의 성장력사는 침략과 략탈로 얼룩져있다.

미쯔비시재벌은 일본군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의 바람을 타고 줄곧 성장하다가 일제의 패망과 함께 파국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미쯔비시재벌은 장차 일본을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제를 등에 업고 그의 비호와 기술재정적지원을 받음으로써 또다시 되살아나게 되였다.

특히 조선전쟁을 계기로 미제의 군수품주문이 늘어남으로써 미

쯔비시재벌은 막대한 횡재를 하였다. 그후에도 미쯔비시재벌은 계속 미제의 군수창으로 되여 성장하였다.

미쯔비시재벌은 일본에서 무기생산과 수출에서 첫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군수산업의 《왕》으로 불리우고있다. 이 독점재벌은 미쯔비시중공업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손꼽히는 군수생산회사만도 4개를 가지고있다.

미쯔비시중공업회사는 《시간은 돈이고 리윤은 생명》이라는 독점재벌의 《론리》에 따라 무기생산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일본방위청(당시)과의 계약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회사의 우두머리들은 각종 미싸일전문생산공장과 대잠수함용신형어뢰를 전문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고 일본최초의 우주기구전문생산공장건설도 추진시켰다.

미쯔비시중공업은 무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구체계와 생산체계를 확대강화하였을뿐아니라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왔다.

미쯔비시재벌은 무기생산을 자기 기업체의 중요부분으로 만들어놓은데 만족하지 않고 막대한 리윤을 얻을수 있는 항공기와 우주무기의 개발생산에 열을 올리고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미쯔비시중공업을 위시로 하는 미쯔비시독점재벌은 일본최대의 병기창으로, 《무기백화점》으로 부활강화되였다.

미쯔비시독점재벌의 탐욕은 리윤을 올릴수록 더욱 커갔으며 그것은 해외팽창의 길로 이어졌다.

국내치부만으로는 리윤확대와 독점적지위를 강화할수 없다고 타산한 미쯔비시독점재벌은 1970년대부터 《세계의 미쯔비시화》라는 구호를 내들고 해외진출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의 값싼 로동력과 풍부한 자원에 눈독을 들인 미쯔비시독점재벌은 이 나라들에 《협력》과 《원조》의 미명하에 자본, 기술수출과 함께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공장까지 마구 들이밀었다.

실례로 미쯔비시독점재벌이 들이민 말레이시아 페라크주의 부킷메라(주민 7 000여명)에 있는 《에이아르이》공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82년에 개업한 이 공장은 현지의 원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TV화면생산 등에 리용하는 이트리움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실어보냈다. 생산과정에 인체에 극히 해로운 방사성페기물을 다량 쏟아내는 《에이아르이》공장이 가동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자 부킷메라마을사람들속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방사성, 납 중독증세환자들이 속출하였다.
일본 사이다마대학 이찌가와교수가 1984년 12월에 《에이아르이》공장주변을 조사하였는데 방사성물질이 허용치의 800배를 넘었다.
《에이아르이》공장은 방사능오염뿐아니라 심각한 납오염도 남겼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치명적영향을 미쳤으나 《에이아르이》공장측은 《공정이나 사용물질이 안전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생산을 계속하였다.
미쯔비시독점체는 일본국내에서는 가동엄두도 낼수 없었던 공해공장을 부킷메라에 옮겨다놓고는 몇푼의 돈이 아까와 아무런 공해방지대책도 취하지 않았던것이다.
많은 방사성물질이 산적해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 죽어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쯔비시독점재벌은 《〈에이아르이〉공장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는 강도적주장을 고집하면서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쯔비시재벌의 행적은 죄악으로 얼룩져있다.

간악한 보물략탈자

최근 아시아의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일제가 지난날에 아시아나라 인민들의 재산략탈을 전문으로 하는 비밀기관인 《야마유리회》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막대한 금은보화를 강탈한 사실들

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절실히 필요한 자원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이로부터 일본은 오래전부터 아시아나라들의 자연부원에 눈독을 들이였다.

해외팽창에 들뜬 일제가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도 자원략탈에 있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다.

아시아나라들을 강점한 기간에 일제가 감행한 자연부원략탈행위의 악랄성과 범죄성은 우선 그것이 금은보화강탈에 초점을 두었다는데 있다.

20세기초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한 일제는 우리 나라의 광물분포상태를 모조리 조사장악하였으며 이른바 《조선광업령》을 조작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광업자본가들은 우리 나라의 광업명맥을 완전히 거머쥐고 금략탈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극히 줄여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기간 략탈해간 금은 근 400t에 달한다.

일제는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도 많은 금과 은을 략탈하였다. 놈들은 이렇게 강탈해간 보물들을 여러 페갱들에 보관하거나 일부를 나가노현의 산속에 감추어놓고 그것을 패전시 마지막으로 저항할 때 리용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일제침략자들은 아시아나라들에서 략탈한 보물들을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자기 나라에 다 날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일제가 패망하면서 가져가지 못한 금은보화들을 감춘 곳의 하나가 필리핀이다.

일제는 필리핀의 175개의 비밀장소들에 금은보화를 묻어놓도록 하였다.

당시 일본은 《동맹국》과 조건부적인 정전을 이룩하고 전후의 필리핀점령을 인정받으며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숨겨놓은 보물들을 일본으로 유유히 가져갈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기도는 실현될수 없었다.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자 일제는 금, 은에 대한 처리 및 비밀보장사업에 달라붙었다.

1945년 5월 《야마유리회》의 한 책임자는 보물보관비밀장소를 건설한 사람들과 함께 필리핀의 한 섬의 깊은 산속에 있는 《8》호지하갱도에서 《송별회》를 크게 열었다.

이 갱도는 지상으로부터 67m 깊이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금덩어리가 보관되여있었다.

《송별회》참가자들이 모두 곤드레만드레 취해 쓰러진 밤 12시경 보물보관비밀장소건설을 책임진 일제의 필리핀방면군 대장 야마시따 도모유끼와 《야마유리회》성원들은 은밀히 《8》호지하갱도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폭약을 터뜨려 갱도입구를 막아버리였다.

그리하여 보물보관비밀장소를 건설한 사람들은 모두 갱도에 묻혀버렸으며 그 장소는 외부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로 남게 되였다.

일제는 다른 나라 강점지역들에서도 그와 같은 비밀작전들을 꾸미고 금, 은, 백금, 금강석을 비롯한 보물들을 누구도 알수 없는 갱도나 바다물속 등에 감추었던것이다.

이처럼 일제는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피멍든 상처를 남겨놓은 날강도적인 범죄자이다.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일제의 금은보화략탈행위의 범죄적성격은 또 그 후과가 엄청나게 크다는데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동남아시아지역의 땅과 물속에서는 일제가 패망하면서 숨겨두고간 막대한 량의 금과 은을 찾아냈다.

2001년에는 타이에서 많은 량의 금이 발견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버리고간것일것이라고 전하였다.

일제가 아시아나라들에서 략탈한 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지난 세기 40년대말에 일부 사람들은 일본이 동남아시아나라

들에서 강탈한 전리품만 하여도 근 1 000억US$어치에 달하며 그밖에 가치를 계산할수 없는 진귀한 보물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일제가 아시아인민들에게 입힌 피해는 이렇듯 헤아릴수없이 막대하다.

다국적기업

본국의 어미회사가 다른 여러 나라들에 많은 새끼회사를 두고 그것을 통하여 국제적범위에서 생산과 판매, 금융을 진행하여 높은 리윤을 얻는 제국주의대독점기업이다. 일명 《세계기업》이라고도 한다.

다국적기업은 1950년대～1960년대초에 미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로 파급되였다.

오늘 모든 제국주의나라들의 대독점들은 거의다 다국적기업으로 전환되고있다.

다국적기업이 생겨나고 확대된것은 과잉자본의 형성, 국내에서의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강화, 투자시장과 상품시장의 축소, 독점자본들사이의 경쟁의 강화 등을 주요한 배경으로 한다.

다국적기업은 현대제국주의하에서 새로운 국제독점체이다. 다국적기업이 지난날의 국제독점체들과 다른것은 ①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있는것이며 ② 경영활동이 특정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생산, 판매, 금융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것이며 ③ 기업활동에서 일정한 독자성을 가지고 일시적인 련합을 이루고있는것이 아니라 어미회사에 대한 새끼회사의 철저한 종속관계에 기초하여 항구적인 결합을 이루는것이다. 다국적기업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지적지배와 략탈을 진행하는 주되는 촉수이며 담당자이다. 다국적기업은 발전도상나라들을 경제적으로뿐아니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책동도 하고있다.

《세계화》의 촉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은 199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일체화》, 《세계화》에 대해 요란히 떠들어댔다.

《세계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야망의 산물이다.

《세계화》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제도, 하나의 문화로 통합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서방식의 정치, 경제, 문화제도를 도입하여 세계를 《일체화》한다는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생활방식 등을 한 형타로 찍은 제품들과 같이 만들어놓는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더우기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자본주의체제와 방식을 《본보기》로 내세운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 범죄와 부정부패 등 온갖 사회악이 살판치는 반인민적인 자본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력사의 퇴물로서 모든 나라들이 본받고 기준으로 삼을만 한것이 전혀 못된다.

《세계화》의 반동적본질은 한마디로 전세계를 서방화하고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전락시켜 자본주의의 완전멸망을 막아보려는데 있다.

《독점기업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경기장》, 《누구나 패자가 될수밖에 없는 경주》, 《도박군의 파멸로 끝나고야말 세계적인 놀음》,

이것은 스웨리예녀성학자 헬렌노르베리호지가 자기의 도서 《허울뿐인 세계화》에서 《세계화》에 대해 비난을 퍼부은 몇대목이다.

《세계화》가 제국주의세력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있는 자본주의를 구원하기 위해 만든 서투른 물건짝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가 《세계적추세》이

며 《세계화》만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유일한 출로》라느니 뭐니 하는 따위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여왔다.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 노리는것은 다른 나라들의 발전과 번영이 아니라 세계를 저들의 요구와 리익을 위해 복종하는 세계로 만들자는데 있다.

이것은 1993년 9월 11일 미국에서 당시 클린톤행정부가 발표한 《확대전략》이란데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클린톤행정부의 첫 대외정책인 《확대전략》에는 《견제리론의 후신은 세계의 자유공동체, 시장민주주의의 확대전략으로 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이를테면 랭전종식후의 미국의 전략이 서방식《자유세계》를 전세계에로 확대해나가는 전략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확대전략》의 내용을 보면 결국 《세계화》구상이 곧 미국을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로 만들고 미국과 그에 종속된 자본주의렬강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신식민주의적인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조작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지배수법은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시대와 환경이 변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보충개악되면서 세계지배실현의 도구로 리용되여왔다. 특히 1980년대말～1990년대초 랭전의 종식을 계기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인 지배전략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이 다름아닌 《세계화》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종전의 방법과는 달리 발전도상나라들에 미국식, 서방식사회체제를 부식하여 정치적다당제, 자유시장경제체계, 《서방식가치관》을 수립함으로써 신식민주의적지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고 책동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이런 책동에 매달린데는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과 관련되여있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

의를 비난하고 다른 나라들에 서방식사회체제를 부식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을 기화로 발전도상나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헐뜯고 자본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류포시켜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숭미, 공미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렸다.

제국주의자들이 류포시킨 자본주의제도의 《우월성》이란 허위이고 기만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자랑으로 떠들어대는 《서방식사회체제》는 자본주의의 력사적과정에 형성되였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극소수 착취계급이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는 정치방식이 수립되고 자유경쟁의 간판밑에 보다 많은 리윤을 추구하는 착취계급과 근로인민대중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는 시장경제체계로 이루어진것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어느 한 나라의 잡지는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10개 나라의 1인당 국내생산액은 가장 빈곤한 10개 발전도상나라들의 1인당 국내생산액의 수십배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세계화》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할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치렬한 경제경쟁이 벌어지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 과정에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련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지역적인 경제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다국적기업체의 주도하에 자본의 국제화가 다그쳐지고 경제기술적결탁과 협력이 서로의 모순과 대립속에서도 강화되고있으며 세력권과 시장을 확대하려는 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경제기술적련계를 보다 밀접히 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려는 지향이 더욱 강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처럼 세계적범위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련계가 보다 밀접해지고 지역적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는 현실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이것을 《세계화》로 묘사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세계화》흐름에 적극 뛰여들것을 강요하고있다.

《세계화》의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경제체계를 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에 얽매여놓음으로써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제국주의자들이다.

《돈소나기》의 리면

군수독점체들은 국제정세가 항상 긴장해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침략과 전쟁이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

어떤 나라나 지역의 정세가 긴장해지기만 해도 미국은 해당 지역에 무력을 집결시키군 하는데 그때마다 막대한 량의 군수물자가 소비되게 된다. 무기와 탄약은 물론 식량, 연유, 피복, 의약품 등 물자들은 모두 군수독점체가 보장하게 되며 그때마다 군수독점체는 《돈소나기》를 맞게 되여있다.

이것은 새 세기에 들어와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이라크전쟁이 그 적중한 실례라고 볼수 있다.

미국은 해마다 《미군유지와 이라크복구》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이라크전쟁에 쏟아붓고있다.

2007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이라크전쟁에 들이민 비용의 총액수를 1조 2 000억US$로 계산하였다.

이 엄청난 돈의 대부분이 군수독점체들의 주머니에 들어갔을것이다.

1991년 만전쟁이후 생산부진으로 골머리를 앓던 군수독점체들에 있어서 부쉬행정부가 벌리는 《반테로전》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것이였다.

《록키드 마틴》, 《보잉》, 《레이디온》, 《티아르 더불유》 등 4대군수업체를 포함하여 미국각지의 군수업체들이 전시 호경기를 맞게 되였다.

9.11사건이후인 2001년 9월 17일 대부분의 회사주식들은 폭락하였지만 군수업체들의 주식시세만은 급격히 올랐다. 특히 《레이디온》은 27%, 《록키드 마틴》과 《노스로프 그라만》은 각각 15%, 16% 올랐다.

이것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정밀무기를 비롯한 무기생산의 넓은 길이 다시 열려진것이였다.

9.11사건후 미국방성은 《반테로전》에 미군무력을 장기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정밀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예비부분품을 확보할것을 군수업체들에 요구하였다.

이 요청에 군수업체들은 쾌히 응하였고 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세계최대의 미싸일생산업체인 《레이디온》의 경우 기본생산품인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의 재고량이 넘쳐나서 1988년부터는 그 생산이 중단되였었다. 그런데 9.11사건후에는 미행정부와 《토마호크》순항미싸일 800기의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9억 6 000만US$의 자금을 받아 생산을 재개하였다.

지난 시기 이 회사의 년간 《토마호크》순항미싸일생산량은 100기정도였다. 그러던 이 회사는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모든 재고량을 다 처리한데다가 이전 8년분 생산량과 맞먹는것을 한꺼번에 주문받았다.

《레이디온》의 호경기는 이라크전쟁으로 계속되였다.

미국방성은 이라크전쟁을 위해 4만～5만개의 정밀유도무기생산을 요구하였다. (《레이디온》은 2001년 한해동안에 약 1만개의 정밀유도무기를 생산하였는데 그중 절반이상이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사용됨.)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레이디온》회사의 산하공장은 미국방

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 3교대제로 넘어가 생산을 배로 늘이고 생산품도 예정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끝내였다.

《보잉》회사도 마찬가지였다.

미국방성의 주문을 받은 《보잉》회사의 위성유도장치생산공장은 2교대제로 넘어가 월생산량을 1 000개에서 1 500개이상으로 늘였다.

그리하여 2002년초부터 7월 중순까지의 반년사이에만도 정밀유도무기생산량이 그 전해의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약 9 000개에 달하였다.

《F－16》, 《C－130》군용기와 잠수함발사 《트라이든트》미싸일을 맡아 생산하는 《록키드 마틴》회사 등도 《반테로전》으로 많은 리윤을 보았다. 미국내의 소구경총탄생산량도 15년래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다른 무기생산공장 역시 생산을 부쩍 늘이여 돈더미우에 올라앉았다.

침략과 전쟁은 무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독점체들에 있어서 횡재할수 있는 더없이 좋은 계기로 된다.

부쉬가 《반테로전》을 장기화하면서 군사비지출을 랭전시기를 초과하는 천문학적액수로 늘임으로써 미국군수독점체들은 대환성을 올리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군사비는 해마다 늘어났다.

미국전문가들은 미행정부의 군사예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비용을 제쳐놓고도 5 340억US$인데 이것은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의 군사비를 다 합친것과 거의 맞먹는다고 하였다.

《자유무역》의 너울

침략과 전쟁을 동반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있다. 시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생명선이다.

엄청난 군사비지출 등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착취와 략탈

의 공간이 좁아질수록 제국주의렬강들간의 시장쟁탈전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국은 교활한 방법으로 시장을 확대하려고 책동하여왔다. 그 하나가 《자유무역》이다.

《자유무역》이란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의 상품이 제한없이 들어올수 있도록 시장문을 활짝 열어제끼라는것이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자유무역은 미국뿐아니라 전인류에게 유익하다.》고 광고하여왔다.

미국은 쌀, 소고기, 귤 등 농산물을 《자유무역화》할것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있다.

미국은 유럽나라들이 농산물보조금을 줄이고 농산물을 완전히 《자유무역화》하라고 압력을 가하여왔다.

유럽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농산물보조금이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기 나라 농업기업체들이 국내시장들에서 농산물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수 있도록 정부가 대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미국은 낮은 원가로 농산물을 생산하고있는 반면에 유럽나라들의 농산물은 원가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형편에서 유럽나라들이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면 미국은 유럽나라들의 농산물시장을 독점하고 폭리를 얻을수 있다. 이것을 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다 많은 략탈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농산물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자유무역화》책동의 한 고리로 《자유무역지대》창설을 획책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이 들고나온것의 하나가 《아메리카주발기》이다.

《아메리카주발기》의 기본골자는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망라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는것이다.

미국은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라는 이름밑에 저들의 상품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쓸어들게 하여 경제력이 미약한 이 나라

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거머쥐고 착취와 략탈을 보다 더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자유무역》론을 광고하면서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상품들에 대하여서는 관세장벽을 쌓고 여러가지 제한조치들을 적용하고있다.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은 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간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은 1980년대부터 관세를 절반이상 줄이고 서방의 다국적기업들에 대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왔다. 그런데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서방나라들의 무역장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그 앞장에 미국이 서있다.》
미국은 저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무역법의 《슈퍼 301》조항과 《스페셜 301》조항을 다른 나라들에 적용하고있다.
《슈퍼 301》조항은 미국이 《부당한 무역을 하고있는 나라들》을 일방적으로 지목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있으며 《스페셜 301》조항은 미국이 지적소유권을 《잘 보호하지 않는 나라들》에 우와 류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미국이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관세의 인상 등 각종 보복조치와 제한조치를 제 마음대로 취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2002년에 미국은 외국수입강철제품에 관세를 30%까지 대폭 높이는 등 강철수입제한조치를 취하여 여러 나라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수단으로 하여 다른 나라 상품들이 미국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상품을 해외에 더 많이 수출하여 폭리를 얻기 위한 술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08년사이에만도 수십차례의 긴급관세인상조치를 취하였다.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이 좁아짐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은 서방나라들사이에 소

고기무역분쟁, 비행기보조금관련분쟁, 자동차무역분쟁을 비롯하여 각종 무역분쟁을 산생시키고 격화시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발전도상나라들을 략탈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1차가공원료, 반제품 등에 엄청난 관세를 적용하고있는데 일부 제품과 상품들에는 그 가격의 40～80%까지의 관세를 붙이고있다.

결국 《자유무역》이란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 저들의 리속만을 채우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이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렬강들의 위선적인 《자유무역》광고에 침을 뱉고 지역적경제통합과 진정한 자유무역지대실현을 주장하며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후진국개발론》

제국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처하여 식민지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보다 교활한 착취와 경제적지배를 추구하였다.

《후진국개발론》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략탈정책을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사상적도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후진국개발론》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을 선진국으로 묘사하고 뒤떨어진 나라들을 《후진국》에 포함시키면서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인구 한사람당 실질소득수준과 자본의 기술장비도가 낮으며 자본 등이 부족한 반면에 인구가 과잉되여 가난하게 된 나라들이라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후진국》들이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자본을 해결해야 하는데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길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나라들에 《외자도입》을 강요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에 《개발》의 미명으로 《외자도입》을 강요한것은 이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의 길을 열어놓고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실제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후진국개발》의 미명하에 뒤떨어진 나라들에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자본을 수출하여 막대한 리윤을 짜냈다. 이 과정에 뒤떨어진 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후진국개발론》의 착취적, 략탈적 성격에 대하여 점차 깨닫게 되였으며 그것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는 오늘 국제무대에서 더욱 높아지고있다.

금융공세와 제재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는 국제통화기금이 자리잡고있다.

1944년 7월에 창설된 국제통화기금은 성원국이 내는 자금으로 공동외화자금을 만들어 성원국들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대여하는 등 세계각국의 경제적발전을 도모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성원국은 2002년현재 184개)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은 자기의 이러한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충실한 앞잡이로 전락되여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세계화》정책실현에 앞장서나가고있다.

본래의 목적을 떠난 국제통화기금은 지금까지 미재무성과 함께 이른바 세계경제를 주도한다고 자처하면서 미국의 리익에 맞게 경제론리보다 주로 정치론리로 자기의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수인 스티글리츠는 자기의 저서 《세계화가 가져온 불만》에서 국제통화기금이 경제전문가들의 조직이 아니라 월가의 대변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의 경제학자들을 《1류대학출신 3류두뇌들》, 《가난한 나라의 위기를 구원한답시고 책상앞에서만 머리를 굴리고 현지에 가서는 별

5개짜리 1류급호텔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호되게 비난했다. 계속하여 그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국제통화기금은 금융시장의 개방을 계속 추진시키고있다. 사상이나 정치적동기로부터 금융시장의 리해관계세력들에 발맞추어 그렇게 행동하는것이다.

금융시장거두들이 미재무성에 압력을 행사하고 다시 미재무성이 국제통화기금에 압력을 가하는 식이다.

해당 나라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 돈을 빌려주려 하고 반면에 진짜 돈이 필요할 때에는 돈을 회수하고 매우 높은 리자를 낼것을 강요한다.

또 해당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모든 증거가 가리키고있는데도 은행들이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도록 압박한다.》

가장 문제로 되는것은 국제통화기금이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해 실시하는 금리인상, 재정긴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이른바 《프로그람》이다. 그것은 국제통화기금의 《수술대》로 통할 정도로 악명높다.

바로 이런것을 통해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세계화》정책을 앞장에서 옹호실현하기 위해 각국의 형편을 무시하고 경제개방과 자유화만을 강요함으로써 결국은 파국으로 몰아간다.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해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를 파괴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려고 경제교란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교란책동에서 기본은 제재이다.

미국의 경제제재대상에는 주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나라,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이 속한다.

제재와 봉쇄는 미국의 반동적대외정책의 주요 요소로 되고있다.

미제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발동한 경제제재건수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만도 100여건이나 된다. 그중 60여건은 랭전이 시작된 후에 취해진것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대량살륙무기확산》, 《테로》, 《인권 및 민주주의위반》 등의 구실밑에 20여개의 제재법을 가지고 뻘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들에 제재를 가하여왔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로 꾸바가 입은 경제적손실은 2007년 현재 890억US$에 달하였다.

미국의 가장 악랄한 제재책동의 하나는 금융제재이다.

미국은 낡은 국제금융통화제도에 의거하여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의 은행들을 병합하거나 흡수하고 원료원천, 생산수단 등을 장악지배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미국의 다국적은행지점들의 국제금융시장 점유률은 20%이상에 이르고있다. 미국의 딸라결제금융체계로 하여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은 여러 분야의 무역거래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2007년 1월에 폭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반꾸바봉쇄조치에 의하여 동결되여있던 꾸바민족은행과 꾸바통신회사의 은행구좌들에서 많은 자금을 뽑아내는 강탈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강탈한 자금이 총 1억 7 000만US$에 달하는데 미국은 그것을 꾸바에 대한 모략행위에 가담한 테로분자들과 단체들에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등 반꾸바책동에 악용하였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하여 노리는 주되는 목적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을 저들의 금융예속국으로 만들고 지배와 간섭,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은 반제투쟁을 강화해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2008년 3월 미국에서 제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 스턴스가 제이피모건은행에 흡수되면서 금융위기의 불이 달렸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절반이상을 떠받들고있던 업체들인 패니매와 프레디 맥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정부에 인수되였다. 미국에서

제3위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아메리카은행에 흡수되였고 제4위의 투자은행인 레이만 브라더즈는 9월 중순에 파산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련이어 세계 130여개 나라와 지역에 지사를 두고 보험업계의 《공룡》이라고 자처하던 미국의 대보험업체인 AIG(아메리칸 인터내슈널그룹)회사가 경영난으로 궁지에 빠져 미국정부의 법정관리에로 넘어갔다. 뉴욕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가 력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하였다.

미국에서 폭발한 파국적인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세계전반에로 급속히 파급되여갔다. 유럽에서는 빠리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5.04% 떨어지고 프랑크 푸르트주식시장의 주가지수도 4.23% 떨어졌다. 일본 도꾜의 닛께이주가는 근 5%로 떨어졌고 중국 홍콩의 주가도 미국금융위기소식이 전해진 후 5%이상 떨어졌다. 영국의 주가지수도 3%로 떨어져 3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요 유럽시장 주가지수 역시 급속히 떨어졌다. 로씨야의 인떼르팍스통신은 자기나라의 주가지수가 10%이상 떨어졌다는 소식을 경제위기상황으로 보도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주택담보증권시장의 붕괴와 여러가지 경제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체계가 크게 약화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적손실이 4월에 추정한 9 450억US$로부터 10월에 1조 4 000억US$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세계금융위기사태를 놓고 국제여론들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미국뿐아니라 전세계적판도에서 경제를 뒤흔들어놓고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세계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등으로 세계금융위기의 파국상과 그 후과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국내경제에는 낯을 돌리지 않고 해외침략과 전쟁책동에 돈을 마구 탕진하는 미국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있다.

이란대통령은 《문제는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 법이다. 현재 월가를 뒤흔들고있는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주로 부쉬행정부의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그에 의거하고있는 무장간섭에 있다.》고 말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 국내에서는 무질서한 자유시장경쟁을 부추기는 미행정부의 그릇된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금융위기가 해소될수 없다는것이 여론의 평이였다.

세계적인 금융사기협잡군

몇해전 프랑스는 《쏘씨에데 제네랄》은행을 사영화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결손을 보게 되였다.

그것은 금융사기협잡군 11명이 당시 프랑스재정상이 제공한 《비공개대내정보》를 리용하여 은행총재도 모르게 이 은행주식의 10%를 사들인 후 되거래하여 적지 않은 돈을 치부하였기때문이였다.

프랑스는 국가의 유력한 수사기관을 총동원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 금융사기협잡군들의 비행을 적지 않게 밝혀냈다.

프랑스 빠리재판소는 《쏘씨에데 제네랄》은행을 사영화할 때 협잡행위를 한 11명가운데서 4명을 호출하였다. 이 4명의 인물들속에 죠지 쏘로스도 들어있었다.

서방세계에서 대금융투기업자로, 미국정부를 등에 업고 일확천금하여 억대의 재부를 긁어모은 재력가로 알려진 쏘로스가 금융투기에서 《전과》를 올리기 시작한것은 1992년의 유럽환률위기때부터이다.

세계지배전략을 악랄하게 추구해온 미제는 당시 딸라지배체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될수 있는 유럽단일화폐(유로)의 도입을 파탄시키기 위해 쏘로스를 비롯한 금융투기업자들을 내세워 서유럽나라들을 휩쓴 유럽환률위기를 조성하였다.

쏘로스 등 미국의 대금융투기업자들은 당국의 비호밑에 유럽단일시장형성문제를 둘러싼 유럽동맹나라들사이의 일시적인 의

견대립을 리용하여 파운드를 공격함으로써 유럽환률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서유럽나라들의 재정금융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고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되였다.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에서 쏘로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이췰란드경제주간잡지는 《쏘로스는 영원히 잉글랜드은행의 용서를 받지 못할것이다. 1992년 쏘로스는 거액의 도박금을 투자하여 영국파운드와 교전했는데 그 결과 영국이 파운드가치를 떨구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 모든것을 파괴해버렸다.》고 하였다.

1997년 세계적인 통화금융위기를 몰아온 아시아금융위기도 쏘로스를 주역으로 하는 금융협잡군들이 빚어낸것이였다.

쏘로스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금융투기는 참으로 날강도적이였다. 인도네시아는 발전도상국이며 여기에는 많은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고있었다.

쏘로스는 인도네시아의 재정정보를 손금보듯 환히 꿰든 다음 유리한 자금조건을 리용하여 이 나라의 주식을 대대적으로 사들이였다. 그런 다음 사들인 주식들을 헐값으로 팔아치웠다. 결과 인도네시아의 주식시세는 폭락하였으며 나라는 사상최대의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쏘로스는 해당 나라의 요직에 있는 관리들을 사전에 매수하고는 자기의 목적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상투적인 수법을 적용하였던것이다.

쏘로스의 화페투기로 하여 커다란 정치, 경제적손실을 입은 인도네시아정부는 외환시장에서 투기행위를 한 투기업자를 국가전복죄(최고형은 사형)로 처형할것을 결정하면서 쏘로스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영원히 중지시키고 그가 자기 나라에 오면 그의 생명을 담보할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렇듯 쏘로스는 미국정부의 뒤받침을 받아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통보체계를 갖춘 금융투기전문회사를 꾸려놓고 그를 통하여 금융체계가 약한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금융위기를 의도적

으로 조성하여 막대한 폭리를 얻군 하였다.

1997년 동남아시아지역을 휩쓴 파국적인 금융위기로 하여 이 지역만이 아닌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큰 재정적손실을 입고 심각한 정치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였다. 그 후과는 세계적범위로 확대되여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말려들었고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리였다. 이것도 음모군들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였다. 후에 쏘로스와 같은 금융투기업자들에 의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다는것을 알게 되자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범인을 비난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쏘로스를 비롯한 금융투기범죄자들을 감싸주고 두둔해나섰다.

미국의 보호밑에 세계적인 금융사기협잡군들이 날치는 한 자본주의세계에서 금융위기는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처지가 달라지는 딸라

미국의 세계제패의 기둥은 딸라이다. 미국의 독점재벌인 포드는 《딸라는 곧 미국이며 딸라의 지위는 곧 미국의 지위이다.》라고 말한적이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막대한 전시초과리윤으로 하여 세계 금보유량의 70%를 차지함으로써 유일한 채권국으로, 《금융제국》으로 되였다.

미국은 1944년에 뉴 햄프셔주의 브레톤 우즈에서 협정을 체결하여 딸라가 금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것으로 선포하고 딸라를 《국제기준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제도를 세워놓았다.

이처럼 막대한 재부를 그러쥔 미국은 이에 기초하여 세계적인 경제적지배권을 확대하고 략탈을 강화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 미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로 되면서 금이 미국으로부터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로 흘러나가게 되였으며 결국은

시세가 떨어진 딸라와 금을 바꾸는 요구량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였다. 1970년대에는 자본수지적자를 메우는데 리용되였던 무역수지흑자마저도 적자로 되여 미국의 금예비는 하루아침에 바닥이 날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1971년 8월 당시 제37대 미국대통령인 닉슨은 부랴부랴 딸라와 금의 교환을 중지한다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결과 브레톤 우즈협정에 의하여 세워졌던 전후통화체계가 무너지고 서방금융시장에서는 딸라와 다른 화폐들사이에 자유환률제가 시작되게 되였다.

그후에도 딸라의 시세는 끊임없이 떨어졌다. 엔에 비한 딸라의 시세는 제2차 세계대전종결직후의 1US$: 360￥으로부터 1970년대말에는 1US$: 190￥으로 폭락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1US$: 100￥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국제금융활동에서 딸라가 차지하는 역할은 이 기간에 거의 50%나 떨어졌다.

새 세기에 들어와 딸라시세가 떨어지는 추세는 더욱 지속적인것으로 되였다.

2001년부터 2004년초까지의 기간에 유로에 비한 딸라의 시세는 30%나 떨어졌다.

딸라의 지배력이 흔들리는 근본원인은 미국경제가 산업경쟁력을 잃고 소비구조, 전쟁구조로 바뀌였기때문이다.

미국딸라가치가 떨어짐으로써 가장 큰 타격을 받는것은 결제화폐를 미국딸라로 쓰는 나라 및 단위들이며 특히 수출품의 결제화폐를 미국딸라로만 고정시켜놓은 나라들, 국가외화보유를 미국딸라로 많이 저축한 나라들이다.

중국, 로씨야,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여러 나라들과 지역에서 미국딸라에 대한 배척기운이 높아가고있다.

로씨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원유거래에서 미국딸라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고있다. 이란은 2007년에 미국딸라에 의한 원유거래를 완전히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수리아정부도 원유거래 등 모든것을 미국딸라대신 유로로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중요원유생산국인 쿠웨이트는 이미전에 자국의 화폐시

세를 미국딸라에 고정시키던 제도를 포기하였다.

2008년에 브라질과 아르헨띠나는 쌍무무역에서 미국딸라의 사용을 배제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원유거래를 비롯하여 무역,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딸라에 대한 타격위협이 커가고있다. 200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세계무역거래에서 65%는 미국딸라로 결제가 진행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미국딸라에 의한 무역거래는 50%이하로 대폭 떨어졌으며 많은 경우 다른 전환성화폐들로 거래가 진행되고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외화예비를 미국딸라로부터 다른 전환성화폐로 바꾸고있다.

세계적으로 미국딸라를 배제하고 민족화폐와 지역 및 국제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2010년부터 만협조리사회 성원국들은 단일화폐를 류통시키려하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알바성원국들은 무역결제에 공동화폐 쑤끄레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상해협조기구 성원국들은 초민족적인 화폐를 새로 도입하려 하고있으며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는 2018년에 단일화폐를 내오기로 하였다.

미국딸라가 국제적배척을 당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며 그것은 미국의 파멸을 예고하는것이다.

먹고 먹히우는 경쟁

미국사회에서는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승냥이》가 되고 《매개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라는 미국식생활양식, 극단한 개인리기주의가 판을 치고있다.

《너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나만이 살고 나만이 부자가 되면 된다.》, 《돈과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서는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켜야 한다.》 이것은 미국자본가들의 생활론리이고 사고관점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수백수천만 근로대중이 생존경쟁에 시달리고있으며 독점체들의 경우에도 치렬한 경쟁에서 패하여 파산몰락하는것이 부지기수이다.

1997년 5월 미국의 《보잉》항공회사와 《맥도널 더글러스》항공회사가 통합하였다. 《보잉》과 《맥도널 더글러스》는 미국의 비행기제작부문에서 각각 첫번째와 세번째 자리를 차지해온 독점회사들이였다.

《보잉》회사가 명목상으로는 《맥도널 더글러스》회사와 통합하였지만 사실상 《보잉》회사가 상대방을 먹어치운것으로 되고말았다. 결국 《맥도널 더글러스》회사는 강자인 《보잉》회사에 의하여 자기의 존재를 끝마친셈이다.

강자가 약자를 물어메치는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잉》회사는 《맥도널 더글러스》를 통합한 후 미국내의 3개 대규모항공회사들과 20년간의 려객기판매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이 취한 이 조치에 의하여 《보잉》—《맥도널 더글러스》통합그룹은 자기의 년간 거래액을 대폭 늘이게 되여 앞으로는 세계려객기시장의 65%, 수송기시장의 90%, 려객기정비 및 부분품공급시장의 78%를 점유할것을 노리게 되였다.

이것은 유럽동맹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되였다. 그것은 자기의 려객기판매시장을 많이 잃어버릴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때까지 유럽동맹은 자기들이 생산한 려객기의 판매량가운데서 45%를 미국시장을 통해 실현하고있었던것이다.

먹이 즉 려객기판매시장을 놓고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유럽동맹은 힘이 딸리였지만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의 통합그룹의 조치는 시장자유경쟁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항공업체들사이에 체결된 판매독점계약을 즉시 철회하라고 들이대였다. 그러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 《보복조치》에는 미국려객기통합그룹에 년간 총거래액의 10%까지의 벌금을 적용하며 《보잉》려객기수입을 일체 금지한다는것 등이 들어있었다.

늘 강자의 거만한 자세를 가진 미국은 유럽동맹의 대응에 가만있지 않았다. 미국은 유럽동맹을 눈아래로 보아왔지만 자기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만일 유럽동맹이 미국려객기통합그룹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년간 5억US$의 손해를 보게 되고 자기의 유럽시장을 잃어버릴수 있었다. 미국은 량면전술을 쓰기로 하였다. 우선 미국은 유럽동맹의 도전을 《미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 《생억지》라고 몰아붙이면서 유럽동맹의 려객기를 구입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내세우는 등 반유럽동맹깜빠니야를 벌렸다.

한편 미국은 유럽동맹과의 《협상》을 벌려놓고 유럽동맹이 문제시하는 《보잉》려객기판매독점계약문제에 대하여 강경하게 나오다가 마지막순간에 양보하는척 하였다. 이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감람나무를 내드는 격이였다.

결국 미국은 유럽동맹을 위협과 《양보》의 방법을 써서 눌러버리였다. 약육강식의 법칙은 동물계에서뿐아니라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도 꼭 들어맞는 유일한 생존방식인것이다.

사냥물신세가 된 미국기업

미국은 오랜 세월 자기의 끝없는 탐욕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연부원은 물론 기업들도 《사냥물》로 여기면서 서슴없이 먹어치우군 하였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형편이 달라져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사냥물》로 되고있다.

큰것만 보더라도 2007년에 미국 오리건철강회사를 통채로 사들인 로씨야의 강철회사인 에브라즈가 2008년에 또 미국강철회사인 오레곤스틸을 《소화》하였다.

2008년 5월 로씨야 최대의 철강회사인 OAO세베스탈은 미국 메릴랜드주의 스패로스 포인트제철소를 8억 1 000만US$에, 미국 제

10위의 철강업체인 에스마크를 12억 8 500만US$에 사들이였다.

이리하여 몇해사이에 로씨야기업들이 미국기업들을 사들이는데 투자된 금액은 무려 42억US$에 달하였다.

로씨야뿐만이 아니다.

2008년 2.4분기에만도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기업들을 매수하는데 투자된 금액은 1 200억US$이상에 달하였다.

2008년 상반년기간 세계적으로 매수거래된 회사들중에서 22%는 미국의것이였다.

대표적으로 벨지끄의 앵베브맥주회사는 520억US$로 미국의 안호이져 부쉬맥주회사를, 이스라엘의 테바제약공업회사는 76억 6 000만US$로 미국의 바르약품회사를, 스위스의 노바티스회사는 277억US$로 미국의 안과병원업체인 앨콘회사를 매수하였다.

2008년에 유럽나라들은 314개, 아시아나라들은 117개, 중동 및 아프리카나라들은 33개의 미국회사들을 각각 매수하였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전하였다.

2009년 10월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미딸라시세가 근 2년동안에 다른 주요화폐들에 비해 13%나 떨어졌기때문에 많은 미국회사들이 다른 나라 회사들의 《사냥물》로, 매수대상으로 되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현재(2009년 7월) 외국에 류출되여 미국회사들을 매수하는데 리용될수 있는 미딸라액수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의 주요 맥주업체인 안호이져 부쉬맥주회사는 물론 문화재로 불리우던 뉴욕의 크라이슬러빌딩까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매수되니 미국인들은 앞으로 《미국자체가 통채로 매수될것이 아닌가.》고 하며 경악하였다고 말했다.

미국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매수되고있는 사태는 미국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고있다.

미국경제의 반동성과 취약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드러나고있다.

《챌린저》호는 왜 폭발하였는가

1986년 1월 28일 미국이 제작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후 몇분만에 폭발하여 우주비행력사상 가장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

1961년 4월 21일 사람을 태운 첫 우주비행선이 우주로 날아올라 유인우주비행력사가 시작된이래 우주비행선사고로 모두 1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절반이 《챌린저》호 폭발시에 죽은 사람들이다. 그가운데는 몇분전 비행선에 오를 때 6살의 어린 아들이 손저어 바래준 젊은 어머니우주비행사도 있다.

그러면 오랜 기간 많은 품과 돈을 들여 제작한 우주왕복선이 왜 폭발하였는가. 그것은 돈만 아는 미국의 사회풍조에서 키워진 관리들의 무책임성에 있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데 의하면 《챌린저》호 우측보조추진로케트의 련결부에 있는 《O》형밀페고리가 로케트점화후에 파렬된것이 이 사고를 초래한 직접적원인이였다. 로케트밀페장치재질설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것이다.

로케트가 발사되여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매우 낮은 기온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합성고무로 만든 밀페고리들이 탄성을 잃어 밀페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나니 사고가 난것이였다.

밀페고리에 엄중한 결함이 있다는것은 이미 1978년초에 발견되여 상부에 제기되였으나 미항공우주국 관리들은 무책임하게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후 우주왕복선이 폭발하기 전해인 1985년에도 보조추진로케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다시 미항공우주국에 밀페고리재질에 기술적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끝내 해결책을 세우지 않은채 우주왕복선을 발사하였던것이다.

미항공우주국은 경영비절약을 구실로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발사쎈터의 기술자들과 검사인원들을 무려 70%나 축감하여 기술검

사력량이 현저히 약화되게 하였다. 게다가 발견된 결함마저 퇴치하지 않고 우주왕복선을 발사하였으니 대형사고를 피할수 없었던것이다.

스위스경제의 특색

스위스는 높고 험한 알프스산줄기를 끼고있는 내륙국가이다. 면적은 4만 1 288㎢로서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741만 8 000명(2004년)으로서 크지 않은 나라이다.

스위스는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발전시키고있다.

첫째, 스위스는 시계생산을 비롯한 정밀기계공업을 발전시키고있다. 이 나라에서 시계생산은 3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고급손목시계생산과 수출은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시계생산은 대부분 중소규모공장에서 진행되며 지어는 농촌마을, 가정에서도 시계부속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조립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600여개의 시계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해에 5 000만～6 000만개의 시계를 생산하여 그의 95%를 세계시장에 내보내고있다.

시계생산의 중심지는 수도 베른이다. 이 시에서만도 해마다 4 000만개의 시계를 생산하고있다.

둘째, 산지가 많은 스위스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다락밭농사를 장려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산골짜기와 등판마다 풀판을 많이 조성하고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소는 2 400만마리, 양은 2 300만마리 그리고 염소, 돼지 등을 많이 길러 농업생산총액에서 축산물생산이 차지하는 몫을 70%이상 높였다. 그리하여 해마다 수십만t의 고기와 수백만t의 젖을 생산하고있다.

부침땅은 약 40만ha이지만 비탈지들에 다락밭을 많이 건설하고 농업을 집약화하여 알곡작물생산량을 적극 늘이고있다.

셋째, 경제에서 봉사부문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중요봉사부문은 관광업과 금융업이며 상업봉사도 잘하고있다. 특히 관광업을 발전시키고있는데 이 부문에서만도 30여만명의 주민이 종사하고 있다. 관광에서는 알프스산지에 대한 등산관광이 위주로 되여있다.

해마다 관광업에서 얻는 수입만도 백수십억US$에 이른다.

또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스위스에 은행을 두고있으며 세계금융거래의 50%가 스위스은행을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사탕의 나라—꾸바

꾸바는 까리브해에 있는 꾸바섬과 그 주변에 있는 1 60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면적은 11만 4 524㎢이다.

꾸바는 1959년 1월 1일 친미독재정권을 때려부시고 혁명에서 승리함으로써 서반구에서 첫 사회주의국가로 되였다.

꾸바는 령토의 80%가 벌로 되여있으며 열대해양성기후지역으로서 사탕수수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사탕수수재배와 그에 의한 사탕생산은 꾸바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사탕수수밭은 전국 부침땅의 35%를 차지한다.

사탕공업은 공업생산액의 5분의 1, 수출총액의 80～85%를 차지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160여개의 사탕공장이 있는데 사탕생산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수는 200만명이상이며 사탕생산량은 한해에 700만～800만t수준이다.

꾸바는 사탕생산량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세번째이지만 사탕수수에 의한 사탕생산에서는 첫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인구 1인당 생산과 수출에서도 단연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생산된 사탕의 대부분은 세계 40여개 나라에 수출된다.(세계 사탕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

소가 많은 인디아

인디아는 힌두교의 풍습에 따라 소고기를 먹지 않으며 헌법에 의하여 소를 보호하게 되여있다. 소는 인디아사람들에게 젖제품을 공급해줄뿐아니라 밭갈이, 짐나르기에 리용된다. 힌두교인들은 흰 암소를 《신우》로 여기면서 소를 특별히 우대한다. 거리에서도 소는 아주 자유롭게 다닐수 있으며 차도 소에게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 시장에서도 소는 마음대로 시장의 식료품을 먹을수 있다.

인디아에서는 해마다 한번씩 소를 떠받드는 명절놀이를 벌리는데 이때에는 꽃다발과 동으로 만든 방울을 소의 목에 달아주고 소뿔에 색칠을 해준다.

인디아에는 소가 약 2억마리 있는데 세계 총 소마리수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무역중심지－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금융중심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무역 및 관광중심지이다.

세계 21개의 금융시장가운데서 싱가포르외환시장은 매일 평균 550억US$를 교역함으로써 세계에서 5번째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싱가포르는 해마다 500만명이상의 관광객을 받아들여 42억US$정도 벌고있다. 싱가포르경제에서는 중계무역이 기본을 이룬다. 중계무역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그 주변의 나라들에서 원유, 천연고무, 석, 코프라, 향료 등을 사다가 초보적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그대로 수출하는 방법으로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공업제품을 사다가 재수출하는 방법으로도 한다.

싱가포르는 말라이반도남쪽끝에 있는 싱가포르섬과 그 둘레의 우빈섬, 뗴꽁베싸르섬과 블라깡마띠섬을 비롯한 57개의 섬들로 구성되여 죠호르해협을 사이에 두고 말라이반도와 떨어져있다.

싱가포르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중계항이다. 말라까, 싱가포르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는 하루에 약 230척에 달하며 그중 86%가 싱가포르항에 기항한다. 이 나라는 태평양과 인디아양을 잇는 바다길에 놓여있어 전략상 요충지로 되고있다.

빠나마운하

국제적인 배길인 빠나마운하는 중앙아메리카의 빠나마지협에 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고있다.

운하의 길이는 81.6㎞이고 물깊이는 12.5m, 바닥너비는 92～300m이다.

운하는 수에즈운하와는 달리 갑문식으로 되여있으며 갑문수로에 쓰는 물은 인공호수인 가뚠호에서 받는다.

배가 운하의 전구간을 통과하는데 평균 7～8시간 걸리며 하루에 평균 48척의 배를 통과시킬수 있다. 이 운하가 건설됨으로써 태평양북부로부터 대서양연안까지의 배길이 수천㎞나 줄어들었다. 이 운하로 해마다 1만여척을 헤아리는 배들이 지나가며 수억t의 짐과 수만명의 사람들이 이 배길을 통과한다. 이 운하는 1904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1914년에 완공하였는데 매해 5만명의 빠나마로동자들이 일하였다. 운하건설기간 이곳에서 일하던 6만명의 로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만명이 불구자로 되였다. 이것은 운하길이 1m마다에 거의 한명씩 죽은것으로 된다.

운하가 건설된 후 미제는 빠나마운하지대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이 지대를 가로타고앉아 오래동안 해마다 수억US$의 리윤을 짜냈다. 그러나 1999년 12월부터 빠나마운하는 빠나마인민의것으로 되였다.

중요한 해상통로—말라까해협

말라까해협은 동남아시아의 말라이반도와 쑤마뜨라섬사이에 있는 국제해협이다. 해협의 길이는 800㎞이고 제일 좁은 곳의 너비는 40㎞, 깊이는 25～117m이다.

해협의 남쪽입구에 싱가포르가 있다. 말라까해협은 태평양으로부터 인디아양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해상통로이며 페르샤만지역의 원유수송로들중의 하나이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는 매해 5만여척이나 되는데 배들이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1 000n. mile이나 배길을 에돌아야 한다. 이 해협은 교통상, 군사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기때문에 오래전부터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왔다.

15세기초에 말라이반도의 서해안중부에 말라까왕국이 수립되여 이 해협을 틀어쥐려고 침략의 촉수를 깊숙이 뻗치였다.

16세기초부터 뽀르뚜갈과 네데를란드가 약 300년동안, 18세기말에는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일본이 이 해협을 장악했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야 이 해협은 다시 연안국들의 소유로 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은 말라까해협을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책동하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협연안국들은 서로 단결하여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등 해협에 대한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말라까란 이름은 옛날 말라이반도 서부에 있었던 말라까왕조에서 유래되였는데 말라까란 쟈바해연안에 무성한 나무의 한 종류의 이름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관광지—지중해연안

지중해연안은 세계적인 관광지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것은 사철 기후가 온화하고 날씨가 맑으며 바다풍경과 산악경치가 매우 아름답기때문이다. 또한 고대시기의 력사유적유물들도 많다.

이 지역에서 관광업이 발전된 나라들을 보면 우선 에스빠냐를 들수 있다. 이 나라는 세계 첫째가는 관광국으로서 지중해의 해수욕장과 맑은 날씨, 삐레네산줄기의 아름다운 계곡미로 이름났다. 이 나라는 해마다 4 000만명이상의 관광객을 받아들이고있다.

말따는 지중해상에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로서 3가지 보물(해빛, 바다물, 흰대리석)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늘 맑고 푸른 하늘과 밝은 해빛이며 물맑은 해수욕장과 잔잔한 바다가, 눈부신 백사장, 어디나 흰대리석으로 장식한 건물들이 이채를 띠고있다.

이딸리아수도 로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도시들중의 하나로서 도시전체가 력사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고대로마시대의 유적유물들이 많다. 그러므로 로마는 세계에 이름난 관광도시로 알려져있다.

《땅굴경제》

《땅굴경제》, 누구에게나 귀에 선 이 용어로 상징되는 곳은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이다.

가자지대에는 《땅굴경제》로 통칭되는 수많은 땅굴(턴넬)들이 뻗어있다. 그 대부분은 남쪽의 에짚트로 향해있다. 그 수는 수

백개에 달한다.

턴넬들은 목적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 그것들은 매일과 같이 리용된다.

턴넬들로는 식량과 애기용졸인젖으로부터 의복류와 신발, TV와 콤퓨터를 비롯한 전기용품, 건설자재 심지어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물품들이 운반된다.

가자지대에서는 《땅굴업》이 인기있는 기업으로 되고있다. 이곳의 경제활동과 사람들의 래왕은 바로 이 땅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있다. 다시말해 땅굴들은 가자지대주민들을 위한 주요필수품공급통로이자 생명선이다. 국제사회계는 이것을 《땅굴경제》라고 부른다.

《땅굴경제》라는 용어가 생겨난데 대해 가자지대에 있는 유엔의 한 기구책임자는 《이곳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통과지점들을 거쳐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법이 없다. 경제라는게 있다면 〈땅굴경제〉뿐이다.》고 말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령토인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를 인공적으로 갈라놓고 팔레스티나인들에게 가슴아픈 분렬과 고통, 비극의 력사를 강요하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2007년에 하마스(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가 가자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그들은 가자지대의 륙지와 해안을 완전봉쇄하고 사람들의 래왕과 상품류통을 차단하였다. 다만 허용되는것은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인도주의물자와 원조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지원물자나 원조에 대해서도 쩍하면 당치 않은 구실을 내들고 그 조달을 막아치우군 한다.

이스라엘의 악랄한 봉쇄책동으로 가자지대에서 살고있는 약 150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은 땅굴에 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땅굴경제》는 이렇게 생겨났다.

팔레스티나인들을 고립질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악랄한 봉쇄책동의 마수는 《땅굴경제》에도 뻗치고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땅굴무역》을 통해 리득을 보고있다고 여

론을 퍼뜨리면서 땅굴들을 봉쇄하고있다. 2008년말부터 2009년초까지 감행한 가자지대에 대한 무지막지한 무력침공과 살륙작전에 의해서만도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목숨을 잃었을뿐아니라 가자지대—에짚트국경지역밑을 통과하는 땅굴의 90%이상이 파괴되였다. 그후에도 가자지대에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지하관통용폭탄들이 수시로 떨어져 땅굴들이 파괴되고있다.

《땅굴경제》에는 파렴치한 이스라엘강점자들의 죄악이 비껴있다.

미제의 인재확보전략

미제는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은 권모술수와 강도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유능한 학자들과 기술인재들을 끌어가고있다.

1940년대 중엽 미국에서 원자탄을 개발한 학자들의 대부분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였다.

1930년대 중엽에 현대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을 미국에로 유인한 미제는 1939년에는 핵폭발과 그 무기화의 가능성을 증명한 한스를 비롯한 도이췰란드의 핵물리학자들을 회유기만하여 미국으로 망명하도록 하였다.

히틀러의 측근요인들중에 대학졸업생이 2명밖에 없을 정도로 무식이 지배하였던 도이췰란드는 자기 나라 과학자들의 핵물리연구성과의 가치를 리해하지 못하고 학자들을 홀시하고있었는데 미제는 이것을 리용하여 도이췰란드과학자들을 돈과 좋은 연구조건을 구실로 미국에 데려다가 원자탄을 만들게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노르망디에 상륙한 미군은 전진하는 기본전투서렬의 앞에 있는 척후정찰집단에 첨단부문의 과학기술인재들을 색출하는 랍치인원들을 배속시키였다.

그리고는 도이췰란드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일

류급과학자들과 군수기술자들을 찾아내여 군용기로 미국에 끌어가게 하였다. 그들은 미국에 가서 주로 군수산업부문에서 살인장비를 갱신발전시키는 일을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의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끌어다가 써먹고있다.

실례로 미제는 한때 필리핀에 1억 2 000만US$의 《원조》를 주면서 그 조건부로 필리핀정부가 이 나라의 고급기술인재들이 미국에 이주하여 사는것을 허용할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여 실현하였다.

미제는 핵기술과 같은 큰 문제들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나온 자그마한 연구성과나 발명품을 낸 창안자, 발명가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미국으로 데려가고있다.

스웨리예의 20살난 한 연구생이 전자연필을 창안하였을 때였다.

이 연필은 인공위성에서 받은 임풀스를 서로 다른 3개의 색갈로 표시하는데 매 색소마다 또 서로 다른 10개의 색소가 있어 위성으로 측정한 산정, 광산, 논밭들을 명백히 구분하여 그려낼수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안 미국은 많은 돈으로 전자연필을 창안한 연구생을 사옴으로써 인공위성에 의한 대상물탐색에서 나서는 중요기술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미제는 특히 창조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있는 다른 나라의 젊은 과학자들을 매수하여 데려가는데 신경을 쓰고있다.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연구성과를 가장 많이 낼수 있는 시기가 연구원졸업후 3～5년이라는것을 타산한 미제는 이 나이의 과학자들을 계약형식으로 데려가거나 높은 보수를 주고 초빙교수로 인입하여 저들의 리익에 복무하도록 하고있다.

지어 놈들은 첨단과학분야나 특수기술에 정통한 인재들을 《초청》하여놓고 자국내 청년과학자들을 붙여 빼낼것을 다 빼낸 다음 본국으로 돌려보내고있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인재들을 끌어가는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이며 파렴치한 본성을 잘 알수 있다.

과학기술봉쇄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21세기에 들어와 더욱더 커가고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선진과학기술은 인류공동의 재부로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고 그 교류를 봉쇄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그 주되는 목적은 과학기술을 통해 더 많은 리윤을 얻으며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발전을 억제하여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미국 등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기술교류에서 부당한 조건을 내걸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립장을 취하고있다. 서방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과학기술을 넘겨줄 때 알맹이를 빼고 넘겨주거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것, 질이 낮은것을 선심을 쓰는것처럼 하면서 높은 값으로 팔고있다.

그리고 앞선 과학기술을 독차지하기 위해 최첨단과학기술은 넘겨주지 않는다.

미국은 발전도상나라들에 기술을 넘겨주는 경우 10년이상 뒤떨어진 기술을 수출하도록 법화하였다. 1990년대 중엽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가 프랑스로부터 수천만US$어치의 세멘트공장설비를 일식으로 구입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프랑스는 세멘트공장설비가운데서 핵심부분품은 빼고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세멘트공장건설이 거의 끝나갈무렵에야 다른 나라에서 질이 낮은것을 사다가 가공한것을 가지고 굼때버렸다.

일본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 다음에야 종전의 기술을 이전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과학기술발전을 억제하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인재들을 돈과 재물 등으로 매수하거나 유혹하여 해당 나라의 과학연구사업에서 떨어져나오도록 꾀하고있다. 미국은 쏘련이 좌절된 후 로씨야의 이름있는 과학자들을 뭉치돈으로 꾀여 데려갔다. 특히 물리학분야의 과학자, 전문가들을 빼앗아가기 위해 《높은 대우》를 약속하고 미국시민권을 준다는 등 별의별 유혹공세를 다 펴고있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구실로 다른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빼내가고있으며 지어 과학기술인재들을 랍치해가기까지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많은 시간과 자금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값눅은 두뇌를 리용하고있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화학과 생물학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려다 쓰면 서방전문가들을 《초청》하는것보다 자금을 90%이상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과학기술을 억제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경제정보전의 이모저모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를 움직이는 엔진은 경쟁이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 효률화된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도태되기 마련이다.》는 말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리하여 상대를 꺼꾸러뜨려야 한다는 강도의 론리가 통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업 대 기업, 개인 대 개인의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자본가들은 정보는 곧 경쟁력이고 정보의 쟁탈과 확보가 새로운 원료나 자재, 시장개척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경제정보전을 벌리고있다.

아프리카의 자동차시장은 원래 프랑스의 독점하에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은 군침을 흘리며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마침내 숱한 첩자들을 파견하여 프랑스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아프리카시장에 뚫고들어갈수 있는 정보를 쥐게 되였다.

그 정보는 프랑스회사가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대부금을 주기 싫어하고 부분품납입이 뜨다는것이였다.

이런 약점에 기초하여 일본자동차업체는 대상자들에게 프랑스보다 더 좋은 우대조건을 제공해주었을뿐아니라 부분품납입기일도 앞당겼다.

일본자동차업체들의 《선심》은 아프리카의 자동차수입상인들로 하여금 일본에 낯을 더 돌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교활한 일본자동차생산자들은 프랑스를 밀어내고 아프리카의 많은 시장을 차지하게 되였다.

일본의 과학기술과 공업의 발전은 남의것을 모방하고 정보쟁탈전을 벌린 결과이다.

일본의 기업체들은 정보쟁탈전에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있다. 대기업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미쯔비시독점재벌은 정보를 거머쥐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고있는데 이 회사가 매일 받는 정보통신테프를 누군가가 읽는다면 6개월이 걸리는 정도라고 한다.

일본의 한 회사는 세계각국에 100여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3 000여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있다. 이 회사의 정보쎈터에서 매일 세계각지로부터 받는 정보, 전화, 우편물은 수만여건이나 된다. 받는 텔렉스, 전보, 테프를 다 합치면 지구를 11번이나 감돌만한 길이라고 한다.

한때 프랑스맥주회사의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단마르크맥주에 눌리웠다. 고심하던 프랑스맥주회사는 한 성원을 단마르크에 보냈다.

회사측은 그에게 새 정보를 얻는 경우 거액의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단마르크의 맥주생산비밀을 탐지하기 위해 이 나라에 온 프랑스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비밀을 알아낼 방도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엄청난 돈을 그려보며 모험을 해서라도 그 비밀을 알아낼 단호한 결심을 하였다.

어느날 그는 단마르크맥주공장 주인이 찾아오는 고급식당주차장에 대기하였다. 시간이 지나 맥주공장주인이 식당문을 나서서 승용차에 올랐다. 프랑스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용차가 움직이자 미끄러져 넘어지는척 하면서 다리를 차바퀴밑으로 밀어넣었다. 구급치료과정을 거쳐 목숨은 건졌으나 다리 하나를 제대로 쓸수 없게 되였다. 며칠후 맥주공장주인이 프랑스인을 문병하려 병원에 왔다.

프랑스인은 절망적인 표정을 보이면서 말했다.

《인젠 불구까지 되였으니 고향에 돌아간들 뭘 하겠습니까? 밥만 먹여준다면 하다못해 문지기라도 할수 있으니 절 공장에 받아주십시오.》

맥주공장주인은 프랑스인의 처지가 가긍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맥주공장 문지기로 된 프랑스인은 사업상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맥주원료배합비률 등을 재빨리 알아냈다.

얼마후 남몰래 귀국한 그는 경제정보자료를 회사측에 넘겨주었다. 회사측은 약속대로 거액의 돈을 그에게 주었다.

그후 프랑스맥주회사의 제품은 반년도 못되는 기간에 단마르크맥주와 대등한 질좋은 수준에 올랐다. 그리하여 프랑스맥주는 국제시장에 뚫고들어감으로써 단마르크맥주와 겨룰수 있는 당당한 경쟁자로 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단마르크인들은 후회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1980년대 중엽 프랑스의 수도 빠리교외에 위치하고있는 화학공장에서 새로운 세척제를 연구하고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빠리의 신문들에는 외국사람들이 낸 초빙광

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사업상 필요로 고급화학전문가 여러명을 모집한다는 내용과 당선자에 대하여서는 《높은 혜택》을 약속하는 내용이 실렸었다.

광고를 보고 30여명의 화학전문가들이 모여왔다. 그들은 《높은 혜택》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에 마음이 끌린 사람들이였다.

외국인들은 신청자명부에서 빠리교외의 화학공장에서 새로운 세척제를 연구하는데 관여한 화학전문가도 8명이나 들어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찾고있는 화학전문가 여럿이 일시에 나타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8명을 별도로 불러들여 담화해보았다. 담화과정에 8명은 높은 보수와 대우를 담보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알고있는 기술정보를 몽땅 털어놓았다.

외국인들은 그들과의 담화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담화가 끝난 후 프랑스의 화학전문가 8명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합격통지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거의 한달이 되여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다. 외국인들은 8명과의 담화내용을 종합분석하여 새로운 세척제의 원료배합방법, 작용원리, 생산공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 자기 나라에서 프랑스화학공장보다 먼저 새로운 세척제를 생산하게 하였다.

1980년대말에 있은 일이다.

도이췰란드의 한 사진기자재회사에서 만든 기자재는 질이 높아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었고 국제경쟁력도 높았다. 이 회사를 참관하기 위해 많은 외국손님들이 왔다. 그들은 실험실주인과 함께 회사의 여러곳을 돌아보군 하였다. 한 외국손님이 특허제품인 새로운 사진현상용액을 보느라고 허리를 약간 굽히고 용기속의 액체를 자세히 관찰하였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매우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였다. 하

지만 외국손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였던것이다. 그는 약간 허리를 굽히는 순간 목에 맨 넥타이끝이 현상액속에 닿을수 있도록 한것이다.

외국손님은 넥타이끝에 묻은 용액을 화학분석하면 현상용액의 비밀을 쉽게 알아낼수 있기때문에 보통사람들의것보다 좀더 긴 넥타이를 매고 왔던것이다.

하지만 외국손님의 거동은 실험실주인의 눈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실험실주인은 이런 일을 이미 체험한바 있었다.

실험실주인은 녀안내원을 눈짓으로 불러 귀띔해주었다. 참관이 끝나서 외국손님이 만족스레 실험실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였다. 녀안내원이 다가와 상냥스럽게 웃으며 《선생님의 넥타이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니 새것으로 바꾸십시오.》라고 하면서 새 넥타이로 바꾸어 매주는것이였다.

외국손님은 어쩔수없이 《친절한》 녀안내원이 매준 새 넥타이로 차림을 한채 실험실문을 나서게 되였다.

한번은 카나다의 한 회사에서 미국으로부터 콤퓨터설비를 구입하였는데 구매당시는 설비를 네데를란드 암스테르담에 보낸다고 되여있었다. 설비가 암스테르담까지 운반되기는 하였으나 도착하는 즉시로 오스트리아의 윈으로 운반되였으며 종당에는 모스크바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미국측에서 그 행처를 알려고 노력했으나 설비를 사간 회사가 이미 파산되였으므로 전혀 알아낼 방도가 없었다.

2004년 9월 애틀란타회사의 총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다. 다른 회사의 경쟁적수들은 원래 이 로련한 총재를 두려워하면서 접근하기 어려워했다.

그런데 공업간첩들이 기묘한 수법을 써서 총재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총재가 사용하는 전화기에다 비밀리에 초고주파도청장치를 설치했다. 이 초고주파도청장치에 의해 기업비밀이 흘러나갔다. 결국 애틀란타회사는 300만US$의 손해를 보았고 총재는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현대과학을 악용한 전자도청은 상대방의 비밀을 뽑아내고 상대방을 쉽게 파산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수단이다. 상대를 꺼꾸러뜨리기 위한 정보쟁탈전을 맹렬히 벌리고있는 미국산업간첩들의 중요목표물은 미국석유회사계통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석유회사들은 해외투자를 늘이며 더욱 치렬한 경쟁을 벌리고있다.

미국에서는 정보를 팔아먹는것도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경영에서 비밀이 루설되여 매해 50억US$의 손실을 보고 과학기술성과를 도적맞혀 해마다 200여억US$의 손실을 보고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이 미국기업계의 현실이다.

기업정보를 쥐면 치부할수 있다는것이 회사관리들은 물론 회사원들의 일반적생각이다.

그러기에 기업정보, 경영비밀을 도적질하여 팔아먹는 일이 례사롭게 벌어지고있다.

미국 시아나미드회사는 새로운 항생소를 연구하기 위하여 1 200만US$의 자금을 썼다. 그런데 이 항생소를 생산하기 시작할 때 이미 세계시장에서는 그와 같은 제품이 나돌고있었으며 그 가격은 이 회사의 값보다 훨씬 눅었다.

회사측은 놀랐다. 엄청난 손해를 면할수 없게 된 시아나미드회사는 수사기관을 인입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이 회사의 한 화학박사가 새로운 항생소를 생산하는 극비자료를 훔쳐 이딸리아의 3개 제약회사에 넘겨주었던것이다. 그는 매 회사들로부터 5만～6만US$의 보수를 받았다.

막대한 리윤을 노린 시아나미드회사가 쓴맛을 보고있을 때 이딸리아의 세 회사에서는 보수를 준것보다 3 000배가 되는 리윤을 보았다고 쾌재를 올렸다.

일본의 한 가난한 사람이 순수 이전 쏘련의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들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경제정보를 수집하여 수천만US$의 돈을 받고 일약 부자가 된 기적같은 이야기가 있다.

일본인은 그 비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씨야인들속에는 과학기술인재가 확실히 많다. 그들은 여러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의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런데 그 가치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먼저 생산에 도입할 기회를 놓치고있다. 그리하여 나는 로씨야의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남먼저 특허권을 얻어냈으며 그 기술을 생산에 도입하게 하였다. 20년동안 내가 치부해올수 있은것은 로씨야의 앞선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손에 쥐였기때문이다.》

2050년경의 세계경제구조

2050년에 가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는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40년동안에 세계경제에서는 자리바꿈이 일어날것이다. 즉 세계경제에서의 지도적지위는 선진 7개국이 아니라 발전도상 7개국이 차지하게 될것이다. 발전도상 7개국에는 중국, 인디아, 브라질, 로씨야, 인도네시아, 메히꼬, 뛰르끼예가 속할것이다.

현재 미국의 76%에 해당한 중국의 국내총산액이 2050년에는 143%에 달할것이며 인디아경제는 미국과 대등하게 될것이다.

총체적으로 21세기전반기에는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발전도상 7개국경제가 선진 7개국을 25%, 구매력평가측면에서는 75% 릉가하게 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제 4 편 지구와 환경

지구의 반구

지구는 둥근 회전타원체이다.

지구는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북반구와 남반구, 동반구와 서반구, 륙반구와 수반구 등으로 나눌수 있다.

지구를 적도선에 의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면 북쪽 부분은 북반구, 남쪽 부분은 남반구라고 한다. 북반구에서의 륙지면적은 지구륙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의 계절은 서로 반대이다.

지구를 0°자오선과 E(또는 W) 180°선에 의하여 둘로 나눌수 있는데 이때 0°자오선에서 동쪽으로 180°선까지를 동반구라고 부르며 반대로 서쪽으로 180°선까지를 서반구라고 부른다.

동반구는 서반구보다 륙지가 더 많으며 서반구는 동반구보다 바다가 더 많은 비률을 차지한다.

지구는 륙지와 물의 분포를 특징짓기 위하여 륙반구와 수반구로도 나눈다.

륙반구는 륙지가 많은 지구의 절반부분을 말하며 수반구는 바다가 많은 부분을 말한다.

륙반구에서 륙지는 48%, 바다는 52%이며 수반구에서 륙지는 6%, 바다는 94%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는 위도상으로 볼 때 북반구에, 경도상으로 보면 동반구에 자리잡고있다.

대륙의 이름과 유래

지구상에는 5개의 대륙이 있다. 매개 대륙은 자기의 독특한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유래를 가지고있다. 아시아란 《동쪽에 해솟는 곳》이란 뜻이고 유럽이란 《서쪽에 해가 지는 곳》이란 뜻이다. 후에 이 말이 퍼지면서 범위를 더 넓혀 일부 지역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있는 지방의 동부지역을 아시아로, 서부지역을 유럽이라고 불렀다.

아프리카란 그리스어에서 《해빛이 쪼인다》는 뜻이다. 아메리카란 이곳을 탐험한 이딸리아의 한 탐험가의 이름에서 유래되였다.

오스트랄리아는 에스빠냐어에 기원을 두고있는데 그것은 《남방의 륙지》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남반구에서 이 대륙을 발견하였을 때 그곳을 남극까지 뻗은 륙지로 여기고 《오스트랄리아》라고 불렀다.

나라의 령역과 국경선

나라들의 령역은 나라의 자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령토, 령해, 령공으로 이루어진다.

령토의 크기와 형태는 국가관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면적이 같은 나라라고 해도 국경선의 길이가 가장 짧은 원형국가가 관리에 비교적 유리하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스위스, 마쟈르, 로므니아 등이 이에 속한다.

반대로 칠레, 노르웨이, 로씨야, 일본 등은 비원형국가이다. 그중에서도 로씨야와 같이 동서로 길게 뻗은 국가를 등온선국가

라고 하며 칠레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가를 비등온선국가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령토가 하나로 되여있으나 일부 나라들은 령토가 둘이상으로 나누어져있다. 섬나라들이 이에 속한다.

령해란 연안국의 자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서 최대썰물선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정한다.

령해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나라마다 주장범위가 다르다.

1977년 국제해양법회의에서는 각국의 령해를 12n. mile이라고 잠정적으로 정했다.

1982년에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령해의 너비를 12n. mile로 확정하였으며 령해외에도 200n. mile의 경제수역을 설정할수 있게 하였다.

령공은 령토와 령해우의 공간지역인데 그 높이한계는 국제적으로 제정된것이 없다.

국경선이란 국가주권이 미치는 한계선을 말한다. 옛날에는 무인지대에 설정된 일정한 너비를 가진 띠모양의 국경이 일반적이였으나 현재는 선상국경으로 되였다.

국경은 국방상견지에서는 격리성을 띠여야 하며 국제관계로 볼때에는 경제문화적교류가 허용되여야 한다.

해양국경은 이런 상반된 기능을 비교적 잘 만족시키고있다.

륙상국경을 설정하는데서는 민족, 문화, 자원 등의 분포와 기타 복잡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할뿐아니라 국가간의 리해관계가 동반되기때문에 당사국들이 동시에 만족할만한 경계선을 확정하기가 매우 곤난하다.

이에 따라 국경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느 한 일방의 국력 특히 군사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례가 많다.

사막국경이나 산악국경은 격리기능이 강하며 하천국경은 교류기능이 높은것이 특징이다.

자연적국경은 오랜 력사를 가진 유라시아대륙에 많으며 인위적인 국경은 아프리카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분할책동의 후과가 심한 지역에서 주로 찾아볼수 있다.

국경선에 자리잡은 건물과 자연물

집

남아메리카주의 꼴롬비아와 브라질사이의 국경선에 아낄레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 이 집 식구들은 다 꼴롬비아국적을 가지고있는데 국경선이 이 집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부엌과 세면장을 두 나라로 갈라놓았다.

맡은 일에 성실한 국경경찰들은 이 집에다 정확하게 국경표식을 해놓았다.

그리하여 이 집 식구들은 매일 생활과정에 여러차례나 브라질로 넘어갔다가 《귀국》하군 한다. 흥미있는것은 두 나라 국경경찰들이 늘 이 집 국경선에서 만나군 하는데 그때마다 이 집 식구들은 그들을 잘 대해준다고 한다.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에도 이런 살림집이 한채 있는데 집주인은 카나다국적을 가진 녀성이다.

그 녀자는 하루 세끼를 먹기 위해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을 넘어다녀야 한다. 그것은 국경선이 부엌과 방가운데로 지나갔기때문이다.

방열기를 설치하려면 그 녀자는 반드시 미국쪽의 방에는 미국제를, 카나다쪽의 방에는 카나다제를 설치해야 한다. 그것은 두 나라가 다 외국제 물품을 사다놓으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방안에서 아이를 낳는가에 따라 그 아이는 어느 한 나라의 공민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는 미국공민도 있고 카나다공민도 있다고 한다.

마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이 린접한 곳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때로는 아프가니스탄의 관할하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란의

관할지역으로 되기도 한다.

원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은 헬만드강을 경계선으로 하고있다. 그런데 이 강은 하류의 강바닥이 늘 이동하여 강이 동쪽이나 혹은 서쪽으로 옮겨지군 한다.

그때마다 두 나라의 경계선도 달라진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두 나라에서 번갈아 관할하고있다.

공원

꼬스따리까와 빠나마사이의 중부국경지역에는 두 나라의 국경선이 지나간 국제친선공원이 있다.

두 나라 사람들은 자유로이 이 공원에 찾아와 놀기도 하고 모임도 가지며 또 장사론의도 한다.

그러므로 이 공원은 명실공히 국제공원의 역할을 하고있다.

술집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선에 술집이 하나 있다.

이 술집의 손님방은 프랑스의 경내에 들어있고 주방은 스위스의 령토에 속해있다.

그러나 손님들은 그 어떤 수속도 없이 두 나라에 드나들수 있다.

려관

알프산에 작은 려관이 하나 있는데 오스트리아와 도이췰란드의 국경선이 바로 이 려관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러므로 려관주인은 해마다 공정하게 오스트리아와 도이췰란드 두 나라 정부에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물고있다.

도서관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있다. 두 나라의 국경선이 도서관서재와 열람실사이로 지나갔기때문에 도서관직원들이 책을 관리하자면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 한다.

백화점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선에 두 나라가 공동으로 건설한 백화점이 하나 있다. 이 건물은 두 나라의 공동소유로 되여있다.

백화점안에는 미국과 카나다의 자동판매기가 여러대 설치되여있

는데 만약 미국경내에서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판매기에 미국화페를 넣어야 한다.

무대

미국과 카나다가 린접한 어느 한 섬마을에 극장이 하나 있는데 두 나라 국경선이 바로 이 극장 무대의 가운데로 지나갔다.

축구경기장

모나꼬왕국과 프랑스의 국경선상에 축구경기장이 하나 있다. 이 경기장의 주권문제를 놓고 여러해동안 두 나라사이에 많은 언쟁이 벌어졌다.

쌍방은 회담을 통해 두 나라사이의 국경선을 축구장 중앙선으로 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축구경기장의 꼴문이 각각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되였다.

다리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선상에 한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는 수천개나 되는 작은 섬이 있다. 그중 라웰이라는 작은 섬은 미국에 속해있다.

카나다에 속하는 비교적 큰 섬과 미국의 작은 섬을 련결하는 작은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국제다리이다.

호수

탄자니아 서북부의 빅토리아호를 가로질러간 중심선이 탄자니아와 린접한 우간다의 국경선이다.

탄자니아의 서부는 민주꽁고와 린접하고있는데 이곳에 세계에서 두번째로 깊은 호수인 탕카니카호가 있다. 이 호수가운데로 지나간 긴 선도 두 나라의 국경선으로 되고있다.

폭포

미국과 카나다에 속하는 이어리호와 온태어리오호사이에 이름난 나이아가라폭포가 있다. 이 폭포의 우측기슭은 미국에 속하고 좌측기슭은 카나다에 속해있다.

도시

네데를란드와 벨지끄의 국경에는 메를레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두 나라의 국경선이 이 도시를 지나갔다. 이런것으로 하여 인구가 겨우 8 000여명밖에 안되는 이 도시는 두 나라에 속하게 되였으며 두 나라에 속한 구역책임자가 각각 있고 경찰국과 세무소도 나라별로 하나씩 있다.

이 국경선우에 건설된 벨지끄인의 살림집이 하나 있는데 주방은 네데를란드쪽에 있고 침실은 벨지끄쪽에 있다. 주인이 기르는 소는 풀판을 찾아 두 나라 국경을 마음대로 오가기때문에 그 국적을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소를 팔 때 자칫 잘못하면 밀수업으로 볼수 있다고 한다.

남 극 권

남극권은 남극을 중심으로 S 66°33′이남지역에 속하는 남극대륙과 태평양, 인디아양, 대서양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남극대륙의 면적은 1 411만㎢이다. 대륙은 거의 전지역이 얼음으로 덮여있다. 평균기온은 −80℃이다.

남극대륙에는 동, 아연, 쇠돌, 몰리브덴, 금, 은, 석탄, 망간, 우라니움, 크롬, 코발트 등의 지하자원이 있다. 대륙붕에는 4억 5 000만t의 원유와 3조㎥의 천연가스가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는 고래, 물범, 대구, 바다곤쟁이, 성게, 해파리, 조개 등과 펭긴, 바다제비, 남극종달새 등이 있다. 고래는 세계고래수의 75%를 차지한다. 식물은 300여종 있다.

남극에 대한 탐험은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였다. 1773년 1월 영국인 쿠크가 처음으로 남극권을 항행하였다. 1820년 1월 28일 노르웨이탐험대가 남극대륙을 발견한 후 1895년 1월 노르웨이포경조사대가 처음으로 대륙의 아데르갑에 상륙하였다. 그

후 남극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커가는 가운데 1990년 1월 11일～7월 17일사이에 우리 나라 남극탐험대가 남극탐험을 진행하였다.

남극대륙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령유권미확정지대이다. 한때 영국이 령유권을 주장한바 있었다. 1959년 12월 워싱톤에서 쏘련,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10개 국이 남극조약을 체결하였다. 1961년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남극조약의 가맹국수는 초기에 12개 국으로부터 1998년현재 43개 국으로 늘어났다. 우리 나라는 1987년 1월 남극조약의 성원국으로 되였다.

남극조약은 남극대륙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할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당시 조인된 남극조약은 군사적리용의 금지, 령유권주장의 동결, 과학조사의 자유와 국제협력의 계속 등 남극대륙의 평화적리용을 위한 3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그후에도 남극의 환경보호, 생물자원의 합리적개발 등을 위한 국제적협약이 이루어지고 실천에 옮겨지고있다.

북 극 권

북극점을 중심으로 하여 N 66°33′ 이북지역에 속하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대륙의 일부와 그린랜드의 대부분, 북빙양의 일부로 이루어져있다.

면적은 약 2 500만㎢인데 그중 바다면적은 평균 3m의 얼음으로 덮여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 129m이다. 북빙양은 항상 얼어있다. 평균기온은 －40℃이다. 지난 10년간 북극얼음산의 두께는 평균 40% 줄어들었다.

자원으로는 북극사슴, 북극흰여우, 북극토끼, 사향소, 늑대, 산양, 줄기다람쥐, 밤색곰, 고래, 물개, 물범, 바다코끼리, 대구, 새우, 가재미, 갈매기, 바다까마귀, 바다독수리 등이 있다. 그리고 석탄, 원유, 철, 동, 백금, 니켈, 흑연, 돌소금, 우라니움

등도 있다.

북극권은 제3기 중엽인 7 000만～100만년전까지 륙지였으나 제4기인 빙하기에 빙하로 덮여있다가 오늘의 형태로 되였다.

B. C. 325년에 그리스상인이 북극권에 들어간 일이 있었으나 북극탐험이 시작된것은 1596년부터이다. 1906년 노르웨이탐험대가 북극항로를 개척한 후 1909년 4월 미국인 피어리가 처음으로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그후 여러 나라들에서 북극탐험이 진행되였으며 1977년 8월에는 쏘련의 원자력쇄빙선 《아르찌까》호가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북극권에는 수많은 군사기지들이 있다. 1951년에 그린랜드에 나토군의 군사기지인 뚜레공군기지가 설치되였으며 미국은 얼래쓰커로부터 그린랜드까지 조기경계망이라고 하는 레이다망을 설치하였다.

북극권에는 북극권내에 령토를 가지고있는 로씨야, 미국, 카나다, 노르웨이, 핀란드가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북극권안의 8개국은 환경오염방지, 동식물보호, 과학연구 등을 협력한다는 해당한 문건들에 조인하였다.

1994년 9월 28일 워싱톤에서 열린 로씨야－미국수뇌자회담에서 《북극지방에서의 환경보호에 관한 공동발표》라는 문건이 조인되였다.

대 륙 붕

1982년 12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정에 의하면 대륙붕이란 바다가로부터 350n. mile까지의 바다밑부분을 말한다. 그전에는 간조물면으로부터 바다밑의 물매가 심하게 달라지는 깊이까지의 대륙주변지역을 대륙붕으로 규정해왔으며 물매가 심히 달라지는것을 대륙붕의 모서리라고 하고 그 모서리를 200m 물깊이로 보았다.

본래 대륙붕의 고유한 의미는 바다쪽으로의 륙지의 연장으로서 바다밑비탈에서 비약이 일어나는 지역까지를 말한다. 자료에 의하면 대륙붕은 대체로 500m까지의 물깊이에 놓이는데 전지구적으로 보면 평균 120m라고 한다.

대륙붕은 세계대양면적의 약 8%를 차지하며 대륙붕구역의 비탈도는 1～2° 정도이다.

대륙붕은 좋은 어장과 양식장으로 리용되고있는데 세계수산물생산량의 85%이상이 대륙붕에서 생산된다.

대륙붕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류황, 크롬, 망간, 철, 석탄, 동, 금강석, 금, 석, 아연 등 수십종의 자원이 있다. 대륙붕의 원유개발은 1950년대에 시작되였는데 세계원유생산량에서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대륙붕의 평균너비는 80㎞이다.

그리니치천문대와 세계시

그리니치천문대는 1675년 영국의 수도 런던교외의 그리니치라는 곳에 세운 영국에서 가장 오랜 천문대이다. 1884년에 있은 국제천문학회의에서는 이 천문대안에 설치된 자오환(별자리를 관측하는 망원경의 한가지)의 자리를 지나는 자오선을 경도의 기준선(0° 선 또는 본초자오선, 기준자오선)으로 정하였다.

이때부터 그리니치자오선에서의 지방시는 세계시의 기준으로 되고있다. 천체현상을 공동으로 관측하는데 나라마다 제각기 제나름의 표준시를 사용한다면 불편하기때문에 측지원점인 그리니치지방표준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것을 세계시라고 한다. 그리니치천문대는 1957년에 런던남쪽의 사섹크스주 하스트몬소라는 곳으로 옮겨갔으나 본래의 자오환의 자리는 변함없이 경도의 기준선으로 되고있다.

세계의 이름난 강들과 폭포

아마조나스강. 세계적으로 제일 긴 강이다. 강이름은 에스빠냐인들이 이곳에 처음 기여들었을 때 머리카락을 드리운 원주민들이 용감히 대항하는것을 보고 옛날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싸움을 잘했다는 녀자들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있다고 하여 《아마조나스》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그렇게 명명되였다.

미씨씨피강. 인디안말로 《큰강》이란 뜻이다.

지류인 미주리강까지 합하면 길이가 5 971㎞로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긴 강이다. 큰물이 자주 난다.

장강. 중국말로 《긴 강》이란 뜻이다. 그전에는 물빛이 파랗다는 뜻에서 《양자강》이라고 불렀다. 사천분지를 흐르는 이 강은 경제적의의가 매우 크므로 《중국의 지중해》라는 대명사로도 부르고있다.

모지라뚜리아대폭포. 물떨어지는 소리가 10㎞ 밖에서도 들린다. 원주민들의 말로 《우뢰와 같은 소리를 내는 연기》라는 뜻이다.

1855년 영국의 탐험가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발견하고 당시는 영국녀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어폭포라고 하였다. 이 폭포의 하류에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인공호수인 카리바호가 있다. 저수지 북쪽기슭에 60만㎾능력(잠비아)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안헬폭포. 1935년 베네수엘라 비행사 더.안헬이 그곳을 비행하다가 발견하였다.

이과쑤폭포. 원주민들의 말로 《큰물》이란 뜻이다. 1561년 에스빠냐탐험가인 알베아르가 처음 발견하고 1863년에 신부 파티모가 다시 확인하였다. 폭포구역은 경치가 좋아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고있다. 많은 전력자원도 가지고있다.

나이아가라폭포. 나이아가라란 인디안말로 《큰소리》라는 뜻이다. 폭포물이 떨어지는 곳에 끄집섬이란 작은 섬이 있는데 그로 하

여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 왼쪽것은 카나다폭포이고 오른쪽것은 미국폭포이다. 폭포는 석회암, 점판암으로 된 높은 덕에서 떨어지는데 이 덕은 점차 깎이고 씻겨 뒤로 물러나고있다.

우랄산줄기

우랄산줄기는 두 대주의 경계선이다. 우랄산줄기를 처음으로 유럽과 아시아주의 경계선으로 삼은 사람은 로씨야의 지리학자이며 력사학자인 와씰리따지쉐브였다.

그는 한 출판물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랄산줄기를 발원지로 하는 강들은 두개 방향으로 흐르고있다.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 뻬쵸라강과 까마강으로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흘러 오비강으로 흘러들며 서쪽과 동쪽의 강류역의 동식물도 현저한 차이점을 나타내고있다.

서쪽 강들에 있는 고기들은 연어와 같이 붉은색을 띠고있다. 동쪽 강들에 있는 고기들은 서쪽 강들에 있는 고기들과 겉보기는 같지만 고기살의 색갈이 흰색이며 맛도 다르다. 우랄산줄기의 동서량쪽의 식물껍질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우랄산줄기의 량쪽의 이러한 차이는 우리들에게 이 산줄기를 아시아주와 유럽주의 경계선으로 확정할수 있는 근거를 주었다.》

우랄산줄기는 형성력사가 오래므로 그리 높지 않은것이 특징이다.

산줄기에서 제일 높은 봉은 나로드나야산(1 895m)이다. 산줄기는 지형상특징에 의하여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눈다.

이 산줄기는 아시아쪽에서 보면 높은 산줄기이지만 유럽쪽에서 보면 마치 동유럽벌의 계속인것처럼 낮고 밋밋하다.

우랄산줄기에는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있다. 그가운데서 특히 쇠돌, 동, 크롬, 니켈, 보크사이트, 돌소금, 석탄, 금, 백금 같은것이 많이 묻혀있다. 따라서 우랄지방은 로씨야에서 여러가지 공업 특히 중공업이 발전된 지역이다.

동물과 결부시켜 부르는 나라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섬나라는 나라와 수도이름이 같다.

싱가포르란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바다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 섬모양이 마치 앉아있는 사자와 같이 보인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케니아. 동부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남쪽에 자리잡고있는 이 나라의 중부를 지나는 적도선우에는 해발 5 199m의 케니아산이 사철 흰눈을 이고 솟아있다.

케니아란 말은 반투어로 《타조》라는 뜻인데 사철 산꼭대기에 덮여있는 흰눈이 마치도 하얀 타조가 앉아있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산이름을 케니아산이라고 부르게 되였으며 나라이름도 케니아로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케니아는 야생동물왕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꼬뜨디봐르. 서아프리카의 기네만연안에 자리잡고있다. 꼬뜨디봐르란 말은 《상아해안》이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이 지역의 바다기슭을 그렇게 부르다가 점차 나라이름으로 되였다.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코끼리에 눈독을 들인 유럽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상아략탈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400여년동안에 서아프리카지역에서 5 000여만개의 상아를 이 나라의 해안을 통하여 빼앗아갔다. 그리하여 코끼리의 마리수와 종류가 많이 줄어들었다.

빠라과이. 남아메리카의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내륙국가이다.

이 나라의 특징의 하나는 강하천이 많은것인데 대부분이 빠라과이강과 그 지류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래서 나라이름도 강이름을 본딴것인데 빠라과이란 말은 원주민인 인디안말로 빠빠가이라는 새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말그대로 이 강류역에는 빠빠가이라는 아름다운 새가 많이 살고있다.

이딸리아. 남유럽의 지중해연안에 위치하고있다.

이 나라는 본래 《비딸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그것은 고대그리스사람들이 이 지역에 송아지가 많다고 하여 《송아지의 락원》 또는 《송아지의 땅》이라는 뜻으로 비딸리아로 불리워온데서 유래되였다. 그러던것이 점차 이딸리아라고 부르게 되였으며 로마제국시기에 와서 정식 이딸리아로 이름지었다고 전해지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젖소, 염소, 양을 많이 기르고있으며 수도 로마에서는 승용마차가 유명하다.

에스빠냐. 유럽의 남서부 삐레네반도에 위치하고있다.

에스빠냐란 나라이름은 고대그리스말로 토끼의 나라라는 뜻인데 그것은 령토의 3분의 2이상이 고원으로 되여있는 이곳에 옛날부터 토끼가 많이 살고있었다는데로부터 유래된것이라 한다.

고대로마사람들이 삐레네반도를 토끼가 많은 땅이라는 뜻에서 에스빠냐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이 반도에 자리잡고있는 나라이름으로 되였다고 한다.

에스빠냐는 지중해연안의 특산인 감람생산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지구의 자원문제

오늘날 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자원의 소비가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쓸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량에는 한계가 있다. 더우기 한번 쓰고 없어지고마는 지하자원은 그 일부가 고갈상태에 있으며 산림, 물고기와 같은 자원도 점차 줄어들고있어 자원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에네르기자원인 석탄과 석유의 가채년수는 각각 200년과 30년에 이를것으로 알려졌고 지하자원인 철과 동의 가채년수는 각각 90여년과 20여년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그런데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것들에 대한 수요

는 더욱 높아져 가채년수는 점점 짧아질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가채년수는 자원을 캐내여 쓸수 있는 기간을 가상적으로 계산한 수를 말한다.)

바다광물자원

바다밑에는 무진장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여있다. 우선 1 350억t에 달하는 원유가 매장되여있다. 바다밑광물자원개발에서 원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몫은 90%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세계석탄자원량의 3분의 1에 해당한 방대한 석탄이 묻혀있다. 또한 망간이 4 000억t, 니켈이 18억t, 동이 90억t, 코발트가 80억t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13억년이나 캘수 있는 마그네시움을 비롯하여 석, 티탄 등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다고 한다.
또한 바다물속에는 3만 6 200조t의 소금, 49억 2 000만t의 아연, 49억t의 알루미니움, 4 900억t의 철광석, 2 900억t의 동, 200억t의 우라니움, 50억t의 은, 1 000만t의 금 등 헤아릴수 없는 광물자원이 녹아있다.

세계의 산림, 토지, 수산자원

산림자원. 인류사회의 초기단계에 지구상의 산림면적은 약 76억정보였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그것은 절반인 38억정보(세계 륙지면적의 약 29%)로 줄었으며 산림축적량은 약 2 000억㎥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5억정보, 유럽 8억 8 000만정보, 아프리카 7억정보, 아메리카 16억정보, 오세안주 9 000만정보이다.
산림자원이 제일 많은 지역은 남아메리카주로서 인구 1인당 5정보이상 차례진다. 세계적인 한해목재생산량은 약 20억㎥이다.

그밖에 산불 등 자연재해로 없어지는 산림량까지 계산하면 그 량은 막대하다.

토지자원. 얼음과 눈이 덮여있지 않는 지구상의 륙지면적중에서 농업토지는 14억 5 000만정보정도이다. 이외에 산업토지, 주민지구토지 등이 43억정보이다. 농업토지가운데서 약 7억 4 000만정보가 부침땅인데 2005년까지 이 토지에서 한해에 18억t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나머지 땅에서는 남새, 과일, 공예작물, 축산물 등을 생산한다. 1970년도에 인구 1인당 부침땅면적이 평균 0.47정보였다면 2000년대에는 0.19정보밖에 안될것으로 보고있다. 토지자원은 계속 줄고있다.

수산자원. 세계대양과 바다에는 약 15만종의 동물(동물총수의 10분의 1)과 1만여종의 식물(식물총수의 50분의 1)이 살고있다. 바다에서 사는 동식물자원량은 약 30억t이다.

세계수산물총생산량을 보면 1994년에 1억 600만t(고래와 바다나물제외)이였다. 제일 많이 잡히는것이 명태이며 50만t이상 잡히는 물고기는 모두 16종이다.

우주공간자원

무한대한 우주공간에는 인류가 개발리용할수 있는 거대한 물질적재부가 있다. 이 우주공간자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수 있다.

궤도자원. 지구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들은 천체력학규칙에 따라 특정한 궤도에서 운동한다.

인공위성은 하늘의 일정한 높이에서 궤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때문에 지구에 대한 원격조사, 방위측정, 통신 등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각종 인공위성들이 차지하는 궤도 그 자체가 중요한 자원으로 된다.

실례로 적도상공의 약 3만 6 000㎞되는 곳에 있는 정지궤도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제한된 수량의 인공위성밖에 배치할수 없다.

환경자원. 우주공간에서 비행하는 인공위성의 주위에는 강한 복사와 높은 진공, 미소중력, 풍부한 태양에네르기 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도 중요한 자원으로 된다.

우주공간의 특수한 중력환경을 리용하여 지구에서는 전혀 만들수 없는 재료나 생물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또한 공간립자복사환경에서 농작물을 육종하거나 갑작변이를 일으켜 지구에서 후대를 번식시키면 생산량이 배로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볼수 있다.

물질자원. 달을 비롯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에는 매우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여있다.

달의 암석과 토양속에는 지각에 있는 화학원소들을 포함하여 약 60여종의 광물이 들어있다.

그가운데는 지구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3He동위원소도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이 투자를 많이 요구하고 위험도가 높지만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리익이 매우 크므로 많은 나라들이 우주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우주공간자원을 개발하여 리용한다면 인류사회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것이다.

우선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인류에게 무진장한 자원을 제공해주며 새로운 산업을 낳게 될것이다.

오늘 인류는 사회의 진보로 나날이 에네르기자원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만일 우주공간에 태양에네르기발전소를 건설해놓고 전기를 생산하며 달에서 개발한 3He동위원소를 리용하여 핵에네르기를 생산한다면 부족한 에네르기문제를 얼마든지 충족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생산기술을 갱신하며 많은 새로운 산업들을 낳게 될것이다.

우주공간자원을 개발하고 리용하면 공간재료산업과 공간생물제품산업을 낳게 될것이며 공간에네르기리용은 새로운 동력 및 발전설비산업을 형성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작업환경과 생활의 질적수준을 개선하는 등 인류사회의 진보에 크게 기여할것이다.

다음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재해손실을 줄일수 있게 할것

이다. 인류가 우주공간에 대한 탐측을 시작한 이래 큰 성과의 하나라고 보는것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에 달라붙은것이다.

오늘날 지구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있는 엄중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반드시 우주공간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주과학기술의 성과인 공간감시계통을 리용하여 지구에 대해 장기적으로 관찰한다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측할수 있으며 만일 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손실을 줄일수 있다.

지금 전인류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지구온실효과, 오존층파괴, 산성비 등도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주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주공간원격조사계통은 지구의 자원, 대기, 해양환경 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쓸수 있으며 우주공간에네르기계통은 오염원천을 없앨수 있게 한다.

앞으로 우주과학기술은 지구환경보호에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세계적으로 오랜 원시림의 일부

클레요쿼트 싸운드(카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 있는 이 생물보호구는 기온이 온화하고 강우량도 풍부한것으로 하여 온대수림이 무성하다.

까얀 멘따랑국립공원(인도네시아)

깔리만딴섬에 있는 이 공원은 서우와 랑구르원숭이 등 동물들의 서식지이다. 관광객들은 공원을 참관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토착민들과 함께 생활할수도 있다.

댄틀리국립공원(오스트랄리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이곳에는 지구상의 가장 오랜 원시림생태계통이 있다. 1억 6 000만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이곳은 새들의 《천당》이기도 하다. 430종이상의 진귀한 조류가 이곳 수림속에서 서식하고있다.

쁘리모르스끼 크라이(로씨야)

한대와 온대에서 자라는 북방바늘잎나무림이 서쪽의 핀란드와의 국경으로부터 동쪽의 로씨야연해변강에 이르기까지 뻗어있어 지구상에서 최대생태계통을 유지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지역 수림의 80%는 아직까지 원시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아마조나스강류역 중심부지역(브라질, 뻬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생물권보호구인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동물의 종이 제일 다양하다.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의 생물 10종당 1종이 이 지역에 있다. 생태계의 《에덴동산》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희귀한 동물들의 고향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관광과 생물다양성

9월 27일은 세계관광의 날이다.

19세기 40년대초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출현한 때로부터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관광업은 오늘날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관광기구는 1979년 에스빠냐에서 열린 이 기구 제3차총회에서 9월 27일을 세계관광의 날로 정하고 1980년부터 매해 기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해마다 9월 27일을 세계관광의 날로 기념하고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이날에 즈음하여 매번 주제를 정하고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한다.

2010년에는 《관광과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밑에 중국의 광동성에서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2010년 세계관광의 날 주제가 보여주는것처럼 관광과 생물다양성은 밀접한 련관속에 있다.

관광업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관광업의 가장 큰 재부의 하나인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려행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관광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국가수입에서 관광업이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생물다양성으로 하여 사람들은 식량과 옷, 목재, 의약품, 에네르기,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을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매개 나라의 경제의 지속적발전과 환경보호, 지구생태계의 련속성보장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탐욕과 리기적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적인 범위에서 초래되고있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자연생태계와 경제발전의 기초를 파괴하며 인간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현실태는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것으로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물다양성보호사업을 국가적인 관심속에 힘있게 추진하며 관광업의 요구와 원칙들을 성실히 리행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름난 명승지들이 많다. 묘향산과 금강산, 칠보산 등 우리 나라의 여러 명승지들은 세계일류급의 관광지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갖춤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길줄 모르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구환경의 보호와 생태계의 련속성보장을 잘하는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 인류가 즐거운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보호구와 보호지역

보호구는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지정한 일정한 지리적구역으로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현상을 비롯한 기상기후조건의 변동과 합

께 자연개조와 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생물의 생육장소가 줄어들고 서식환경이 파괴되고있으며 그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심히 줄어들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보호구와 보호지역설정은 생물다양성을 보존, 보호하는 중요대책으로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설정된 보호구 및 보호지역은 4만개이상이다.

우리 나라에는 해방직후인 주체35(1946)년 4월부터 백두산을 비롯한 나라의 여러곳에 각종 보호구와 보호지역들이 설정되였다.

국제생물권보호구는 지리적 및 지형적특징과 생물다양성 및 분포 등에서 특색이 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 보호구로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생물권계획(MAB)의 승인을 받아 설정되는 보호구이다.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국제생물권보호구와 구월산국제생물권보호구가 있다.

자연보호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과학연구가치가 크며 사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여있으면서 생물진화와 분포, 자연변화와 발전의 법칙성을 오래동안 관측연구할수 있는 지역에 설정한다.

우리 나라에는 오가산자연보호구를 비롯하여 4개의 자연보호구가 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고 잘 보존된 원시림인 오가산원시림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보호구로서 동식물종과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할뿐아니라 오래 산 나무들, 큰 나무들이 많으며 추운데서 사는 식물과 조릿대와 같이 더운데서 사는 식물들도 있다.

자연공원은 자연경치가 아름답고 동식물상이 풍부하거나 특징적이며 력사유물, 유적이 많은 등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교육, 교양, 휴식, 관광, 오락 등을 위한 보호지역으로서 세계적인 보호구부류에서 제2부류에 속하는 보호구의 한 형태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민족공원이라고도 하고 국립공원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자연공원이나 묘향산자연공원과 같이 수만정보규모의 큰것으로부터 수십정보의 작은 규모에 이르기까지

약 80여개의 자연공원이 있다.

식물보호구나 동물보호구는 동식물종이 특별히 많거나 그 분포가 특수하여 생물다양성보호에서 중요하며 연구가치가 큰 지역들 그리고 학술적으로나 경제적가치가 큰 개별적인 동식물종이나 그 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보호구이다.

장산반도에 있는 장산곶식물보호구는 우리 나라에서 남부식물종이 가장 많이 집중되여있는 지역으로서 여기에는 때쭉나무, 보춘화 등 수십종의 희귀한 식물종들이 있다.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운만대신의대보호구는 조선특산식물이며 그 분포나 자원량에서 매우 희귀한 식물인 신의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이다.

우리 나라의 동물보호구에는 짐승류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와 함께 철새들의 겨울나이장소 혹은 도중머무름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철새보호구와 바다새들의 알낳이장소와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바다새보호구가 있다.

철새보호구는 대체로 바다가나 강어구의 습지들로 되여있으며 바다새보호구는 사람들의 영향을 적게 받는 바다의 섬들로 되여있다.

자연보호구는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한 보호구로서 경제적가치가 큰 성게, 해삼, 전복, 밥조개, 자라, 산천어, 정장어 등이 집중서식하고있는 바다와 민물지역들에 설정되여있다.

씨비리의 보물

로씨야의 크라스노야르스크교외에는 1925년에 창설된 국립자연보호구 스똘비가 있다.

자연보호구에는 사람과 동물을 련상시키는 기묘한 바위들이 많다. 그중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할아버지의 커다란 머리를 련상시키는 할아버지바위의 모양이 가장 특이하다고 한다.

또한 여기에는 사자바위, 코끼리바위, 두꺼비바위, 뱀바위도 있

는데 그 모습이 신통하다고 한다. 수백만년전 용암의 분출로 생겨난 바위들이 풍화작용으로 기이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였다고 한다.

스똘비는 오래전부터 벼랑오르기전문가들의 남다른 관심을 끌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벼랑오르기를 하고있다. 그들은 《피로와 병을 안고왔다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떠나간다.》고 말한다.

자연보호구에서는 검은돈과 사슴 등 85종의 포유동물들이 서식하고있으며 강에서는 22종의 물고기가 살고있다.

기암절벽들로 이루어진 희한한 경치를 구경하려고 해마다 수백만명이 찾아오고있는 스똘비는 씨비리의 보물로 불리우고있다.

환경문제와 국제기구

환경문제란 사람이 살고 활동하는 주위환경, 자연계의 균형이 파괴되여 인간의 생존과 발전, 경제발전에 위험이 조성되는것을 말한다. 환경문제는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의 초래, 륙지의 사막화, 산림면적의 감소, 생물다양성의 파괴, 석유자원의 고갈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게 된것은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가 부단히 증대되여온것, 화학물질의 생산과 리용이 확대된것 등에 기인된다.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는 1969년한 국제회의에서 제기되였다. 그후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197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로 발전하였으며 1970년대초에는 전문기구로서 환경계획이 발족하고 1980년대에는 그와는 별도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조직되였다.

《WCED》는 환경분야의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1982년에 케니아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한회의에서 제기되였으며 1983년 제38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지명한 당시 노르웨

이 수상인 부룬트란드의 주관하에 1984년 5월에 창설되였다.

기구의 위원회(부룬트란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포함하여 세계의 이름있는 학자, 정치가 22명으로 구성되여있다. 위원회에서는 21세기를 지향한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는 세계환경문제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였다. 문건에는 현세계가 직면하고있는 지구환경문제가 전면적으로 종합개괄되여있으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을 하지 말데 대한 전략적리념과 환경정책의 기본내용이 지적되여있다.

국제회의와 국제기구들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산업혁명이래 막대한 자원을 탕진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방출하여온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환경문제발생의 책임을 느끼고 석유와 석탄을 비롯한 자원소비를 대폭 줄이는 한편 국제적범위에서 제기되는 환경문제대책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할데 대하여 주장하고있다.

지구온난화

온실내부는 바깥보다 따뜻하다. 태양빛이 온실유리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오면 땅이나 식물, 화분속에 흡수된다. 이때 흡수된 빛은 열을 내는데 이 열은 적외선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적외선은 유리를 통하여 쉽게 방출되지 못한다. 따라서 적외선빛은 온실에 갇히우며 온실내부의 공기는 더워지게 된다. 이것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대기중에도 유리와 같이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적외선은 잡아두는 성분들이 있다. 이러한 성분들을 온실가스성분이라고 한다. 이 가스성분중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이 CO_2이다. CO_2의 온실효과로 대기권에서는 지구표면에 가까울수록 덥고 우로 올라갈수록 차지게 된다. 온실효과의 결과 대기는 열이 자유롭게 방출될 때보다 더 따뜻해진다. 대기중의 CO_2의 함유량은 인간활동에 의

하여 급속히 증가하고있다. 인간활동에서 CO_2를 방출하는 기본인자는 화석연료의 대대적인 소비이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대기중의 CO_2의 함유량은 36% 증가되였으며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있다.
온실효과에 의하여 지구는 점차 더워지고있는데 이런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산화탄소흡수력이 떨어지는 지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농도가 2000년이래 급속히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증가와 함께 대기나 대양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력이 떨어지기때문이다.
2006년도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농도는 산업혁명이전보다 36%나 더 많아졌다.
2000년이후 이산화탄소증가량가운데서 65%는 경제발전, 17%는 에네르기효률의 저하에 의한 배출량증가가 빚어낸것이다. 나머지 18%는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적게 흡수하기때문이다.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대기의 순환이 변동되고 바람방향이 달라진 결과 남반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바다물이 겉면으로 올라와 대양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어려워지게 되였다.

《교또의정서》와 미국의 태도

1997년 유엔의 주최하에 일본의 교또에서 진행된 세계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발전된 공업국들의 온실가스방출량삭감

목표와 시간표가 제시된 합의문인 《교또의정서》가 채택되였다.

《교또의정서》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사이에 이산화탄소, 일산화질소를 비롯한 6가지의 온실가스방출량을 1990년수준으로부터 5.2% 낮추며 여기에서 유럽동맹은 8%, 미국은 7%, 일본은 6% 낮추는것으로 되여있다.

지난 시기 지구온난화방지대책문제에서 주도적역할을 해온 유럽동맹은 원래 온실가스방출량을 5.2%가 아니라 15% 낮출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유, 석탄을 비롯한 에네르기소비제한으로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면할수 없다는 미국과 일본의 완고한 고집으로 하여 유럽동맹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목표가 제시되였던것이다.

《교또의정서》채택이후 유럽동맹이 의정서리행을 위한 쌍무적인 고위급협상을 진행하여 서로의 립장을 조정할것을 미국에 여러차례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동맹의 제의와 요구를 회피해왔다. 더우기 부쉬행정부는 《교또의정서》를 전면거부해오다가 의정서에서 탈퇴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탈퇴리유를 3가지로 들었는데 그것은 실로 철면피하기 그지없는것이다.

그를 보면 첫째로 미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것이다. 미국은 자기 나라의 온실가스방출량을 대폭 낮추면 국내의 에네르기가격이 뛰여오를뿐아니라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배출규제가 소비자의 리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이산화탄소배출국인데 온실가스량은 세계온실가스량의 30%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이 《교또의정서》를 반대하는 둘째 리유는 《교또의정서》의 내용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유리하게 되여있고 불공평하다는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 인디아 등 인구가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의정서의 대상밖에 있는것은 유감스럽다고 불평하였다.

이산화탄소방출은 발전된 공업국들에 쏠려있을뿐이다. 그러므로 미국 등 발전된 공업국들의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억제하는것이

긴급하다.

셋째로 미국은 지구온난화 그자체가 과학적으로 비확실하며 기술적대책이 미해결상태라는것이다. 이것 역시 억지주장이다.

오늘 지구온난화는 더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 세기 후반기의 지구온난화는 대부분 인간활동에 원인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밝혀졌다.

미국의 《교또의정서》탈퇴리유는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억지주장도 《당당한 리유》로 내세우며 인류에게 무서운 재난을 가져올 지구환경파괴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것이 《교또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미국은 《교또의정서》에서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면서 저들의 대량적인 온실가스방출을 문제시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심각해지는 물자원

물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그러나 현시기 인류는 심각한 물자원위기를 겪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을 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억명이상에 달하고있으며 불결한 물을 사용한 후과로 해마다 150만명의 어린이들이 죽고있다.

세계적인 물자원위기가 심각해지고있는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하기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물자원이 부족하기때문이다.

지구의 물자원가운데서 97.5%는 사람이 먹을수 없는 바다물이고 담수는 겨우 2.5%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물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여있다.

라틴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는 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고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는 물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다.

세계적으로 가물 및 반가물지역은 륙지면적의 약 35%로서 60여개 나라와 지역들이 그런 곳에 있다.

세계담수자원의 60%는 중국, 브라질, 카나다, 인도네시아, 인디아, 꼴롬비아 등에 집중되여있다.

물자원분포의 불균형성은 물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에서 물자원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물자원위기의 다른 한 원인은 물자원의 심한 오염에 있다.

현재 아시아나라 강하천들의 오염상태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중한 상태에 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전국의 532개 강하천들의 82%가, 전체 호수의 63.6%가 오염되였으며 도시를 통과하는 136개의 강하천들가운데서 105개가 오염되여 먹는 물로 쓸수 없다고 한다.

물이 오염되는 기본원인은 공업부문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강하천에 버리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부문에서 화학약재들을 많이 사용하는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공업국들의 공해산업들은 해마다 4 000억t의 오수를 내보내고있으며 그로 하여 세계적으로 5조여t의 물이 심히 오염되고있다.

인구증가도 물자원위기의 원인으로 되고있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공업, 농업부문과 도시들에서 물소비량이 늘어나고 담수자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있다.

한세기동안에 세계의 인구가 약 4배로 늘어남으로써 인구 한사람당 차례지는 물자원량은 25%로 줄어들게 되였다.

이상기후현상과 산림파괴 등도 물자원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지구온난화는 바다물과 강하천하류의 염분농도를 높여 담수의 저축량을 줄이게 하였으며 무더기비는 비물을 바다에 흘려보내여 물자원이 줄어들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막대한 량의 나무를 무질서하게 베여낸 결과 물자

원저축능력이 약해져서 많은 량의 비물이 쓸모없이 바다로 흘러들게 하고있다.

오늘 세계 많은 나라들은 물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을 나라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물자원개발리용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21세기 물계획》, 《종합물자원계획》같은 여러 형태의 계획들을 세우고 여기에 사람들의 물절약의식을 높이고 안정한 물자원을 확보하며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문제, 모든 강하천류역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세우고 저수지들의 정상운영을 유지하며 예비저수지들을 많이 건설할데 대한 문제 등을 반영하고있다.

물자원법규들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물을 리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세계 33%에 해당한 나라들이 물자원리용과 관련한 법률과 법규들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리용하고있다.

어떤 나라는 물자원개발과 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수시로 그 내용을 수정하면서 그에 따라 물자원을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수질법》등을 제정하고 공업부문에서 물을 순환리용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물소비량을 줄이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물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사업도 강화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은 강하천, 물길, 물저장시설 및 물분배장치로 이루어진 물공급망을 형성하고 콤퓨터로 물공급을 조절하고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련의 지역들에 물봉사기관들을 내오고 자기가 맡은 물류역의 물자원, 물공급, 배수, 오수처리, 큰물방지 등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물 분 쟁

인류가 살고있는 지구겉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물로 이루어져있지만 사람이 실지 쓸수 있는 물자원은 0.26%밖에 안된다고 한다.

인간이 쓸수 있는 민물의 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바없이 제한되여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물소비량이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물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피어린 싸움이 세계각지에서 벌어지고있다.

소말리아에는 《우물과부》라는 새로 생겨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벌린 싸움에서 남편을 잃은 녀인이라는 뜻이다.

2003년부터 극심한 가물이 계속되자 우물이 하나밖에 없는 소말리아의 한 마을에서는 두 부족간에 살인을 동반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우물을 빼앗기는 경우 부족전체가 죽음을 면치 못할수 있었으므로 싸움은 매우 치렬하였다.

3년동안에만도 무려 2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를 넘기며 갈수록 더욱 격렬하게 벌어진 이 생명수쟁탈전에서 많은 녀성들이 《우물과부》가 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물자원쟁탈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나라들사이의 전쟁으로까지 번져지고있다.

현재 2개이상 되는 나라의 령토를 흐르는 《다국적강》은 무려 263개이다. 유럽의 두나이강은 10여개 나라를 거쳐 흐르고 아프리카의 닐강은 11개 나라, 남아메리카의 아마조나스강은 9개 나라가 함께 리용하고있다. 강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나라들사이의 분쟁이 일어나는것도 이와 관련된다.

물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고있는 곳은 중동지역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원유분쟁에 못지 않게 첨예한 물분쟁이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이 날로 커가고있다.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된것도 바로 물자원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리용하여 거대한 농업지대를 건설하려 하자 수리아는 요르단강상류지역에 언제를 쌓기 시작하였다. 언제가 완공되는 경우 이스라엘로는 요르단강물이 흘러들지 못하게 될 판국이 조성될수 있었다. 이에 위구를 느낀 이스라엘은 폭격기를 출동시켜 언제를 파괴하였으며 결국 전쟁이 일어났던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골란고원 등을 점령하고 그 일대의 물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지하수위가 내려가는데 따라 긴장이 격화되고있다.

팔레스티나가 차지하고있는 요르단강서안지역에는 지하수자원이 풍부하다. 이것은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간의 평화협상에서 론쟁거리로 되고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자치지역의 물자원을 장악하고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지하수를 마구 뽑아내고있지만 팔레스티나는 우물을 하나 파자고 해도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항시적으로 물부족을 느끼고있다. 중동에서의 심각한 물문제는 동부꾸드스문제, 유태인정착촌문제 등으로 복잡한 이 지역정세에 붙는 불에 키질하는격으로 되고있다.

최근년간에는 물값을 둘러싼 물분쟁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의 메마른 반사막지역인 코차밤바에서 일어난 물분쟁은 하나의 실례이다.

세계각지에서 상수도공사를 벌려 돈벌이를 해온 미국토목회사 백텔이 코차밤바의 물공급공사를 2년동안 진행하고나서 발표한 물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미독점기업 백텔의 횡포에 분노한 코차밤바시민들은 물값인하를 웨치며 시청사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큰 시위를 벌렸다. 4개월동안 계속된 시위는 볼리비아정부가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군중에게 총을 쏘는 등

류혈사태로 번져졌다. 코차밤바시민들에게 비싼 값으로 물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백텔은 마침내 볼리비아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난 50년간 물자원때문에 발생한 국가간의 폭력사태만 해도 37건이나 된다.

국제사회계가 오늘 세계가 직면한 제일 엄혹한 도전의 하나로 물위기를 지적하고있는 가운데 2008년 7월에 진행된 《세계미래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물부족현상이 심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물의 상품화

물은 생명체의 생존과 활동의 중요원천의 하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처럼 중요한 물을 대신하는 물질은 없다.

사람들은 물은 생명이며 물사용은 누구나 가지고있는 응당한 권리라고 하고있다.

그런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독점재벌을 비롯한 착취계급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 물문제를 리용하여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물공급과 같은 물봉사부문이 이미 사영화되여 물이 돈벌이수단으로, 상품으로 되였다.

상수도부문을 사영화한 후 프랑스에서는 수도값이 150%, 영국의 잉글랜드주에서는 106%나 뛰여올랐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가정수입의 25%를 물사용료로 내고있다.

그리하여 돈이 없는 근로자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콜레라와 급성설사증에 시달리고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잃고있다.

그러나 돈있는 부유한자들은 지하암반수, 알프스빙하수 등 수도물보다 1만배나 비싼 고급자연수를 마시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다.

물의 상품화는 자본가들의 리윤욕구에 날개를 달아주어 기업체들의 물공급부문 독점을 더욱 부채질하고 그들에게 막대한 리윤을 주는 반면에 자연생태환경파괴를 촉진시키고있다.

세계자연수시장에서 물관련기업체들이 자연수를 팔아 긁어들이는 리윤은 년간 1 000억US$에 달한다. 물관련기업체들은 2004년에만도 메히꼬에 180억ℓ, 브라질에 120억ℓ 등 도합 1 540억ℓ의 자연수를 팔아 폭리를 얻었다.

돈밖에 모르는 물관련기업체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유럽의 한 환경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물관련기업체들이 세계물시장에서 판매하는 자연수의 40%가 수도물에 미량원소를 섞은 거짓자연수이다. 이러한 물이 몸에 나쁘다는 조사자료가 발표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와 같은 자연수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수많은 쓰레기가 생겨나고있는것이다.

자연수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지구정책연구소 연구사 아놀드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자연수판매가 늘어나는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하였다.

자연수를 담는 수지병을 만드는데 한해에 소비되는 석유는 미국에서만도 150만bbl이나 된다고 한다.

석유를 원료로 하여 만든 수지병들이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 기간은 무려 1 000년이라고 한다. 그러니 자연수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지구상에 분해되지 않는 수지병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물의 상품화는 사막화를 촉진하고 많은 땅을 황폐화시키고있다.

《물산업》이 전망있는 인기기업의 하나로 되면서 물관련업체들이 지하수를 대량적으로 마구 뽑아올려 주변지역의 땅들이 황폐화, 사막화되고있다. 그리하여 논밭이 메마르고 식물들이 시들어 말라죽고있다.

미국의 텍사스주와 5대호부근(미국과 카나다국경의 5개 호수),

인디아남부의 플라치마다가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전 《지구의 벗》의장 리카르도나바는 《다국적물기업,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바로 세계의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물의 악의 축〉이다.》라고 비난하였다.

국제적협력을 통하여 물자원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복리에 맞게 리용하는가 아니면 개별적나라들이나 독점기업들의 횡포와 리윤추구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21세기의 물문제는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급격히 줄어드는 생물자원

지구온난화와 생태환경의 파괴로 지구상의 생물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많은 생물자원들가운데서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세계적으로 산호의 약 3분의 1이 전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산호종류의 33%에 해당하는 231종의 산호가 전멸직전 또는 전멸위기상태에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산호의 서식환경이 악화된것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바다에서 산호초가 사라지면 다른 많은 생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세계적으로 현재 생태환경의 파괴 등의 후과로 300여종의 령장류가 멸종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것은 령장류종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 수자라고 한다. 2008년 8월 한 국제기구가 이러한 조사자료를 밝혔다.

바다물고기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해양학자들이 48개 주요 해역의 물고기생태환경을 조사한데 의하면 세계의 바다물고기자원이 예상했던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태에 있다고 한다. 만일 현상태에서 바다생태환경보호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50년경에 가서 세계적으로 바다물고기자원이 고갈될수 있다고 한다.

유엔환경계획도 세계의 물고기자원위기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는 세계어업, 양식백서에서 《세계의 바다물고기종가운데서 25%는 거의나 멸종》되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물고기종들도 거의 대부분이 《더이상 잡아서는 안될 위험상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바다물고기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는것은 지구온난화와 공업폐수오염에 의한 바다생태환경의 악화에 있다고 한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바다생태환경이 혹심하게 파괴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허용기준이 넘는 공업폐수를 마구 바다로 흘려보냄으로써 우레기, 농어, 차리 등 물고기들과 조개류들이 계속 줄어들고있다.

상업적리윤을 추구하여 경쟁적으로 벌리는 과도한 물고기잡이도 바다물고기자원을 말리우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세계적으로 건강식료품인 물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물고기가격이 올라가고있다.

이러한 현상을 돈벌이기회로 본 수산업자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저예망이나 갈구리가 달린 대형그물, 폭약, 시안화물질 등을 닥치는대로 리용하여 바다물고기자원을 말리우고있다.

국제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으로부터 세계 주요 해역들에 바다생물보호구역을 정할데 대한 대규모의 획기적인 계획이 작성되고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있다.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고있는 사실을 두고 사람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인간은 5 000~6 000년전부터 꿀벌을 인공적으로 길러 다양하게 리용하여왔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원인모르게 꿀벌이 사라지고있다. 미국에서는 1년사이에 36%의 꿀벌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꿀벌뿐아니라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땅벌과 각종 곤충 심지어 조류까지도 무리로 죽는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있다.

과학자들은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환경과 생태계, 농업 등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에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4년안에 지구는 멸망한다.》고 예측한바 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의 3분의 1은 꿀벌 등 곤충에 의한 꽃가루수정방식으로 생산되고있는데 꿀벌들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한 2006년부터 그 치명적후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꿀벌이나 곤충들이 없어진다면 농산물값이 더욱 올라가고 식량위기가 지속되여 인류가 또다른 재앙을 당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일본의 불법고래잡이

일본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고래사냥국이며 고래고기소비국이다.

알려진것처럼 고래는 현재 그 마리수가 얼마 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보호대상으로 되고있다. 여러종의 고래가 멸종의 위기에 처하여있는 환경에 대처하여 국제포경위원회는 연구목적을 제외한 상업용고래잡이를 일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상업용고래잡이를 금지할데 대한 국제규정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비법적인 고래잡이를 일삼아왔다. 일본의 고래사냥군들은 먼바다에 가공모선까지 끌고나가 잡은 고래를 그자리에서 가공한 다음에는 국내시장에 팔아넘겨서 묵돈을 벌었다.

일본의 한 연구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량은 1990년대에 매해 1 000여t이였는데 2006년에는 5 500t으로 늘어났다. 고래고기판매에서 얻는 수입은 약차하였다.

지금도 일본의 포경선들은 《과학연구》의 간판밑에 태평양, 인

디아양, 대서양을 돌아치면서 국제적보호동물인 고래를 계속 잡고 있다.

2010년에 태평양지역에서만도 1 000여척의 일본포경선들이 고래사냥에 나섰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로동자수는 1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고래잡이가 금지된 남극까지 싸다니면서 고래사냥에 열을 올리고있다.

2009년 11월 일본에서는 6척의 배로 무어진 포경선단이 요란한 환송곡이 울리는 가운데 남극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이들의 남극에서의 고래잡이계획은 일본의 고래잡이력사에서 규모가 제일 큰것이였다.

이 고래사냥군들은 1 035마리의 고래를 잡는것을 목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국제사회계에서 《고래대학살》이라는 비난이 높아가자 일본은 또다시 《과학연구》를 위한 고래잡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구실이였다.

한 외국의 통신은 《〈과학연구〉라면 그렇게 많은 죽은 고래가 필요한가. 현대과학기술로써 고래를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래연구를 할수 있지 않는가.》고 비난하였다.

일본이 떠드는 《과학연구용고래잡이》란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고기를 파는 격이다.

일본의 고래잡이는 전적으로 상업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고래를 식품으로 리용하여왔다. 고래고기료리는 연회상에도 올랐으며 명절음식으로도 리용되여왔다. 일본은 이러한 전통을 살린다고 하면서 대규모적인 고래사냥을 일삼고있는것이다.

일본정부는 《고래문화》라는 미명하에 해마다 500만US$의 자금을 들여 《고래식품먹기운동》을 벌리고있다.

지금 일본전국에는 《고래고기진미협회》가 설립되여 포경선들이 바다에서 돌아올 때면 환영의식을 벌리는 등 고래식품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고래잡이를 중지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

가자 일본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에게 고래잡이를 하지 말라는것은 인디아사람들이 미국사람들에게 소갈비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력설하였다.

이 모든것은 일본의 고래잡이가 순수 상업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의 고래잡이문제로 나라들사이에 시끄러운 문제들도 제기되고있는데 그 대표적인 실례가 오스트랄리아와 일본과의 관계문제이다.

2008년 1월 오스트랄리아정부는 일본의 포경활동에 대한 감시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목적은 국제해양법의 제반조항과 질서를 위반하고있는 일본을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감시선이 출항하였으며 비행기에 의한 공중감시도 진행하였다. 한달이 지난 2월 10일에는 오스트랄리아수상이 《일본의 상업적목적의 포경을 〈조사포경〉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오스트랄리아정부는 남극해에서 일본의 포경활동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이 고래잡이에 얼마나 미쳐날뛰였으면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오스트랄리아가 이러한 조치까지 취했겠는가.

일본은 저들의 고래잡이를 비난하는 국제적목소리가 높아가자 교활하게도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그것을 눅잦히려고 꾀하고있다.

일본은 저들의 고래잡이에 대한 국제포경위원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2005년에 6개의 나라들에 각각 11억 9 600만￥, 5억 8 000만￥ 등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2009년에 까리브해지역의 어느 한 섬나라가 국제포경위원회 회의를 주최한다는것을 알고는 그 나라에 6억 1 700만￥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무상원조들에는 국제무대에서 대량적인 고래잡이를 노린 저들의 제안에 대한 지지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검은 속심이 깔려있었다.

인류공동의 자원인 고래자원의 고갈에 대하여서는 아랑곳하지 않

고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고래잡이를 비법적으로 계속하고있는 일본에 대하여 국제사회계가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북극자원쟁탈전

지난 세기말까지 그 어느 나라도 북극에 대한 관할권을 크게 주장하지 않았다. 북극은 현재 주인이 없는 자원지대이다.

북빙양은 대양들가운데서 큰 축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바다밑에는 자원이 풍부하다.

자료에 의하면 북빙양의 해저에 매장되여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정된 원유매장량의 25%, 천연가스매장량의 45%와 맞먹는다고 한다. 또한 금강석, 금, 백금, 석, 망간, 니켈, 연 등 자원이 풍부하다고 한다.

학자들은 앞으로 빠르면 30년내에 북극의 여름철바다얼음면적이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이로부터 새 세기에 들어와 북극항로개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있으며 북극지역을 둘러싸고 연안나라들사이의 쟁탈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북빙양연안나라들이 과학탐사라는 명목으로 북극에 대한 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있지만 기본은 이 지역에 대한 령유권을 가지자는것이다.

2007년 8월 로씨야는 북극의 해저산줄기에 대한 과학탐사활동을 진행하고 북극점부근의 4 000여m의 깊이에 티탄합금으로 만든 자기 나라 기발을 꽂았다.

이에 놀란 미국은 황황히 저들의 과학자들과 국무성관리들을 태운 쇄빙선을 보내여 북극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리였으며 군사력에 의거하여 자기의 북극정책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미 미국은 얼래쓰카와 그 주변수역에 X단파레이다와 수중음향

탐지기를 비롯한 첨단군사장비들을 새롭게 증강, 배치하여놓았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2008년 5월 미국은 북빙양을 끼고있는 얼래쓰커에서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12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 군사연습에는 5 000명의 병력과 120대의 비행기, 여러척의 전투함선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북극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잉회사에 특별위성을 주문하였으며 미해군은 얼음이 녹아내린 북극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9년 4.4분기부터 북극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미국무인기들의 카나다령공리용문제를 놓고 이 나라 군부와 교섭을 하고있다.

로씨야도 북극가까이에 무력을 증강하면서 여러가지 군사활동들을 벌리고있다.

2008년 6월 10일 2대의 로씨야전략폭격기가 북극지역에서 20시간에 걸치는 순찰비행을 진행한데 뒤이어 또다시 4대의 신형전략폭격기를 북빙양으로 순찰비행을 보냈다고 하였다.

로씨야대통령은 북극지역의 천연자원을 확보하는것을 나라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정하였으며 정부는 북극을 2020년까지 《주요한 전략적자원기지》로 삼을 방침을 제시하였다.

로씨야는 북극지역에서 자기의 리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군을 전개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군용수송기를 리용하여 북극의 한 기지에 대한 화물투하훈련을 벌리였다.

2009년 7월 로씨야항공륙전대 사령관은 자기 나라가 2010년 4월에 북극에 대한 항공륙전작전을 진행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카나다국방상은 《그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해나섰다.

이미 2007년에 카나다는 북극지역에서의 군사하부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훈련쎈터를 창설하였으며 북극특수부대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있는 심해항구를 일신시킬데 대한 북극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여러척의 군용쇄빙선을 건조하고 나라의 북부지역에 해군기지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2009년 8월 카나다는 자기 관할하에 있는 북극지역의 동부에서 10여일간의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이 군사연습에는 함대와 비행대, 륙군부대들이 참가하였으며 카나다수상이 직접 연습을 보고 군사대상들을 시찰하였다.

그는 《북극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서 이미 북극자원쟁탈을 나라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인물이다.

이 군사연습을 놓고 로씨야와 미국, 단마르크 등 이 지역 나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이 나라들은 카나다가 군사연습을 계기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북극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 근거로 카나다수상이 군사연습구역에 나타난것, 그후 북극지역의 한 도시에서 북극개발을 위한 정부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한것, 그가 집권초기부터 북극자원쟁탈을 자기의 우선적인 정책으로 공포한것 등을 들고있다.

그리하여 북극지역의 정세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다.

노르웨이, 단마르크, 스웨리예 등 다른 북빙양연안 나라들도 이 지역에 대한 자원쟁탈전에 경쟁적으로 뛰여들고있다. 지어 북극권나라가 아닌 일본과 도이췰란드도 북빙양에 대한 자원개발에 끼여들려 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2008년 5월 28일 로씨야, 미국, 카나다, 노르웨이, 단마르크사이에 북빙양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외무상급 회의가 진행되였다.

이것은 북빙양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첫 국제회의였다. 회의에서는 열띤 론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외신들은 현재 북극문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국제조약이 없는 조건에서 북극자원쟁탈을 위한 여러 나라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하였다.

넘쳐나는 발암물질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은 위험한 발암물질인 PCB(유기염소화합물)와 그 페기물을 대대적으로 축적해가고있다. 이러한 사실이 미국방성, 미국무성, 미의회 등 여러 관계기관의 비공개자료를 통하여 폭로되였다.

1999년에 PCB페기물을 싣고 은밀히 카나다를 향해 떠난 재일미군 사가미종합보급창의 배가 표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미군보급창의 배는 PCB페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카나다로 《수출》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카나다에서는 PCB페기물을 실은 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배는 하는수없이 미국으로 향하였는데 여기서도 거부당하였다. 그후 배는 일본으로 되돌아와있다가 1년 3개월후에는 태평양의 웨기섬에 입항하였다.

해외미군기지의 PCB페기물문제는 지금 제일 큰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다.

PCB페기물은 발암성페기물이다. 유독성이 매우 강한 이 페기물은 보관에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처음에 해외미군사시설들에서 PCB페기물처리문제가 제기되자 국내의 전문기업체들이 처리하도록 하였다. 처리업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며 국외로 빼돌려서는 돈벌이를 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PCB페기물을 더는 합법적으로 처리할수 없게 되였다.

해외미군사시설이 안고있는 PCB페기물은 이미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량에 이르고있다.

해외미군기지에 축적되여있는 PCB페기물은 지금도 이런저런 방법과 수단으로 기지에서 빠져나와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을 파괴하고있다.

땅도 강도 병들다

남조선에는 100여개의 각종 미군기지가 있으며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7 320여만평에 달한다.

남조선에서 토지와 산림, 공장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순수 주민거주지역은 모두 합해 1억평이 좀 넘는다.

이 주민거주지역과 거의 맞먹는 방대한 면적을 3만 7 000여명의 미군이 차지하고있다.

심지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마케트》의 경우처럼 16만평의 면적에 단 9명의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미군이 병영부지용으로 사용하고있는 농경지도 이루 헤아릴수 없으며 미군전용사격장면적은 수천만평에 달한다.

서울 한복판에 82만평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룡산미군기지구역은 원래 공기가 신선하고 아카시아꽃향기가 질게 풍기기로 이름난 곳이였다.

여기에 주둔한 미군은 각종 오염성기름과 1㎞밖에서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발암성물질들을 내보내여 49만 1 000평을 오염시켰다.

그중 네곳은 땅속 13m깊이에까지 기름이 차있을 정도로 심히 오염되였으며 기지안의 22개소지하수가운데서 20개소는 백혈병을 일으키는 벤졸을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기준치의 수백배를 넘고 있다.

룡산만이 아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과 경상북도 포항시의 《캠프 리비》, 대전시 대덕구의 《캠프 에잎즈》 등 미군기지들의 토지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0여곳에서 방대한 땅이 오염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남조선 강원도 원주시의 《캠프 롱》, 경기도 오산시의 미공군기지와 파주시의 미2사단 《캠프 하우스》 등을 비롯하

여 미군기지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도 심히 오염되여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초보적으로 조사된데 의하더라도 전체 미군기지면적의 60%가 각종 유독성물질에 오염되여있다.

환경오염은 비단 기지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군기지가 수십년간 꾸역꾸역 토해내는 거대한 오물들은 주변의 농토와 산, 강하천과 바다를 처참하게 오염시키고있으며 이로 하여 온 남조선땅이 오염물질로 서서히 침식되고있다.

경기도 평택시와 군산시에 있는 미제7공군사령부기지들에서 내보내는 페유는 너무도 엄청난 량이여서 주변의 논밭들에는 기름덩이가 나뒹굴고 농사는커녕 풀 한포기도 자라지 못하고있다.

심지어 경기도 백운산계곡으로는 미군기지에서 흘려보내는 기름이 마구 흐르고있으며 오산미공군비행장에서는 하루에 5 000t에 달하는 오폐수를 지위천과 황구지천으로 흘려보내고있어 린근에 있는 다리가 《석유다리》로 불리울 정도이다.

1960년대말 미군이 남조선괴뢰군을 내몰아 군사분계선지역에 8만L에 달하는 고엽제를 살포하여 이 일대의 생태환경을 파괴한것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셔지지 않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또한 심한 환경파괴를 가져오고있다.

례로 미군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으로 하여 백두산대줄기의 중추를 이루는 태백산줄기의 200만평이 뭉청 파헤쳐져 산허리가 아예 끊길 처지에 놓여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앞바다에 있는 큰 바위섬은 미군의 계속되는 모의핵폭탄투하연습으로 하여 15m나 낮아져 아예 형체도 가려볼수 없게 되였다.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주고있다.

미군의 비행장과 훈련장, 사격장이 있는 24개지역이 심한 소음공해속에 있다.

2005년에는 미군이 오염시킨 지하수를 마신것으로 하여 남조선주민들 3세대당 1명이 암 등 각종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숨진다는 통계가 발표되였다.

2007년 4월 남조선, 미국사이에 미군기지반환에 관한 《합의서》라는것이 발표되였는데 미군은 남조선에 넘겨주는 기지들을 환경복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겨준다는것이다. 이해 6월 남조선의 한 조사그루빠가 밝힌데 의하면 반환된 기지의 지하수들에서 기름층두께는 1m이상 달하고있었으며 그 주변의 땅은 페유에 절어 어떤 곳에서는 불을 달면 석유를 부은것처럼 활활 탈 정도였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미군이 남조선에 둥지틀고있는 한 계속될것이다.

환경오염의 범죄자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마다 북아메리카연안에 9조L의 오염된 공해성오수를 흘려보내고있는데 미국연안수역에만도 매해 2조 3 000억L의 오물을 버려 오염시키고있다.

미국에서 시작되는 카나다의 강물은 공해산업들에서 쏟아져나오는 오수 등 유독성페기물에 의해 오염되고있으며 미국에서 카나다상공으로 날아가는 류황성분의 오염물질은 해마다 2억t이 넘는다.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더 많은 리윤을 긁어모을수 있다면 유독성화학물질이 다량배출되여도 아무런 환경보호대책이 없이 생산을 계속 늘이고있다. 대기속에 배출된 유독성화학물질들은 태양복사를 받으면 강력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므로 방대한 량의 류산과 질산이 대기속에 생기게 한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후에 산성비가 되여 미국과 카나다의 여러 지역의 동식물계를 파괴하고있다.

미국 버몬트주의 한 식물학자는 공해산업지역 수십㎞안의 산림은 큰 산불이 일어난것처럼 검은색의 벌거숭이산들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지난 시기 일부 도시들과 공업지구들에서만 내리던 산성비가 지금에 와서는 록키산줄기기슭의 벌방지대와 북아

메리카대륙에로 확대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치명적타격을 받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대독점체의 리익을 대변하는 미국반동정부는 지하핵시험과 핵미싸일발사시험, 림계전핵시험을 비롯한 핵무기개발과 생산, 배비를 로골화함으로써 대기의 열균형을 파괴하고 새로운 방사능구역을 형성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엄중하게 파괴하고있다.

지어 화학 및 세균무기를 개발생산하여 아마조나스강상류에서 생물체를 대상으로 여러차례 시험을 감행함으로써 이 열대밀림지대에서 살고있던 두 인디안종족과 7 000여명의 토착민들을 전멸시켰다.

지금까지도 아마조나스강지역의 동식물은 그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있다.

미국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초음속비행기들이 성층권을 비행할 때 내보내는 가스속에 들어있는 NOX(질소화합물) 등이 촉매작용을 하여 오존층이 급속히 파괴된다는것을 제이 맥도날드를 비롯한 미국의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그러자 보잉회사와 과학부문 당국자들은 과학자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끝내는 오존층파괴원인을 밝힌 과학자가 압력에 못이겨 자살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은 온실가스와 공해물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해마다 더 많은 량을 내보냄으로써 국제적인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제 5 편 과학과 문화

세계 7 대기적

당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거대한 건설규모, 그의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하여 사람들의 경탄과 찬사를 자아내는 명승고적을 가리켜 고대로부터 7대기적이라고 불렀다.

고대의 7대기적은 다음과 같다.

① 에짚트의 피라미드 ② 이라크 바빌론의 쎄미라미드공중화원 ③ 뛰르끼예의 에피소스에 있는 아르테미스신전 ④ 그리스의 올림피아제우스신전에 건립된 제우스신상 ⑤ 뛰르끼예 할리카르나스의 마우쏠 레우스릉묘 ⑥ 지중해 로도스섬의 태양신 헬리오스의 대동상 ⑦ 에짚트 엘 이스칸다리아(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섬의 등대

오늘 세상사람들은 고대사람들이 7대기적이라고 하면서 주로 에짚트, 그리스문화의 고대유적들을 자랑해온것을 본받아서 세계 인민들이 창조한 명승고적들중에서 7가지를 골라 또한 7대기적이라고 부르고있다.

① 에짚트의 피라미드 ② 로마의 콜로세움 ③ 엘 이스칸다리아(알렉산드리아)의 등대 ④ 중국의 만리장성 ⑤ 영국의 스토운헨지 ⑥ 이딸리아 삐자의 탑 ⑦ 뛰르끼예 이스딴불의 아야 쏘피야사원

문예부흥기

14－16세기 일련의 유럽나라들에서 나타난 문화발전의 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새로운 력사적변혁이 일어난 시기였다.

신흥부르죠아지의 대표자들과 귀족출신의 일부 선진분자들은 봉건적관계와 카톨릭교회의 억압이 없는 그 어떤 리상적인 사회가 오리라고 믿고있었다. 이러한 시대적풍조는 인문주의사상으로 구체화되였다. 이 사상은 아직 그리스도교가 없었던 고대그리스, 로마문화에서 《리상》적인 인간생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재생시키려는 시도로 나타났으며 문예부흥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다.

문예부흥기문학이 먼저 싹트기 시작한것은 14세기 이딸리아에서였으며 15～16세기사이에 에스빠냐, 프랑스, 영국, 도이췰란드 등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휩쓸었다.

이 시기 문학예술은 신과 저승세계를 중심에 놓고 묘사한 중세기적몽매주의와 종교적금욕주의를 반대하고 인간과 그들의 자유로운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이로부터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에는 중세기적인 편견에서 벗어난 인간의 정신도덕적풍모와 현실생활이 폭넓게 반영되고 인간의 락관주의적기백과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이 넘쳐흘렀다.

또 이 시기 문학예술에서는 대중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민족적자각과 민족통일국가형성에 대한 지향이 반영되고 민족어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그리고 새로운 문학예술형태와 형식들이 창조되였다.

문예부흥의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단떼, 라블래, 쎄르반떼스, 쉐익스피어, 미술가로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껠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널리 알려졌다. 문예부흥기문학예술은 근대유럽문학예술의 새 기원을 열어놓는데 이바지하였다.

세계에 이름난 유적과 유물

동궁.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 있는 로씨야황제들의 겨울궁전이다.

1751～1762년사이에 건설되여 1905년까지 로씨야의 력대 황제들이 거처하였다.

궁전은 모두 1 000개가 넘는 방으로 이루어진 매우 웅장한 건물이다. 건물의 구성에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를 더해줄 목적으로 건물의 외부를 여러가지로 변화시키면서도 정면과 어울리게 하였다. 이 동궁은 그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해서 이름이 있을뿐아니라 1905년 평화적시위자들이 학살된 원한의 장소로 그리고 로씨야의 로동계급이 1917년 11월 7일 동궁을 습격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10월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1922년 동궁은 에르미따쥬박물관에 이관되여 미술박물관으로 되고있다.

만리장성. 중국의 산해관으로부터 가곡관에 이르는 총 연장길이가 약 2 400km되는 장성이다. 중국에서 이 장성은 처음 춘추시대에 나라의 변경만이 아니라 제후국들의 경계에도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B. C. 3세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그때까지 연나라, 조나라 등 제후국들의 북변에 쌓은것을 련결시켜 흉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성을 쌓았다. 이때의 장성은 료녕성의 료양으로부터 감숙성의 림조까지 지금의 장성보다 퍽 북쪽에 있었다고 보고있다.

한나라때에 장성은 다시 연장되여 한나라의 서쪽끝인 돈황의 옥문관에까지 이르렀다. 6세기에 북제와 수나라가 거란과 돌궐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원래보다 약간 남쪽인 오늘의 위치에 장성을 쌓았다.

가장 규모가 크고 웅장한 곳은 베이징북쪽의 팔달령부근의 장성

인데 높이 9m, 밑폭 9m, 웃폭 4.5m에 달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곽시설이 있고 100m간격으로 포대가 있다. 처음 이 장성을 쌓을 때 200만명의 노예들과 농민들이 동원되였다고 한다.

피라미드. 고대에짚트사람들은 령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종교적관념으로부터 왕의 주검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거대한 석조구조물을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피라미드이다.

이 피라미드들은 B.C. 3000년경부터 B.C. 2400년사이에 건설되였다.

피라미드는 밑면이 정방형인 4각추모양을 하고있다. 가장 유명한것이 알 기자에 있는 3개의 피라미드이다. 이 피라미드는 북남방향을 향하여 기하학적질서로 규모있게 배치되여있다. 또한 네 밑면은 동서남북을 향하고있다. 가장 큰것은 첫번째에 있는 쿠프왕의것으로서 높이 137m(원래는 146.59m), 밑변의 길이 230.5m(원래는 232.77m), 사변의 길이 186m, 용적 252 100㎥로서 최고 16t, 평균 2.5t의 돌 250만개를 쌓아 만들었다. 안의 구조는 왕과 왕비의 주검칸과 보물칸 그리고 복도로 되여있다. 나드는 문은 밀폐시켰거나 음폐시켜 놓았다.

이러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하여 1년에 3달씩 10만명이 동원되여 일하면서 10년이 걸렸고 지하실을 만드는데는 10년, 피라미드를 쌓아올리는데는 20년이 걸렸다고 기록되여있다.

빠리개선문. 나뽈레옹과 그의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워진 석조개선문이다. 에드와르개선문이라고도 한다.

1806년 나뽈레옹의 집권시기에 건설을 시작하였으나 나뽈레옹의 실각과 담당설계자의 사망으로 중단되였다가 1836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완공되였다.

고대로마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네면에 문이 있으며 문안에는 나뽈레옹을 따라 침략원정한 386명의 장군들의 이름이 새겨져있고 문의 상단에는 6개의 큰 전투장면이 부각되여있다. 그리고 문의 큰 기둥부분에는 조각장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명한것은 프랑스의 이름있는 건축가 르드의 작품인 《출발》이다. 개선문의 높이는 49m, 폭은 45m이다.

1920년 11월 11일에 이 개선문밑에 제1차 세계대전의 무명전사들의 묘를 만들었다.

앙코르 와트. 캄보쟈의 시엠렙시에 있는 크메르족이 남긴 세계적인 사원이다. 와트는 사원을 의미한다. 12세기 수리야바루만２세때 지은 비슈나신의 힌두교사당이였으나 후세에 와서 불교사원으로 되였다.

둘레가 5km를 넘는 호수(폭 200m)에 둘러싸인 사원은 동서 1 040m, 남북 820m의 지역을 포괄하고있다.

사원은 높이가 66m에 달하는 중앙탑을 중심으로 서쪽을 향해 길게 서있다. 호수에 놓인 붉은 밤색다리를 건느면 동굴같이 긴 회랑이 뻗어있다.

사원에 수없이 들어선 화강석돌기둥과 돌벽에는 고대신화를 주제로 하여 새겨넣은 여러가지 군상의 조각들이 빼곡이 들어차있다. 우수한 건축술과 우아한 조각술이 반영되여있는 사원은 크메르문화의 대표적걸작이다.

로마의 콜로세움. 세계최초의 타원형극장이다. 1세기 후반기에 지은것으로서 4층의 관람석에 수용인원은 50 000명이다. 둘레는 500m, 긴 축은 188m, 짧은 축 156m, 높이 48.5m이다. 외벽은 응회암으로 쌓았고 계단식으로 된 관람석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관람석의 세층의 회랑은 밖으로부터 타스칸, 이오니아, 코린트식으로 하였으며 아티카식으로 마무리하였다. 80개의 들어가는 문이 객석과 통해있다.

오늘도 옛모습을 보존하고있다. 대원형극장이라는 뜻에서 라틴말 《거대한》(콜로세우쓰)에서 유래되여 콜로세움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사하라사막의 지하수도. 사하라사람들이 모래층밑으로 건설한 수도이다. 《포가라》라고 한다. 사막의 불리한 자연조건에서 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11～16세기 이곳 인민들이 순수 손로동으로 건설하였다.

이 수도는 이곳 인민들이 지하의 함수사층(물이 풍부한 모래지층)이 있는 언덕진 곳까지 경사지게 굴을 파서 낮은 곳으로 물

이 흐르게 하였다. 곳곳에 있는 출구에 해빛이 들지 못하게 지하못을 파놓고 거기에 고이는 물을 퍼올려 쓰게 하였다. 지하수도는 사람이 등을 구부리고 걸어다닐수 있을 정도로 높은데 10~12m사이로 공기구멍이 나있다. 사하라사막에 있는 이러한 지하수도의 길이는 모두 4 000km에 달하고있다. 사하라사막인민들의 근면한 로동과 재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지하수도는 오늘에 와서도 중요한 물원천으로 리용되고있다.

삐자의 사탑. 이딸리아 지중해연안에 있는 삐자성당의 종탑이다. 1173년에 시작하여 1350년에 완공된 높이 약 55m의 우아한 흰색의 탑이다.

건설도중에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지만 채 넘어지지 않고 기운채로 600여년을 내려오고있는데 최근에 위험계선에 이른 기울어진 각도를 어느 정도 바로잡았다.

탑은 이딸리아의 저명한 물리학자이며 천문학자인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여기서 자유락하의 실험을 하여 당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뒤집어엎은것으로 하여 유명하다.

세계박람회의 기원

오늘날 국제적으로 성대히 열리군 하는 세계박람회는 고대사회로부터 기원되였다고 볼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사람들은 풍작을 경축하거나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때면 흔히 거래활동을 벌리군 하였다.

그후 이런 활동은 점차 고정된 장소에서 물품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이며 대규모적인 무역 및 전시활동으로 되였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세계박람회의 형식이였다.

１８세기에 들어와 사람들은 새 기술과 제품이 끊임없이 출현함에 따라 점차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판매보다 새 제품 및 성과를 전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람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1791년에 쁘라하(현재 체스꼬의 수도)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전람회가 개최되게 되였다. 수많은 나라들이 참가한 공식적인 첫 세계박람회는 1851년에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열렸다.
당시 박람회의 주제는 《세계문화와 산업과학기술》이였다. 여기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과학기술성과들이 소개되였다.
2010년 중국의 상해에서는 국제적관심속에 상해세계박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일부 나라들의 설명절풍습

설맞이는 세계적으로 특색있고 인기있는 전통적인 풍습들중의 하나이다.
설명절은 지리적조건과 신앙, 정견, 경제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에서 쇠는 유일한 명절이다. 물론 설맞이전통과 시기는 나라마다 각이하다.

- 로씨야의 설맞이풍습

로씨야신문 《쁘라우다》에 의하면 루씨(로씨야의 고대명칭)에서는 율리우스력으로 3월 1일에, 12세기경에는 9월 1일에 설을 쇠군 하였다. 1700년부터 황제 뾰뜨르1세의 지시에 의해 로씨야에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1월 1일에 설을 쇠게 되였다.
로씨야사람들에게 있어서 설은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서리꽃이 핀 창밖에서 추위할아버지와 백설공주의 축복속에 선물이 가득 매달려있는 욜까를 옆에 놓고 축포를 쏘면서 지내는 가장 즐거운 명절이다.
로씨야사람들은 또한 율리우스력으로 1월 13일과 14일 새벽에 설을 쇠는 풍습도 가지고있다.
대체로 이날밤에는 12월 31일 밤에 설맞이놀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군 한다.

— 공연관람으로 설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서유럽나라들가운데서 설명절 전날밤을 제일 크게 쇠는 곳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이다.

설명절 전날밤에 윈에서는 모든 거리와 골목 그리고 커피점과 술집, 극장 등에서 흥겨운 공연이 진행된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인기가 있는것은 가극이다.

윈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제기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절 전날밤에는 이름난 극장에 가서 꼭 가극을 구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명절 전날밤 특색있는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18세기에 주조한 《세계의 종》의 장엄한 종소리를 듣기 위해 윈중심에 있는 광장으로 모여드는 광경이다.

— 9월에 설을 쇠는 에티오피아사람들

에티오피아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통용되고있는 율리우스력으로 새해 첫날인 9월 11일에 설을 쇤다.

이 날은 사람들이 울긋불긋한 치장과 차림을 하고 여러가지 놀이를 구상하여 즐겁게 쇤다.

이 나라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은 새해에 복을 누리자면 그믐날 가까이에 있는 개울이나 련못에서 꼭 목욕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이 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설을 두번 쇤다고 한다. 두번째로 쇠는 설은 12월의 마지막날이다.

가장 적합한 천문대자리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천문대부지를 찾던중 남극대륙에서 《리지 A》라고 불리우는 알맞춤한 장소를 발견하였다.

《리지 A》는 남극대륙의 고원지대에 있다.

조사한데 의하면 겨울철평균기온이 −70℃인 이곳은 대단히 고요하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 장소를 찾기 위하여 위성자료와 기후모형을 비롯

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구름층과 기온, 수증기, 하늘의 선명도, 바람속도, 더운 공기의 흐름 등 천문관측사업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을 측정하였다고 한다.

《검은 상자》의 비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검은 상자》를 찾는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고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아야만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수 있기때문이다.

《검은 상자》는 모든 비행조종자료들을 저장하는 기록장치를 말한다. 《검은 상자》는 보통 합금 또는 합성수지로 만드는데 여기서 합금의 경우 순수한 금속보다 늘음성이나 강도가 훨씬 높은것을 쓰기때문에 1 000℃의 높은 온도에서 30분정도, 깊은 바다의 수압에서는 1개월가량 견딜수 있다고 한다.

《검은 상자》는 보통 비행기의 꼬리부분에 설치되는데 그것은 비행기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이 충격을 가장 적게 받기때문이다. 《검은 상자》는 멀리에서도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겉면이 형광주황색으로 되여있는데다가 사고가 나면 항상 35.7㎑의 전파를 내보내여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장례식때 두르는 검은 띠

고대의 많은 원시족들속에서는 일단 한 사람이 죽으면 사망자의 일가친척모두가 몸에 감탕칠을 하고 마른 풀로 지은 옷을 입거나 검은 천으로 온몸을 두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한것은 죽음의 신을 놀래워 달아나게 하거나 죽음의 신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자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고 한다.

고대유럽에서는 귀족이 죽었을 때 그의 하인들이 검은색의 상복을 입군 하였다.

한번은 영국의 한 귀족이 죽었는데 그때 그의 하인 한명이 상복을 살수 없어 검은 띠를 왼팔에 두르고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후 천을 절약하면서도 하기 쉬운 검은 띠를 장례식때 팔에 두르는것이 널리 전파되였다고 한다.

《국제장애자의 날》

오늘 세계적으로 장애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적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1976년에 있은 유엔총회 제31차회의에서는 1981년을 《국제장애자의 해》로 정하였다.

《국제장애자의 해》의 사업에 기초하여 유엔은 1982년 12월 3일 유엔총회 제37차회의에서 《장애자들과 관련한 세계행동계획》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10년간을 《장애자들을 위한 유엔 10년대》로 선포하였다. 그이후 10년간에 세계적으로 장애자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1992년 10월 유엔총회 제47차회의에서는 앞으로 매해 12월 3일을 《국제장애자의 날》로 제정하고 장애자들을 위한 활동을 심도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유엔이 《국제장애자의 날》을 제정한것은 장애자문제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장애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해마다 이날을 계기로 국제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축

전, 민족토론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며 장애자들의 평등과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벌린다.

세계기록 몇가지

최초의 지하철도. 현재 세계에는 67개의 지하철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래된것이 영국의 런던지하철도이다. 1863년 1월 10일에 첫 구간이 개통된 이 지하철도는 오늘 그 총연장길이가 404㎞에 달한다. 그중 131㎞는 뚫어서 만든것이다.

런던지하철도에는 272개의 역이 있고 약 1만 1 000명의 종업원이 있다.

1983년에 3 875량의 객차로 편성된 450대의 렬차가 5억 6 300만명의 손님을 날랐다.

가장 높은 철다리와 긴 철다리. 가장 높은 철다리는 프랑스의 끌레르몽페랑근교의 파메에 있는 단선철다리로서 물면으로부터 132.5m높이에 있으며 경간의 길이는 144m이다. 1909년에 완공되였다.

가장 긴 철다리는 미국 루이지애너주 메트에어리에 있는 휴롱철다리이다.

길이가 7 009m이며 가장 긴 경간은 241m이다. 1935년 12월 16일에 완공되였다.

가장 큰 궁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은 중국 베이징의 고궁(자금성)이다. 960×760m의 장방형으로서 72정보의 넓이를 차지한다.

겉모습은 15세기 명나라의 영락황제가 세운 그대로이지만 내부는 청나라시기의 18세기에 와서 거의 대부분을 고쳐 꾸리였다.

현재 사람이 살고있는 가장 큰 궁전은 1984년 1월에 완공한 브루네이의 수도 반다르세리 베가완에 있는 하싸날 볼키아흐추장의 궁전이다.

여기에는 방이 1 788개나 있으며 지하차고에는 추장의 소유인 승용차가 110대가 들어있다. 이 궁전을 짓는데 3억￡(파운드)가 들었다.

현대의 가장 긴 운하와 고대의 가장 긴 운하. 세계에서 가장 긴 현대운하는 1965년 9월에 개통된 로씨야의 볼가—발뜨운하로서 총길이가 2 977km이다.

이 운하는 까스삐해연안의 아쓰뜨라한으로부터 볼가강을 거슬러 올라 꾸이비쉐브, 니쥬니노브고르드, 라도가호를 거쳐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 이른다.

고대의 가장 긴 운하는 베이징으로부터 항주에 이르는 중국의 대운하이다.

이 운하는 B.C. 540년에 건설되기 시작하여 1372년에 1 781km에 이르렀다. 이 공사에는 한때 500만명의 사람들이 동원된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준첩을 하지 않아 수심이 1.8m이상 되는 곳이 없었는데 오늘은 2 000t급의 배까지 다니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주물랑마봉. 아시아의 남부 히말라야산줄기에 있다.

중국과 네팔의 경계에 높이 솟아있는 이 봉의 높이는 8 848m이다.

산모양은 피라미드형을 이루고있으며 북쪽비탈면은 경사가 느리고 남쪽은 급하게 경사져있다. 산마루와 비탈면들은 모두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으며 사방으로 빙하가 흘러내린다.

주물랑마봉은 1921년 첫 답사가 있은 후 총 11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후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 등산가 에드문드 힐라리와 네팔의 길안내자 노르게 텐찡에 의해 처음으로 정복되였으며 산의 정확한 높이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1983년 현재 16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온 125명의 등산가들이 주물랑마봉정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한다.

자연현상의 7대기적. ① 요르단의 사해 ② 알제리의 모래바다

③ 티베트의 얼음폭포 ④ 도이췰란드의 브로켄산의 신기한 빛 ⑤ 노르웨이의 깊은 밤의 태양 ⑥ 북아메리카의 화석림 ⑦ 하와이의 불의 호수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에 있는 공업도시. 로씨야의 노릴쓰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북쪽에 자리잡고있는 공업도시이다.

노릴쓰크는 북빙양으로 돌출되여나온 따이미르반도에 자리잡고있다.

1930년대에 이곳에는 몇명의 사냥군밖에 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노릴쓰크와 그외 3개의 위성도시지역이 세계적인 니켈, 코발트, 백금산지로 되였다.

이전 쏘련시기에 많은 로동자들이 이곳에 이주하여 자기의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 공업도시를 일떠세웠다.

노릴쓰크의 겨울날씨는 매우 춥다.

북극의 밤은 지루하다. 한낮이 되여야 희미한 서광이 비치다가 인차 어두워진다.

눈보라는 살을 에일듯 하고 기온은 −40℃까지 내려가므로 밖에 있느라면 참기 어려울 정도이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이는 계절은 반년이상 지속된다. 땅밑 300m깊이까지 얼음으로 되여있어 기둥우에 세워놓은 집들이 내려앉을 념려는 없다.

이곳 사람들은 이런 기후적특성으로 하여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로동을 하고있다.

제일 큰 미술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박물관은 로씨야에 있는 에르미따쥬미술박물관이다.

여기에는 고고학적발굴품을 포함하여 300만점의 미술작품들이 진렬보관되여있다.

박물관에는 322개의 진렬실이 있는데 이곳을 모두 돌아보자면 24km를 걸어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노벨, 알프레드 베른하르드(1833－1896). 스웨리예의 발명가이다.

기업가의 가정에서 출생한 노벨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원료로 다이나마이트제조법을 발명한것으로 하여 이름이 높다. 그는 1888년에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무연화약을 만들었으며 그밖에도 많은 발명을 하여 100여건의 특허를 받고 재산을 쌓았다. 노벨의 아버지와 두 형들도 다 발명가들이였다. 아버지는 부설어뢰를 발명했고 맏형은 석유공업, 둘째형은 필림제작에서 이름이 났다.

노벨은 화약이 인류의 복리에 이바지될것을 진정으로 바랐다.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다.

노벨의 유산 168만GB￡는 그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의 기금으로 되였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평화상으로 나누어 국적과 성별에 관계없이 매해 각 부문에서 뛰여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게 되여있다.(경제학상은 후에 제정되였으며 노벨기금에서 주지 않음.) 그런데 지금 일부 노벨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악용되고있다.

멘델레예브, 드미뜨리 이와노비츠(1834－1907). 멘델레예브는 로씨야의 화학자이다. 씨비리 또볼스크에서 중학교교장의 14번째 막내아들로 태여나 뻬쩨르부르그에서 자연과학을 배우고 빠리와 하이델베르그에서 2년동안 공부를 한 다음 귀국하여 25년동안 뻬쩨르부르그대학의 교수로 있었다. 그의 과학활동에서 가장 큰 업적은 원소의 주기법칙을 발견한것이다.(1869년)

이 법칙에 기초하여 그는 원소주기계를 작성하였으며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원소들과 그 성질을 예언하였다. 그가 예언한 세 원소 《에까알루미니움》(갈리움), 《에까붕소》(스칸디움), 《에

까규소》(게르마니움)가 발견되고 이 원소들의 성질이 그의 예언과 일치하다는것이 확인되면서 주기법칙의 정당성이 인정을 받았다.

그는 림계현상을 연구하고 용매화리론도 내놓았다.

또한 석유형성과정에 관한 리론을 내놓고 석탄가스화문제도 제기하였다. 500여종의 저작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저서는 《화학의 기본》이다.

렌트겐, 윌헬름 콘라드(1845－1923). 렌트겐은 도이췰란드의 실험물리학자이다. 그는 1895년에 불투명체를 투과하는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발견하고 X선이라고 이름지었다.

이 공로로 하여 1901년에 첫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X선의 발견은 그다음에 있은 라디움의 발견과 더불어 19세기말의 2대발견으로 불리웠으며 원자물리학, 결정구조의 연구, 공학과 의학의 발전에 큰 공헌으로 되였다. X선에 그의 이름을 붙여 렌트겐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디슨, 타머스 앨버(1847－1931). 에디슨은 미국의 발명가이다. 그는 오하이오주 미란에서 출생하여 학교교육은 석달밖에 받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정력적인 가정교육으로 점차 재능이 발현되였다. 그는 １２살때 철도신문판매원으로 일하였다.

역장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준것이 계기로 되여 전신기술을 배우게 되였고 1869년까지 전신수로 일하였다. 이때 자동중계기, 투표기록기, 만능통보인쇄기를 발명하였다. 발명에서 얻은 돈으로 연구소를 꾸리고 1871년에는 활자전신기를, 1872년에는 ２중전신기를, 1873년에는 ４중 및 ６중전신기, 등사판, 전기펜을 발명하였다.

1876년에는 탄소립자송화기를 발명하여 벨이 발명한 전화기를 완성시켰다.

1877년에는 축음기를, 1879년에는 백열전등을, 1880년에는 자기선광법을 발명하였다.

1881년에는 빠리만국박람회에 증기기관직결발전기를 내놓았으며 1882년에는 세계최초의 중앙발전소와 에디슨전등회사를 창설하

여 400개의 전등을 켰다. 1883년에 전자관발전의 기초로 되는 에디슨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평판축음기, 활동사진, 알카리축전지 등 많은 발명을 하였다.

에디슨은 1915년부터 해군고문으로서 군사과학문제에 관심을 돌렸다. 그가 받은 특허는 1 300건을 넘어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진지한 노력가였다. 사람들이 그를 드물게 보는 수재라고 하였을 때 에디슨은 천재란 다름아닌 정열적인 노력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여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다.

빠블로브, 이완 뻬뜨로비츠(1849－1936). 빠블로브는 쏘련의 생리학자, 조건반사학설의 창시자이다. 그는 랴잔의 목사가정에서 출생하여 처음에는 신학교에 다니다가 생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뻬쩨르부르그대학에 옮겨가 생리학을 전공했다. 졸업후 도이췰란드에서 류학을 하고 돌아온 그는 륙군군의학교 교수로 있었다. 그는 소화생리에 관한 연구로 1904년에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이 연구과정에 실험동물로 쓰던 개의 타액분비에서 조건반사현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그는 이 조건반사가 대뇌피질의 특성인 흥분과 제지의 호상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이것으로 하여 생체와 외계와의 복잡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것을 밝혔다.

10월혁명후에도 연구를 계속하였다. 레닌은 그의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었다.

뉴톤, 아이저크(1643－1727). 뉴톤은 영국의 수학자, 물리학자이며 천문학자, 고전력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농민가정에서 태여나 케임브리지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교수로 되였다. 그는 1665년에 2항정리를 발견하고 1669～1672년에 미분법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광학분야에서도 많은 발견을 하였다. 그는 해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여러가지 색갈을 가진 빛으로 갈라진다는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그후 분광학발전의 실마리로 되였다. 그는 또한 색수차와 박판에서 빛의 간섭무늬, 《뉴톤고리》를 발견하고 최초의 반사망원경을 발명하였다.

뉴톤의 과학적업적가운데서 제일 큰것은 만유인력법칙의 발견이

다. 이 인력설이 확립되면서 그의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원리》가 완성되였는데 거기에는 시간, 공간, 질량에 관한 정의, 만유인력 및 운동의 법칙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이 저작은 그후 ２００년동안 력학의 기초자료로 되였다.

뉴톤은 근대물리학의 기초를 쌓은 업적으로 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84살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는 독신으로 살았다.

아인슈타인, 알베르트(1879－1955). 아인슈타인은 리론물리학자이다. 그는 남부도이췰란드에서 태여나 뮨헨에 옮겨가 살았다. 어릴적부터 수학적재능이 비상한 그는 15살때 부모를 따라 이딸리아의 밀라노에 가서 중학교를 마치고 스위스에서 류학하였다. 16살때 벌써 저서 《파동체의 광학》을 내놓았다.

그는 21살에 대학을 졸업한 후 스위스공민권이 없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겨우 시민권을 얻은 다음 베른에 있는 특허국기사로 일하였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물리학년보에 《특수상대성리론》 등 ３개의 론문을 발표하여 학계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일반상대성리론을 확정하여 만유인력론을 전개하였으며 일반상대성리론을 완성(1916)하고 상대적우주론을 내놓았다.

1921년 《리론물리학의 재연구》 특히 《광전효과의 연구》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1933년 나치스도당의 반유태인정책으로 도이췰란드에서 추방되여 미국의 프린스톤고급연구소 교수로 일하였다. 1945년 공직생활에서 은퇴하였다. 그는 바이올린의 명수, 요트애호가였다.

스티븐슨, 죠지(1781－1848). 스티븐슨은 영국의 발명가이다. 그는 14살부터 탄광화부였던 아버지의 조수로 있으면서 고학과 실천을 통해 갖가지 기관과 기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였다.

그는 증기기관차를 발명한것으로 하여 이름이 났다. 1814년 ７월 처음으로 만든 그의 증기기관차 《브류쎌》호는 ８대의 광차를 끌수 있었다 한다. 그후 여러가지 개량한 기관차를 만들었다.

1825년 9월 그는 세계최초의 첫 기관차 《로코모션》호를 만들어 운전했는데 그 시속은 24～30km였다.

1830년부터 만체스터—리버풀철길건설이 완공되고 철도운영이 시작되였다.

그는 차량제작뿐아니라 선로건설에서도 많은 창안을 하였다.

20년가까이 고문기사로 활약했으며 1848년에는 기계기사원의 초대원장으로 되였다.

큐리, 마리(1867—1934). 큐리는 뽈스까의 녀성물리학자이며 화학자이다.

그는 와르샤와에서 중학교교원의 딸로 태여났다. 소르본느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9살에 삐에르 큐리와 결혼하였다.

그는 남편과 함께 방사능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우라니움보다 센 방사능을 가진 라디움과 폴로니움을 분리하는데 성공하였다.

1903년에 그들부부는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마리 큐리는 새로 발견한 방사성원소를 자기 조국의 이름을 따서 《폴로니움》이라고 불렀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에도 연구를 계속하여 금속라디움을 갈라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공로로 하여 1911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큐리부부에 의한 라디움의 발견은 20세기 원자핵연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질량으로부터 에네르기에로의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돈도 실험실도 없고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이런 큰 일을 하였다.

마리 큐리는 소르본느종합대학의 첫 녀성교수였다.

맏딸 이레느도 남편인 졸리오와 함께 인공방사능을 발견하였으며 둘째딸 에브는 음악가, 작가로서 어머니의 전기《큐리부인》의 저자이다.

콤퓨터의 시조 배비지

１７９２년 영국 서남부의 어느 한 가정에서 태여난 챨즈 배비지는 대학시절에 벌써 수학적재능이 뛰여난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크게 놀래웠다. 대학졸업후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로 임명된 그는 당시 그 누구도 엄두를 못내던 계산기계발명의 길에 주저없이 뛰여들었다. 그가 계산기계발명을 결심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날 배비지는 한 유명한 천문학자와 만나 천문용수표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데 수표에 틀린것이 어찌나 많았던지 배비지는 연방 머리만 가로저었다. 그 수표는 18세기말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많은 수학자들을 동원하여 만든것이였다. 그때의 일에서 큰 충격을 받은 배비지는 계산기계를 만들려는 대담한 구상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옹근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마침내 1822년에 첫 계차기관을 만들어냈다. 계차기관이란 함수표의 복잡한 연산을 계차법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계산도구이다. 사실 당시의 공업기술수준으로는 창안해낸 부속품들을 만들수 없었으므로 계차기관은 설계로부터 부속품가공에 이르기까지 배비지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했다.

첫 계차기관은 ３개의 ５자리수를 연산하였는데 연산정확도는 소수점아래 ６자리수에 이르렀다. 자기가 만들어낸 기계가 아주 정확하게 수표를 작성해내는것을 보고 신심을 가진 배비지는 계산을 소수점아래 20자리수까지 할수 있는 계차기관 제２호를 만들것을 결심하였다.

계차기관 제２호는 제１호와 대비도 되지 않았다. 부속품만도 5 000여개에 달하였을뿐아니라 부속품의 정밀도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았다. 주요 부속품의 오차는 지어 0.0253 ㎜를 넘지 말

아야 하였다. 공업기술수준이 한심하였던 19세기 전반기에 이와 같은 정밀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실로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배비지는 락심하지 않고 계차기관 제2호제작에 달라붙었다. 그는 1833년에 계산기계의 일부를 만들어내놓았다. 계산기계의 연산정확도는 예견하였던 요구수준에 도달하였다. 여기서 용기를 얻은 그는 정부에 재정적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배비지의 계차기관제작에 자금을 지원하는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고 하면서 자금지원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배비지는 계차기관 제2호 제작사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차기관에 대한 그의 착상은 현대콤퓨터의 구조설계를 위한 기초로 되였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콤퓨터의 시조로 부르고있다.

싸스비루스를 발견한 올바니

싸스는 21세기에 들어와 새로 나타나서 인류를 위협한 급성호흡기성전염병이다.

21세기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들에 사망률이 매우 높은 원인모를 전염병이 나타나 사람들속에 급속히 퍼지고있었다. 그러나 그 병원체를 알길이 없어 세계적으로 예방왁찐도 개발하지 못하고 치료대책도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인 2003년 세계보건기구의 역원으로서 웰남의 하노이에서 사업하고있던 이딸리아의 의사이며 의학자인 올바니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하여 《싸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병원체, 비루스가 발견되였고 그 치료방법도 개발되게 되였다.

이딸리아의 의학자인 올바니는 1956년에 이딸리아 연해도시인 까스뗄뽈라니오에서 태여났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기 나라의 마첼라따종합병원에서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치료사업을 하였다. 1998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였으며 1999년에 《국경없는 의사들》기구에서 일하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았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이상한 전염병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자 그는 그 병원체를 밝혀내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러다가 2003년 2월 하노이에서 앓고있던 중국계 미국상인 죠니진의 몸에서 처음으로 보는 비전형적인 페염비루스를 발견하고 그것이 새로 퍼지고있는 전염병의 병원체라는것을 밝혀내였다.

그는 즉시 자기의 연구결과를 세계보건기구 마닐라사무소에 통보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염병의 명칭을 싸스(SARS) 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확정하였다.

새로운 병원체를 발견한 후 올바니는 싸스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제몸도 돌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풍부한 치료경험도 쌓게 되였는데 그는 자기의 림상경험을 제때에 동료의사들에게 알려주군 하였다. 올바니가 치료하던 미국상인이 죽은 후 병원의 많은 의사와 간호원들이 싸스비루스에 감염되였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는데 올바니의 방조자인 46살난 윁남간호원도 앓기 시작하였다.

올바니는 쓰러져가는 의사와 간호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았으며 특히 자기의 방조자였던 윁남간호원을 살려내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보호안경과 보호복도 벗어던지고 마스크만 쓴채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올바니를 보고 치료집단은 그가 병에 전염될것을 우려하여 치료를 단념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몸 내대고 3주일간의 치료전투를 벌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타이에 도착하였으나 그는 그날로 싸스가 발병하여 쓰러졌다. 올바니는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18일만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47살이였다.

완쾌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서던 윁남간호원은 생명의 은인이 숨을 거두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눈물을 머금고 환자치료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싸스병원체를 발견한 올바니의 업적과 의로운 소행을 찬양하면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그의 이름과 결부하여 부를것을 요청하고있다.

값비싼 대가로 찾은 발견

사람마다 서로 다른 피형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람들은 피라고 하면 모두 같은것으로 생각하고있었으며 지어는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도 서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여겨왔다.

중세기에 의사들은 전쟁마당에서 피를 많이 흘린 병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하였는데 그들중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한 의사는 심한 빈혈증에 걸린 16살의 소년에게 새끼양의 피를 수혈하였는데 그 소년도 인차 죽고말았다.

사람들에게 피를 수혈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어떤 나라에서는 수혈을 금지할데 대한 법령까지 채택하였다. 그러던중 우연한 일이 벌어졌다.

1819년에 한 의사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피를 수혈하였는데 그의 생명이 구원되였다. 아마도 피형이 우연적으로 맞아떨어진것 같았다.

(모든 수혈자들이 다 실패하였는데 왜 유독 한 사람만이 수혈을 받고 무사했는가.

이것이 사람의 피가 다 같은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해주는것이 아닌가.)

이것이 피속의 비밀을 밝히는 길로 과학자들을 유도한 의문의 시발점이였을수도 있다.

드디여 한 생물학자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피의 비밀을 밝히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사람의 피는 다 같은것이 아니며 피형은 4가지로 구분되기때문에 서로 다른 피가 혼합되면 역효과가 초래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실로 값비싼 대가로 찾은 거대한 발견이였다. 그때는 1900년이였다.

세계에 이름난 작가들

오스뜨롭스끼, 니꼴라이 알렉쎄예비츠(1904－1936). 오스뜨롭스끼는 쏘련의 작가이다. 그는 로동자가정에서 출생하여 마을의 교회부속학교와 소학교에서 배웠을뿐 가난한탓으로 더 공부하지 못하고 역전식당 잡부, 발전소 화부 등으로 일하면서 지하혁명조직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19년에 공청에 가맹하고 공민전쟁시기 붉은군대에 자진입대하여 꼬똡스끼부대에서 싸우다가 1920년에 중상당하였다. 그후 제대되여 끼예브철도공장에서 공청사업을 하였으며 1922～1924년에 구역공청비서로 일하였다. 1927년에 전선에서 입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그는 처음에는 다리마비, 다음에는 시력상실, 나중에는 전신마비로 육체적활동을 할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투쟁을 멈추려 하지 않았으며 혁명에 유익한 일을 모색하였다. 그는 자기의 체험을 진실하게 써서 청년교양에 이바지할것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방조밑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1930년말부터 소설창작에 착수하였다. 그는 길지 않는 창작생활기간에 여러편의 소설들과 글들을 썼다. 특히 첫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를 창작하여 쏘련문학계와 사회계 특히 청소년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1934년부터 제3부작으로 구성된 장편소설 《폭풍의 아들딸》창작을 계획하고 제1부를 발표했으나 다 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의 창작활

동은 당시 쏘련청년들의 혁명적풍모를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젊은 세대들과 인민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난관극복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쏘베트문학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숄로호브, 미하일 알렉싼드로비츠(1905－1984). 쏘련의 작가이다. 그는 로스또브주의 소상인가정에서 출생하여 공민전쟁시기 중학교를 중퇴하고 붉은군대에 입대하였으며 돈지방에서 쏘베트주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다. 1922년말에 모스크바에 와서 로동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1926년에 돈지방에서의 공민전쟁과 치렬한 계급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초기단편소설들을 담은 작품집 《돈이야기》와 《푸른 초원》을 출판하였다. 1926년에 장편소설 《고요한 돈》 제1부를 발표하고 1940년까지 전 4부로 된 이 소설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작가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계속하여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의 창작을 밀고나가 1932년에 제1부를, 1960년에 제2부를 내놓았다.

1932년에 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종군기자로 전선에 나가 생동한 보도기사들과 단편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을 써서 쏘련인민들을 파시스트침략자들과의 투쟁에로 고무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전후에 전쟁시기에 시작했던 장편소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의 창작을 끌고나가 쏘련군대의 영웅적위훈을 폭넓게 그리려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말년에 《인간의 운명》과 같은 수정주의적작품들도 내놓았다.

그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쏘련과학원 원사였으며 2중사회주의로력영웅칭호와 레닌상(1960), 노벨문학상(1965)을 받았다.

린저, 루이저(1911. 4. 30－). 도이췰란드의 녀류작가이다. 남부바이에른주의 교원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1928년부터 교원양성소

에 적을 두고 뮨헨종합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1930년에 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바이에른주내의 여러 마을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후 1939년에 교단에서 물러나 가정살림을 돌보면서 문학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러나 1942년에 나치스당국에 의하여 집필을 금지당했으며 전선에 끌려나갔던 남편도 사망하여 두 어린것을 데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그는 1944년부터 1945년 파쑈도이췰란드가 패망할 때까지 감옥생활을 하였다. 전후에 여러 신문, 잡지, 방송국의 론설원으로 있다가 1959년이후에는 직업적작가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였다.

주요작품으로 장편소설 《파문》(1941년), 《수인일(1946년) 《가장 강한 사람들》(1948년), 《삶의 한가운데》(1950년), 《검정하늘소》, 《고원》, 수기작품 《북조선일기》(1981년) 등이 있다. 린저는 우리 나라를 여러차례 방문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녔으며 주체조선의 찬란한 현실을 목격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으로 되였다.

양말(1914—). 중국의 녀류작가이다. 본명은 양성업이다.

베이징의 지주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중학교 3학년때 기울어져가는 가정을 추세우려는 타산밑에 국민당의 한 고위장교에게 시집가라고 강요하는 어머니의 요구에 분개하여 집을 뛰쳐나와 하북성의 여러곳에서 소학교 교원으로 있었다. 아첨할줄 모르고 배경이 든든치 못해 세번씩이나 교원자리에서 쫓겨났으며 그후 베이징으로 돌아와 가정교사, 책방점원 등으로 일하였다.

그는 1933년에 혁명적인 청년들과 알게 된것을 계기로 공산당원들과 혁명적지식인들과 접촉하였으며 맑스와 레닌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6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양말은 20살때 《열남산지구 주민들의 생활속사》라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젖먹이딸애를 떼여놓고 전선

으로 나갔다.

이때부터 이름을 양말이라 하였고 출판물에 《소혜》라는 필명으로 글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단편소설, 실화문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산문들을 잡지와 소책자에 발표하여 일제의 죄행을 폭로하고 항전에 일떠선 대중을 고무하였다. 그는 1949년이후 베이징시 부녀련합회 선전부 등 여러 공직에서 일하였다. 1978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면서 창작활동을 계속하였다. 1958년에 자신의 청년시절생활체험에 기초하여 대표작인 《청춘의 노래》를 발표하고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이밖에 그의 작품으로 《양말산문선》(1981년), 장편소설 《동이 튼다》(제1부, 1980년), 《고백－나의 일기》(1985년) 등이 있다.

호쎄 마르띠(1853－1895). 꾸바시인이며 꾸바인민의 민족해방운동지도자의 한사람이다. 아바나의 가난한 포병하사관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던 조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민족적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압제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였다. 중학시절에 쓴 극시 《아브달라》에서 마르띠는 랑만주의적수법으로 압제자들에 대한 꾸바인민의 반항정신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마르띠의 활동에 위구를 느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1870년에 그를 체포하여 투옥하였다가 곧 에스빠냐로 추방하였다. 그는 1875년부터 메히꼬와 과떼말라에 체류하면서 기자활동을 통해 꾸바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렸으며 1879년에는 다시 아바나로 돌아와 반에스빠냐투쟁을 벌렸다. 지하조직이 드러나 두번째로 체포되여 다시 해외로 추방된 마르띠는 1880～1895년에 미국에서 꾸바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는 꾸바혁명당창당사업에 참가하여 그 지도자로 선거된 후 1895년 꾸바로 들어가 독립전쟁을 지휘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마르띠가 남긴 시창작유산은 그 대다수가 세권의 시집 《이스마엘릴요》, 《자유시》, 《평범한 시》에 수록되여있다.

시인은 인민시가의 전통에 의거하여 창작을 세련시키면서 초기의 랑만주의로부터 점차 비판적사실주의의 길로 나갔으며 당시 사회에서 의의있는 정치사상적내용을 담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다방면적인 작가였던 마르띠는 시작품외에도 소설, 희곡, 정론, 아동문학작품, 정치론문 등 많은 글을 남겼다.

발자끄, 오노레 드(1799－1850). 프랑스의 작가이며 유럽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이다. 프랑스 남부지방의 소도시 뚜르의 농민출신관리의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1814년부터 부모를 따라 빠리에 가서 살면서 법률학교에 다녔으며 소르본느종합대학에서 문학강의를 받았다. 1819년 법률학교를 졸업한 그는 법률가가 될것을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문학창작을 시작하였다.

그는 23살때 스무살이나 우인 베르니부인과 련정관계를 맺고 그의 도움으로 출판업, 활자제조업 등에 나섰다가 크게 실패하여 한평생 빚에 시달리면서 문학창작을 하였다.

30살때 력사소설 《슈앙파》를 내고 문단의 인정을 받은 후 143편의 작품을 담을것을 예정한 소설총서 《인간희극》의 창작을 계획하고 일생동안 수많은 작품을 썼다. 《인간희극》은 《풍속연구》, 《철학적연구》, 《분석적연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였는데 여기에는 장편소설 《곱쎄끄》, 《고리오령감》, 《환멸》 등 97편의 작품들이 들어있다.

《인간희극》에서 그는 부르죠아사회의 모순과 부르죠아지의 략탈적인 치부과정을 폭로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반동적인 《정통왕당파》의 견해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실주의문학창작에 부정적영향을 주었다.

일찌기 출판업에 나섰다가 진 막대한 빚을 갚으려고 매일 16시간이상의 긴장한 집필을 계속하며 문단에 나선이래 수십편의 작품을 썼으나 그의 생애는 불우하였다. 독신으로 지내다가 생애의 말기인 1850년 5월에야 18년동안 교제해오던 뽈스까의 부유한 녀지주 한스까야와 결혼하였는데 과도한 창작활동의 후과로 석

달후 빠리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창작은 유럽의 사실주의문학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쉐익스피어, 윌리엄(1564－1616). 영국의 극작가, 시인, 문예부흥기의 대표적작가이다. 그는 소도시 스트래트포드의 부유한 상공인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소년시절에 가문이 몰락하기 시작하여 문법학교를 중퇴한 그는 18살에 8살우인 녀자와 결혼하고 몇해후 런던에 가서 연극배우가 되였으며 1590년경부터 극장 전속작가로 극작활동을 시작하여 점차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20여년에 걸치는 창작활동기간에 시대적추세와 관중의 요구를 반영한 37편에 달하는 비극, 희극, 력사극을 창작공연하여 연극계의 일인자로 되였다. 동시에 장시 《비너스와 아드니스》(1593년), 《루크리스의 릉욕》(1594년) 등 우수한 시를 발표하여 당대 일류시인으로도 명성을 얻었다.

쉐익스피어는 말년에 극장경영에도 참가하여 새로 건설된 극장 《지구좌》의 공동경영주가 되였으며 1612년경에는 연극계에서 은퇴하여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

그가 창작한 희곡가운데서 유명한것은 《베니스의 상인》(1596년), 《열두번째 밤》(1600년), 《한여름밤의 꿈》(1596년), 《햄리트》(1601년), 《오쎌로》(1604년), 《리어왕》(1605년), 력사극 《리챠드２세》(1595년), 《헨리４세》(1부～2부, 1597～1598년) 등이다. 그중에서도 그의 대표작으로 가장 이름난것은 비극 《햄리트》이다. 그의 극작품들은 무운시로 된 운문극들이다. 신흥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그의 창작은 자비심과 인간에 대한 초보적인 사랑으로 사회를 개조하려고 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작품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세계문학사와 연극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트웨인, 마크(1835－1910). 미국의 작가, 정론가이다. 미주리주의 지방판사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12살때부터 인쇄공장 식자공, 미씨씨피강의 수로안내원, 군인, 신문기자 등으

로 있다가 1860년대부터 작가가 되였다. 1865년에 첫 단편소설집을 출판하였으며 1867년에 크림을 방문하고 《외국의 바보들》이란 풍자적려행기를, 그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을 려행한 후에도 많은 글을 썼다.

그는 1870년대에 장편소설 《도금세기》를 비롯하여 단편소설들을 써서 미국식민주의의 반동적본질, 미국의 사회정치생활의 부패성을 신랄히 폭로하였다.

그후 장편소설 《톰소야의 모험》(1876년), 환상소설 《아서왕궁에서의 양키》(1889년), 장편소설 《왕자와 거지》(1882년) 등을 썼다.

장편소설 《왕자와 거지》는 한날한시에 태여난 두 소년의 운명을 통하여 낡은 사회에서의 사회적불평등과 모순을 비판하였다.

이밖에 그는 미제와 그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론문들과 정론들을 썼다. 단순하고 소박한 문체로 당대사회의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낸 그의 작품들은 후세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미국문학에서 비판적사실주의의 길을 개척한 작가의 한 사람이다.

푸치끄 율리우스(1903－1943). 체스꼬의 작가, 평론가, 기자이다. 그는 쁘라하의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나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쁘라하종합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다. 1921년에 공산당에 입당하고 1920년대부터 공산당기관지인 신문 《루데 쁘라보》와 잡지 《뜨보르바》의 편집원으로, 1941년부터 그 주필로, 비법화된 공산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였다.

1942년에 도이췰란드파쑈교형리들에게 체포되여 사형언도를 받고 그 다음해에 베를린에서 최후를 마치였다.

파시즘의 기반에서 벗어난 후 영웅칭호를 받은 그의 대표작은 사형수감방에서 쓴 《교형수의 수기》이다. 그밖의 문집 《우리는 인민을 사랑한다》(1947년 출판), 수기 《사형을 앞두고 한 말》(1950년 출판) 등이 있다.

1943년에 쓴 수기 《교형수의 수기》는 푸치끄가 감옥에서 쓴것

을 전후 그의 안해가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24시간》, 《죽음의 고통》 등 8개 장으로 구성되여있는 수기는 생동한 내용과 강한 정론성, 감동적인 묘사의 유기적결합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고리끼 막씸(1868－1936). 쏘련의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볼가강변의 도시 니쥬니 노브고로드의 목수가정에서 출생하였다. 다섯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11살되는 해에 어머니마저 사망하자 방랑생활을 하였다. 이때부터 로씨야사회의 최하층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생활의 대학》을 거치게 되였다. 고리끼는 독학으로 문학수업을 하여 24살때부터 직업적작가로 되였으며 20세기초에는 세계적인 프로레타리아작가로 자라났다.

1905년 1월 짜리당국에 체포되여 감옥생활을 한 후 미국에 건너갔다가 이딸리아에서 8년간 망명생활을 하였다. 그는 1905～1907년 혁명의 실패후 일시적으로나마 사상적으로 동요하고 곡절있는 창작과정을 걸었으나 레닌의 관심속에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1934년에 열린 제1차 쏘베트작가대회의 조직자로, 쏘련작가동맹의 첫 위원장으로 되였다.

고리끼는 첫 작품 《마까르 츄드라》(1892년)를 발표한 후 창작생활 전기간에 장편소설 《어머니》(1906년)를 비롯하여 산문시 《매의 노래》, 희곡 《소시민》, 《최하층》, 《원쑤들》, 자서전적장편소설(3부작) 제1부 《유년시대》, 제2부 《사람들속에서》, 제3부 《나의 대학》, 장편소설 《아르따모노브일가의 사업》, 《클림 쌈긴의 생애》, 기타 레닌과 레브 똘스또이에 대한 회상록들과 실화작품, 정론, 평론 등 많은 글을 남기였다.

그의 창작은 쏘련과 세계의 혁명적문학예술 특히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을 개척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로신(1881－1936). 중국의 작가이다. 중국인민의 새 문화의 길을 개척하고 그 발전방향을 세운 혁명적작가이다.

절강성 소홍의 몰락한 지주가정에서 출생하여 생활고를 겪으면서 독학한 그는 남경에서 채광학을 공부한 후 일본으로 류학가서 의학공부를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고 철학과 문학을 독학하였다.

1909년에 귀국하여 고향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신해혁명이후 남경림시정부가 선 다음해인 1912년부터 초청을 받고 교육부의 부원, 과장 등으로 일하였으며 1920～1926년까지 베이징대학, 베이징녀자사범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1919년 5.4신문화운동전야에 본격적인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 시기에 대표작인 《아큐정전》(1921)을 비롯하여 단편소설 《고향》 등을 내놓았다.

이 소설들은 당시 중국의 사회현실을 보여주면서 억압받는 하층인민들의 간고한 생활과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억압에 대한 증오를 반영하였다.

1924～1926년사이에 단편소설 《축복》을 비롯하여 11편의 단편소설을 썼다.

로신은 １９２６년 8월 남부지방으로 내려가 하문대학 교수, 광주중산대학 교수 및 교무주임 등을 지내다가 국민당반동군벌의 눈을 피하여 １９２７년에 상해로 가서 직업적인 작가생활에 들어섰다.

이때부터 생애말기까지 중국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정력적인 활동을 벌렸다.

이 과정에 력사소설집 《고사신편》(1922～1935년)과 《삼한집》, 기타 12종의 잡문집들을 썼다.

그가 쓴 소설들과 잡문들은 낡은 사회를 증오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전투정신이 일관되여있고 창작방법측면에서도 비판적사실주의로부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로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는 다방면적인 창작활동으로 중국인민들을 민주주의혁명에로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중국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명성을 떨친 작곡가, 미술가들

베토벤, 루드위히 판(1770－1827). 도이췰란드의 작곡가이다.

그는 1782년에 첫 작품 《드레슬러의 행진곡에 의한 변주곡》을 발표한 후 일생에 9개의 교향곡, 11개의 서곡, 5개의 피아노협주곡, 1개의 바이올린협주곡, 2개의 미사곡, 32개의 피아노쏘나타, 10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쏘나타, 16개의 현악4중주곡, 7개의 피아노중주곡 등 기악곡들과 70여개의 변주곡, 소품, 무곡, 성악곡을 작곡하였으며 188개의 여러 나라 노래들을 편곡하였다.

그는 19세기 초엽의 교향곡의 거장으로 알려져있다. 그의 교향곡들에는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대중의 투쟁에 대한 례찬의 열정이 흐르고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보수적인 봉건귀족들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도 적지 않게 발로되였다.

본의 가난한 음악가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으며 뛰여난 음악적재능을 키운 베토벤은 공화주의자였으며 완강하고 순진한 성격을 지닌 인도주의자였다.

챠이꼽스끼, 뾰뜨르 일리이츠(1840－1893). 로씨야의 작곡가이다. 우랄지방의 광산기사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음악을 사랑한 부모의 영향으로 5살때 피아노를 잘 탔고 7살때는 프랑스어로 시를 지었다. 1848년에 가족과 함께 뻬쩨르부르그로 이사한 다음 가극 《이완 쑤싸닌》을 본것이 그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

1866～1878년에 모스크바음악학교 음악리론과와 작곡과 담당교수로 있은 기간에 그의 작곡가적재능이 완성되고 창작활동이 집약화, 다양화되였다.

이 시기 작곡한 최초의 대작인 《교향곡 제1번》은 그를 19세기 최대의 교향곡작곡가로 만든 계기로 되였다. 이 시기에 또한 교향시곡 《로미오와 쥴리에트》, 《현악4중주곡 제1번》, 《교향곡 제2번》,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 《슬라브행진곡》,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등 명작을 창작하고 음악평론활동도 정력적으로 벌렸다. 그는 최고걸작인 《교향곡 제6번》을 완성한 후 콜레라에 걸려 사망하였다.

챠이꼽스끼는 창작활동기간에 10편의 가극, 3편의 발레음악, 2편의 연극음악, 6편의 교향곡, 20편의 관현악곡, 4편의 협주곡, 3편의 교성곡, 3편의 중주곡, 100편의 피아노소품, 수많은 로만스, 2중창곡, 합창곡, 독주곡들을 작곡하였다. 그의 음악의 중요한 주제는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인간들의 투쟁이였다.

그의 음악창작에는 로씨야의 민요와 도시의 대중적로만스의 음조적요소들이 효과적으로 리용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음악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당대 사회의 모순과 인민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족점들도 있다. 그의 작품들은 로씨야음악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레삔, 일리야 예피모비츠(1844—1930). 로씨야의 화가이다. 하리꼬브주의 퇴역군인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부터 미술에 취미를 가지고 미술공부를 하였고 1864년부터 뻬쩨르부르그미술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았다. 학생시절에 혁명적민주주의자들과 《이동전람회협회》화가들과 접촉하면서 점차 진보적인 미학관을 가지게 되였다.

첫 작품인 《볼가의 배끌기군들》(1870～1873년)은 주목을 끌었다.

그는 풍속화, 력사화, 초상화 등을 창작하면서 로씨야미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미술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주제들을 개척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로 《뛰르끼예왕에게 편지를 쓰고있는 자뽀로쥐예의 까자크들》(1880～1891년), 《이완뢰제》(1885년), 《선동원의 체

포》(1880～1892년), 《참회의 거절》(1879～1885년), 《꾸르스크주의 십자가행렬》(1883년) 등이 있다. 생의 말기에 그는 로씨야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옳게 리해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작품들을 내놓지 못하였으며 이곳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창작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과 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공감과 모순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정신, 높은 형상성으로 하여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예술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 이딸리아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 과학자이다.

문예부흥기 이딸리아미술의 대표자이다. 피렌쩨부근 빈지촌의 부유한 법률가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였고 14살부터는 당시 이름있는 화가 베로끼요의 화실에서 미술을 배웠다.

문예부흥기예술의 진보적경향을 대표하여나선 그는 당시 유럽에 퍼진 인문주의사상에 의거하여 회화의 사실주의적묘사수법을 발전시켰다.

주로 종교주제화와 초상화들을 그렸는데 대표작은 밀라노대공의 명령으로 싼따 마리야 델라 그라찌예사원의 식당벽면에 그린 벽화 《최후의 만찬》(1495～1497년)이다.

그리고 초상화 《몬나 리자》, 모성애와 녀성의 우아성을 찬양한 《동굴속의 성모》, 《성모 리따》 등도 내놓았다.

그는 속사와 사생화를 비롯한 소묘작품도 많이 그렸는데 그의 소묘의 특징은 아름다운 선과 부드러운 립체감이다.

창작 전기간 그는 문예부흥기 이딸리아미술의 반봉건적, 반교회적사상을 대변하면서 어두운 중세교회미술의 추상성과 도식성, 형식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지상생활을 긍정하였으며 실제인물들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그는 문예부흥기의 사실주의미술론을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외국의 대학들

청화대학. 중국의 종합리공과대학이다.

1911년에 창립되여 초기에는 외국에 류학을 보내는 예비학교로서 청화학당이라고 부르다가 1928년에 문학부, 리학부, 공학부, 농학부 등 4개 학부를 가진 청화대학으로 되였다. 중일전쟁시기에 국립베이징대학, 사립남개대학과 합쳐 서남련합대학으로 되였다.

1952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베이징대학공학부와 자경대학의 공학계통을 통합하여 기계제작, 동력, 수리, 전기, 무선, 석유, 토목, 건축의 8개 학과와 23개의 전공과를 둔 공업종합대학으로 되였다. 지금은 수리공학, 라지오전자공학, 기계공학, 응용수학, 경제관리 등 16개의 학부와 기초과목교수연구부, 43개의 전문학과, 핵에네르기기술, 미전자학 등의 연구소와 연구실들, 87개의 실험실과 9개의 중간시험공장들이 있다.

모스크바종합대학. 로씨야에서 가장 크고 오랜 력사를 가진 국립종합대학이다. 정확한 이름은 로모노쏘브명칭 모스크바국립종합대학이다. (로모노쏘브의 이름은 1940년부터 붙었다.)

1755년 4월에 로모노쏘브가 모스크바에 세운 로씨야최초의 대학이다. 처음에는 철학, 법학, 의학 등 3개 학부가 있었으며 신분적차별을 두지 않고 각계층의 자녀들을 입학시켰다.

1890년대부터 맑스주의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반동통치배들의 탄압을 받았다. 20세기초에는 물리수학, 의학, 법학, 력사언어학 등 4개 학부를 두었다. 10월혁명이후 대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현재 대학에는 력학, 수학, 응용수학, 조종공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토양학, 지리학, 지질학, 력사학, 언어학, 철학, 정신

병학, 경제학, 법학, 신문학 등 여러 학부가 있다. 이밖에 학부와 동격으로 동양어학연구소, 외국인학생들을 위한 예비학부가 있다. 천문학, 기계공학, 핵물리학, 인류학 등 부속연구소와 장서 600만부를 가진 부속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경기장, 학생극장, 국제구락부, 체육구락부 등이 있다.

1948년부터 새 청사건설이 시작되여 1953년에 준공되였다. 청사에는 강의실 168개, 실험실 1 700여개, 개별적교수의 방이 6 000여개가 있다.

빠리대학. 프랑스의 가장 오랜 국립종합대학이다.

소르본느대학이라고도 부른다. 12세기경에 학예학부, 법학부, 신학부, 의학부 4개 학부를 가진 유럽의 첫 상류계층의 대학으로 창립되였다. 17세기까지 유럽에서 신학과 법학교육의 중심으로 되였다.

1808년에 소르본느대학과 통합하였으며 1896년이후에 빠리종합대학으로 되였다.

라부아지에, 빠스뙤르, 큐리부부 등이 이 대학을 나왔다. 1968년에 13개의 독립적인 대학으로 개편되였는데 그중 10개는 경제학, 법학, 문학과 인문과학, 1개는 의학과 생물학, 2개는 물리수학, 지구생물학과 화학부문이다.

대학에는 학문별로 도서관이 있다. 대학에는 리공과대학, 고등사범학교 등이 특수한 고등교육기관으로 따로 존재한다.

베를린종합대학. 정확한 이름은 훔볼트명칭 베를린종합대학이다.

1809년에 설립된 도이췰란드에서 가장 큰 대학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7개 학부(철학, 법학, 신학, 의학, 약학, 구강학, 농학)에 학생 247명, 교원이 58명이였다.

그후 다른 큰 단과대학들과 포츠담에 있는 천문대 등을 합치고 동방어학부를 내옴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맑스, 엥겔스를 비롯하여 헤겔, 헬름홀츠, 키르흐호프 등 이름있는 철학자, 력사학자, 물리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나왔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자연과학, 정밀공학발전에 기여한 아인

슈타인, 슈뢰딩게르, 플랑크, 네른스트 등이 이 대학에서 사업하였다.

파시스트정권시기에 많은 학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1946년부터 훔볼트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였다. 학부는 9개 (철학, 자연과학 및 수학, 법학, 경제학, 교육학, 신학, 의학, 수의학, 농학 및 원예학) 이다.

장서 190만부를 가진 대학도서관이 있다.

로마대학. 이딸리아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이다. 볼로냐대학다음으로 오랜 대학이다.

1303년 법왕 보니파쿠스 8세에 의해 시립대학으로 설립되였다. 처음에는 문과, 법과가 있었다.

16～17세기에 로마의 복잡한 정치적혼란속에서 침체상태에 빠져있었으며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게 된것은 1871년 이딸리아왕국이 선 이후이다.

1935년에 지금 대학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학, 교육학, 의학, 수학, 약학, 공학, 항공학, 건축학, 사서학의 13개 학부가 있다. 1661년에 창립된 약 90만권의 장서를 가진 대학도서관이 있다.

도꾜대학. 일본의 한대학이다. 1877년 당시 전문학교였던 도꾜개성학교와 도꾜의학학교가 통합되여 나왔다.

1886년 《제국대학령》에 의하여 제국대학으로 부르다가 1897년에 교또제국대학이 나오면서 도꾜제국대학으로 부르게 되였으며 1947년부터 다시 도꾜대학으로 되였다. 대학에서는 일본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있다.

대학에는 교양학부, 문학부, 교육학부, 법학부, 경제학부, 리학부, 의학부, 약학부, 공학부, 농학부가 있으며 인문과학, 사회과학, 수학, 화학, 생물학부문의 대학원과 의학, 리공학, 지진, 동양문화, 사회과학, 신문, 생산기술, 응용미생물, 원자핵, 해양 등 연구소들이 있다.

또한 대학병원, 천문대, 식물원, 농장 등이 있으며 500여만부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있다.

옥스포드대학. 옥스포드시에 있는 영국에서 가장 오랜 사립종합대학이다.

12세기말～13세기초에 창립된것으로 알려져있다. 1249년에 옥스포드시에 있던 몇개의 학교들이 합쳐 대학으로 발족하였다.

중세기에는 7자유학과 (문법, 수사학, 변증법, 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 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외에 자연철학, 도덕철학, 형이상학 등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을 가르쳤다. 17～19세기에 여러차례의 개혁을 통하여 근대화되였다. 1602년에 설치된 보들리도서관 (장서 약 350만권) 과 1683년에 설치된 아슈몰린박물관은 국내외에 잘 알려졌다.

첨단과학기술의 시원과 령역

20세기 중엽에 여러 나라들에서는 통신, 새 재료, 새로운 에네르기, 생물, 공간, 해양 등 많은 분야에서 서로 련관되여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련이어 개발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그 산물로서 극소형콤퓨터, 레이자, 빛섬유, 위성통신과 탄소섬유, 분리막, 초전도체와 새로운 에네르기개발, 미생물, 효소, 세포, 유전자, 우주탐측, 우주공업, 해저채굴, 바다물담수화기술 등이 개척되였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첨단과학기술을 통털어 고도과학기술, 고신기술, 고기술 등으로 부르고있다. 첨단과학기술은 현대과학기술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적이고 견인력있는 부문으로 되고있다.

첨단과학기술은 6개의 과학기술령역과 12가지 분야를 포괄하고있다.

생물기술령역—유전자공학과 단백질공학

전자정보기술령역—지능콤퓨터와 지능로보트

새 재료기술령역－분자설계와 초전도재료
새 에네르기기술령역－핵에네르기와 태양에네르기
공간기술령역－우주기술과 영구우주정류소
해양기술령역－해저채굴과 바다물담수화
첨단과학기술은 다음과 같은 산업부문들을 포괄하고있다.
생물의료기구산업
생물공학산업
빛전자정보산업
지능기계산업
프로그람산업
초전도산업
태양에네르기산업
공간산업
태양산업
첨단과학기술은 ２１세기에 전면적인 발전과 응용단계에 들어섰으며 오늘날 사람들은 더 높이 발전된 기술이란 뜻에서 최첨단기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첨단기술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최첨단기술이란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앞선 기술이며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운영과 무역활동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핵심기술로서 높은 사회경제적효과를 가지는 기술이다.
현대의 대표적인 최첨단기술을 보면 ＣＮＣ기술, 지능프로그람기술, 위성제작기술, 핵에네르기기술, 유전자기술 등을 들수있다.
최첨단기술의 특징은 첫째로, 높은 창조력을 전제로 한다는것이다.
최첨단기술은 현재의 과학기술성과에 토대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는 지식집약형기술로서 앞으로의 기술발전방향과 방도를 새롭게 제시해준다.
둘째로, 높은 수익성을 가진다는것이다.
최첨단기술은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토대하여 이룩되는 기술

로서 제품의 질과 로동생산능률, 자원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줌으로써 막대한 경제적리익을 가져다준다.

셋째로, 높은 침투성을 가진다는것이다.

최첨단기술은 각이한 산업부문에 급속히 보급되여 기술경제적진보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넷째로,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는것이다.

최첨단기술은 지식집약형제품 즉 전략적인 지적자원으로서 국제적경쟁력에서 개별적인 나라나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분야의 지위를 규정하는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놓고보면 최첨단기술은 단순히 개별적학문과 관련되는 개개의 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및 군사적측면에서 가장 앞선 종합적이며 위력한 잠재기술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세계적추세－지식경제

지식경제는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제, 다시말하여 지식과 정보에 의한 생산, 분배와 소비(사용)로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공업경제사회이후의 새로운 사회경제형태로서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무엇보다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이 지식경제의 매우 중요한 기초로 된다.

1990년대 초엽에 모든 경제협조개발기구성원국들의 상공업분야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비용이 고도기술산업부문에 지출되였다.

다음으로 정보와 통신기술이 지식경제의 발전에서 중심적지위를 차지한다.

정보와 통신기술부문에 대한 투자에서는 봉사업이 많은 비률을 차지하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는 75%를 차지하였다.

봉사업은 지식경제에서 높은 장성속도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고있다.

날이 감에 따라 공업경제가 지식경제로 전환되고 산업구조의 경제중심이 제조업으로부터 봉사업으로 전환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20세기 80년대초 제조업이 국내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10배였다면 90년대 초엽에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몫이 봉사업에 비해 1.5배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로동력의 자질과 기능이 지식경제실현에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현시기 모든 경제부문이 지식을 기초로 하고 지식이 경제장성의 추동력으로 된다는데로부터 선진기술과 지식으로 준비된 로동력은 결정적인 생산요소로 된다.

최근 일부 나라들에서는 제조업과 봉사업의 기능수준이 현저히 올라가고 산업이 갱신되면서 더 높은 자질을 갖춘 로동력을 요구하고있다.

날이 감에 따라 공업경제가 지식경제로 전환되고있는것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21세기는 지식경제시대이다.

인류사회는 5 000년의 농업경제시대와 300여년의 공업경제시대를 거친 후 지금은 새로운 경제시대인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섰다.

농업경제시대에는 토지가 제일 큰 재부였고 공업경제시대에는 자본이 제일 큰 재부였다면 지식경제시대에는 지식과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이 소유하는것이 제일 큰 재부로 되고있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핵심으로 되며 지식자본(지식의 생산과 전파에 드는 비용)이 기타 자본을 초과하게 된다.

지식경제의 출현은 현시대의 생산방식, 생활방식, 사고방법과 경제관리령역 지어 국가지도자들의 정책작성에까지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목을 끄는 《저탄소경제》

《저탄소경제》는 에네르기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화석연료위주의 에네르기자원구조를 깨끗한 에네르기자원구조로 바꾸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저탄소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깨끗한 에네르기 일명 록색에네르기부문이다. 록색에네르기자원이라 할 때 그것은 수력, 태양열, 풍력 등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에네르기자원을 의미한다.

오늘날 환경오염 등에 의한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 현시기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저탄소경제》를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유럽동맹은 2020년까지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1990년보다 20% 줄이고 록색에네르기의 비중을 높여 지역내의 취업확대와 경제장성을 촉진하고 《록색기술》령역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자리를 고수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중국, 인디아, 브라질 등 발전도상나라들도 《저탄소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중국국무원은 에네르기절약 및 온실효과가스방출량감소사업을 《10대산업조정 및 진흥계획》의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강철생산 및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산업구조조정을 다그쳐 락후한 생산설비들을 페기시키고 에네르기자원의 사용효률을 높여야 하는것이다.

중국은 에네르기자원을 절약하고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

들을 취하여 태양에네르기와 같은 깨끗한 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는 사업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다른 여러 발전도상나라들도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에네르기리용효률을 높이며 새로운 재생에네르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유엔환경계획이 밝힌데 의하면 2008년에는 세계적으로 석탄과 원유를 리용한 전기생산에 1 100억US＄가 투자되였다면 록색에네르기를 리용한 전기생산에는 1 400억US＄가 투자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저탄소경제》발전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제의 《저탄소화》는 앞으로 나라들과 기업들간의 기본경쟁분야의 하나로 될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생물기술산업

생물기술산업은 생물이 가지고있는 물질변화, 정보변화, 에네르기변화 등의 기능을 여러가지 제품의 생산과 농작물의 품종개량, 병치료 같은데 응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생물기술산업은 생물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형성발전하였다. 생물기술은 그 발전력사가 오래며 시기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리해가 다르다.

20세기초에는 미생물발효공업장치를 연구하는 방법을 생물기술로 리해하였다면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유전자공학, 세포공학, 생물모방기술, 생물전자공학 등에 의하여 지난 시기의 발효기술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모든 기술을 포함하여 리해하게 되였다.

오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생물산업기술은 화학공업부문, 농업부문, 약품생산 등 여러 분야에 포괄되면서 경제부문을 세분확대하고 경제구조를 개편시켜나가고있다.

현시기 생물기술은 화학공업부문에 널리 도입되여 새로운 산업부문으로서 생물화학공업을 형성하고있다.

생물화학공업제품에서 주목되는것은 생물분해성수지이다.

이외에도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분해하며 환경을 다시 수복할수 있는 제품과 미생물을 리용하여 광석을 녹이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균도 개발되고있으며 미생물과 효소를 리용하여 화학에네르기 또는 태양에네르기, 전기에네르기로 련속 전환시키는 생물전지도 생산하고있다.

그밖에 생물기술은 식료품, 화장품생산분야에도 적용되고있다.

해양경제개발

해양경제개발은 다양한 분야들에서 벌어지고있다. 해양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해양식료산업, 해양운수업, 해양관광업 등도 개발되고 발전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광물자원과 생물자원의 약 90%가 해양에 있다. 이것은 지구겉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바다가 인간의 생존과 문명발전을 담보하는 거대한 보물고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선차적인 관심은 해양에네르기자원에 돌려지고있다.

현재까지 탐사, 확증된것만 하여도 해저에 있는 원유 등의 매장량은 륙지에 매장된 량과 거의 맞먹는다. 세계적으로 대륙붕에서 발견된 유전만 하여도 820여개나 된다. 그가운데서 대규모 및 특대규모의 유전은 150여개로 알려져있다.

21세기 중엽에 이르러 해저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은 20억t에 이를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브라질은 대서양에 있는 해저유전을 개발하고 채굴함으로써 2006년부터 원유자급체계를 확립하고 세계의 당당한 원유수출국으

로 등장하였다. 최근년간에 브라질에서는 대규모해저유전들이 새로 발견되여 경제발전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해저천연가스자원개발을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있다.
바다밑에는 고체상태의 메탄가스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탐사자료에 의하면 수심 700～4 400m의 바다밑퇴적물질속에서 막대한 량의 메탄수화물자원이 발견되였다. 바다밑의 메탄수화물자원량은 륙지의 천연가스매장량의 100배에 달한다.
조선동해 울릉분지의 넓은 해역 수십곳에도 막대한 량의 고체화된 천연가스가 매장되여있다는것이 이미 조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양광물자원개발에도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바다밑에는 망간과 철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하자원들이 무진장하게 깔려있다.
열수광상개발을 중시하는 나라들도 있다. 열수광상은 높은 온도의 용암이 수십m씩 분출하는 열수분출구주변에 경제적가치가 큰 쓸모있는 광물자원들이 쌓여 형성된다.
여기에는 금, 은, 동, 니켈, 크롬, 코발트 등 유용광물자원들이 덩어리 또는 미립자형태로 쌓여있다. 이러한 열수광상을 개발하여 희유금속들을 생산함으로써 금속공업을 발전시키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지고있다.
해양경제개발속도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효력발생으로 하여 보다 빨라지게 되였다.
1982년 12월에 조인된 유엔해양법협약은 1994년 11월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바다자원의 개발, 리용과 관련한 국제적관심은 급격히 높아지고 그 노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해양경제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국제무대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산생되고있다.
해양경제개발시대에 들어서면서 령토와 바다의 관할권을 강탈하기 위한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나라들이 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해양경제개발을 다그치는 한편 그 리익을 지

키기 위해 해군력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러한 노력은 군비경쟁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각종 해양사고, 바다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앞으로 해양경제개발이 강화되고 해당 나라들간에 그 권리와 리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면서 국제적모순과 대립이 다양성을 띠고 복잡해질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세계적인 관심－ＣＮＣ기술

ＣＮＣ란 콤퓨터수자조종이라는 의미로서 영어단어결합의 첫 글자들로 표기된 략어이다.

ＣＮＣ기술이란 공작기계의 콤퓨터수자조종기술이다. 수자처리기술에 기초한 자동조종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콤퓨터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수자조종(ＮＣ)기술이라고만 하였다. ＮＣ기술이 제일먼저 도입된것은 공작기계부문이다.

1950년대에 처음으로 공작기계에 ＮＣ기술이 도입되여 수자조종공작기계가 나왔으며 1970년대 하반기에 콤퓨터와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극소형처리소자가 나오면서 ＣＮＣ기술로 발전하게 되였다.

ＣＮＣ기술이 나오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초정밀가공이 실현되였다. 가공부분품의 형태도 원형, 구형은 물론 임의의 복잡한 자유곡면도 마음대로 가공할수 있게 되였다.

ＣＮＣ기술이 도입되면서 종전에는 실현할수 없었던 ６축, ７축까지 동시조종할수 있는 공작기계, 한 설치에서 소재의 모든 가공면(보통 ５면)을 다 가공해낼수 있는 가공중심반, 선삭가공중심반 등 특수공작기계들이 나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작기계들의 가공능률은 종전에 비해 수배, 수십배로 높아졌으며 기능이 낮은 기대공이 어떤 복잡한 형태의 부분품도 가공해낼수 있게 되였다.

ＣＮＣ기계 １대는 그 생산성이 재래식설비의 수십배, 지어 100배에 달한다고 한다.

첨단기술분야의 하나인 ＣＮＣ화는 현대기계공업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ＣＮＣ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여왔으며 최근년간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는 ８축, ９축까지 동시에 조종할수 있는 공작기계를 생산해내고있다.

핵융합기술

핵융합기술은 미래의 새 에네르기를 개발하기 위한 최첨단기술이다.

핵융합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두개의 핵이 부딪쳐 하나의 핵으로 되는것이다.

핵분렬이 우라니움과 같은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들이 서로 갈라지는 반응을 가리킨다면 핵융합은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의 원자핵들이 서로 합쳐져 하나로 되는 반응을 말한다.

핵분렬반응이 일어날 때 에네르기가 발생하는데 핵융합반응이 일어날 때에도 에네르기가 발생한다. 태양에네르기가 바로 수많은 수소핵들이 융합반응을 하면서 생기는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에서 핵융합반응을 인공적으로 실현시키면 인공태양을 만드는것과 같다고 볼수 있다.

핵분렬반응은 중성자에 의하여 쉽게 일어나지만 핵융합반응은 양전기를 띤 핵들사이에 호상작용하는 전기적인 밀힘을 극복해야 하므로 높은 온도와 압력조건을 조성해주어야 일어난다.

수소기체로 이루어진 태양은 내부온도가 １ 500만℃이상인데

여기에서 수소핵들이 합쳐져 헬리움핵으로 되는 핵융합반응이 일어나면서 방대한 에네르기가 나온다.

핵융합반응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는 중수소와 중수소와의 융합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중수소와 초중수소와의 융합반응이다.

핵융합반응이 제일 잘 일어나는것은 중수소와 초중수소를 1 : 1의 비률로 섞을 때이다.

중수소는 바다물 1L속에 0.02g정도 들어있는데 이만한 량의 발열량은 휘발유 300L의 발열량과 같다고 한다.

초중수소는 자연계에 없으므로 다른 원소를 핵반응시켜 얻는다.

핵융합반응은 연료원천이 풍부하고 매우 안전하며 환경에 주는 피해도 아주 적다.

핵분렬원자로에서는 핵연료를 한번에 장입하고 림계상태에서의 련쇄반응을 조절하여 에네르기를 생산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큰 폭발을 일으킬수 있다.

그러나 핵융합반응로에서는 연료를 필요한만큼 넣어주면서 가열하기때문에 연료주입과 가열장치를 멈추면 로가 즉시에 서게 된다.

핵분렬원자로에서 나오는 핵페기물은 독성이 있을뿐아니라 그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핵융합반응에서 생기는 헬리움은 안전한 불활성기체이다.

핵융합반응이 진행될 때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중성자에 의해 반응로의 구조물이 점차 방사화되지만 그것은 핵분렬쪼각들이 주는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핵융합연료는 발열량이 매우 크므로 작은 부피에서도 많은 에네르기를 뽑아 전기를 생산할수 있다.

핵융합기술은 최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로서 그에 대한 연구성과는 그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융합기술개발에 달라붙은 나라는 발전되였다고 하는 몇개 나라밖에 없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핵융합기술을 우리 식의 독특한 방법으로 성공시켜 선군조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정보기술강국을 지향하는 인디아

인디아는 ＩＴ(정보기술)의 인적자원과 콤퓨터쏘프트웨어분야에서 세계굴지의 강국으로 되여가고있다.

이 나라가 정보기술강국으로 떠오르고있는것은 해마다 ＩＴ기술자를 １０만명씩 양성하고있으며 이들을 키워내는 ＩＴ교육인재들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인디아가 ２１세기 첨단기술의 중심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것은 정확한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세운것과 관련된다.

정보기술분야가 새 세기의 전망성있는 분야로 인정되면서 많은 나라들은 콤퓨터하드웨어나 반도체기억장치, 정보통신설비등의 제조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정보설비생산분야를 발전시키였다.

그러나 인디아는 발전도상국가에 속하는 나라로서 제조업분야의 토대가 비교적 약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전부터 정보기술설비가 아니라 콤퓨터프로그람개발과 인터네트전문가를 비롯한 쏘프트웨어분야의 인재양성에 힘을 넣었다.

인터네트가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는 실정에서 ＩＴ기술인재 특히 쏘프트웨어분야의 인재가 부족될것을 타산하고 1986년부터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정보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지금 인디아의 방갈로르에는 수만명의 ＩＴ기술자와 수백개의 쏘프트웨어회사가 있다. 인디아정부는 방갈로르가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자 이어 하이데라바드를 ＩＴ산업기지로 선정하고 꾸리였다.

현재 이 도시는 인디아를 방문한 외국수반들이 돌아보는 주요 도시의 하나로 되고있다.

ＩＴ산업에서 두 도시가 성공하자 이어 뉴델리, 뭄바이 등 큰 도

시들도 정보산업지구로 설정되여 꾸려졌으며 각 주의 지방자치제들도 ＩＴ산업지구들을 꾸리는데 경쟁적으로 달라붙고있다.

인디아에는 영어를 모국어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바로 이것이 ＩＴ기술인재양성은 물론 ＩＴ기술인재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한 중요바탕으로 되였다.

인디아가 수많은 쏘프트웨어기술인재를 가진 ＩＴ강국으로 된데는 그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기관들과 교육자들을 마련하는데 일찍부터 투자를 집중하였기때문이다.

인디아에는 ＩＴ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공과대학이 ５０여개나 있다. 그가운데 대표적인 수재교육기관은 1951년에 인디아수상이 ６개의 공과대학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립한 인디아공과대학이다.

이 나라에서는 인디아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들과 연구쎈터, ＩＴ기술학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ＩＴ기술과 쏘프트웨어교육에 협력하고있다.

《우리의 목표는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것과 함께 세계적으로 뛰여난 과학자, 기술자들을 키워내는데 있다.》라고 인디아공과대학 총장은 말하였다. 이 대학의 교육수준은 세계가 인정하고있다.

인디아공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교원, 학생전원이 대학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는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훌륭히 보장해주고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양성된 유능한 인재들은 해외에 진출하여 ＩＴ기술업계를 주도하고있다. 이곳에서 공부하려는 외국류학생들도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인디아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나라의 ＩＴ교육단위수는 ５만～７만개라고 하며 그중 ２０여개의 대규모 ＩＴ교육단위들은 이 부문 교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있다고 한다.

인디아의 ＩＴ기업들은 세계 185개 기업에 쏘프트웨어제품을 팔아 870억US＄의 수출실적을 올리고있다고 한다.

2 1 세기의 에네르기문제와 전망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에네르기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에네르기자원을 개발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세계에네르기자원소비구성을 보면 2002년에 원유가 34.9%, 천연가스 21.2%, 석탄 23.5%, 핵에네르기 6.8%, 수력 2.2%, 재생가능한 에네르기와 페기물이 11.4%였다.

즉 화석연료가 에네르기구성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하반년에 가서 태양에네르기, 풍력, 재생가능한 에네르기가 세계에네르기자원소비구성에서 50%를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에네르기자원개발리용에서 주목되는것은 첫째로, 화석연료의 주도적지위가 상실되고있는것이다.

석탄과 원유의 매장량은 제한되여있고 생산량이 줄어들고있으며 그 값이 올라가고있다. 따라서 화석연료는 세계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킬수 없게 된다.

둘째로, 핵에네르기가 전망적인것으로 되고있다.

2007년말에 세계적으로 운영된 핵반응로는 439기였는데 총발전능력은 3 716억㎾로서 세계에네르기구성의 약 7%를 차지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핵발전기술을 완성하며 새로운 세대의 고속증식로와 열핵반응로를 실용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2100년에 가서 총에네르기에서 핵에네르기가 차지하는 비률은 30%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셋째로, 재생가능한 에네르기의 비률이 빨리 장성하고있는것이다.

조수력, 풍력, 태양열, 빛발전, 연료전지기술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되였고 여러 부문에서 그 실용성이 확증된것으로 하여 이 응용기술이 널리 보급일반화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재생가능한 에네르기의 지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2004년에 그 발전량은 16GW로서 총전력생산량의 4%에 이르렀다.

넷째로, 미개발에네르기를 탐색하고있는것이다.

이 에네르기자원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것은 메탄수화물이다.

메탄수화물은 물분자와 메탄가스분자가 얼음결정상태로 결합된것인데 저온고압상태에서 안전하게 존재하며 불이 쉽게 달린다.

메탄수화물은 주로 300m의 깊은 바다밑 땅속과 극지방의 영구동토대밑에 놓여있다.

세계적으로 메탄수화물의 매장량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총 매장량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다.

2050년경의 발전변화들

인간생활

• 젊음을 유지하는 《불로약》이 나올것이다.

• 인간수명이 120살로 늘어날것이다.

• 뇌수의 생물전기를 직접 수감하는 콤퓨터가 제작되고 사람과 기계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의 지능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질것이다.

생물학

• 데핵산이 인공적으로 합성될것이다.

• 면역성을 조절하는 전자기구가 나올것이다.

• 인체장기들이 재생되고 인공장기들이 제작될것이다.

• 앞으로 태여날 어린이의 성별을 미리 계획화할것이다.
• 새로운 고단백식물을 육종하여 대대적으로 재배할것이다.

의학

• 암방지약과 에이즈치료약이 완성될것이다.
• 여러가지 질병들을 예방하는 종합왁찐이 개발될것이다.

화학

• 진공용해법으로 순도가 매우 높은 금속을 얻게 될것이다.
• 바다물정제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담수를 대대적으로 얻게 될것이다.
• 새로운 화학원소들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게 될것이다.

물리

• 핵융합반응을 조종하는 기술이 발전하여 에네르기원천을 확보하게 될것이다.
• 0℃에서 초전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가 탐구될것이다.
• 새로운 에네르기전달방법들이 탐구될것이다.
• 중력마당을 목적지향성있게 변화시켜 인력을 조절하게 될것이다.
• 중력 및 전자기마당에 대한 통일적인 리론이 나올것이다.

공학

• 세계적인 정보망과 통일적인 정보쎈터가 나올것이다.
• 물우에서 달리는 자동차, 시속 500km의 승용차가 개발될것이다.
• 인공태양을 띄우게 될것이다.
• 반사광방출설비가 개발될것이다.
• 현실생활을 수자로 모형화하게 될것이다.
• 원리적으로 새로운 공간이동방식이 나올것이다.
• 대양의 해저가 대대적으로 개발될것이다.

생활

• 인체에 해롭지 않은 담배가 나올것이다.
• 최면상태의 교육이 진행될것이다.
• 정보를 뇌수에 직접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될것

이다.

• 가정용로보트가 광범히 사용될것이다.

지구

• 정확한 지진예보, 일기예보(년간)가 가능하게 될것이다.

• 필요에 따라 일부 지역의 날씨를 조종하게 될것이다.

우주

• 우주구조의 비밀이 더욱 명백히 밝혀질것이다.

• 매우 큰 지구기지종합체가 제작될것이다.

• 달탐험이 진행되고 달에 광산들이 개발될것이다.

• 화성에로 인간의 비행이 실현될것이다.

• 목성의 위성들에 관측기구가 보내질것이다.

• 세계적인 소행성방위환이 형성될것이다.

• 왕복위성들이 가동하게 될것이다.

• 위성발전소들이 건설될것이다.

• 우주의 금속비행물체들을 지구궤도에 끌어들여 분해한 다음 해당 지역에 착륙시킬것이다.

무장장비

• 《사고하는》 미싸일들이 개발될것이다.

• 생물체들을 ２～３시간동안만 《죽이는》 무기가 나올것이다.

• 핵무기를 소유한 나라들이 매우 많아질것이다.

• 먼거리에서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기구가 나올것이다.

• 지향성레이자무기가 발전할것이다.

• 지진무기가 개발될것이다.

• 집적회로를 파괴하는 전자무기가 발전할것이다.

• 잠수함을 탐지하는 곱등어들에 대한 원격조종이 실현될것이다.

제 6 편 인 구

다인종국가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는 하나의 인종으로 구성되여있으나 유럽식민주의자들이 이주하여간 나라들을 비롯하여 여러 인종으로 이루어진 다인종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인 다인종국가로서는 남아프리카(흑인 70%, 백인 16%, 나머지는 혼혈인)와 미국(흑인 12%, 백인 80%, 나머지는 아메리카인디안과 황인종)을 들수 있다.

이런 다인종국가들에서는 백인들의 인종차별정책으로 자주 인종분쟁이 일어나고있다.

단일민족국가와 다민족국가

민족은 피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생활이 같은 인류의 사회적 집단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우에는 약 2만개에 달하는 민족이 있다. 그런데 세계의 나라수는 200여개에 달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민족국가는 얼마 없으며 대체로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가 대부분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단일민족국가이다.

프랑스, 이딸리아는 단일민족국가이며 로씨야, 중국, 인디아, 미

국 등은 다민족국가이다.

다민족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밀접한 련계나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 등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다민족국가는 여러 민족들간의 평등과 친선, 단결과 협조의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민족정책을 실시하여야 민족들간의 밀접한 련계가 유지발전되고 나라의 공고성이 확고히 담보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대립과 분렬을 조성하여 저들의 침략적목적실현을 추구하는 민족분렬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지난날 웰남, 라오스인민들이 겪은 분렬의 고통과 종족분쟁은 미제의 분렬정책이 가져온 범죄적후과이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분렬정책은 제국주의민족분렬정책의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식민주의가 낳은 인종

16세기로부터 시작된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로의 대대적인 침입은 새로운 인종들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종들은 다음과 같다.

① 메스띠소(메티스)－백인과 아메리카원주민인 인디안사이에 생겨난 혼혈인들이다. 메스띠소란 말은 라틴어로 《혼혈》이란 말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현재 빠라과이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뻬루, 꼴롬비아, 볼리비아 등의 주민구성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② 물라트－백인과 아프리카흑인사이에 생겨난 혼혈인이다. 물라트란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③ 쌈보－흑인과 물라트 혹은 아메리카원주민들과의 혼혈인을 말한다.

서유럽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끌어오면서 생겨난것이다.

④ 크레올－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남부에 이주해와서 수백년간 살면서 비록 혼혈은 되지 않았어도 종래의 백인과 달라진 프랑스, 에스빠냐계의 백인들의 후손들을 말한다.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2008년 3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정책이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고있는 실태를 비판하였다. 이 위원회는 미국정부가 인디안, 흑인 등 미국내 소수인종들에게 극심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이를 없앨데 대한 유엔헌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였다.

1963년에 발표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청산에 대한 유엔선언》의 제1조에는 인간을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출신에 따라 차별하는것을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인종주의자들은 처음부터 흑인들을 《말하는 도구》로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때리고 죽이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감행하였다.

미국력사는 격렬한 흑인폭동과 백인들의 피비린내나는 탄압으로 일관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82년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 미국흑인은 약 2 650만명으로서 거의 대다수가 어렵고 힘든 손로동을 하거나 로동강도가 높은 농장에서 중로동을 강요당하였다.

흑인가정의 평균수입은 백인가정의 38%밖에 안되였으며 흑인들은 정치적평등과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차별시되고있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남부의 각 주의 학교들에서 인종격리를 실시할데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되고있는것이다.

이 반동적인 격리제도에 따라 뻐스에 탄 흑인들은 백인들이 올라타면 일어서서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고 그러지 않으면 무서운 폭

행을 당해야 하였다.

1963년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였던 알라바마주의 버밍감에서는 온 미국땅을 휩쓴 대규모의 흑인민권폭동이 폭발하였다. 뉴욕, 워싱톤 등지의 흑인들도 항의시위를 벌리고 버밍감흑인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의 인종주의자들은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섰던 흑인정치지도자 루터 킹을 포함하여 1 200여명에 대한 류혈적인 백색테로를 감행하였다.

미국인종주의자들은 흑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각종 테로단체들과 깽단까지 만들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미국에서는 인디안들과 흑인지도자들에 대한 살인만행이 꼬리를 물고 빚어졌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극심해졌는데 1995년부터 텍사스주 남부지방의 흑인교회당들이 련속 불탄것을 비롯하여 알라바마주의 흑인교회당들이 1995년초부터 1년반사이에 30여개나 불타고 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흑인들에 대한 폭행이 더욱 우심해졌다.

오래동안 무권리와 학대에 시달려온 미국흑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조직인 펜셔당의 지도밑에 조직적인 투쟁을 적극 벌리는 과정에 플로리다주의 마이아미에서는 흑인회사의 한 간부가 교통위반을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리유로 경찰놈들에게 살해되였다.

2005년에 《커트리너》태풍이 흑인들이 많이 모여살고있는 루이지아나주의 여러 지역을 강타하였을 때 정부는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기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목숨을 잃고 큰 피해를 당하였다.

당시 미국회 흑인의원그루빠에 소속되여있는 한 의원은 피해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흑인들이라고 하면서 《태풍과 큰물로 죽고사는것을 가른것이 가난과 피부색이라고 력사에 기록되는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2006년에는 로스안젤스에서 《법》을 집행하고 치안을 유지한다고 하는 경찰들에 의해 무방비상태의 죄없는 흑인들이 무차별사격

을 받고 죽거나 치명상을 입는 사건이 터졌는데 한 흑인남성은 경찰들에 의해 무려 50발의 총탄을 맞고 처참하게 죽었다. 흑인테로와 암살은 끊임없이 계속되여왔다.

언젠가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미국에서 흑인공동체는 발전을 무시당하는 하나의 식민지로 존재하고있다.》고 한것은 참으로 옳은 주장이였다.

세계의 언어수

세계에는 대략 2만개의 민족이 살고있다. 그러므로 언어도 그만큼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민족의 수와 언어수는 일치하는것이 아니다.

1930년대에 어느 한 나라의 과학원은 세계에는 2 000～3 000개의 언어가 있을수 있다고 하면서 2 796이라는 수자를 언어수로 규정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많은 언어학자들은 세계의 언어수를 6 000여개로 규정하고있다. 6 000여개의 언어들은 한결같지 않다.

첫째, 세계의 언어들은 발전수준에서 심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조선어, 중국어, 영어, 로어와 같은 오랜 력사를 거쳐오면서 발전한 언어가 있는가 하면 종족어, 씨족어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언어도 적지 않다.

둘째, 세계의 언어들은 그 사용인구수에서 심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사용인구가 5 000만명이 넘는 언어는 15개도 못된다. 사용인구수가 200명, 100명밖에 안되는 언어도 있다.

셋째, 세계의 언어들은 단일성의 정도에서도 심한 차이가 있다. 조선어와 같이 단일민족어가 있는가 하면 여러 민족과 나라, 지역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언어도 있다. 례로 아랍어, 영어 등이다.

인디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민족어가 쓰이고있다.

넷째, 세계의 언어들은 그 우수성의 정도에서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언어의 우수성은 어휘구성이 얼마나 풍부한가, 문법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째여져있는가, 문체가 다양하게 발달되여있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어떤 언어는 코맹맹이소리로 이루어져 답답하게 들려오는가 하면 어떤 언어는 꺽꺽 소리가 막혀 숨막히는감이 나며 어떤 언어는 귀청을 울리고 쨍쨍거리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어떤 언어는 말소리흐름의 높낮이가 너무도 심하여 듣기에 아츠러운감을 준다.

세계의 언어들은 각기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어서 말소리, 어휘문법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

세가지 언어를 알아야 하는 나라

유럽중부에 자리잡고있는 룩셈부르그에서는 토착언어외에도 다른 몇가지 언어를 알아야 한다.

이 나라의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소학교에서는 도이췰란드어와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며 중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영어를 배워야 한다.

룩셈부르그에는 대학이 없기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보통 다른 나라들에 가서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연구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언어사용이 복잡한데로부터 이 나라에서는 흥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있다. 신문은 도이췰란드어로, 학술간행물은 프랑스어로 각각 출판되며 TV방송프로는 일률적으로 프랑스어로 방영된다. 또한 방송은 프랑스어와 도이췰란드어로 내보낸다. 프랑스어를 모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것이 불편하다. 그것은 식당에서 쓰는 식사안내표와 령수증이 모두 프랑스어로 되여있기때문이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프랑스어와 함께 룩셈부르그토착어를 사용한다.

이 나라의 법관들은 피고를 심문할 때 룩셈부르그토착어를 쓰고 구두판결은 프랑스어로 하며 판결문은 도이췰란드어로 작성하고있다. 세가지 언어에 기초한 법정언어는 세계적으로 이 나라밖에 없다.

세계의 종교

종교라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고 숭배하는것을 말한다.

오늘 세계에는 세계 총인구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40억이상의 종교신자들이 있다. 그 대부분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불교 등 세계3대종교의 신자들이다.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봉하는 종교이다. 예수란 말은 《구세주(이 세상을 구원하는분)》라는 뜻으로서 인간세상에 내려와 인류를 구원한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으로서 예수에 대한 칭호이다. 그리스도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곳에 퍼져있다.

그리스도교에는 카톨릭교,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교 등의 세 교파가 있다.

불교. 붓다(불타)의 교리를 신봉하는 종교이다. 붓다는 진리를 깨달은 신이라는 뜻이다. 부처는 붓다의 한자음역이다.

불교는 B.C. 6세기에 오늘의 인디아와 네팔국경연선에 펼쳐졌던 작은 나라인 샤까의 왕자 가우따마 싯다루따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B.C. 3세기에 전체 인디아를 통합한 마우리야왕조의 아쇼까왕은 불교를 국교로 하고 전도사들을 스리랑카와 수리아, 에짚트 등 지중해연안나라들에 파견하여 불교를 보급함으로써 불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되게 하였다. 아시아나라들에는 1세기이후에 불교가 보급되였다. 세계적으로 3억 2천여만명의 신자가 있다.

불교의 대표적인 교파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라마교이다.

불교의 축제일로는 불교의 시조인 샤까무니가 태여난 날인 음력 4월 8일에 진행하는 《강탄회》와 죽은 날인 음력 2월 15일에 진행하는 《열반회》 등이 있다.

이슬람교. 알라신을 유일신으로 신봉하는 종교이다. 이슬람이란 아랍어로 순종한다는 뜻이다.

이슬람교는 아라비아의 서부에 있는 도시 막카(메카)의 몰락한 귀족인 하심가문에서 출생한 무함마드(571—632)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이슬람교는 아라비아반도를 본거지로 하여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일대에 분포되여있다. 신자총수는 9억 8천여만명이다.

이슬람교의 교파는 순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이슬람교의 축제일로는 개제절(10월 첫날)과 희생제(12월 10일) 등이 있다.

세계의 인구문제

1987년 7월 11일 세계에 50억번째 아이가 태여났다. 그리하여 유엔인구기금은 7월 11일을 《세계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세계인구의 날이 제정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인류의 장래발전을 위해 인구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나가자는데 있다. 현시기 인구문제해결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

인구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활동을 보장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인구증대

현시기 국제사회는 세계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주의를 돌리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인류가 발생하여 수백년이 지나서야 세계인구는 2만명에 이르렀고 19세기 초엽에는 10억명을 기록하였다.

15억명의 인구로 20세기를 맞이하였던 세계는 불과 100년사이에 그의 4배인 60억명의 인구를 가지고 21세기에 들어섰다.

최근 유엔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2009년 3월현재 세계인구가 68억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현세기 중엽에 가서 그것은 90억～100억명으로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세계인구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또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인구의 지나친 증대는 이 나라들과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빈부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될뿐아니라 국제독점체들이 나라들의 방대한 인적자원에 의거하여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비대해질수 있는 조건으로 되고있다.

인구장성, 특히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대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낳고있다.

인구로령화

세계인구의 로령화가 빨라지고있어 국제적인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인구의 로령화란 전체 인구중에서 로령자의 비중이 커지여 일정한 한계를 넘어선것을 의미한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인구조사국이 2050년경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65살이상 되는 로인들의 수가 현재보다 거의 3배로 늘어날것이

라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현재 세계인구는 68억명을 넘는데 그가운데서 로령자수는 5억 1 600만명에 달한다. 2050년경에 가서 로령자수가 15억 3 000만명으로 늘어날것이 예상되고있다.

특히 85살이상 되는 로인들의 수는 무려 5배나 늘어나 지금으로부터 30년후에는 현재의 4 000만명으로부터 2억 1 900만명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그중 3분의 2는 녀성들이 차지할것으로 보고있다.

인구의 로령화문제는 유럽나라들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유럽나라들에서 65살이상의 로인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2007년의 17%로부터 2050년경에는 30%로까지 높아질것이라고 한다. 벌써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 모나꼬에서는 65살이상 되는 로인들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인구로화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정부가 발표한 《2008년판 고령사회백서》에 의하면 2007년 10월 1일현재 65살이상의 로령자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21.5%이다.

이것은 일본이 21세기 전반기에 로인인구가 많은 초고령사회로 될것이며 현재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회로 될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세계적으로 발전되였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구로령화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것은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항시적인 경제위기속에서 나날이 어려워지는 근로자들의 생활처지와 양육비의 상승, 자기 대에만 편안하게 잘살고 풍청거리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적사고관점, 성폭행을 비롯한 녀성천시와 학대현상 등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출생률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출생률저하의 흐름속에 《늙은 나라》대렬

에 들어서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

전문가들은 인구로령화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인구의 로령화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출생률감소현상

제2차 세계대전후 일부 발전된 나라들에서 나타나던 출생률감소현상이 현시기에 와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현상으로 되고있다.

불평등한 사회제도의 모순과 국가의 반인민적정책, 근로대중의 빈궁의 악화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출생률감소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마쟈르에서는 2007년 첫 4개월동안에 인구가 1만 5 000명이 또 감소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인구는 1 005만 6 000명에 이르렀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2050년에 가서 마쟈르의 인구는 800만명으로 줄어들것이 예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였다.

2007년 7월 20일 도이췰란드련방통계국은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2006년에 전국적으로 출생자수가 그 전해에 비해 1.9% 또 감소되였다고 밝혔다.

프랑스, 체스꼬,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도 출생률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출생률저하는 녀성들의 처지와 많이 관련되여있다.

오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녀성들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며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는 실업위기의 첫째가는 피해자는 녀성들이다.

또한 녀성들은 살인, 가정폭력 등에 의해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미국에서는 매 1.5분당 1명의 녀성이 성폭행의 피해를 입고있다.

영국에서는 2004～2005년기간에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범죄가 2배이상 늘어났으며 에스빠냐에서는 해마다 200여만명의 녀성들이 가정폭력행위에 시달리고있다.

녀성천시의 낡은 관습이 낳은 남녀불평등의 후과로 하여 많은 녀성들이 정신적, 육체적고통을 겪고있으며 목숨을 잃고있다.

임신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녀성들의 수만도 세계적으로 해마다 52만명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가정과 사회의 수많은 녀성들이 임신이나 해산시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아예 임신을 피하고있다.

일본은 녀성천시, 녀성학대가 가장 우심한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2007년 1월 27일 일본 후생로동상(당시) 야나기사와는 어느한 연설에서 녀성을 《아이낳는 기계》라고 모독하면서 자국녀성들에게 산아률을 높일것을 요구하였다.

녀성의 신성한 권리와 존엄을 꺼리낌없이 모독한 이 망발은 내외의 조소와 파문을 일으켰다.

사민당당수 후꾸시마는 《녀성들속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 낳지 못하는 사람, 류산한 사람 등 각이한 사람들이 있다. 녀성개개인의 인권을 부정하는 각료는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NHK방송이 폭로한데 의하면 일본에서 임신이나 해산을 리유로 녀성들에게 퇴직을 요구한 기업체는 2007년 2월현재 5년전에 비해 2.2배로 늘어났다.

한편 부르죠아생활양식이 만연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합의결혼》, 《계약결혼》 등과 일시적인 동거생활과 독신생활이 류행되고있다.

그리하여 기본가정이 줄어들고 독신자, 리혼자가정이 대대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출생률이 낮아지고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것은 인구로화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인구증대와 인구로화, 출생률저하는 세계적인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다.

세계에서 인구와 관련한 국제기구는 유엔인구기금이다. 유엔인구기금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가족계획과 집행정형, 모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인구증대에 대한 교육, 선전 등에 대한 물질기술적 협조를 목적으로 창설된 기구이다.

유엔인구기금은 해마다 각국 정부들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행사들을 조직진행하도록 방조하고있다.

그리고 인구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여 2015년까지 세계적인 임신부사망률을 75% 줄일것을 공약하였으며 그것은 후에 유엔천년기개발목표에도 반영되였다.

유엔인구기금은 각국 정부들과의 협조밑에 남녀평등권을 실현하며 녀성들의 건강개선을 위한 방조를 주고있다.

인구의 도시집중

인구증대로 세계가 우려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950년에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500만명 되는 도시가 6개뿐이였지만 2000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60개로 불어났다.

2007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서 살았는데 2030년에 가서는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비례가 3:2로 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대는 주택난, 대기오염, 위생조건 등의 문제들을 초래하고있어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신말사주의의 독소

신말사주의자들은 인구의 《폭발적장성》을 과장하면서 인류는 이미 절대적인 과잉인구의 시기에 들어섰으며 2000년대에는 세계의 인구수가 초만원을 이룬 뻐스칸처럼 늘어나 인류자체를 멸망에로 이끌어간다고 떠벌이였다. 이들은 특히 《인구폭발》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오고있으며 이것은 세계대전발생의 근원으로 된다는것 그리고 인구가 이미 《폭발》의 전야에 놓여있는 조건에서 핵전쟁을 하여 사망률을 높이고 인구를 제한해야 세계인구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신말사주의는 말사스의 반동리론을 계승하고 더욱 개악한 부르죠아반동인구리론이다.

영국의 반동적인 승려이며 경제학자인 말사스는 19세기 전반기 《인구법칙에 관한 리론》이라는 책에서 동물과 사람에게 동일하고 보편적인 증식법칙이 존재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는 생활자료의 생산은 산수급수적으로 서서히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때문에 《절대적인 과잉인구》는 숙명적인 《자연법칙》으로 된다고 떠벌이였다.

그러면서 말사스는 《두개억제론》을 설교하였는데 하나의 수단은 전쟁과 재난, 전염병이며 두번째 수단은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철저히 도덕적억제를 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인류자체가 《과잉인구》로 하여 멸망하지 않으려면 근로대중과 피압박민족을 전쟁, 질병 등으로 대량살륙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까지 하였다.

신말사주의자들은 말사스의 반동적인 《인구론》에 《인종론》을 결합시켜 《고급인종》에 의한 《하급인종》의 예속을 설교하고 제국주의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있다.

미국의 신말사주의자인 뻰델은 지구상에서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없애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유색인종을 살륙하는 전쟁을 합

리화하여나섰다.

신말사주의자들은 《인구폭발론》과 함께 《인구위기론》을 제창하면서 과학적근거가 부족한 인구예측자료를 리용하여 인구가 만일 계속 가속도로 증대하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들은 인구증대를 현재 인류의 모든 불행의 화근으로 보고있다.

이런 반동리론은 현실과 세계경제장성에 의해 여지없이 론박되였다.

원시생활을 하는 종족

스리랑카 동남부 산지역에는 아직도 원시생활을 하는 베다족이 있다. 베다족은 사냥과 열매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활과 도끼가 그들의 주요생산도구이다. 그들에게는 활과 도끼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유재산도 없다. 보통 몇개의 가정이 한개 동굴속에서 살며 나무구멍에 나무를 넣고 마찰시키는 방법으로 불을 일으켜 음식물을 구워서 먹고 오직 허리아래의 부끄러운 곳만을 한오리의 천쪼각으로 가리우고 벌거숭이생활을 한다. 베다족은 본래 몇개의 가정들이 함께 먹을것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떠돌이생활을 하였는데 오늘은 스리랑카의 다른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 정착생활을 하게 되였다.

그들의 생활에서 흥미있는것은 물물교환방법이다. 수림속에서 사는 베다족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족의 장사군들과 물물교환을 한다. 그런데 장사군들은 베다족이 사는 구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정하게 정해진 곳에서 인내성있게 기다려야 한다.

그들은 가지고온 천, 담배, 화살촉과 도끼 등과 같은 물건들을 돌우에 놓고 숨어있는다. 그러면 베다족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마음대로 골라가지고는 그 대가로 자기가 가지고온 짐승가죽이나 고기, 꿀 같은것을 놓은 다음 머리를 돌리고

가버린다.

이처럼 물건을 바꾸는 사람들사이에 전혀 흥정이 없이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베다족사람과의 거래를 《무언의 무역》이라고 한다.

웃음을 경계하는 유목민들

사우디아라비아변방의 유목민들에게는 웃는것을 비도덕적인것으로 보는 매우 특이한 관습이 있다.

그들은 웃는것을 신을 경시하는 불손한짓이라고 간주하는데로부터 웃음을 대단히 좋지 못한것으로 대한다.

때문에 이 유목민들은 좀처럼 웃는 일이 없고 서로 만날 때도 무뚝뚝한 표정을 짓는다.

젊은이들이 로인을 대하거나 후배가 선배를 대할 때도 무뚝뚝한 얼굴로 조용히 인사말을 해야 한다.

만약 이때 웃기만 하면 천하의 버릇없고 불도한 행위를 저지른것으로 되여 된욕을 먹는다. 한쌍의 련인들도 웃음이 없는 평탄한 어조로 정담을 나누어야 한다. 어느 일방이 웃으면 대방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거나 지어는 애인에게 자기밖에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련인들사이에 맺어졌던 사랑이 본의아닌 한번의 웃음으로 깨져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결혼식때에도 신랑신부와 손님들은 절대로 웃어서는 안된다. 결혼식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엄엄한 분위기속에서 조용히 진행되여야 한다.

부부간의 일상생활에서도 웃는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풍년을 기원하는 십자가의식

끼쁘로스의 그리스도교계주민들이 사는 곳에서는 매해 9월 14일이면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신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는 의식을 한다. 그들은 9월이 농사에 좋은 달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날을 성대히 경축한다.

이러한 명절은 옛날 어느해에 심한 가물이 오래동안 계속되였는데 그해 9월 14일에 신의 사자 싼히론이 끼쁘로스섬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들고 마귀와 싸워이겨 비가 내리고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하였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신을 숭상하는 이란사람들

이란에서는 이슬람교가 헌법에 의해 국교로 정해져있으며 주민의 절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7세기 중엽 이란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 된 후부터 이슬람교는 이 나라의 지배적인 종교로 되였다. 그밖에도 그리스도교, 유태교 등도 침투되여있으나 그 세력은 보잘것 없다.

이 나라에서는 이슬람교승려들의 사회정치적영향력이 매우 크며 종교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생활에서 이슬람교적인 관습이 많이 지배하고있다.

이란사람들의 종교미신생활에서 특징적인것은 신을 위하여 자기를 실지로 희생시킬것을 주장하는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신전을 꾸리고 제단을 세우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 나라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시설물들을 만드는것을 하나의 어리석은 일로 간주한다.

이란사람들은 신을 진정으로 숭상하는 마음은 자기희생정신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하여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화환을 얹고 자기의 집짐승을 깨끗한 장소로 끌고가서 잡아놓은 다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최고통치자와 전체 이란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빌어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 개인에게도 행복이 차례진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기도가 끝나면 잡은 집짐승고기들을 토막쳐서 끓여익힌 다음 그 전부를 신이 쉽게 찾아낼수 있다고 보아지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풀판에 뿌린다. 다음 승려 한명이 와서 신을 찬미하는 시를 읊는다. 만일 제를 지내는 장소에 승려가 한명도 나타나지 않으면 신을 위해 바치는 그 어떤 헌신성도 인정받지 못한다.

《하루밤집》의 주인들

뛰르끼예는 살림집이 매우 긴장한 나라이다.

《하루밤집》이란 도시주민들이 어려운 주택사정의 배경밑에서 나온것이다. 수많은 집없는 사람들의 투쟁과 사회여론에 못이겨 뛰르끼예정부는 지상에 일단 지붕이 씌워진 집이 서면 지붕을 받들고있는 들보기둥이 어떻게 되여있는가는 관계없이 그 누구도 강제철거시킬 권한이 없다는 규정을 내놓았는데 이 규정이 발표되자 곧 뛰르끼예의 적지 않은 도시들의 교외에 《하루밤집》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이런 집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림시로 거처하는 장소이다. 집없는 사람들끼리 사전에 련계를 맺고 집터로 알맞춤한 공지를 보아둔 다음에 비밀리에 자재들을 미리 준비해놓고있다가 어느 한 달밤에 그곳에 모여와서 부리나케 일손을 다그쳐 날이 밝기 전까지 집터를 닦고 대강 벽돌을 쌓은 다음 그우에 지붕을 올린다.

이렇게 되면 이 집은 합법적인 집으로 된다. 그러나 만일 날이 밝을 때까지 지붕을 얹지 못하면 그 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된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지은 집을 하루밤사이에 당국이 모르게 재빨리 와닥닥 세운 집이란 뜻에서 《하루밤집》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이런 집의 출현은 뛰르끼예 하층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처지를 말하여주는 한편 이 나라 사람들의 서로 돕는 미풍을 보여준다. 《하루밤집》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주택자들인데 그들은 집주인에게 로동보수도 요구하지 않고 집을 세운 날 모여앉아 식사나 나누는것으로 만족해한다.

뛰르끼예에는 《하루밤집》과 호화주택들이 병존하고있다.

세계피난민문제

세계적으로 피난민문제가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특히 아프리카지역에서 피난민문제가 날로 악화되고있다.

유엔인도주의사업조정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부 및 동부아프리카 16개 나라의 국내외피난민수는 1 100만명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 민주꽁고와 소말리아, 수단의 국내피난민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수단의 피난민수는 400만명이상에 달한다.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는 피난민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간교한 분렬리간책동의 산물이다.

지난날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나라들을 침략하고는 식민지통치와 분할정책을 실시하는데 유리하게 국경선들을 이 지역 나라들의 복잡한 민족구성과 전통적인 국경에 관계없이 제멋대로 정해놓았다.

그리하여 한 나라에 속해있던 민족들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널려살게 되고 결국 대륙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후 오랜 기간 국경분쟁과 종족분쟁에 말려들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피난민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였다.

1998년 8월에 일어난 민주꽁고에서의 내전은 이 나라뿐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였다.

특히 2004년에 민주꽁고의 동부지역에서 일어난 정부군과 반정부세력사이의 싸움은 이 지역에서 심각한 인도주의문제와 안보위기를 초래하였다.

《부상자들을 위한 국제구제위원회》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민주꽁고의 내전과 그 후과로 근 10년동안에 540만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소말리아는 1990년대 초엽부터 시작된 내전과 폭력행위 등의 후과로 지금까지 80만명이상이 나라의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300만명이상이 해외로 피난하였다.

수단에서도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내전으로 하여 사망자와 피난민이 발생하고 그로 하여 사회경제발전이 크게 억제당하였다. 특히 수단의 서부에 위치하고있는 다르푸르에서는 2003년부터 계속된 무장분쟁으로 3년동안에만도 약 30만명이 목숨을 잃고 근 20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이라크에서도 미국이 이 나라를 침공한 이래 많은 피난민이 생겨났는데 미국회 조사국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그 수를 도합 400만명으로 추정하였다.

피난민들은 가난하고 더러운 생활조건으로 하여 늘 굶주림에 시달리고있으며 무서운 전염병의 침습을 받고있다. 그리고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는탓으로 무장강도단의 습격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피난민문제해결은 오래전부터 국제공동체의 관심사로 되여왔다.

1951년에 유엔은 피난민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가지고 《피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피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아프리카에서는 1974년에 아프리카통일기구가 6월 20일을 《아프리카피난민의 날》로 제정한 후 해마다 이날을 계기로 지역의 피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여왔다.

또한 2000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2001년부터 《아프리카피난민

의 날》인 6월 20일을 《세계피난민의 날》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라크피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노력하고있다.

에짚트에서는 이라크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는데 회의참가자들은 국경통제와 피난민지원에 관한 실무그루빠 등을 내오고 그 정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유럽동맹은 이라크피난민들이 수리아에 일시적으로 거처하고있는 기간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리아정부와 협력하여 기술, 재정원조 및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수리아는 100만명이상이나 되는 이라크피난민들을 형제처럼 받아들이고 대해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 특히 교육 및 보건분야에서의 봉사를 담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라크피난민들을 도와줄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이처럼 피난민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진보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성행하는 현대판노예산업

노예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원래 노예란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소유자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여 마소와 같은 부림을 당하며 물건처럼 매매되고 죽음도 강요당한 피착취계급을 말한다.

력사가 흘러 노예사회로부터 계급사회가 여러차례 바뀌였으며 인류문명이 고도로 발전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사람들속에서는 노예라는 말조차 기억에서 삭막해지고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서방세계를 비롯하여 지구상에 아직도 인류사회의 수치이며 비극인 현대판노예가 의

연히 존재하며 늘어나고있는것이다.

2010년 3월 25일 유엔사무총장은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노예와 관련한 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고있다. 노예제는 빚에 의한 종속과 어린이, 녀성 및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현대적인 방법으로 다시 나타나고있다.》고 말하였다.

아프리카노예들이 대서양을 횡단하여 아메리카에로 실려가던 수백년전의 비극적인 일들이 오늘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재현되고있어 만사람의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유네스코와 유엔마약 및 범죄국, 국제로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노예로 간주할수 있는 사람은 1 000만～3 000만명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127개 나라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137개 나라에서 노예들을 착취하고있다. 570만명의 아이들이 고달픈 강제로동의 희생물로 되고있고 해마다 100만명의 소녀들이 매춘을 강요당하고있다. 날로 늘어나는 현대판노예들중에서 성인녀성이 66%를 차지하며 그밖의 소녀가 13%, 성인남성이 12%, 소년이 9%이다.

현대판노예산업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 곳은 서방세계이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미화분식에 골몰하면서 사람을 사거나 팔수 있는 노예제도의 《철폐》가 자본주의의 《우월성》이라고 떠들고있다. 그들은 서방세계에서는 현대판노예매매현상이 없는듯이 력설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노예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의 맨 앞장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해랄드 트리뷴》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을 개시할 때는 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력사책이나 법률책들에 어떻게 서술되여있든지간에 노예제도는 아직도 폐지되지 못하고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를 빼앗기고 기만당하거나 구류되여 혹사당하거나 노예의 처지를 강요당하고있다. 이러한 희생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모두 우리의 주위에 있다. 더럽고 힘들며 위험스러운 일을 하는 공장들과 광산들, 농장들에도 있고 유곽들에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수 있는가? 방도는 얼마든지 있다.

첫째 방도는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것이며 둘째 방도는 사회적인 의식이다. 셋째 방도는 정보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되는 넷째 방도는 정치적결단이다.》

현대판노예들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자본주의나라,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도 있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그리스, 뛰르끼예, 일본, 우크라이나, 라뜨비야, 로므니아 등 나라들에서 현대판노예산업이 성행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제도와 말세기적인 생활풍조에 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 현대판노예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커가고있다.

짓밟힌 인간들

《국제결혼》의 불행

필리핀의 세브섬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열한식구의 둘째딸로 태여난 에메리따는 1987년 1월 친구의 소개로 미국인남자 쟈크를 알게 되였다.

쟈크는 에메리따에게 젊었던 10년전의 자기 사진을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썼다.

《당신의 아름다운 용모와 모습에 반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교신자이기때문에 리혼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경험도 충분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여있기때문에 젊은 남자들보다 더 많은것을 미래의 신부에게 줄수 있습니다. 대단히 다정다감한 사나이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인생을 함께 해줄 배우자를 구하고있습니다. 하녀나 노예와 같은 처가 아니라 평등한 배우자를 바라고있습니다.》

에메리따는 쟈크의 편지를 믿고 1988년 3월에 그와 결혼하였다. 에메리따는 필리핀의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에메리따는 신혼생활의 낮과 밤이 흘러가는 과정에 남편의 횡포성을 점차 감촉하게 되였다.

결혼하여 약 6년반동안 에메리따는 남편의 횡포성을 참고 견디며 살았다. 쟈크는 지배욕이 몹시 강하고 에메리따가 직업을 가지는것은 물론 외출하는것도 달가와하지 않고 엄격히 단속하였다. 처가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것을 싫어했으며 특히 필리핀사람들과 접촉하는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에메리따는 이름만 처이지 실제로는 하녀나 노예와 같은 생활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날 드디여 일이 터졌다. 이날 벗의 생일놀이에 갔다가 돌아온 에메리따를 추궁하던 쟈크는 노기가 절정에 달하자 《이년, 잡아죽이고말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그 녀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에메리따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마지막순간 온몸의 힘을 모아 《나를 죽이면 누가 애의 시중을 들어요?》라고 웨치였다.

그러자 쟈크는 한순간 손힘을 늦추었다. 그들사이에는 3살난 아들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쟈크는 인차 한손으로 에메리따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커다란 혹이 생긴 머리를 무겁게 들고 에메리따는 벗에게 전화를 걸어 구원을 청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에메리따는 대담하게 리혼을 결심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실토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에메리따가 행방불명되였다.

이전부터 《리혼이야기를 꺼내면 살해당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나에게 전화해도 내가 나오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있던 에메리따의 벗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때로부터 반년후 쟈크의 집에서 수십㎞ 떨어진 호수가에서 깊숙이 파묻혀진 에메리따의 시체가 발견되여 쟈크는 체포되였다.

쟈크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려는 처에 대해 짐승과 같은 광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죽이고만것이다.

필리핀출신인 스쟈나도 에메리따와 같은 운명에 처하였다.

콤퓨터기술자인 미국인 디모는 스쟈나와 1993년 3월에 결혼하였다. 스쟈나는 기후가 다르고 산설고 물설은 미국의 추위와 친지가 하나도 없는 쓸쓸함을 견딜수가 없어서 우울증에 빠졌다.

디모는 이것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 미국에 오기 위해 나를 리용했지.》라고 하면서 결핏하면 스쟈나에게 매질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디모는 이런저런 까박을 붙이면서 《이민귀화국에 신고하여 필리핀으로 강제송환시키겠다.》고 소리쳤다. 스쟈나도 모국으로 가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그러자 디모는 성을 벌컥 내며 스쟈나의 목을 힘껏 졸라매였다. 그리고 물이 가득찬 가시대에 그의 머리를 처박았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남편의 손아귀에서 겨우 빠져나온 스쟈나는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후 집을 뛰쳐나갔다.

그는 직업도 구하고 자립해나갈수 있는 길을 닦은 다음 재판소에 리혼신청을 하였다.

스쟈나는 이것이 죽음을 몰아오는 계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느날 부름을 받고 법정에 나타난 디모는 리혼을 제기한 스쟈나를 보자 미친듯이 날치더니 앞뒤를 가리지 않고 총으로 쏘아갈겼다.

자기의 정당성을 증언하던 스쟈나는 그자리에서 피흘리며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돈없는 신세

일본사람 오노는 앞으로 전자제품들이 더욱 발전할것을 예상하여 삿뽀로의 전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사히까와의 고요무선회사에 입직하여 일하였다.

그후 4년이 지나 도꾜로 자리를 옮긴 오노는 아버지친구의 도움

으로 가정용전기제품을 다루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몇해후에는 또다시 일자리를 요꼬하마의 영업소로 옮기였다. 여기에서의 일은 몹시 피곤하고 힘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가서는 밤 11시에야 집으로 돌아오군하였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그는 열심히 일했다.

오노가 요꼬하마영업소에서 일하고있던 1989년에 회사 상층부의 부정행위를 안 오사까, 도꾜 등의 산하영업소 소장들이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당시 회사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은 회사가 산 토지를 자기 명의로 하여 그것을 다시 회사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막대한 돈벌이를 하였던것이다.

그 사실을 안 오노는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그도 다른 영업소 소장들과 함께 회사 상층부가 부정행위를 스스로 공개하고 사죄하며 정확한 보상을 하라고 들이댔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러모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다가 그에게 해고를 선포했다. 오노는 회사에 반항해보았지만 누워서 침뱉기였다.

회사는 그후에 끊임없는 부정부패행위와 인재류출, 거품경제의 취약으로 하여 몇년후에는 파산되고말았다.

오노는 비록 해고당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지난 시기에 이루어놓은 인맥과 영업수완이 있어 자신감을 가졌다. 하여 건강기구판매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그밖에 또 사무용소제기구를 수입판매했다.

그러나 거품경제붕괴후과로 하여 매상고는 뜻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상품은 창고에 쌓이기만 하였다.

판매소경영자금이나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갈수록 빚만 쌓여갔다.

결국 3년사이에 6천만엔의 빚을 지고 오노는 판매소와 함께 파멸의 낭떠러지에 섰다.

그사이 생활고로 늙은 부모는 모두 사망했고 집에는 빚군들이 매

일같이 들이닥쳐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오노는 구원의 손길을 찾아 이리저리 뛰여다녔으나 소용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보니 안해는 남편의 옷가지만 남겨놓은채 모든것을 다 걷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다. 집은 텅 빈 껍데기같았다.

그 텅 빈 집이나마 빚값에 팔지 않으면 안되였다. 딸부부도 어디론지 가버렸다.

그때부터 오노는 방랑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구원의 손길을 바랄수 없었다.

2004년 5월에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이 도꾜의 우에노공원이였다.

이곳에는 집도 생활수단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군 한다. 오노의 잠자리는 공원의 걸상이나 땅바닥, 역지하실이였다. 그는 3번이나 게이힌도호구선의 기차길에 몸을 던져 죽자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말았다.

아버지가 일하던 곳을 자살장소로 택한것이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오노는 아이센그리스도교회에 나가 찬송가도 불러보았지만 병세가 도져 계속할수 없었다.

인간으로 태여났어도 인간으로 살수 없고 죽어도 슬픔과 원한만을 남기고 가는 일본사회,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다.

제 7 편 인류를 위협하는 사회현상들

린치와 《3K단》

마크 트웨인은 《미국은 린치의 합중국》이라고 단죄한바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살륙의 대명사로 《린치》란 말이 성행하고있다.

린치란 말은 미국의 농장주이며 극악한 인종주의자인 챨즈 린치라는자에 의하여 유래되였다.

챨즈 린치는 자기 농장에 고용된 흑인들을 제마음대로 죽이는 치떨리는 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수많은 흑인들이 린치에 의해 피를 흘리고 뼈가 부서졌으며 죽음을 당했다.

미국에서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얻어맞고 목숨을 잃는 가운데 《린치》는 사람을 때려죽이는 대명사로 되였다.

미제는 《린치》를 극력 비호조장하여왔다.

1947년 5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재판소는 《린치》는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하였으며 미행정부는 《3K단》을 시켜 흑인들과 진보적인사들에 대한 《린치》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여왔다.

《3K단》은 1865년 미국남부의 테네시주에서 조직된 인종주의적인 파쑈테로단체인데 《쿠, 클락스, 클란》의 첫 글자 《K》를 따서 부른 략칭이다.

《3K단》은 철저히 노예적학대와 인종차별을 반대하여나선 흑인들에 대한 테로와 학살을 목적으로 조직되였다. 여기에는 농장

주들의 모든 폭력조직들이 망라되였다.

《3K단》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학살만행으로 하여 비난을 받았으며 여론의 압력밑에 1870년대초에 형식상 《비법화》되였다.

그러나 《3K단》은 미국반동지배층의 비호밑에 1915년에 다시 살아났다.

이때 미국인들속에서는 《3K단》을 배격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28대 미국대통령이였던 윌슨은 이 살인집단을 하나의 폭압수단으로 리용할것을 타산하고 은근히 《3K단》을 비호두둔하였다.

《3K단》은 권력의 비호밑에 미국의 진보적활동가들과 원주민들, 흑인들에 대한 총칼탄압을 일삼아왔다.

미국에는 《3K단》을 비롯한 수많은 테로단체들과 깽단을 포함하여 무려 1 800여개의 악질파쑈테로단체들이 있다.

녀자마피아

마피아범죄집단은 원래 이딸리아에 있었는데 1869년에 미국의 어느 한 주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직은 마약밀매, 밀주장사, 도박, 매음, 랍치, 고리대금업 등을 하면서 범죄를 일삼아왔다. 그 과정에 마피아범죄조직이 늘어났다.

미국에는 남자마피아와 함께 녀자마피아도 있다.

녀자들로 무어진 마피아조직(일명 《검은 무리》)은 남자마피아조직을 모방하여 《규약》과 《행동준칙》을 제정해놓고 《녀성의 의기와 폭력을 숭상》하면서 마피아조직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것을 요구하고있다.

녀자마피아조직의 대다수 녀성들은 젊은 녀자들이다. 남자마피아조직과 대비해볼 때 규모가 작고 행동도 째이지 않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남자들에게 짝지지 않는다.

녀자마피아조직이 생겨나게 된데 대해 미국소년로동교화소의 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녀자들이 〈검은 무리〉에 가담하게 되는 동기는 남자들과 같다. 그것은 마약과 금전획득 등을 추구하는데 있다.》

녀자마피아들은 남자마피아들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그들로부터 무기와 마약 등을 얻고있으며 그들과 결탁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다수 녀자마피아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벌리면서 큰 범죄집단으로 급성장하고있다.

녀자마피아들의 범죄수법은 다양해지고 횡포해지고있다.

녀자마피아들은 남자들 못지 않게 통이 큰 마약밀매를 벌리고 싸움질하며 비수, 무기 등 흉기들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강도, 살인, 랍치, 어린이유괴와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있다. 그리고 대낮에 백화점이나 금융기관들을 습격하는가 하면 경찰들과 총격전까지 벌리고있다.

2005년 6월 어느날 오후 3인조녀자강도단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은행에 달려들어 돈을 털어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3명의 녀자마피아들(모두가 마약사용자)은 은행이 문닫기 전에 건물안에 잠복해있으면서 하루 재정총화가 끝나는 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흉기가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은행종업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4명이 남았을 때였다.

얼굴을 가리우고 나타난 녀자강도가 손에 든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땅—땅—땅—》

3발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은행종업원들은 깜짝 놀라 갈팡질팡하였다.

녀종업원은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한 남자종업원이 몸에 휴대하고있던 권총을 뽑아들려고 하자 또 한발의 총탄이 그의 머리우로 날아갔다.

《반항하면 죽인다.》

녀자마피아중에서 누군가 웨쳤다.

남자종업원의 손에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녀자마피아들은 겁에 질린 은행종업원들을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날쌔게 금고문을 열고 거액의 돈을 마대에 넣은 다음 밖으로 나가 대기하고있던 승용차를 타고 종적을 감추었다.

범인의 모든 행동이 감시카메라에 다 비쳐지고 비상신호가 경찰에 전해졌다.

녀자마피아들을 추격하는 경찰차들이 교외를 벗어나 40분간 달렸을 때였다.

경찰차의 꼬리를 물고 질풍같이 달려오던 승용차 한대가 경찰차를 앞질러 급정거하였다.

경찰차는 승용차의 뒤면을 들이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순간에 《교통사고》가 빚어졌다. 앞차는 무사했지만 뒤차에서는 부상자가 생겼다. 그사이에 3인조녀자마피아들이 탄 승용차는 어디론지 사라졌다.

이날 녀자마피아들은 남자마피아들과 사전에 련계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2005년 8월 한달사이에만도 플로리다주에서 금융기관을 털어내는 녀자마피아들의 강탈행위는 7번이나 일어나 사람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이해 12월말에는 뉴 멕시코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녀자마피아들의 총기에 의해 순식간에 한명이 숨지고 3명이 심한 중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가는 범죄사건이 일어났다.

식당에 출입한 남자들과의 말다툼끝에 벌어진 총기란사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한채 《미국사회에서 녀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눈길을 끌고있다. 마피아세계에서 녀자들이 남자들을 릉가하는 경우가 드문하다.》고 하면서 남자들은 물론 녀자마피아들의 범죄행위가 묵인조장되고있는 미국사회를 개탄하였다.

미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랍치사건에는 녀자마

피아들이 적지 않게 관여되여있다.

2005년초 미시간주의 어느 한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른새벽 혼자 길을 가던 녀중학생이 20대녀자 2명에게 유인 랍치되였다.

녀자마피아들은 오후 1시경 그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2만US$의 돈을 받고는 1시간후에 딸을 보내겠으니 먼저 가라고 하고는 시험을 치는 날이여서 학교에 가게 해달라는 녀중학생의 목을 그 즉시로 졸라죽였다.

범인들은 여유작작하게 돈을 1만US$씩 나누어가진 다음 약국에 가서 살해과정에 생긴 상처까지 치료하고나서 사라졌다.

주신문과 잡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한해동안에 신고된 랍치사건들을 경쟁적으로 취재하여 줄줄이 파헤치였는데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에서 감행된 이해의 랍치사건이 1 450여건에 달하였다고 전하였다.

꼬리를 무는 랍치, 유괴사건때문에 대다수 미국의 남녀로소들은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위의식을 가지고있다. 누가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에서 또 다른 랍치의 대상으로 되겠는지 전혀 예측할수 없는 불안때문이다.

준동하는 해적들

21세기에 와서도 잔악한 해적행위들이 계속 재현되고있다. 오늘 소말리아해역은 해적행위가 성행하는 무법천지로, 해적들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소말리아의 아덴만은 홍해와 인디아양을 련결하는 해상무역의 길목이다.

한해에 약 2만척의 배들이 이 항로를 리용하고있다. 그리고 소말리아해역은 길고 폭이 매우 넓은것으로 하여 소말리아나 국제해군무력의 순찰활동이 제한을 받고있다.

해적들은 이 수역의 지리적특성과 공간을 리용하여 유조선, 려객선, 화물선 지어는 개인용요트까지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랍치하고는 약차한 돈을 받아내고있다.

2010년 1월 1일에 싱가포르선적의 화물선이 아덴만에서 해적들에게 랍치되였다. 이보다 앞서 영국선적의 유조선이 소말리아북부에 있는 아덴만을 항행하던 도중 해적들에게 랍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조선에는 인디아인과 벌가리아인 등 26명의 선원이 타고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소말리아의 동쪽 인디아양에서도 선원 19명이 탄 빠나마선적의 화물선이 해적들의 습격을 받았다. 한편 이날 소말리아해적들은 약 2개월전에 랍치했던 싱가포르선적의 집함수송선과 선원들을 400만US$의 몸값을 받고 놓아주었다.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세계대양과 바다들에서 총 306건의 해적행위가 저질러졌는데 이것은 2008년 한해동안에 비해 더 많은것이다.

2009년에 세계적으로 해적들에게 랍치된 선박과 선원은 각각 40여척, 520여명에 달했다. 그가운데서 소말리아해역에서의 랍치건수가 제일 많았다.

소말리아해역에서 날로 우심해지는 해적행위로 하여 국제사회가 입는 피해는 대단히 크다.

이로부터 2009년에만도 국제적으로 소말리아해역에서 해적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소말리아해적소탕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들이 채택되고 해적들을 단속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군함들을 소말리아해역에 파견하여 순찰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들의 준동이 수그러들지 않고 더 우심해지고있다.

해적들은 인질들의 몸값으로 받아낸 거액의 자금으로 고속 및 고성능선박들을 구입하여 해적활동에서 기동성을 높이는 한편 현대적인 전자장비들과 최첨단무기들을 해적행위에 리

용하고있다.

소말리아해역에서 해적행위가 우심해지고있는것은 장기간 내전에 시달리며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진 소말리아정세를 배경으로 하고있다고 여론들은 전했다.

감옥을 치부의 수단으로

미국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수는 2006년 현재 100여만명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인구 10만명당 724명이상이 감옥에서 생활하고있는셈이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걷어내는 세금은 해마다 근 100억US$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을 건설, 관리하는데만도 년간 65억US$이상을 밀어넣고있다.

이처럼 거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감옥시장》은 미국에서 치부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숱한 건설업체회사들이 감옥건설주문을 따내기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맹렬한 막후공작을 벌리는 가운데 어떤 회사는 주정부담당 공무원에게 한장에 6 000US$씩 하는 골프권을 뢰물로 바쳤다. 감옥건설의 각축전에는 다른 분야의 기업체들도 뛰여들고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통신 및 감시시설 등을 판매하여 막대한 리득을 보았다.

지어 은행까지도 감옥건설에 투자를 하고있다.

이 과정에 감옥건설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감옥산업회사들도 생겨나고있다.

감옥산업의 제왕으로 불리우고있는 미국교화공사는 테네시주의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전국의 7개주에 25개의 감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있다.

이 회사의 순리익금은 해마다 300만～400만US$나 된다.

미국에는 사영감옥도 있는데 여기서는 죄수들에게 기능훈련을 준다는 명목으로 감옥공장도 운영하고있다. 이밖에도 사영감옥에서는 죄인의 범죄성격에는 관계없이 돈이 많은 범죄자의 요구는 그 무엇이나 마음껏 충족시켜주는 수법으로 돈을 벌고있다.

그리하여 대낮에 생사람을 쏴죽인 살인자를 비롯하여 범죄자는 뭉치돈을 찔러준 덕분에 족쇄를 풀고 한가로이 산보를 즐길수 있다.

마약천국

마약을 제일먼저 아편에서 추출해낸 사람은 도이췰란드사람이였다. 그때가 1815년이였다.

도이췰란드사람은 약제사였다.

그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진통을 억제하려는 고상한 목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랬지만 그는 자기의 연구성과가 그후 인류에게 그토록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바로 그때로부터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는 재난의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마약중독자의 대렬에 들어서는지 통계조차 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지난 세기말 미국에는 3 000여만명의 마약중독자가 있었다.

당시 한 외신은 《황금악마들의 활무대로 변모되여가고있는 썩고 병든 미국사회는 력사의 오물통으로 급속히 빠져들어가고있

다.》고 전했다.

마약중독자들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마약매매행위는 가장 《유망한 무역》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천억US$에 해당하는 마약이 밀매되고 있다.

미국에는 마약밀수와 밀매를 직업으로 하는 대규모비밀집단이 450여개나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일반투기업자들로부터 중앙정보국 요원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직업을 가진자들이 마약거래에 끼여들어 일확천금을 노리고있다.

여기에는 20대전후의 청소년들까지 끼여들고있다.

마약밀매는 해마다 더 성행하고 마약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미련방마약전문가 판함의 실토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60%가 미국에서 팔리는데 그 판매액은 새 세기에 들어와 해마다 증대되고있다 한다.

또한 미국에는 세계 코카인(마약의 일종)소비량의 80%를 판매공급하는 마약밀매조직이 있다. 미국인들은 년간 1만 5 000여t의 막대한 마리후아나(마약의 일종)담배를 소비하고있는데 그 절반이 오클라호마주,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비밀리에 판매되고 있다.

각종 마약들이 대량 생산판매됨으로써 미국에서는 평민으로부터 고위층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마약을 사용하고있다.

이전 미국대통령 부쉬도 마약을 복용한적이 있으며 국회의원들속에서도 마약사용자들이 허다하다.

미국인의 6명중 1명 지어 대학생들(남학생의 42%, 녀학생의 32%)도 마약을 사용하고있다.

특히 녀성들속에서 마약중독자들이 급속히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을 조사한 결과 그들(임신부)의 11%가 마약상습자들이였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매해 마약에 중독된 애기들이 37만 5 000명씩이나 태여나는 끔찍한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는것이다.

미국에서 마약람용을 조장시키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당국이다.

지난 만전쟁시기 미국정부는 8시간이상 전투비행을 수행하는 미군비행사들에게 각성제를 공급하였다고 한다.

당시 미공군대변인은 전투행동시 비행사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각성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는 마리후아나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있다.

한쪽으로는 《마약범죄와의 투쟁》에 대해 떠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공공연히 마약람용을 비호조장하고있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로 말미암아 오늘 마약은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는 독소로 되고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마약사용이 성행하여 사회적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어느해 일본에서 각성제단속위반으로 검거된자들의 수는 1만 2 000명에 달하였다. 그들은 대체로 생활난과 정신적공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였다.

일본의 《니홍게이자이신붕》은 《2008년의 각성제적발건수 과거 최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08년에 세관에서 각성제적발건수는 전해에 비해 53%나 늘어나 1966년이래 최고로 되였다. 압수량도 전해에 비해 42%로 늘어났다.》

늘어나는 마약사용자가운데는 국회의원들도 적지 않다. 몇해전 이전 일본국회 중의원 의원 고야바시 겐지가 개인서기 등 2명과 함께 각성제단속법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였다.

그는 집안에서는 물론 국회회관이나 차안에서도 각성제를 사용했다. 그는 총선거기간에도 각성제를 사용하면서 선거유세놀음을 벌렸다.

일본의 청소년들속에서도 마약사용자가 늘어나고있다.

일본정부의 《약물람용대책추진본부》는 약물을 미성년들이 사용하는것과 관련하여 학교와 협력하여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대상을 확대할데 대한 문제 등을 담은 새로운 《5개년전략》을 결정하였다.

마약은 청소년들속에서뿐아니라 일본《자위대》안에까지 나돌고있다.

일본의 《산께이신붕》은 각성제 등의 약물사용사건으로 일본 해상 및 항공《자위대》의 장교들이 줄줄이 족쇄를 찬데 대해 전하였다.

체포된 해상《자위대》 잠수함승조원들중에는 민간인들에게 묵돈을 받아먹고 각성제 등을 팔아먹은자도 있다.

해상《자위대》에서 체포된 혐의자들은 저들이 《자위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심한 약물의존증환자였으며 그리고 잠수함들에서 대원들에게 약물을 넘겨주었다고 실토하였다.

당시 일본수상은 《약물의 람용은 의연 심각한 문제이다.》고 실토하면서 일본국내에서의 마약사용성행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환각제와 대살륙

환각제란 사람들에게 환각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마약의 일종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면 정신분렬증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때문에 실험정신병을 만들어내는 약이라고 한다.

환각제는 일반마약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먹으면 아픈데가 없어지는것과 함께 불안감과 불쾌감이 제거되고 술에 취한것과 같은 도취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와 함께 환각제는 뇌기능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므로 그것을 먹으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관념이 없어지고 착각에 착각이 겹쳐 나타나면서 환각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도덕관념과 사회적관념이 마비되고 정신적불구자가 되고만다.

특히 《엘 에스디》는 보다 강력한 환각제이다.

웰남전쟁시 남부웰남에 갔던 《뉴스위크》특파기자는 환각제를 먹은 남조선괴뢰군사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술에 취한것처럼 되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관념이 사라졌다.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자주 했고 닥치는대로 파괴하고싶은 충동이 생기고 정신착란과 같은 증상이 일어났다.》

미제가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환각제를 남조선에 끌어들인것은 오래전부터이며 1980년 5월 영웅적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남조선《계엄군》대원들에게 쥐여준 환각제 《엘 에스디》는 그때까지 사용해온 환각제와는 다른 특수한 환각제였다.

이 환각제는 미중앙정보국과 미륙군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30년동안 연구해낸것으로서 그것을 먹으면 도덕관념과 사회적관념이 마비될뿐아니라 범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여 사람들을 짐승처럼 되여버리게 하는 무서운 효과를 나타낸다.

원자무기,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륙무기와 함께 악성전염병을 무기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미제는 1950년대부터 극비밀리에 환각제를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할데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미국인들은 이것을 《정신지배계획》이라고 불렀다.

이 연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제놈들이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연구이다. 이를테면 그가 가지고있는 비밀을 불게 하고싶으면 불게 하고 그가 알고있는 비밀을 그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게도 하고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싶으면 그것을 저지르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미제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조종》하기 위한 연구과정에 전쟁포로나 간첩으로부터 손쉽게 《자백》을 받아내고 비밀정보를 알고있는 료원들에게서 비밀에 속하는 기억자료를 없애버리는것과 같은 여러 종류의 환각제를 개발하였다.

미제의 《정신지배계획》의 목적은 첩보, 모략뿐아니라 환각제를 식민지지배의 새로운 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한데도 있었다. 이런 환각제연구의 배경에는 자국의 군대, 특히는 식민지고용군대를 침략전쟁과 인민탄압에 효과적으로 내몰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속심이 있었다. 즉 식민지고용군대를 저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도구로 만들자는것이다.

미제는 이런 요구로부터 식민지고용군의 정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정신지배무기로서의 새로운 환각제연구를 적극 다그쳤다.

미중앙정보국과 미륙군이 오래전에 작성한 《파랑새계획》을 비롯하여 《므칼트라》(MK=ULTRA), 《므카델타》(MK=DELTA) 등의 암호가 붙은 계획들은 《엘 에스디》의 인체실험을 위한 계획들이였다.

미제는 이 계획에 기초하여 미중앙정보국과 미륙군에 《엘 에스디》연구를 전담하는 많은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중앙정보국은 칼 파이퍼라는 한 의사에게만도 2천 500만US$의 자금을 주어 개인병원에서 실험하도록 하였다.

《엘 에스디》의 인체실험을 위한 기구는 미국본토뿐아니라 유럽과 극동지역에도 비밀리에 조직되였다.

미중앙정보국은 미국, 카나다에 있는 44개의 대학과 전문학교 그리고 15개의 개인제약회사들을 《엘 에스디》연구사업에 끌어들이였으며 프랑스, 서도이췰란드(당시), 이란 등 지역에도 연구기관을 설치하였다.

한편 미제는 악랄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엘 에스디》인체실험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산 인간을 《모르모트》로 여기며 본인도 모르게 환각제를 먹이거나 주사를 놓아 인체실험을 감행케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불구자로 만들었으며 생명을 잃게 하였다. 또한 매춘부를 매수하여 그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몰래 환각제를 먹인 다음 숨어서 그의 행동을 관찰하였는가 하면 고용한 학

자에게 환각제를 먹임으로써 정신이상이 생겨 10층호텔방에서 뛰여내려 죽게 하였다.

한 미국녀성은 놈들에게 속아서 《엘 에스디》주사를 맞은 후 신경과민증으로 불구자가 되였으며 저도모르게 《엘 에스디》의 인체실험대상으로 된 제대군인은 정신발작증으로 10년동안이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엘 에스디》주사때문이라는것을 모르고있었다 한다.

《엘 에스디》의 인체실험은 해외에서도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미륙군은 《EA 1729》이라는 《엘 에스디》인체실험계획에 따라 유럽과 극동지역에서 인체실험을 은밀히 감행하였다. 그 하나는 《사드챤스작전》인데 1961년 4～8월사이에 유럽에서 미《륙군특수목적반》에 의해 집행되였다. 다른 하나는 《더비하드작전》인데 1961년 8～11월사이에 극동에서 감행되였다.

이 인체실험은 《엘 에스디》가 유럽사람들과 동양사람들에게 어떤 반응과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내기 위한것이였다. 미제는 이런 인체실험을 통해 동양사람들만을 죽일수 있은 《인종무기》개발을 더욱 심화시키는것과 함께 환각제연구에서도 아시아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매우 중시하면서 시종일관 인종주의적책동을 추구하였다.

미제가 30년동안 가장 간악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감행한 《엘 에스디》의 인체실험만행에 의해 4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하였다.(1970년대말 현재)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 식민지군대의 사고를 무력화하고 동족관념을 없애버리며 인간자체를 야수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히 개발된것이 환각제《엘 에스디》이다.

바로 이 《엘 에스디》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대살륙에 리용되였다. 미제로부터 《환각제》를 넘겨받은 전두환도당은 《계엄군》놈들을 이틀동안이나 굶긴 다음 술에 탄 환각제를 먹이고 폭동진압에 내몰았으며 환각제를 먹은 놈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야수화

되여 사람잡이에 미쳐날뛰였다. 환각제를 먹은 《계엄군》놈들에게는 부모형제, 동족에 대한 관념이 마비되여있었다. 놈들은 입을 가지고 지껄이였을뿐 사회적관념, 도덕적관념이 없어진 야수, 사나운 짐승에 불과했다. 제 정신을 빼앗기고 범죄에 대한 감각을 제거당한 《계엄군》의 야수적인 동족살륙만행에 의하여 광주에서는 10일동안에 5 000명이 죽고 1만 5 0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2010년 5월 광주인민봉기 30돐을 맞으면서 진보적인류는 광주의 영웅적봉기자들의 투쟁을 되새겨보며 환각제를 복용하고 대살륙에 내몰린 《계엄군》놈들의 만행에 다시한번 분노하였다.

광주의 참극은 과거 범죄로만 될수 없다.

미제는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도 자주, 독립, 밝은 미래를 지향하여 투쟁에 나선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살해하도록 저들에게 추종하는 군대와 경찰들에게 환각제를 비밀리에 넘겨주고 있다.

죽음으로 새긴 력사기록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눈은 뻘겋게 되면서 마치 화염을 내뿜는듯 하였다. 목구멍 혹은 혀바닥에서 피가 나오고 불쾌한 냄새가 났다. 게우고 설사를 하는것과 함께 무서운 갈증까지 겹쳤다. 환자들의 몸에서 동통과 염증까지 생기고 그것이 궤양으로 넘어갔다.

환자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몸이 침대와 접촉할 때 아픔을 참기 어려워하였다. 어떤 환자들은 벌거벗은채로 거리를 다니며 마실 물을 찾다가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개들까지도 이 병에 걸려 죽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을 뜯어먹은 까마귀와 독수리들도 죽어버렸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혹은 눈이 없어지거나 기억력을 상실하였다.》

이것은 한 그리스력사학자가 B. C. 430년경에 아테네를 괴멸시킨 악성전염병을 묘사한것이다. 이 병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사이에 벌어졌던 펠로폰네소스전쟁기간에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병에 의해 주민의 절반이상과 병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주요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도 이 병에 걸려 죽었다.

강대하였던 로마제국에서는 A. D. 165년부터 100년사이에 5차례나 페스트가 발생하였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경제는 쇠퇴되였다.

6세기 중엽에 페스트가 다시 폭발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력사의 흐름이 바뀌여졌다고 한다.

페스트에 제일먼저 감염된것은 거리를 떠돌아다니던 가난한 사람들이였다. 하루에 5 000∼7 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하여 사망자수는 23만명계선을 넘어섰다.

남녀로소에 관계없이 많은 시체들이 한곳에 묻혔다.

페스트는 반세기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다. 로마인의 4분의 1이 페스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페스트로 인한 굶주림과 혼란은 동로마제국을 붕괴에로 몰아갔다.

천연두는 력사가 오랜 급성전염병의 하나이다.

그러한 천연두가 유럽에서도 발생하였다. A. D. 17세기와 18세기에 유럽에서 천연두에 걸린 환자의 10%가 목숨을 잃었다.

유럽식민주의자들은 천연두에 대한 공포에 떨었을뿐아니라 천연두로 남아메리카인디안들의 문명을 말살하였다.

오래전에 아메리카에 정착한 인디안들은 이 대륙에서 자기의 문명을 창조하였으며 인까제국을 세웠다. 남아메리카대륙에는 원래 천연두가 없었다.

유럽식민주의자들이 이 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천연두비루스가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넓은 지역에로 확대되였다.

당시 인디안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천연두비루스를 몸에 달고다니던 식민주의자들과의 싸움과정에 자연히 감염되게 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아메리카정복과정을 직접 목격한 한 교인은 천연두범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온 가족이 멸족되였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미처 매장해버리지 못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악취가 풍겼다. 하는수없이 시체들을 집안에 밀어넣고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하였다.》

천연두가 급속히 퍼지고 여기에 유럽의 장티브스, 페스트까지 겹쳐 인디안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1526년에 천연두는 인까제국의 황제와 그의 후임까지 죽게 만들었으며 이로 하여 권력쟁탈을 위한 내전이 벌어졌다. 게다가 많은 인디안들이 병에 걸려 쓰러져 결국 인까제국은 멸망하기 시작하였다.

1629년에 있은 《밀라노전염병》은 밀라노를 《공포의 도시》로 만들어놓았다. 이 전염병으로 28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재난의 원인은 전쟁으로 인하여 초래된것이였다.

《30년전쟁》에 참가한 도이췰란드와 프랑스군대는 1629년에 전염병을 이딸리아의 도시 만또바에 퍼뜨렸다. 이로 하여 베네찌아의 군대가 전염병에 걸렸으며 병은 그후 이딸리아의 중부와 북부지역에 전파되였다.

전염병으로 밀라노의 13만명의 인구중 6만명이 사망하였다. 한차례의 전염병류행이 도시 하나를 쓸어버린것이다.

서방력사학자들은 이 전염병류행이 베네찌아의 몰락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647년에 에스빠냐에서도 전염병(일명《쎄빌랴전염병》)이 만연되였다. 전염병은 전국을 휩쓸었는데 쎄빌랴와 주변농촌에서만도 15만명이나 죽음을 당하였다.

1652년까지 지속된 전염병의 대류행은 에스빠냐 총인구의 5%에 해당한 5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파괴적인 전염병의 전파와 함께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있던 에스빠냐제국은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1770～1772년에 로씨야에서는 대규모전염병이 발생하였다.

1770년 1월에 전염병은 먼저 로씨야군대와 뛰르끼예군대가 싸움을 벌리고있던 몰도바전쟁터에서 발생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기록되였다. 이미 륙군병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였다.

모스크바시당국은 긴급히 림시병원과 격리검사소를 내오느라고 분주탕을 피웠지만 때는 늦었다.

전염병은 이미 온 도시에 퍼졌던것이다. 모스크바시안의 귀족들은 겁에 질려 도시를 떠났다. 지방장관도 꼬리를 사렸다.

이에 분노하여 봉기를 일으킨 모스크바시민들은 1771년 9월 16일 돈스꼬이수도원을 차지하고 모스크바대주교를 처형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시민들의 봉기는 짜리군대의 탄압으로 진압당하였다. 1771년 겨울이 다가온 후 전염병은 점차 억제되였으나 모스크바와 그 주변에서만도 20만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악성전염병의 무기화(1)

인류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악성전염병은 20세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데 리용되였다.

아시아의 《맹주》가 되여 중국에 《왕도락도》를 건설하고 아시아전역에 《대동아공영권》을 펼쳐보려고 꾀한 일제는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후 세균전을 위한 인체실험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731부대》는 20세기 전반기 구일본군의 세균전부대로서 악명을 떨치였다. 《731부대》는 중국의 할빈시내에 위치하고있었다.

《731부대》의 조직면모를 본다면 부대장으로는 이시이 시로중장이, 총무부 부장으로는 나까도메중좌가 있었고 그밑에 세균연구, 실전연구, 대원교육 등의 여러 부가 있었다. 이밖에 《731부대》는 쏘만국경을 따라 4개의 지부와 1개의 실험장을 가지고있었다.

그리고 대련에는 만철위생연구소가 있었는데 관동군의 직속으로서 《731부대》와의 밀접한 련계밑에 왁찐제조실험을 진행하였다.

1939년말에 일련의 시설들이 완성된 후 《731부대》에는 2 6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세균전연구에 종사하고있었다. 그들의 대다수가 일본본토에 있는 대학들의 의학부와 의과대학들, 민간연구소들로부터 파견되여온 연구사들이였는데 《731부대》에서 그들의 신분은 군속, 기사들이였다. 부대에는 20여개의 몸서리치는 연구작업반들이 있었다.

관동군의 헌병대, 관동군특무기관들 및 그 하부에 있었던 할빈보호원들이 유인, 랍치, 체포한 조선사람들을 포함하여 중국인, 로씨야인 그리고 몽골포로들이 인체실험대상으로 되였다.

관동군은 붙잡은 사람들, 포로들을 《마루따》(통나무)라고 부르며 《731부대》안에 있는 특별감옥으로 보냈다.

《731부대》에 끌려온 그들은 그 순간부터 인간이 아니였다. 단순한 하나의 《통나무》로 되였다. 《마루따》에게는 매 사람마다 세자리수의 번호들이 붙었다. 그리고 각 연구작업반들의 소속유물로 분배되였으며 그 작업반의 연구목적에 따라 인체실험의 재료로 되였다.

관동군은 《731부대》가 수행하는 특수임무를 중요시하였으며 그 연구실험을 쉽게 하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였다. 그러한 《편의》중의 하나는 《마루따》들을 충분히 《공급》해주는것이였다.

인체실험은 잔인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인체실험이 계속될수록 《마루따》들의 신체는 더욱 참혹하게 번져졌다.

실험차례가 된 《마루따》에게는 페스트, 콜레라, 장티브스, 적리 등의 병균을 주사하거나 그것을 음료수, 만두 등에 섞여먹였으며 또는 병균들을 인위적으로 주입시키기도 하였다. (동상실험, 가스질식실험도 하였다.)

경력이나 인격, 나이 등 모든것을 무시당한 《마루따》들은 전원 살아돌아갈수 없는 실험재료에 불과했다.

《731부대》는 페스트균을 《주요무기》로 정하고 대량 생산하고있었다. 그런데 배양기에서 대량적으로 배양하게 되면 균

의 독성이 약화되는 성질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독성이 강한 페스트균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강한 균주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를 위하여 《731부대》의 특별반원들은 《마루따》들에게 차례차례 페스트균을 주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A《마루따》에게 생균을 주사하면 틀림없이 페스트에 걸려 죽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몸안에서는 죽기 전까지 혈액과 림파액속에서 생겨나는 항체와 페스트균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진다.

항체와의 투쟁에서 이겨낸 페스트균은 독성이 그만큼 더 강해진다. 이러한 A《마루따》의 혈청을 다시 B《마루따》에게 주사한다.

이리하여 독성이 보다 강해진 페스트균과 B《마루따》의 항체가 투쟁하여 더욱 강한 세균이 생겨난다. 그것을 다시 C《마루따》에게 주사하여 더 강력한 독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독의 련쇄공정이 이루어진다.

《731부대》특별반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보다 독성이 강한 페스트균을 만들어냈다.

일제가 감행한 치떨리는 세균전연구과정에 희생자가 얼마나 났는가 하는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일이 없으므로 알수 없다.

《731부대》군속 등의 증언에 의하여 초보적으로 알려진데 의하면 《소비》된 《마루따》들의 수는 3 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악성전염병을 무기화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참혹한 죽음에로 몰아넣은 이 간악한 범죄행위는 일제놈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악성전염병의 무기화(2)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부터 세균전을 중시하고 세균무기개발에 적극 달라붙었다. 당시 미화학군단의 한 장성은 다른 살인무기에 비한 세균무기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떠벌

이였다.

《세균전수단들은 파괴공작을 위한 리상적인 무기들이다. 세균무기들을 사용하면 파괴행위가 있었는가를 실지 검열하고 확증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말하여 죽음이나 병이 자연적인 요인으로 하여 일어났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

1943년 미제는 메릴랜드주 프레데릭크 미륙군기지에 생물무기연구소를 설치하여 세균무기개발과 생산을 본격화하였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방성 화학무기국은 생물무기개발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46년 미극동전략위생국은 일본 요꼬하마 아쯔기공군기지가까이에 세균무기개발을 위한 《406의학총국》을 창설하였으며 그후 도꾜와 교또에도 지국이 추가로 세워졌다.

1946년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세균전에 관여한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특급전범자들을 감싸주고 세균무기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을데 대한 담보를 주었다. 특히 일본군세균무기전문연구기관인 《731부대》, 《100부대》의 우두머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세균전범자들과 그들의 연구자료 수천건을 통채로 넘겨받아 세균무기생산에 써먹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준비하면서 세균무기연구 및 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1949년에는 벌써 세계에서 제일가는 세균무기생산국으로 되였다.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세균전을 2기로 나누어 감행하였다. 제1기는 주로 세균모략의 단계로서 병원성세균 또는 세균독소를 은폐된 방법으로 공화국지역에 사용하는 세균모략과 포로들에 대한 인체실험의 방법으로 세균무기의 위력검사를 감행하였다.

미제가 거제도를 비롯한 포로수용소들에서 감행한 세균무기위력검증을 위한 인체실험을 악랄하게 감행한데 대하여 AP통신은 《경상남도 통영군 거제도에 있는 미보병 제1091부대에 소속된 …함선들에는 세균배양기들과 현미경, 멸균기, 랭장고, 증류기들과 실험

자들에게 필요한 기타의 기구들로 완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연구소가 설치되여있다.》, 《…이 선박들에는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매일 3천여회에 달하는 실험이 실시되고있으며 38명의 미군세균학자들이 전력을 다하여 일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야만적인 실험으로 거제도의 한 포로수용소에서만도 많은 포로들이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미제는 세균전의 제2기에 전연지대, 후방지대를 가리지 않고 세균무기를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 그리하여 평화적주민들을 비롯하여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남녀로소가 미제의 세균전의 희생물이 되였다.

오늘도 미제의 살인무기고에는 인류의 생명을 해치는 수많은 세균무기가 쌓여있다.

에이즈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세계도처에로 계속 전파되고있다.

유엔의 한 기구는 에이즈비루스에 감염된 사람들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시아에는 500만명의 에이즈비루스감염자 및 에이즈환자가 있으며 해마다 40여만명이 에이즈비루스에 감염되고있다.

특히 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에이즈로 하여 매해 100여만명이 생명을 잃고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진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동정을 표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시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는 약들은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 생산하였다.

그러나 약값이 천정부지로 뛰여오르고 약품생산특허권을 일부 서방나라들이 독차지하고있어 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그것이 《그림의 떡》이나 같았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는 2001년 11월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토의했는데 그후 근 1년간의 노력에 의하여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약들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잘못하면 천식, 당뇨병 등을 치료하는 약들이 아프리카에서 눅은 값으로 팔릴수 있다. 그러니 〈제한적〉인 의약품생산명단을 확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방해를 놀았다. 그리고 의약품생산을 늘일수 없게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제사회계는 미국의 이 부당한 처사에 분노를 표시하였다.

세계를 위협한 조류독감

21세기에 들어와 세계를 위협한 악성전염병의 하나는 조류독감이였다.

조류독감이 급속히 전파확대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제생활이 큰 타격을 받았다. 조류독감으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부문은 가금업부문이다.

가금업부문이 경제생활 특히 사람들의 식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조류독감의 확대는 세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였다.

조류독감은 일반적으로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종의 급성돌림성감기이다.

조류독감은 그 독작용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나눈다. 가금류속에서 고병원성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알낳이가 정지되고 호흡이 곤난해지며 대가리, 목부위가 붙어나고 털이 없는 부위(볏, 다리)가 검붉어지며 부어올라 피가 나오면서 갑자기 무리로 죽

는다.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조류독감비루스는 그 전파자가 가금류나 야생조류인것으로 하여 전염속도가 다른 전염병에 비하여 빠르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의 60여개 나라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실은 이 전염병이 세계적인 범위에로 확대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조류독감의 발생과 전파는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가져왔다.

조류독감은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전염병은 2003년부터 웰남, 일본 등 나라들에서 또다시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전파되였다.

조류독감으로 2005년 11월까지만 하여도 세계적으로 1억 4 000만마리의 가금이 죽거나 도살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조류독감으로 가금업부문의 생산이 침체상태에 빠지고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서 혼란이 조성되였다.

새 세기초 조류독감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유럽나라들에서는 이 전염병으로 혼란이 일어났다.

가금소비량이 줄어들고 가금판매와 수송이 금지되는 등 여러가지 사태가 빚어졌다.

세계적으로 많은 량의 가금이 죽거나 처분되여 가금업 및 먹이소비분야외에 려행과 화물수송, 무역, 항공 등 분야에서도 련쇄반응이 일어났다. 지어는 세계주식시장까지도 곡절을 겪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의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의 전파로 인한 경제적손실액이 천문학적수자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한편 조류독감비루스가 가금류뿐아니라 야생말, 돼지, 고래 등 동물들과 사람의 체내에까지 침습하여 그 위험성과 손실이 더욱 컸다.

실제로 조류독감의 위험성은 인명피해를 빚어내고있는데서 나타났다.

2004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조류독감에 의한 사망자수가 1억명이 될수 있다고 경고한바가 있다.

조류독감의 위험성과 파국적후과는 그 어느 지역과 나라도 례외로 될수 없다. 하기에 국제적으로 조류독감의 발생과 전파를 막고 그 피해를 가시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취해졌다.

조류독감문제에 관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는 세계조류독감감시망구축문제, 조류에 대한 왁찐접종과 예보 및 감독통제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특히 조류독감왁찐을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제때에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문제 등 여러가지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고 실천에 옮겨졌다.

그러나 이 기회에 제 리속만을 채우려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다.

인도네시아보건상은 미국이 상업적목적을 위해 조류독감비루스를 악용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한 토론회에서 《우리가 인류의 리익을 위해 미국에 조류독감비루스를 보냈는데 그들은 전염병에 대한 감시를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으로 왁찐을 만들어 세계의 각곳에 비싼 값으로 팔아버렸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류의 생명을 외면하고 막대한 치부를 한 그릇된 처사는 국제사회계의 비난과 우려를 자아냈다고 강조하였다.

말세풍조

정의와 진리가 마구 짓밟히고 악이 선으로 둔갑하며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된 미국사회는 헤여날수 없는 부패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있다.

《일류급》대학의 교육

미국 워싱톤의 동부에는 죠지타운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력사에 있어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이며 또 교육시설과 교수진영, 교육내용도 《일류급》이라고 자처하는 대학이다.

이 대학당국자들속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오군 한다.

《수만의 학업생을 가지고있는 우리 대학은 세계 여러곳에 분교도 가지고있습니다.

수백명의 박사들을 망라하는 강력한 교수진영이 세계일류급의 교육으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있습니다.

죠지타운대학을 졸업한 적지 않은 인물들이 국내에는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정계, 실업계, 과학계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커다란 자부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다.

2004년 1월 죠지타운대학 국제문제연구쎈터의 청탁으로 초빙강의를 위해 미국에 가서 이 대학을 방문한 일본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미국이 광고하는 《일류급교육》에 대해 실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본청사 4층의 소강당에서 강의를 끝낸 후 버그스텐이라는 한 대학생과 면담하였다.

동방력사가 전공이라는 그에게 미국헌법의 어느 조항이 마음에 드는가고 물었다.

그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헌법조항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대답하였다. 순간 나는 놀라움이상의 충격을 받았다.

명문대학에서 〈일류급교육〉을 받고있다는 대학생이 세인이 다 알고있는 맑스의 명제를 미국헌법의 한 조항으로 알고있다는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었다.》

계속하여 그는 어느 한 강의실에 조용히 들렸을 때 맨뒤쪽에 앉

아있던 학생들이 후닥닥 놀라며 당황해하였다는것, 강의실바닥에 딸라 몇장을 놓고 도박을 하고있었다는것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사실상 이 대학 남자대학생의 42%, 녀자대학생의 32%가 마약을 사용하고있으며 도박에 관여하지 않는 대학생은 거의나 없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미국남북전쟁이 언제 있었으며 아메리카대륙이 언제 발견되였는지 모르고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20%가 카나다를 미국의 한개 주로, 아프리카대륙을 한개 나라로 알고있는 형편이다.

죠지타운대학에서 리용되고있는 사회정치도서에는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가 관통되여있다.

《현대사요찰》이라는 교재의 한 대목에는 이렇게 서술되여있다.

《…근대인들의 성공의 목표는 더 론의할 여지없이 권세와 부귀영화이다. 이 목표에로의 길을 어떻게 밟는가, 그 성공의 열매는 어떻게 당겨오는가 하는것은 각자나름의 잠재능력에 기인된다. 바로 그 잠재능력의 기초는 〈너를 눌러야 내가 산다.〉는 생존의식이다.》

뉴욕과 워싱톤을 비롯하여 도시에 득실거리는 범죄자들, 마약과 알콜중독자들, 동성련애자들속에 《일류급교육》의 산아들이 적지 않다.

일부 자본주의나라와 지역의 정계, 실업계, 영화 및 TV방송계 등의 수많은 《명인물》들이 대학을 나오지 못했을뿐아니라 더러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국내의 학위를 가지고있지만 다른 나라의 학위가 없어 몸값과 지위를 올리지 못해 안달아하고있다.

이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뿌려서라도 미국의 《학위》를 사서 자기의 신분을 뽐내려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미국에서는 《종합대학》의 간판을 내걸고 학위판매장사를 하는 행위가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사람, 동물 《합중국》

2002년 11월에 진행된 미국의 국회중간선거에서 《퍼시》라고 불리우는 개가 당당히 《출마》하였다. 《퍼시》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부호의 애완용개였다.

《퍼시》의 주인은 자기의 애완용개를 국회중간선거에 《출마》시켜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고싶은 장난심리로 여기에 막대한 돈을 퍼부었다.

그에게 있어서 선거의 정치적의미같은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흥미로 되는것은 오직 국회의원을 애완용개로 여기고있는 자기의 《대단한 위세》를 뽐내는것뿐이였다.

《퍼시》의 경쟁상대는 대통령선거 당시 플로리다주 선거감독관을 하면서 부쉬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받고있던 플로리다주 관리 캐서린 해리스였다. 《퍼시》의 당선을 위해 채용된 선거전략전문가들과 선거선전자들은 《퍼시》가 범인을 정확히 색출해내는 《특기》를 가지고있다는 점을 꺼들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거공약으로 내들었다. 그리고 《퍼시》가 성기를 없애버렸기때문에 성추문에 걸려들 걱정이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선전했다.

한개 주의 관리라는 사람이 개와 맞서 벌리는 열띤 선거경쟁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였다. 하긴 거꾸로 된 미국사회에서 이런 일이 처음인것도 아니였다.

1984년 《요기 베어》라는 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표결에서 등록후보 222명중 211명을 제끼고 11등에 오른적이 있었다.

1988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폰치 보거》라는 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부쉬(41대 대통령)와 치렬한 경쟁을 벌렸으며 1990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쎈터애나시에서 《보너스》라는 개가 시장으로 《당선》된적도 있었다.

사람보다 개를 중시하는 말세풍조는 정계와 사회계, 가정 등

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뉴욕에 살던 엘라 웬델이라는 녀인은 1935년에 자기의 개 《토비》에게 1억 5 000만Fr을 상속하였으며 미주리주의 패터스라는 녀성은 1978년에 죽으면서 총액 25만US$의 재산을 자기가 기르던 흰 고양이 《챨리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었다.

미국에서는 개가 큰 도시의 《시장》으로 되고 개와 고양이 등 애완용동물들이 유산상속자가 되고있는 판이니 미구에 개가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될 미국은 사람과 짐승이 마구 뒤섞여 사람도 짐승으로 되여가는 개같은 세상, 짐승과 사람의 《합중국》으로 되고말것이다.

원숭이의 《동료》들

《미국의 특권층, 억만장자들의 연회에는 흑인들은 참가할수 없으나 원숭이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고있으며 실내에 설치된 유리물통안에는 금붕어로 가장한 녀자가 헤염을 치고있다.》

이것은 영국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쌘프랜씨스코의 어느 한 호텔에서 있은 연회상황을 보도한 기사의 한 토막이다.

1998년 가을에 있은 이 연회는 시행정장관 리 하밀톤이 차린 《특별연회》였다.

연회시간이 되자 시행정관리들이 당시 1만 5 000US$짜리의 금강석목걸이를 걸친 원숭이들을 저저마다 한두마리씩 끌고 연회장에 나타났다.

이어 연회참가자들과 원숭이들이 연방 잔을 쪻고 서로 붙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사람과 원숭이가 서로 손을 잡고 돌아가며 《춤》을 추었다.

어느것이 사람이고 어느것이 짐승인지 분간할수 없는 모습이였다.

연회장에서 움직이는것은 부패의 《늪》에서 서식하는 《희귀한

동물》들이였다. 연회에서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시행정관리들의 옆걸상에 앉아있던 원숭이들이 승벽내기로 일어나 발을 구르며 식탁을 두드리면서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그런속에서 하밀톤은 《흥취》를 돋구는 원숭이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손을 흔들며 씨벌였다.

말세풍조에 썩어가는 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한 모습》이였다.

리혼의 도시에서

정신적불구자들이 활보하는 미국사회에서는 리혼자의 대량적인 발생 등으로 하여 가정의 해체, 파탄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여가고있다.

미국인들속에서는 《사랑은 오락이다.》, 《결혼은 리기심의 결합뿐이다.》란 말이 범상히 오가고있다.

이것은 건전한 가정륜리를 부정하는 유해로운 도덕관의 발현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의 책임자였던 다니엘 엥겔로비치는 한 미국출판물에 실은 글에서 《미국의 렬세가 심화되고있는 원인의 하나가 기술적인 요인에 앞서 가정의 안정이 무너지고있는것과 깊은 련계를 가지고있다.》고 쓴바 있다.

미국은 리혼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과 국회의원, 정부요직자들가운데는 리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허다하다.

1960년대에 미국인 부부 1천쌍가운데 10년이내에 리혼하는 부부는 평균 50쌍이였으나 1993년에는 그것이 230쌍으로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285쌍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로 리혼률이 높아지는 경우 미국에서는 5～10년내에 리혼하는 부부가 다수를 이루게 된다는 통계학적결론이 나

오게 된다.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의 남부에 있는 인구 30만명정도의 도시이다.

라스베가스는 패륜패덕아들의 유흥지로, 살인강도의 도시로 특히는 리혼의 도시로 더 잘 알려졌다.

이 도시에서는 리혼수속이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리혼할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방방곡곡에서 부화타락한 남녀들이 여기로 모여든다.

2005년에 이곳에 온 40대의 스테본 웰쉬는 9번째로 리혼한다고 거리낌없이 말했다.

이해 라스베가스에 온 사람들속에는 리혼을 7～8번 했다는 사람이 400명이 넘었다 한다.

이들의 절대다수는 마약사용자, 마약중독자였다.

시체《농장》운영자들

미국의 한 대학이 운영하는 시체《농장》은 형식상 《시체의 부패를 연구》하는 《법의인류학연구소》라는 외피를 쓰고있다.

남조선잡지 《신동아》(2005년 12월호)가 전한데 의하면 이 시체《농장》은 테네시주립대학의 근처 숲을 통채로 리용하고있으며 여기에는 무덤발굴과 시체복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체들이 200여구가 있다.

미국에서는 《과학수사》기관이나 《범죄수사》기관 요원이 되려면 시체《농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체《농장》운영자들은 당국과 짜고들어 《범죄수사》요원들에게 시체《농장》교육을 《의무화》하여 큰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범죄수사》요원 희망자들에게 지문채취, 유골분석, 무덤탐지능력 등에 대한 평가시험을 치르고 돈을 받고있다.

시체《농장》운영자들은 시체들을 《기증》받고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은 적지 않은 시체들이 무덤도굴자들이 몰래 도적질해오거나 병원사체실에서 비법적으로 빼돌린것들이다.

시체《농장》의 실체가 알려지자 미국인들속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바빠난 시체《농장》운영자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였다. 이를테면 시체《농장》은 사망후 피부색갈이 어떻게 변하는가, 시체부패외에도 물속에 버려진 시체가 썩는 과정에 어떤 곤충이 생기는가, 시체가 부패하면서 린근 토양과 식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등 그 무슨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시체《농장》운영자들은 시체들을 《부패연구》를 위해 자연상태에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 1년후 뼈만 앙상하게 남은것을 모아 저들의 목적에 리용하고있다.

미국당국은 시체《농장》의 존재와 《유골연구》를 묵인조장하고있다. 시체《농장》은 련방정부에서 매해 100만US$의 자금을 받고있다.

인간세계를 좀먹고있는 미국에서는 산사람을 《모르모트》로 리용하고있을뿐아니라 시체까지도 《과학연구》란 이름을 도용하여 짓밟으며 돈벌이를 하고있다.

자살장치의 개발자

1998년 3월 어느날 미국 오레곤주의 포트란트에 사는 45살난 주부 쟈넷트 아드킨주녀성이 자기 남편과 함께 미시간주에 살고있는 자크를 찾아갔다.

자크로 말하면 《의학박사》의 간판을 가진 《자살장치》를 개발한 《자살문제전문가》로 알려졌다.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미국에서는 자살을 해도 《편안하게》하기 위한 《연구사업》까지 심화되고있는데 그 무슨 《자살장치》라는것이 나와 자살희망자들에게 기쁨을 던져주고있다.

쟈넷트녀성이 자크를 찾아간 목적은 《알쯔하이머》라는 병으로 고통받는 자신이 그가 개발한 《자살장치》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쟈넷트녀성의 병은 뇌세포에 장애가 생겨 기억력과 신체운동기능이 서서히 상실되는 병으로서 직심스럽게 달라붙어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 병이였다. 하지만 그만한 육체적 고통도 참아낼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그는 자살하는것으로써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던것이다.

자크는 자기의 《자살장치》를 써먹고 거액의 대가를 받을것을 생각하며 《자살장치》를 자동차에 실어놓고 그 작용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리하여 쟈넷트녀성은 《자살장치》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편안히》 저승으로 가게 되였다.

이 사실이 미국신문들에 의해 보도되자 미국의 일반시민들은 증오와 격분의 목소리로 자크놈을 살인자로 기소할것을 법정에 요구하였다.

당국은 사회여론이 무서워 자크에게 《법적조치》를 취할것처럼 고아대다가 사건을 흐지부지하여 덮어두고말았다.

미국에는 자크와 같이 살인행위를 하는자들을 찬양하는 정신적불구자들이 더 많았던것이다.

그후 자크는 일약 《유명》해져 언제인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뇌까렸다.

《내가 만든 〈자살장치〉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지 않으며 가장 인도주의적인데다가 그 어떤 고통도 동반하지 않는다. 쟈넷트부인은 안착된 마음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갔다.》

이어 그는 《자살희망자》들은 고통스럽게 바줄이나 칼, 총을 리용하거나 건물옥상, 다리 같은데서 뛰여내리는 무서운 방법을 택하지 말고 아무때나 자기를 찾아오면 최대의 봉사와 친절을 다할것이라고 덧붙여 떠벌이였다.

미국은 21세기에 사멸될것이다

2009년 새해의 벽두부터 미국붕괴론이 나돌았다.

로씨야의 한 교수는 미국이 최악의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주도권을 상실하고 오래지 않아 붕괴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1998년에 벌써 미국이 노는 행동을 보고 이것을 예감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린쯔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처음 미국의 붕괴론을 발표한 후 그것을 계속 주장하여왔다.

그는 미국경제침체의 악화, 딸라가치의 폭락, 수많은 이주민발생, 도덕적가치의 상실 등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각 주들이 련방에서 탈퇴하고 내전을 겪은 후 6개의 지역으로 분렬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7개 주는 캘리포니아공화국으로 떨어져나오며 텍사스주를 비롯한 9개 주는 텍사스공화국으로 된다는것, 중북부의 15개 주는 중북부공화국으로 되며 뉴욕과 워싱톤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다른 지역동맹에 편합된다는것이다.

그는 프랑스의 정치학자 엠마뉴엘 토드가 쏘련의 붕괴를 1976년에 예언하였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에 능히 공감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의 작가 유리 본다렌꼬는 미국사회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미국은 21세기에 사멸될것이다》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나는 현대의 악의 제국, 검은 제국인 미국의 파쑈화는 파멸적인 개인주의와 황금숭배사상에 기초하여 생겨난것이며 따라서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는것은 자연스러운 운동, 합법칙적인 운동

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미국의 여러곳을 다니면서 유명한 작가와 연출가, 배우들, 주요 대학의 교수, 박사들과 대학생들, 최고재판소의 판사들, 거대한 재부를 가진 기업가들과 귀족들, 최하층시민들과 흑인 등을 수많이 만나보았다. 지어 밤거리에서 추파를 던지는 녀성들도 만나보았다. 그 과정에 그전에는 잘 알수 없었던 대양건너에 있는 수수께끼같은 나라, 〈자유의 천국〉인 미국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

수많은 정치, 경제적전제들, 주로는 도덕적전제로부터 나는 수백년동안 전세계와 우리 로씨야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파괴하여온 미국이 인제 더는 〈상승일로〉를 걸을수 없으며 스스로 붕괴되여 이 행성의 정치지도에서 제국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상실할것이라는 현자들의 예언이 옳았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믿게 되였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모든 지배마다에는 그가 누구이든 어쩔수 없는 패배가 따르기마련이라는것을 흘러온 력사는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의 21세기에 그것도 얼마 안있어 제국으로서의 미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사멸될것이다.》

이것은 《검은 제국》인 미국을 투시해본 본다렌꼬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하나같은 견해이며 결론이다.

청년학생상식

(2)

집 필 박춘식

편 집 김명희 장 정 박철남

편 성 정향애 교 정 김은정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2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30일

ㄱ—15085ㄴ 값 230원